

청소년 유형별 복지욕구 실태와 지원방안

책임연구원 : 김경준(한국청소년개발원 ·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지혜(대진대학교 · 교수)

류명화(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사무총장)

정익중(덕성여자대학교 · 교수)

연구보조원 : 김운정(한국청소년개발원 · 위촉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결과요약

1. 연구목적

- 인권에 기초한 청소년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청소년육구를 생존육구, 발달육구, 보호육구, 참여육구의 4개 유형으로 분류
- 학생청소년, 빈곤청소년, 가출청소년, 장애청소년 등 청소년 유형별 복지 육구 및 실태 조사
- 청소년 유형별 복지정책 대안 제시

2. 주요 연구내용

- 학생청소년, 빈곤청소년, 가출청소년, 장애청소년 등 전국 3,100명의 청소년 대상으로 복지실태 및 육구를 조사하였음.
- 학생청소년 복지육구 및 실태 : 심리사회적 적응과 자살위험의 심각성을 보였으며, 지역사회 내 기관(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개선 육구가 컸음. 상당수가 가정과 학교에서 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어서 인권 보호 차원에서의 개선이 요구됨. 권리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서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권리행사는 크게 제한되고 있음.
- 빈곤청소년 복지육구 및 실태 : 심리적, 정서적, 인지적 영역의 발달에서 부적응적일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학교생활면에서도 수급청소년과 일반청소년간의 차이가 크지 않음. 양친부모가정 빈곤청소년이 다른 가족형태보다 더 취약한 것은 특이할만한 사항임.
- 가출청소년 복지육구 및 실태 : 하루 종일 굶거나 노숙을 하는 등 안전과 건강에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정규

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지 못해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심각한 학대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도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겪고 있었음. 과반수 정도만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보호시설에서도 인권침해를 경험하는 청소년이 있었음.

- 장애청소년 복지욕구 및 실태 : 의식주나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특히 자해행위 및 자살기도의 경험은 15.3%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 가정에서의 방임, 학교에서의 폭력피해,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성추행이나 강간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장애청소년 참여여건 부족으로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이나 욕구에 비해 실제적인 참여활동 수준은 낮았음.

3. 정책제언

- 학생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

첫째, 생존욕구영역 : 청소년시설의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확대, 청소년 공부방을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기능 전환, 건강검진의 고급화와 체계적 관리, 학생청소년 금주 캠페인 전개, 주류 판매업소 단속 강화, 심리·사회적 문제와 자살행동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둘째, 발달욕구영역 : 청소년시설 및 기관의 자원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연계 실시, 청소년 눈높이의 다양한 성교육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여행할인제도 개발, 지역단위 고용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아르바이트지원센터와 노동부의 연계 강화

셋째, 보호욕구영역 : 부모 및 교사 대상 폭력예방 연수 실시, 학교 내 성평등기구 혹은 양성평등기구 마련, 학교 내 제도 및 시설개선을 통한 차별의식 및 환경 개선

넷째, 참여육구영역 : 지역발전 계획과정에 청소년참여 기회 마련, 청소년 참여의 부정적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연구와 홍보 실시, 학교나 학급 내 의사결정과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커리큘럼 개선, 청소년 참여능력과 권리 신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청소년 모임 및 NGO간 상호 연계 지원, 청소년 문화의 적극 활용, 학교방송, 학교축제나 행사를 통한 참여기회 확대

● 빈곤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과제

첫째, 생존육구영역 : 정신건강검사 스크리닝의 제도화, 보건교사의 정신건강교육 실시

둘째, 발달육구영역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과 문화권 확보, 청소년연령대와 발달단계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접근방법의 다양화, 청소년 관련기관시설 홍보방법의 다각화를 통한 청소년 접근성 강화

셋째, 보호육구영역 : 부모의 기능적 결손의 연속선상에서 가정위탁, 후견인 지정, 멘토링, 부모교육 등의 배열과 진행, ‘교사+전문가’ 구성체제로의 전환

넷째, 참여육구영역 : 빈곤청소년을 문제해결과정의 동반자와 전문가로 수용

● 가출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과제

첫째, 생존육구영역 : 청소년쉼터의 제도화, 의료체계와 청소년 쉼터간 공식적인 협력관계 수립, 거리 의료진 파견 등 의료지원체계의 제도적 구축,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체계, 특히 자살위험에 대한 예방체계 마련

둘째, 발달육구영역 : 복학절차의 간소화, 학업에 필요한 경제적·정서적 지원 등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진로적성검사, 경제교육,

직업체험, 취업 등 경제교육 및 활동지원기구 마련, 정보교육, 지역 사회 내 청소년관련 시설과 기관의 연계 강화

셋째, 보호육구영역 : ‘집 없는’청소년에 대한 주거공간의 확보와 자립지원정책의 확대, 교육과 홍보를 통한 공공기관의 인식 변화,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 실시, 가족과의 갈등해결과 재가출 예방서비스 실시, 가족재결합을 돕는 전문적 프로그램과 제도 마련, 가출에 대한 집중적인 조기개입

넷째, 참여육구영역 : 보호시설 내 가출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는 윤리적 절차 확보, 실무자와 청소년 대상 인권교육

● 장애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과제

첫째, 생존육구영역 : 학교 또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상담 또는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실시 등 자해행위나 자살기도에 대한 대책 마련

둘째, 발달육구영역 : 장애학생지원센터 확대, 장애학생 이해를 위한 교과과정 개선, 장애환경평가제 도입 등 등·하교 및 학교환경 개선, 학교 편의시설 설치,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등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 문화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문화여가바우처 등 장애청소년 문화여가활동 지원,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셋째, 보호육구영역 : 부모상담, 교육 등 가정지원프로그램 실시, 자살예방교육의 의무화, 장애학생과 교사, 보호자 대상 성교육의 의무화 등으로 장애청소년의 자해행동예방과 성폭력 대처능력 개발

넷째, 참여육구영역 : 장애청소년 리더십훈련, 참여에 대한 교육 등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여건 확충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내용 5
3. 연구의 방법 6
 - 1) 문헌·자료조사 6
 - 2) 설문조사 6
 - 3) 워크숍 및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실시 12
4. 연구의 제한 13

II. 이론적 배경

1. 인권관점에서의 청소년복지 17
 - 1) 인권과 복지의 관계 17
 - 2) 인권관점에서의 청소년복지 19
2. 인권 관점에서의 청소년 복지욕구와 문제 21
 - 1) 생존욕구와 인권 24
 - 2) 발달욕구와 인권 26
 - 3) 보호욕구와 인권 28
 - 4) 참여욕구와 인권 29

III. 청소년 유형별 현황

1. 학생청소년 현황 35
 - 1) 학령인구 35
 - 2) 중·고등학교 학생 수 36
 - 3) 진학률 37
2. 빈곤청소년 현황 38
 -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청소년 현황 38
 - 2) 무료급식 지원 청소년 현황 41
3. 가출청소년 현황 43

4. 장애청소년 현황	44
1) 장애인 학교 취학자 수	44
2) 장애청소년 진로 현황	44
3) 성별, 연령별 장애청소년 인구	45

IV. 학생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49
2. 학생청소년의 복지실태 및 욕구	53
1) 기초생활실태 및 생존욕구	53
2) 문화여가활동 및 발달욕구	59
3) 사회지원체계 및 보호욕구	80
4) 인권 및 참여욕구	94
3. 성별에 따른 복지실태 및 욕구	99
1) 기초생활실태 및 생존욕구	99
2) 문화여가활동 및 발달욕구	100
3) 사회지원체계 및 보호욕구	107
4. 거주지역에 따른 복지실태 및 욕구	109
1) 기초생활실태 및 생존욕구	109
2) 문화여가활동 및 발달욕구	110
3) 사회지원체계 및 보호욕구	115
5. 교급에 따른 복지실태 및 욕구	117
1) 기초생활실태 및 생존욕구	117
2) 문화여가활동 및 발달욕구	120
3) 사회지원체계 및 보호욕구	127
4) 인권 및 참여욕구	130
6. 소결	132

V. 빈곤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37
2. 빈곤청소년의 복지실태 및 욕구	143
1) 기초생활실태 및 생존욕구	143
2) 문화여가활동 및 발달욕구	150

3) 사회지원체계 및 보호육구	168
4) 인권 및 참여육구	180
3. 성별에 따른 복지실태 및 육구	184
1) 기초생활실태 및 생존육구	184
2) 문화여가활동 및 발달육구	187
3) 사회지원체계 및 보호육구	194
4) 인권 및 참여육구	200
4. 거주지역에 따른 복지실태 및 육구	202
1) 기초생활실태 및 생존육구	202
2) 문화여가활동 및 발달육구	205
3) 사회지원체계 및 보호육구	208
4) 인권 및 참여육구	211
5. 가족형태에 따른 복지실태 및 육구	212
1) 기초생활실태 및 생존육구	213
2) 문화여가활동 및 발달육구	215
3) 사회지원체계 및 보호육구	219
4) 인권 및 참여육구	223
6. 소결	224

VI. 가출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복지육구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33
2. 가출청소년의 복지실태 및 육구	238
1) 기초생활실태 및 생존육구	238
2) 문화여가활동 및 발달육구	244
3) 사회지원체계 및 보호육구	266
4) 인권 및 참여육구	292
3. 성별에 따른 복지실태 및 육구	294
1) 기초생활실태 및 생존육구	295
2) 문화여가활동 및 발달육구	296
3) 사회지원체계 및 보호육구	302
4) 인권 및 참여육구	310
4. 가출기간에 따른 복지실태 및 육구	312

1) 기초생활실태 및 생존욕구	312
2) 문화여가활동 및 발달욕구	314
3) 사회지원체계 및 보호욕구	318
4) 인권 및 참여욕구	325
5. 소결	326

VII. 장애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33
2. 장애청소년의 복지실태 및 욕구	337
1) 기초생활실태 및 생존욕구	337
2) 문화여가활동 및 발달욕구	342
3) 사회지원체계 및 보호욕구	357
4) 인권 및 참여욕구	371
3. 성별에 따른 복지실태 및 욕구	375
1) 기초생활실태 및 생존욕구	375
2) 문화여가활동 및 발달욕구	376
3) 사회지원체계 및 보호욕구	377
4) 인권 및 참여욕구	378
4. 장애유형에 따른 복지실태 및 욕구	379
1) 기초생활실태 및 생존욕구	379
2) 문화여가활동 및 발달욕구	382
3) 사회지원체계 및 보호욕구	392
4) 인권 및 참여욕구	397
5. 소결	399

VIII. 청소년 유형별 복지욕구 비교

1. 기초생활실태 및 생존욕구	405
1) 의식주	405
2) 의료·보건	405
3) 건강	408
2. 문화여가활동 및 발달욕구	411
1) 교육	411

2) 정보·문화	415
3) 여가	417
4) 직업	418
5) 지역사회서비스	419
6) 성문제행동	429
3. 사회지원체계 및 보호육구	431
1) 가정	431
2) 학교	434
3) 지역사회	435
4) 직장·근로	437
4. 인권 및 참여육구	438
1) 인권 및 사회참여의식	438
2) 사회참여 필요도	438
3) 사회참여정도	439
5. 소결	439

IX. 청소년 복지육구 해소를 위한 정책

1. 인권에 기초한 청소년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원칙과 전략	445
2. 학생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449
1) 생존육구	449
2) 발달육구	451
3) 보호육구	453
4) 참여육구	454
3. 빈곤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456
1) 생존육구	460
2) 발달육구	462
3) 보호육구	466
4) 참여육구	467
4. 가출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469
1) 생존육구	469
2) 발달육구	472
3) 보호육구	475

4) 참여욕구	480
5. 장애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480
1) 생존욕구	480
2) 발달욕구	481
3) 보호욕구	483
4) 참여욕구	484
5) 기타	485
 X. 요약 및 결론	
1. 요약	491
1) 학생청소년의 복지실태와 욕구	492
2) 빈곤청소년의 복지실태와 욕구	494
3) 가출청소년의 복지실태와 욕구	495
4) 장애청소년의 복지실태와 욕구	497
2. 정책제언	499
1) 인권에 기반한 복지정책의 원칙과 전략	499
2) 청소년 유형별 복지정책 대안	502
 참 고 문 헌	513

표 목차

<표 I-1> 학생청소년 표집	7
<표 I-2> 빈곤청소년 표집	8
<표 I-3> 가출청소년 표집	8
<표 I-4> 주요 조사내용	10
<표 III-1> 중학생 연도별 학생수	36
<표 III-2> 고등학생 연도별 학생수	37
<표 III-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39
<표 III-4> 남녀의 수급자 백분율	40
<표 III-5> 청소년수급자 연령별 현황(연도별)	40
<표 III-6> 청소년수급자 연령별 현황(지역별)	41
<표 III-7> 가출청소년 발생 및 처리현황	43
<표 III-8> 장애청소년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45
<표 III-9> 장애청소년인구 추정	46
<표 IV-1> 응답자의 성별, 지역별, 교급별 분포	49
<표 IV-2> 장애 유무	50
<표 IV-3> 학교 성적	50
<표 IV-4> 가정형편	50
<표 IV-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및 무료급식지원 수여 여부	51
<표 IV-6> 부모와의 동거 상태	51
<표 IV-7> 부모의 결혼 상태	52
<표 IV-8> 부모의 교육정도	52
<표 IV-9> 지난 1년간 의식주 생활	54
<표 IV-10> 지난 1년간 건강검진 경험	54
<표 IV-11> 지난 1년간 질병 경험	55
<표 IV-12> 질병치료 유무	55
<표 IV-13> 질병치료 받지 않은 이유	56
<표 IV-14> 자아존중감	56

<표 IV-15> 심리·사회적 적응	57
<표 IV-16> 흡연 정도	58
<표 IV-17> 평소 음주량	58
<표 IV-18> 자해행위나 자살기도 경험	58
<표 IV-19> 자해행위나 자살기도 횟수	59
<표 IV-20> 학교생활 적응	60
<표 IV-21> 지난 1년 동안 학교 가지 않은 날	60
<표 IV-22> 학교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었던 경험	60
<표 IV-23> 학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었던 이유	61
<표 IV-24> 대학 진학 가능 여부	62
<표 IV-25> 대학 진학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	62
<표 IV-26> 경제적인 이유로 과외나 학원을 못 다닌 경험	62
<표 IV-27> 컴퓨터 소유 여부	63
<표 IV-28> 인터넷 가능 여부	63
<표 IV-29> 정보 매체 소유	63
<표 IV-30> 정보매체 이용시간	64
<표 IV-31> 정보매체 이용용도	65
<표 IV-32> 1달 평균 통신비용	65
<표 IV-33> 통신비용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66
<표 IV-34> 여가시간에 많이 하고 있는 활동	66
<표 IV-35>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67
<표 IV-36> 여가나 취미활동의 어려운 점	68
<표 IV-37> 장래 희망 직업	68
<표 IV-38>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인지 및 이용여부	70
<표 IV-39>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만족도	71
<표 IV-40> 가장 이용하고 싶은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73
<표 IV-41> 청소년 복지 서비스 인지 및 이용여부	74
<표 IV-42> 청소년 복지 서비스 만족도	75
<표 IV-43> 가장 필요한 청소년 복지 서비스	75
<표 IV-44> 성정체성	76
<표 IV-45> 성정체성으로 놀림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	76
<표 IV-46> 성관계 및 임신 경험	77

<표 IV-47> 성관계 시 피임 여부	77
<표 IV-48> 피임 하지 않은 이유	78
<표 IV-49> 대가성 성관계 경험	78
<표 IV-50> 경찰서 및 법적 처벌 경험	78
<표 IV-51> 현재 가출 상태	79
<표 IV-52> 가출 경험	79
<표 IV-53> 첫 가출 시기	80
<표 IV-54> 가출 후 집 밖에서 지낸 기간	80
<표 IV-55> 가족관계	81
<표 IV-56> 가족에 대한 생각과 가정에서의 성인역할	82
<표 IV-57> 부모의 양육행동	83
<표 IV-58> 청소년학대와 가정폭력	84
<표 IV-59> 학교에서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86
<표 IV-60>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	87
<표 IV-61> 사회적 지지	88
<표 IV-62> 지역사회 응집력	90
<표 IV-63> 집, 학교, 동네, 다른 장소 등에서 성추행이나 강간 피해 경험	90
<표 IV-64>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 또는 기관	91
<표 IV-65>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91
<표 IV-66> 일(아르바이트) 경험	91
<표 IV-67> 일(아르바이트)를 통해서 1달 평균 번 돈	92
<표 IV-68> 일(아르바이트)을 한 이유	92
<표 IV-69> 직장(아르바이트)에서의 피해 경험	93
<표 IV-70> 직장(아르바이트) 피해 시 대처 방법	93
<표 IV-71> 청소년인권의식 및 참여 여건	95
<표 IV-72> 소외집단 인권에 대한 책임감 및 참여의식 ..	96
<표 IV-73> 사회참여 필요 정도	97
<표 IV-74> 사회참여 정도	98
<표 IV-75> 성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99

<표 IV-76> 성별에 따른 흡연 정도	100
<표 IV-77> 성별에 따른 이동전화 보유 여부	100
<표 IV-78> 성별에 따른 정보기기 이용시간(하루)	101
<표 IV-79> 성별에 따른 정보기기 이용용도	102
<표 IV-80> 성별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인지 및 이용여부	103
<표 IV-81> 성별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만족도 ..	104
<표 IV-82> 성별에 따른 복지서비스 인지 및 이용여부 ..	105
<표 IV-83> 성별에 따른 복지서비스 만족도	106
<표 IV-84> 성별에 따른 성정체성	106
<표 IV-85> 성별에 따른 성관계 경험	107
<표 IV-86>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경험	107
<표 IV-87>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	108
<표 IV-88> 성별에 따른 성 추행, 강간 경험	108
<표 IV-89> 거주지역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109
<표 IV-90> 거주지역에 따른 평소 음주량	110
<표 IV-91> 거주지역에 따른 이동전화 보유 여부	111
<표 IV-92> 거주지역에 따른 이동전화 이용시간	111
<표 IV-93>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인지 및 이용여부	112
<표 IV-94>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만족도	113
<표 IV-95> 거주지역에 따른 복지서비스 인지 및 이용여부	114
<표 IV-96> 거주지역에 따른 복지서비스 만족도	115
<표 IV-97> 거주지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115
<표 IV-98> 거주지역에 따른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부정적 경험	116
<표 IV-99> 거주지역에 따른 일(아르바이트) 경험	117
<표 IV-100> 교급에 따른 의식주생활	117
<표 IV-101> 교급에 따른 건강검진 유무	118

<표 IV-102> 교급에 따른 자아존중감	118
<표 IV-103> 교급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119
<표 IV-104> 교급에 따른 흡연 정도	119
<표 IV-105> 교급에 따른 평소 음주량	120
<표 IV-106> 교급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120
<표 IV-107> 교급에 따른 이동전화 보유 여부	121
<표 IV-108> 교급에 따른 정보기기 이용시간(하루)	121
<표 IV-109> 교급에 따른 정보기기 이용용도	122
<표 IV-110> 교급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인지 및 이용여부	123
<표 IV-111> 교급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만족도 ..	124
<표 IV-112> 교급에 따른 청소년 복지서비스 인지 및 이용여부	125
<표 IV-113> 교급에 따른 복지서비스 만족도	126
<표 IV-114> 교급에 따른 성정체성	126
<표 IV-115> 교급에 따른 성관계 경험	127
<표 IV-116> 교급에 따른 가출 경험	127
<표 IV-117> 교급에 따른 부모의 청소년학대	128
<표 IV-118> 교급에 따른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	128
<표 IV-119> 교급에 따른 사회적 지지	129
<표 IV-120> 교급에 따른 성추행, 강간 경험	130
<표 IV-121> 교급에 따른 일(아르바이트) 경험	130
<표 IV-122> 청소년 인권 및 참여의식	131
<표 IV-123> 교급에 따른 사회참여 정도	132
<표 V-1> 응답자의 가정형태별 분포	138
<표 V-2> 응답자의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급별 분포	139
<표 V-3> 장애 유무	140
<표 V-4> 학교 성적	140
<표 V-5> 가정형편	140
<표 V-6>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및 무료급식지원 수급 여부	141

<표 V-7> 부모의 결혼 상태	141
<표 V-8> 부모와의 동거 상태	142
<표 V-9> 보호형태의 변화 회수	142
<표 V-10> 부모의 교육정도	143
<표 V-11> 지난 1년간 의식주 생활	144
<표 V-12> 지난 1년간 건강검진 경험	145
<표 V-13> 지난 1년간 질병 경험	145
<표 V-14> 질병치료 유무	146
<표 V-15> 질병치료 받지 않은 이유	146
<표 V-16> 자아존중감	147
<표 V-17> 심리·사회적 적응	148
<표 V-18> 흡연 정도	149
<표 V-19> 평소 음주량	149
<표 V-20> 자해행위나 자살기도 경험	149
<표 V-21> 자해행위나 자살기도 횟수	150
<표 V-22> 학교생활 적응	150
<표 V-23> 지난 1년 동안 학교 가지 않은 날	150
<표 V-24> 학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었던 경험	151
<표 V-25> 학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었던 이유	151
<표 V-26> 대학 진학 가능 여부	152
<표 V-27> 대학 진학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	152
<표 V-28> 경제적인 이유로 과외나 학원을 못 다닌 경험	152
<표 V-29> 컴퓨터 소유 여부	153
<표 V-30> 인터넷 가능 여부	153
<표 V-31> 정보 매체 소유	153
<표 V-32> 1일 평균 정보매체 이용시간	154
<표 V-33> 정보매체 이용용도	154
<표 V-34> 1달 평균 통신비용	155
<표 V-35> 통신비용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155
<표 V-36> 여가시간에 많이 하고 있는 활동	156
<표 V-37>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157
<표 V-38> 여가나 취미활동의 어려운 점	157

<표 V-39> 장래 희망 직업	158
<표 V-40>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인지 및 이용여부	159
<표 V-41>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만족도	160
<표 V-42> 가장 이용하고 싶은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	161
<표 V-43> 청소년 복지 서비스 인지 및 이용여부	162
<표 V-44> 청소년복지서비스 만족도	163
<표 V-45> 가장 필요한 청소년복지서비스	163
<표 V-46>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에 대한 생각	164
<표 V-47> 성 정체성	165
<표 V-48> 성정체성으로 놀림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 ...	165
<표 V-49> 성관계 경험	165
<표 V-50> 임신하거나 시킨 경험	166
<표 V-51> 성관계 시 피임 여부	166
<표 V-52> 피임 하지 않은 이유	166
<표 V-53> 대가성 성관계 경험	166
<표 V-54> 경찰서에 잡혀 간 경험	167
<표 V-55> 보호관찰 처분 등 법적 처벌 받은 경험	167
<표 V-56> 현재 가출 상태	167
<표 V-57> 가출 경험	168
<표 V-58> 첫 가출 시기	168
<표 V-59> 가출 후 집 밖에서 지낸 기간	168
<표 V-60> 부모의 양육행동	169
<표 V-61> 청소년학대와 가정폭력	170
<표 V-62> 가족관계	171
<표 V-63> 가족에 대한 생각과 집에서의 성인역할	172
<표 V-64> 학교에서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172
<표 V-65>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	173
<표 V-66> 사회적 지지	174
<표 V-67> 사회적 지지 총점	175
<표 V-68> 지역사회 응집력	176

<표 V-69> 집, 학교, 동네, 다른 장소 등에서 성추행이나 강간 경험	177
<표 V-70>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 또는 기관	177
<표 V-71>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177
<표 V-72> 일(아르바이트) 경험	178
<표 V-73> 일(아르바이트)를 통해서 1달 평균 번 돈	178
<표 V-74> 일(아르바이트)을 한 이유	178
<표 V-75> 직장(아르바이트)에서의 피해 경험	179
<표 V-76> 직장(아르바이트) 피해 시 대처 방법	179
<표 V-77> 청소년인권의식 및 참여 여건	180
<표 V-78> 소외집단 인권에 대한 책임감 및 참여의식 ..	181
<표 V-79> 사회참여 필요 정도	182
<표 V-80> 사회참여 정도	183
<표 V-81> 빈곤청소년의 성별 분포	184
<표 V-82> 성별에 따른 의식주생활	184
<표 V-83> 성별에 따른 건강검진 유무	185
<표 V-84>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185
<표 V-85> 성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186
<표 V-86> 성별에 따른 흡연 정도	186
<표 V-87> 성별에 따른 평소 음주량	187
<표 V-88> 성별에 따른 자살행위나 자살기도 경험	187
<표 V-89>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188
<표 V-90> 성별에 따른 정보매체 이용시간	188
<표 V-91> 성별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인지 및 이용여부	189
<표 V-92> 성별에 따른 청소년 복지서비스 인지 및 이용여부	190
<표 V-93> 성별에 따른 서비스 수급에 대한 태도	191
<표 V-94> 성별에 따른 성 정체성	192
<표 V-95> 성별에 따른 성 정체성으로 놀림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	192
<표 V-96> 성별에 따른 성관계 경험	192

<표 V-97> 성별에 따른 현재 가출 상태	193
<표 V-98> 성별에 따른 가출 경험	193
<표 V-99> 성별에 따른 경찰서에 잡혀간 경험	193
<표 V-100> 성별에 따른 보호관찰 여부	193
<표 V-101> 성별에 따른 부모의 청소년학대	194
<표 V-102> 성별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	196
<표 V-103>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경험	197
<표 V-104>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	197
<표 V-105>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	198
<표 V-106> 성별에 따른 성추행, 강간 피해경험	199
<표 V-107> 성별에 따른 일(아르바이트) 경험	200
<표 V-108> 성별에 따른 직장(아르바이트)에서의 피해 경험	200
<표 V-109> 성별에 따른 청소년권리 인지여부	201
<표 V-110> 성별에 따른 소외집단 인권에 대한 책임감 및 참여의식	201
<표 V-111> 성별에 따른 사회참여 정도	201
<표 V-112> 빈곤청소년의 거주지역	202
<표 V-113> 거주지역에 따른 의식주 생활(혼자 사용하는 내 방이 있다)	203
<표 V-114> 거주지역에 따른 건강검진 유무	203
<표 V-115> 거주지역에 따른 자아존중감	204
<표 V-116> 거주지역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204
<표 V-117> 거주지역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205
<표 V-118>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 관련기관(시설) 인지 및 이용여부	206
<표 V-119>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 복지서비스 인지 및 이용여부	207
<표 V-120> 거주지역에 따른 경찰서에 잡혀간 경험	208
<표 V-121> 거주지역에 따른 보호관찰 여부	208

<표 V-122> 거주지역에 따른 부모의 청소년학대	209
<표 V-123> 거주지역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	209
<표 V-124> 거주지역에 따른 사회적 지지	210
<표 V-125> 거주지역에 따른 일(아르바이트) 경험	211
<표 V-126>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권리 인지여부	211
<표 V-127> 빈곤청소년의 가족형태	212
<표 V-128> 가족형태에 따른 의식주 생활(혼자 사용하는 내 방이 있다)	213
<표 V-129> 가족형태에 따른 자아존중감	214
<표 V-130> 가족형태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214
<표 V-131> 가족형태에 따른 흡연 정도	215
<표 V-133> 가족형태에 따른 청소년 관련기관(시설) 인지 및 이용 이용여부	217
<표 V-134> 가족형태에 따른 청소년 복지서비스 인지 및 이용 이용여부	218
<표 V-135> 가족형태에 따른 보호관찰 여부	219
<표 V-136> 가족형태에 따른 부모의 청소년 학대	220
<표 V-137> 가족형태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	221
<표 V-138> 가족형태에 따른 사회적 지지	222
<표 V-139> 자아존중감	225
<표 V-140> 심리·사회적 적응	226
<표 V-141> 흡연 정도	226
<표 V-142> 음주량	226
<표 V-143> 자살행위나 자살기도 경험	227
<표 V-144> 가출 경험	227
<표 V-145> 경찰서에 잡혀간 경험여부	227
<표 V-146> 학교생활 적응	227
<표 V-147>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	228
<표 VI-1> 응답자의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급별 분포	234
<표 VI-2> 지난 1년간 가출기간	234
<표 VI-3> 장애 유무	235

<표 VI-4> 학교 성적	235
<표 VI-5> 가정형편	235
<표 VI-6>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및 무료급식지원 수여 여부	236
<표 VI-7> 부모와의 동거 상태	236
<표 VI-8> 부모의 결혼 상태	237
<표 VI-9> 부모의 교육정도	237
<표 VI-10> 지난 1년간 의식주 생활	238
<표 VI-11> 지난 1년간 건강검진 경험	239
<표 VI-12> 지난 1년간 질병 경험	239
<표 VI-13> 질병치료 유무	240
<표 VI-14> 질병치료 받지 않은 이유	240
<표 VI-15> 자아존중감	241
<표 VI-16> 심리·사회적 적응	242
<표 VI-17> 흡연 정도	242
<표 VI-18> 평소 음주량	243
<표 VI-19> 자해행위나 자살기도 경험	243
<표 VI-20> 자해행위나 자살기도 횟수	243
<표 VI-21> 정규학교 재학 여부	244
<표 VI-22> 지난 1년 동안 학교 가지 않은 날	245
<표 VI-23> 학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었던 경험	245
<표 VI-24> 학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었던 이유	246
<표 VI-25> 정규학교 복학경험 또는 복학의도	246
<표 VI-26> 복학할 때의 어려움	247
<표 VI-27> 검정고시 합격 경험	248
<표 VI-28> 대학 진학 가능 여부	249
<표 VI-29> 대학 진학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	249
<표 VI-30> 경제적인 이유로 과외나 학원을 못 다닌 경험	249
<표 VI-31> 컴퓨터 소유 여부	250
<표 VI-32> 인터넷 가능 여부	250
<표 VI-33> 정보 매체 소유	251

<표 VI-34> 정보매체 이용시간	251
<표 VI-35> 정보매체 이용용도	252
<표 VI-36> 여가시간에 많이 하고 있는 활동	252
<표 VI-37>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253
<표 VI-38> 여가나 취미활동의 어려운 점	254
<표 VI-39> 진로지도 관련 경험	255
<표 VI-40> 장래 희망 직업	255
<표 VI-41> 희망직업관련 직업훈련 참여의사	256
<표 VI-42> 희망직업관련 직업훈련 참여의 어려운 점 ...	256
<표 VI-43>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인지 및 이용여부 ...	258
<표 VI-44>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만족도	259
<표 VI-45> 가장 필요한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260
<표 VI-46> 청소년 복지 서비스 인지 및 이용여부	261
<표 VI-47> 청소년 복지 서비스 만족도	262
<표 VI-48> 가장 필요한 청소년 복지 서비스	263
<표 VI-49> 성정체성	263
<표 VI-50> 성정체성에 대한 편안함	264
<표 VI-51> 성정체성으로 놀림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 ...	264
<표 VI-52> 성경험	265
<표 VI-53> 경찰서 및 법적 처벌 경험	266
<표 VI-54> 현재 가출 상태	267
<표 VI-55> 가출 경험	267
<표 VI-56> 첫 가출 시기	268
<표 VI-57> 가출 후 집 밖에서 지낸 기간	268
<표 VI-58> 부모님(보호자)의 거주지를 아는지 여부	269
<표 VI-59> 부모님(보호자)과 연락 빈도	269
<표 VI-60> 귀가 욕구	270
<표 VI-61> 귀가 거부 이유	270
<표 VI-62> 가출 후 귀가 방법	271
<표 VI-63> 귀가시 동행해 준 사람	271
<표 VI-64> 귀가 후 재가출까지 기간	272
<표 VI-65> 귀가시 필요한 도움	272

<표 VI-66> 청소년학대와 가정폭력	274
<표 VI-67> 가족관계	275
<표 VI-68> 학교에서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276
<표 VI-69>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	277
<표 VI-70> 사회적 지지	278
<표 VI-71> 지역사회에서 피해 경험	280
<표 VI-72>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 또는 기관	280
<표 VI-73>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281
<표 VI-74> 경찰과의 경험	282
<표 VI-75> 일(아르바이트) 경험	282
<표 VI-76> 일(아르바이트)를 통해서 1달 평균 번 돈 ...	283
<표 VI-77> 직장(아르바이트)에서의 피해 경험	283
<표 VI-78> 직장(아르바이트) 피해 시 대처 방법	284
<표 VI-79> 돈을 얻는 방법	285
<표 VI-80> 1달 평균 쓰는 돈	286
<표 VI-81> 돈을 사용한 용도	286
<표 VI-82> 현재 살고 있는 곳	287
<표 VI-83> 보호시설에서 지낸 기간	287
<표 VI-84> 가출 후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이유	288
<표 VI-85> 보호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288
<표 VI-86> 보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289
<표 VI-87> 가출 후 지역선택 기준	290
<표 VI-88> 가출 전·후 생활한 지역	291
<표 VI-89> 청소년인권의식 및 참여 여건	292
<표 VI-90> 보호시설에서의 인권	294
<표 VI-91> 성별에 따른 의식주생활	295
<표 VI-92> 성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295
<표 VI-93> 성별에 따른 평소 음주량	296
<표 VI-94> 성별에 따른 정규학교 재학 여부	296
<표 VI-95> 성별에 따른 복학할 때의 어려움	297

<표 VI-96> 성별에 따른 인터넷과 이동전화 보유 여부 ..	298
<표 VI-97> 성별에 따른 정보기기 이용용도	298
<표 VI-98> 성별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인지 및 이용여부	299
<표 VI-99> 성별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만족도	300
<표 VI-100> 성별에 따른 성정체성	301
<표 VI-101> 성별에 따른 성정체성으로 놀림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	302
<표 VI-102> 성별에 따른 성관계 경험	302
<표 VI-103> 성별에 따른 가출 경험	303
<표 VI-104> 성별에 따른 가출 후 귀가 방법	303
<표 VI-105> 성별에 따른 부모의 청소년학대	304
<표 VI-106>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	305
<표 VI-107>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	305
<표 VI-108> 성별에 따른 지역사회 피해 경험	306
<표 VI-109> 성별에 따른 피해 경험 알린 사람	307
<표 VI-110> 성별에 따른 경찰과의 경험	307
<표 VI-111> 성별에 따른 일(아르바이트)을 통해서 1달 평균 번 돈	308
<표 VI-112> 성별에 따른 가출 후 돈을 얻는 방법	309
<표 VI-113> 성별에 따른 보호시설에서 지낸 기간	309
<표 VI-114> 성별에 따른 가출 후 지역선택 기준	310
<표 VI-115> 성별에 따른 청소년인권 의식 및 참여 여건 ..	311
<표 VI-116> 성별에 따른 보호시설에서의 인권	312
<표 VI-117> 가출기간에 따른 의식주생활	313
<표 VI-118> 가출기간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314
<표 VI-119> 가출기간에 따른 정규학교 재학 여부	314
<표 VI-120> 가출기간에 따른 복학경험이나 복학의도 여부	314
<표 VI-121> 가출기간에 따른 복학할 때의 어려움	315

<표 VI-122> 가출기간에 따른 이동전화 보유 여부	315
<표 VI-123> 가출기간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인지 및 이용여부	316
<표 VI-124> 가출기간에 따른 복지서비스 인지 및 이용여부	317
<표 VI-125> 가출기간에 따른 가출경험	319
<표 VI-126> 가출기간에 따른 귀가 방법	319
<표 VI-127> 가출기간에 따른 귀가 후 재가출까지 기간 ..	320
<표 VI-128> 가출기간에 따른 귀가시 동행해 준 사람 ..	320
<표 VI-129> 가출기간에 따른 경찰과의 경험	322
<표 VI-130> 가출기간에 따른 가출 후 돈을 얻는 방법	323
<표 VI-131> 가출기간에 따른 보호시설에서 지낸 기간	324
<표 VI-132> 가출기간에 따른 보호시설에서의 경험	324
<표 VI-133> 가출기간에 따른 보호시설에서의 인권	326
<표 VII-1> 응답자의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급별 분포	334
<표 VII-2> 학교 성적	334
<표 VII-3> 가정형편	335
<표 VII-4>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및 무료급식지원 수여 여부	335
<표 VII-5> 부모와의 동거 상태	336
<표 VII-6> 부모의 결혼 상태	336
<표 VII-7> 부모의 교육정도	337
<표 VII-8> 지난 1년간 의식주 생활	338
<표 VII-9> 지난 1년간 건강검진 경험	339
<표 VII-10> 지난 1년간 질병 경험	339
<표 VII-11> 질병치료 유무	339
<표 VII-12> 질병치료 받지 않은 이유	340
<표 VII-13> 자아존중감	341
<표 VII-14> 흡연 정도	341
<표 VII-15> 평소 음주량	341
<표 VII-16> 자해행위나 자살기도 경험	342

<표 VII-17> 자해행위나 자살기도 횟수	342
<표 VII-18> 학교생활 적응	343
<표 VII-19> 지난 1년 동안 학교 가지 않은 날	343
<표 VII-20> 학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었던 경험	344
<표 VII-21> 학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었던 이유	344
<표 VII-22> 대학 진학 가능 여부	345
<표 VII-23> 대학 진학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	346
<표 VII-24> 경제적인 이유로 과외나 학원을 못 다닌 경험 ...	346
<표 VII-25> 컴퓨터 소유 및 인터넷 가능 여부	346
<표 VII-26> 정보 매체 소유	347
<표 VII-27> 1달 평균 통신비용	347
<표 VII-28> 통신비용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347
<표 VII-29> 여가시간에 많이 하고 있는 활동	348
<표 VII-30>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349
<표 VII-31> 여가나 취미활동의 어려운 점	350
<표 VII-32> 장래 희망 직업	351
<표 VII-33>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인지 및 이용여부 ...	352
<표 VII-34>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만족도	353
<표 VII-35> 가장 이용하고 싶은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	354
<표 VII-36> 청소년 복지서비스 인지 및 이용여부	355
<표 VII-37> 청소년 복지서비스 만족도	356
<표 VII-38> 가장 필요한 청소년 복지서비스	356
<표 VII-39> 가족관계	357
<표 VII-40> 가족에 대한 생각과 집에서의 성인역할	358
<표 VII-41> 부모의 양육행동	359
<표 VII-42> 청소년학대와 가정폭력	361
<표 VII-43> 학교에서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363
<표 VII-44>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	364
<표 VII-45> 사회적 지지	365
<표 VII-46> 지역사회 응집력	367

<표 VII-47> 집, 학교, 동네, 다른 장소 등에서 성추행이나 강간 경험	367
<표 VII-48>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 또는 기관	368
<표 VII-49>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368
<표 VII-50> 일(아르바이트) 경험	369
<표 VII-51> 일(아르바이트)를 통해서 1달 평균 번 돈 ...	369
<표 VII-52> 일(아르바이트)을 한 이유	369
<표 VII-53> 직장(아르바이트)에서의 피해 경험	370
<표 VII-54> 직장(아르바이트) 피해 시 대처 방법	371
<표 VII-55> 청소년 인권 의식 및 참여 여건	372
<표 VII-56> 소외집단 인권에 대한 책임감 및 참여의식	373
<표 VII-57> 사회참여 필요 정도	374
<표 VII-58> 사회참여 정도	375
<표 VII-59>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376
<표 VII-60> 성별에 따른 자살행위나 자살기도 경험	376
<표 VII-61> 성별에 따른 청소년 복지서비스 인지 및 이용여부	377
<표 VII-62> 성별에 따른 부모의 청소년학대	378
<표 VII-63>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	378
<표 VII-64> 나는 청소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잘 알고 있다	379
<표 VII-65> 장애유형에 따른 의식주생활	380
<표 VII-66> 장애유형에 따른 건강검진 유무	380
<표 VII-67> 장애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381
<표 VII-68> 장애유형에 따른 자살행위나 자살기도 경험	382
<표 VII-69> 장애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382
<표 VII-70> 장애유형에 따른 학교가지 않는 날	383
<표 VII-71> 장애유형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인지 및 이용여부	384

<표 VII-72> 장애유형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인지 및 이용여부	386
<표 VII-73> 장애유형에 따른 청소년 복지 서비스 인지 및 이용여부	389
<표 VII-74> 장애유형에 따른 청소년 복지 서비스 인지 및 이용여부	391
<표 VII-75> 장애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	392
<표 VII-76> 장애유형에 따른 부모의 청소년학대	394
<표 VII-77> 장애유형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경험	395
<표 VII-78> 장애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	396
<표 VII-79> 장애유형에 따른 성 추행, 강간 경험	397
<표 VII-80> 장애유형에 따른 일(아르바이트) 경험	397
<표 VII-81> 장애유형에 따른 소외집단 인권에 대한 책임감 및 참여의식	398
<표 VII-82> 장애유형에 따른 사회참여 정도	399
<표 VIII-1> 청소년 유형에 따른 지난 1년간 의식주 생활	405
<표 VIII-2> 청소년 유형에 따른 지난 1년간 건강검진 경험	406
<표 VIII-3> 청소년 유형에 따른 지난 1년간 질병 경험	406
<표 VIII-4> 청소년 유형에 따른 질병치료유무	407
<표 VIII-5> 청소년 유형에 따른 질병치료 받지 않은 이유	408
<표 VIII-6> 청소년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408
<표 VIII-7> 청소년 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409
<표 VIII-8> 흡연 정도	410
<표 VIII-9> 평소 음주량	410
<표 VIII-10> 자해행위나 자살기도 경험	411
<표 VIII-11> 청소년 유형에 따른 지난 1년 동안 학교 가지 않은 날	411
<표 VIII-12> 청소년 유형에 따른 학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었던 경험	412
<표 VIII-13> 학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었던 이유	413
<표 VIII-14> 청소년 유형에 따른 대학 진학 가능 여부	413

<표 VIII-15> 대학 진학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	414
<표 VIII-16> 청소년 유형에 따른 경제적인 이유로 과외나 학원을 못 다닌 경험	414
<표 VIII-17> 컴퓨터 소유 여부	415
<표 VIII-18> 정보 매체 소유	415
<표 VIII-19> 1달 평균 통신비용	416
<표 VIII-20> 통신비용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416
<표 VIII-21>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	417
<표 VIII-22> 희망하는 여가활동	418
<표 VIII-23> 장래 희망하는 직업	419
<표 VIII-24> 청소년 유형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인지 및 이용여부	420
<표 VIII-25>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만족도	422
<표 VIII-26> 가장 이용하고 싶은 청소년 기관 및 시설	424
<표 VIII-27> 청소년 복지 서비스 인지 및 이용여부	425
<표 VIII-28> 청소년 복지 서비스 만족도	427
<표 VIII-29>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	429
<표 VIII-30> 성 정체성	429
<표 VIII-31> 성관계 경험	430
<표 VIII-32> 임신하거나 시킨 경험	430
<표 VIII-33> 부모의 결혼 상태	431
<표 VIII-34> 청소년 유형에 따른 부모양육행동	432
<표 VIII-35> 청소년 유형에 따른 가정폭력 및 부모의 청소년 학대	433
<표 VIII-36>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	434
<표 VIII-37> 학교에서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	435
<표 VIII-38> 청소년 유형에 따른 지역사회지지	435
<표 VIII-39> 청소년 유형에 따른 지역사회 응집력	437
<표 VIII-40> 청소년 유형에 따른 일(아르바이트) 경험 ...	437
<표 VIII-41> 청소년인권 및 참여 의식	438
<표 VIII-42> 사회참여 필요 정도	439

<표 VIII-43> 사회참여 정도	439
<표 IX-1> 부모의 기능적 결손과 제공 가능 서비스	466
<표 X-1> 청소년 대상별 복지정책과제	509

그림 목차

<그림 Ⅲ-1> 2006년도 학령인구	35
<그림 Ⅲ-2> 진학률	38
<그림 Ⅲ-3> 생애주기별 수급자 백분율 및 수급률 분포(총괄)	39
<그림 Ⅲ-4> 학교급식비 지원현황	42
<그림 Ⅲ-5> 무료급식지원사유별 학생수	42
<그림 Ⅲ-6> 가출청소년현황	43
<그림 Ⅲ-7> 장애인취학자	44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제한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세계적으로 국가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을 위협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발달에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가정의 책임으로 여겨지던 아동과 청소년의 양육이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청소년육성법(1987년), 청소년헌장(1990) 및 청소년기본법(1991)의 마련을 통해 정부의 정책과제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청소년복지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계층에게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시혜적으로 제공한다는 잔여적(residual) 개념으로부터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가족들도 현대의 복잡한 사회 속에서 공동의 인간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수시로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보는 제도적(institutional)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다(김성아·조학래·노충래, 2004: 102-103).

최근에는 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복지에서도 청소년 인권의 관점이 도입되고 있다. 즉, 청소년을 삶의 주체로 인식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인권 개념에 기초한 청소년복지의 논의는 관심의 범위를 일국의 차원에서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과 복지의 문제가 그 국가에서도 통합되어야 하며, 국제사회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각국에서는 청소년 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유엔아동권리협약 등과 같은 국제적 표준을 따르는 추세에 있으며, 이의 완전한 이행 여부가 곧 그 국가의 청소년 인권과 복지의 실현과 밀접히 연관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청소년복지의 기본이 되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 차별 금지의 원칙, 아동 존중의 원칙의 3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정책에서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이익이 가장 중시되어야 하고, 어떠한 청소년도 차별됨이 없이 모든 유형의 청소년을 포괄해야 하며, 정책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정책의 과정은 청소년들의 욕구나 의견에 기초하지 않고 주로 정책담당자나 성인들에 의해서 계획되고 시행되어 온 경향이 있으며, 청소년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매우 미흡하였다. 더욱이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많은 정책에서 소외되어 청소년들 간의 차이가 보다 심화되는 추세에 있다. 결국 지금까지의 청소년복지정책은 주요 정책수요자라 할 수 있는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복지의 국제적 흐름과도 연계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인권에 기초한 청소년복지정책은 청소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과 해결과정에 대한 국제적 연대를 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인이나 정책담당자의 이익보다는 청소년들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의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들의 욕구에 바탕으로 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권에 기초한 청소년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청소년 복지욕구를 인권 개념에 기초하여 생존욕구, 발달욕구, 보호욕구, 참여욕구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학생청소년, 빈곤청소년, 가출청소년, 장애청소년의 청소년 유형별로 청소년복지 실태와 욕구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에서는 실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목표로 청소년복지의 문제를 인권적 관점에서 조망하였으며, 청소년 유형별 현황을 토대로 청소년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청소년 유형에 따른 정책제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인권 관점에서 청소년복지의 문제를 개념적으로 검토하였다. 인권의 발달과정과 인권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복지와의 관계성을 파악하였으며, 인권적 관점에서 청소년 복지적 접근을 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청소년복지욕구를 생존욕구, 발달욕구, 보호욕구, 참여욕구의 4가지로 분류하여 인권적 관점에서 가지는 의미와 문제를 파악하였다.

둘째, 청소년 유형별 현황을 파악하였다. 청소년 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학생청소년, 빈곤청소년, 가출청소년, 장애청소년의 청소년 유형별로 전체 인구 규모와 진로 현황 등을 알아보았다. 특히, 빈곤청소년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무료급식지원 청소년의 규모를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 취학자 수와 더불어 장애출현율을 기초로 청소년인구를 추정하였다.

셋째, 학생청소년, 빈곤청소년, 가출청소년, 장애청소년 등 청소년 유형별로 복지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였다. 청소년 집단별로 처해있는 복지적 상황과 욕구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각각의 청소년집단을 대상으로 복지욕구를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 유형별 비교를 통하여 공통적인 욕구와 대상 유형에 따른 특수한 욕구를 파악하였다. 청소년 복지욕구는 이론적 검토를 통해 설정된 생존욕구, 발달욕구, 보호욕구, 참여욕구의 4개의 영역으로, 현안문제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욕구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청소년 유형별로 복지욕구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복지욕구 조사 결과에 대해서 청소년을 비롯하여 청소년복지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청소년 복지 욕구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제사회와 연계성 있는

청소년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청소년 인권과 복지의 원칙과 전략을 함께 제시하였다.

3. 연구의 방법

1) 문헌·자료조사

국내외 청소년 복지욕구 조사 관련 문헌과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복지욕구 조사도구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인권과 복지와의 관계, 복지욕구 등의 개념적 문제를 파악하고 생존욕구, 발달욕구, 보호욕구, 참여욕구 등 청소년 복지욕구별로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청소년 유형별로 인구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의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2) 설문조사

(1) 예비조사

2006년 4월 11일~4월 14일 사이에 학생청소년, 빈곤청소년, 장애청소년, 가출청소년 등 청소년 유형별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학생청소년은 인천광역시 소재 중학교 2학년 학생 4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빈곤청소년은 한국복지재단 산하 14개 지부의 결연대상 빈곤청소년 28명(중학생 14명, 고등학생 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의정부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 14명 대상으로 하였으며, 장애청소년은 지체장애 청소년, 시각장애 청소년, 청각장애청소년 및 정신지체장애청소년 부모 등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유형별로 연구자와 관련 전문가들 간의 2~3차례의 회합을 통하여 문항을 수정하였다.

(2) 본 조사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정된 설문지를 토대로 2006년 4월 24일~5월 31일 사이에 학생청소년, 빈곤청소년, 가출청소년, 장애청소년 등 전국 3,1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복지 욕구를 조사하였다.

가.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

조사대상은 2005년도 전문가델파이 조사¹⁾로부터 복지정책 대상의 우선 순위에서 순위가 높았던 학생청소년, 빈곤청소년,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유형의 청소년들은 그 유형의 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표본 추출을 위하여 학교 및 관련 시설과의 연계를 통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학생청소년은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의 2005년 교육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모집단(3,730,709명)의 0.04%인 1,500명을 지역규모별, 학교급별, 성별로 표집(다단계층화집락표집)하였다.

〈표 I -1〉 학생청소년 표집

구분		모집단(명)	사례 수(명)	비율(%)
전 체		3,730,709	1,500	100
성별	남	1,971,349	792	52.8
	여	1,759,360	708	47.2
학교급별	중학교	1,986,848	799	53.3
	인문계 고등학교	1,247,621	501	33.4
	실업계 고등학교	496,240	200	13.3
지역규모별	대도시	1,766,765	709	47.3
	중소도시	1,449,877	584	38.9
	읍면지역	514,067	207	13.8

*제주지역 제외

빈곤청소년은 보건복지부 결연사업 대상 청소년(소년소녀가정 청소년, 결

- 1) 2005년도에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수행한 「청소년 복지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학계, 현장, 공무원 등 총 30명의 청소년 복지정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청소년 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바 있다.

손빈곤가정 청소년, 모자가정 청소년, 부자가정 청소년, 가정위탁청소년 등)으로 국민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 빈곤계층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대표적 빈곤집단 31,091명 중 600명을 지역별, 교급별로 비례해서 표집하였다.

〈표 I -2〉 빈곤청소년 표집

구분	소년소녀가정		결손빈곤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		가정보호위탁		전체	
	모집단	사례수	모집단	사례수	모집단	사례수	모집단	사례수	모집단	사례수	모집단	사례수
중학생	950	21	3,495	67	4,642	84	734	18	2,604	50	12,425	240
고등학생	1,862	37	5,446	108	6,599	125	1,125	23	3,634	67	18,666	360
계	2,812	58	8,941	175	11,241	209	1,859	41	6,238	117	31,091	600

가출청소년은 전국 38개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 378명과 거리에서 배회하고 있는 청소년 122명으로 총 500명을 표집하였다. 특히, 거리 배회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쉼터별로 거리상담 대상 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I -3〉 가출청소년 표집

지역 \ 구분	청소년 쉼터	시설 청소년	거리 청소년
서울	5개	55명	25명
부산	1개	13명	-
대구	3개	25명	-
인천	2개	17명	-
광주	2개	14명	-
대전	2개	29명	5명
울산	1개	8명	-
경기	9개	125명	20명
강원	1개	12명	-
충북	3개	17명	20명
충남	3개	28명	-
전북	2개	10명	20명

지역\구분	청소년 쉽터	시설 청소년	거리 청소년
전남	1개	5명	20명
경북	-	-	-
경남	2개	20명	-
제주	1개	-	12명
합계	38개	378명	122명

장애청소년은 장애유형별(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로 각각 100명씩 총 500명을 선정하였다. 시각장애청소년, 청각장애청소년, 지체장애청소년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장애특성상 설문조사가 어려운 발달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뇌병변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복지시설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나. 조사내용

연구의 목적과 일치할 수 있도록 청소년인권의 관점에서 복지욕구를 분류하였으며, 청소년 유형별로 생존욕구, 보호욕구, 발달욕구, 참여욕구를 조사하였다. 또한 각 복지욕구별로 조사영역을 선정하였는데, 생존욕구는 의식주, 의료보건, 건강을, 보호욕구는 가족, 학교, 지역사회, 직장근로에서의 보호욕구를, 발달욕구는 교육, 정보문화, 여가활동, 직업, 지역사회서비스, 성, 비행을, 그리고 참여욕구는 권리의식 및 참여여건, 사회참여 필요도 및 참여도, 소수자 권리 및 책임의식 등을 조사영역으로 하였다.

조사내용은 공통적인 조사내용과 청소년 유형별 특성을 감안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빈곤청소년의 경우에는 학생청소년 조사내용 이외에 복지서비스 수혜에 대한 낙인감, 양가감정을 포함하였다. 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장애 특성을 감안하여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대상 유형에 포함된 조사 내용의 상당 부분을 축소하였으며, 장애청소년의 욕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학교생활의 어려움, 장애종류와 등급, 재활보조기구사용여부, 장애의 원인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출이라는 특

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용돈의 주된 사용처, 복학에 대한 생각, 복학 어려움, 검정고시합격여부, 진로지도 유·무, 진로지도 도움정도/참여도, 직업훈련참여여부, 직업훈련참여시 어려운 점, 경찰과의 경험, 가출기간, 보호자거주지 인지여부, 보호자와의 연락정도, 귀가의사와 이유, 가출횟수, 처음 가출한 시기, 귀가요인, 귀가시 동행하는 사람, 귀가 후 필요자원, 현재 거주지, 보호시설이용 이유, 보호시설에서 지낸 기간, 보호시설에서의 경험, 가출시 거주지역, 가출시 거주지역 선택요인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표 I -4〉 주요 조사내용

대분류	조사영역	세부내용
생존육구	의식주	1주일 내 섭취량 정도, 영양균형·관리, 의복착용수준, 주거독립공간여부, 주거안정도 ²⁾
	의료·보건	건강검진 유·무, 질병 종류, 치료 유·무 및 치료받지 않은 이유
	건강 (신체·정신 건강·정서)	흡연경험, 음주경험 유·무와 정도, 자아존중감 ³⁾ , 사회심리적 적응 ⁴⁾ , 자살 및 자해경험 유·무와 정도
보호육구	가족	사회적 지지체계 ⁵⁾ , 부모양육행동 ⁶⁾ , 가족 내 갈등 및 폭력 ⁷⁾ , 가족관계 ⁸⁾ , 가족의 지지도 및 아동의 성인역할 ⁹⁾
	학교	학교에서의 긍정적, 부정적 경험(학교폭력피해 ¹⁰⁾)
	지역사회	지역사회 의식 ¹¹⁾ , 성적 피해, 지역사회에서의 피해 사실 신고
	직장·근로	아르바이트 경험 및 동기, 아르바이트 시 피해경험 및 대처방법
발달육구	교육	학교생활 부적응과 결석 이유, 대학진학 가능성, 사교육 경험
	정보·문화	컴퓨터 및 인터넷 보유현황, 정보화 기기 보유, 이용시간, 사용용도, 통신비용과 심리적 부담
	여가활동	현재 여가활동 및 희망 여가활동, 여가활동의 어려운 점
	직업	장래 희망직업
	지역사회 서비스	청소년관련기관 및 시설에 대한 인지, 이용여부 및 만족도, 사회적 서비스 인지, 이용여부 및 만족도 ¹²⁾
	성	성 정체성 및 성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유·무, 성관계경험, 임신 유·무, 피임 유·무, 성매매 유·무
	비행	법적 처벌, 보호관찰처분 유·무, 가출경험

대분류	조사영역	세부내용
참여욕구	권리의식 참여여건	권리의식, 의사결정통로, 의사표현통로, 참여여건의 평등 정도, 차별받지 않을 기회, 행동·종교의 자유, 문화적 활동 선택기회, 의사결정, 여가활동선택기회, 사회활동참여정 도, 사회참여
	사회참여 필요도 참여도	청소년 관련 문제, 정책이나 행정과정, 사회적 활동, 경제 활동, 여가문화 활동 등의 필요성 및 참여정도
	소수자 권리 및 책임의식	소수자 권리에 대한 의식, 나와 의 관계, 사회변화에 대한 책임의식 등

- 2) 한국아동복지학회·한국복지재단(2004). 위스타트 운동 욕구조사. 음식/영양관련 문항 수정하여 사용.
- 3)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Instrument reproduced with permission of Morris Rosenberg.
- 4) Achenbach, T. M.(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우울과 비행에 관한 문항 사용.
- 5)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개발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척도수정하여 사용.
- 6) 김혜영(2000). 보호관찰청소년의 비행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및 부모양육행동의 영향력. 한국아동복지학, 10권, pp.9-23. 부모양육행동척도 중 지도감독과 칭찬관련 문항 사용.
- 허남순·외(2005). 빈곤아동과 삶의 질. 서울: 학지사. 과보호적 양육태도사용.
- 7) Straus, M. A.(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CT)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ruary, pp.75-88.
-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2002). 아동학대척도 사용.
- 8) Hudson, W. W.(1997). The WALMYR assessment scales scoring manual. Tallahassee, FL: WALMYR Publishing Company. 가족관계척도 총 25문항 중 6문항을 선정하여 사용.
- 9) 이상균, 박현선(2002). 소년소녀가장의 성인 역 아동부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제16권 1호. pp.143-164. 성인역할 아동부담척도 수정하여 사용..
- 10) 이상균(1999). 학교에서의 또래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학교폭력피해척도 수정하여 사용.
- 11) Sampson, R. J., Raudenbush, S. W., & Earls(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 pp.918-924. 사회응집력척도 사용.
- 12) 허남순·외(2005). 빈곤 아동과 삶의 질. 서울: 학지사. 사회적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척도 사용.

다.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학생청소년의 경우에는 우편조사에 의한 자제식 설문조사의 형태로 실시되었으며, 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장애 특성상 특수학교교사나 복지전문가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빈곤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복지재단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는데, 전국 16개 시도 지부의 복지전문가에 의한 개별방문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협조 하에 전국 38개 청소년쉼터의 지도교사에 의한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라. 자료분석방법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를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모든 항목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청소년 유형별(학생청소년, 빈곤청소년, 가출청소년, 장애청소년) 차이와 각 유형별로 주요 변인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즉, 학생청소년은 성별, 지역별, 교급별 차이를 검증하였고, 빈곤청소년은 성별과 가족형태별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가출청소년은 성별과 가출기간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장애청소년은 성별과 장애유형별 차이를 검증하였다.

3) 워크숍 및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실시

청소년복지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 청소년전문가, 담당공무원 등 주요 청소년복지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워크숍과 초점집단 인터뷰를 포함하는 3단계의 절차를 거쳤다. 첫째, 청소년복지육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복지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 제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유형별로 2~3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각 유형의 복지육구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공통된 복지육구의 문제와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둘째, 복지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학생청소년, 빈곤청소년, 가출청소년, 장애청소년이 참여하는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각 청소년들의

복지욕구와 정책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셋째, 청소년복지전문가와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제안에 대해서 정책적 검토를 위하여 복지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실효성 판단과 수정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

4. 연구의 제한

이 연구는 2005년도에 실시된 「청소년 복지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의 후속 연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연구를 설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을 가질 수 있다. 첫째, 복지욕구 대상의 선정은 연구인력 및 예산의 한계로 2005년도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았던 4개 유형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는 보다 중요한 유형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둘째, 청소년 유형별 정책 현황이나 외국사례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등의 과정은 전년도에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셋째, 복지정책의 제안은 복지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출한 것이므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청소년 복지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의 정책제안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인권관점에서의 청소년복지
2. 인권관점에서의 청소년복지욕구와 문제

II. 이론적 배경

1. 인권관점에서의 청소년복지

1) 인권과 복지의 관계

인권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 주요한 이슈이다. 최근 복지분야에서도 인식과 실천의 측면에서 담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인권이 복지의 중요한 차원 또는 동등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즉, 인권은 복지와 분리될 수 없으며, 인권차원에서의 접근을 통해서 진정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권과 복지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인권의 발달과정과 인권에 내재해 있는 개념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인권의 발달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 개념은 ‘소극적 권리’로서 세계인권선언 제2조부터 제21조에 걸쳐 규정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 권리들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해방을 보장하도록 고안된 권리이다. 두 번째 개념은 소위 ‘적극적 권리’로서 세계인권선언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규정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의미하며, 사회정의의 실현,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사회·경제·문화생활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UN Centre for Human Rights 저, 이해원 역, 2005: 26). 세 번째 개념은 아직 형성단계에 있는 ‘집합적 권리’로서 그 실현에 의해 개개인이 명백히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개개인에게 적용되기보다는 지역사회, 전체 국민, 사회 또는 국가에 해당되는 권리들이다. 경제개발에 대한 권리, 세계무역과 경제성장으로 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 결집력 있고 조화로운 사회에서 살 권리,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공기에서 숨 쉴 권리,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 자연을 경험할 권리 등과 같은 환경권을 포함한다(짐 아이프 저, 김형식·여지영 역, 2001: 61).

따라서 인권의 개념은 억압에 저항한다는 소극적 단계에서 출발하여, 인

간의 물질적·비물질적 욕구가 충족될 권리와 자원의 생산과 분배에 있어서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등을 긍정하는 적극적 단계로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인 서구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집합적 권리까지를 포함하는 인권개념으로 확장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인권은 단순히 권리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의무를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권리(rights)는 곧 의무(duties or obligations)를 함축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권리를 강조하게 되면 우리가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시민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책임하고 이기적으로 된다. 이와 반대로 권리를 이행하지 않고 의무를 강조하게 되면 억압과 강요를 불러오고 개인과 가정의 자율(autonomy)과 자기 결정(self-determination)의 중요성을 부정하게 된다. 인권에 함축된 3가지 중요한 의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은 충족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의무이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과, 보건, 교육, 주거, 소득, 직업의 보장, 그리고 경제정책, 지역사회 개발, 환경보호정책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공공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나 비정부부문을 필요로 한다. 둘째,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경해야 한다는 시민의 의무이다.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는 상호의존을 인정하고 자신의 발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는 사회이며, 인권이 실제로 인정되고 존중되기 위해서는 강한 공동체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시민들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이다. 총체적으로 사회에서의 참여수준을 높이고 납세자나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인권은 단지 인권법안과 국제적인 협약을 지지하고 법적 구조와 과정을 독립적으로 구축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권은 지역사회 개발과 활동적이고 참여적인 사회의 증진, 공공서비스의 개발, 독립(independence)과 상호의존(interdependence) 사이의 균형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권과 복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복지는 인권의 문제이고 실제적인 의미에서 복지와 관련된 사람들은 인권사업가들이다. 이와 유사하게 인권은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와 실현을 보장하는 복지에 대한 것이다(Ife, 2001: 10-12).

에섹스 대학의 법학교수이자 보건권리에 관한 유엔특별보고담당관인 Hunt(2006)는 보건과 인권과의 밀접한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제적인 협약에는 보건과 관련한 인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적절한 은신처, 음식, 교육, 프라이버시, 비차별 및 고문금지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인권과 보건과의 다양한 연계가 있는데, 첫째, 인권의 침해 혹은 부주의는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둘째, 보건정책과 프로그램은 계획되거나 수행되는 방향으로 인권을 증진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 그리고 셋째,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건강의 심각한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즉, 인권과 복지 사이에는 다양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권의 침해 혹은 부주의는 복지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복지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인권을 증진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복지의 심각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다.

2) 인권관점에서의 청소년복지

복지실천 그 자체가 바로 인권을 지속적으로 재구축하는 과정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인권을 조작화하고 정의하는 일은 부분적으로 바로 복지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권적 측면에서 복지를 검토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경제적·사회적 권리가 그 국가에서도 통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빈곤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의 책임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인권적 접근(human rights approach)에서는 공공지원을 자선(charity)의 차원에서보다는 하나의 권리(right)로서 재정의한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기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보다 크게 하게 된다(Pitcher, 2002: 8).

인권적 관점의 청소년복지 접근의 의미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론과 실천의 연계, 명확한 가치적 입장, 이데올로기적 지향, 총체적이며 포스트모던식의 이해, 참여적 사고 등의 관점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짐 아이프 저, 김형식·여지영 역, 2001: 236-257에서 재구성).

첫째, 인권적 관점은 이론과 실천 간에 명확하고 필연적인 연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인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이론과 실천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며, 항상 양자의 면에서 고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복지가 인권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다. 즉 사회복지는 일상의 실천을 현실세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현실에 기초하지 않는 이론을 구축할 수 없다. 인권 관점은 그러한 프렉시스¹³⁾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고 또 실로 요구한다.

둘째, 도덕적 합리화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틀을 제공함을 의미한다. 즉, 인권의 가치가 강력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인지된다는 점이며, 인권의 면에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은 단순한 추상적 ‘안락의자용’ 도덕적 합리화보다는 더 강력한 행동기반을 제공해 준다. 또한 인권관점은 활동가가 고립적으로 ‘그 당시에 옳은 것 같은 것’에 근거하여 결정을 하게 하지 않고 도덕에 관련된 문제들을 숙고할 것을 요구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협력 하에 이루어지기를 요구한다.

셋째, 인권 관점은 집합주의 이데올로기를 지향하고 있다. 즉, 일종의 사회주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사회민주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다. 개인은 개인이 요구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할 의무와 타인의 권리도 완전히 실현될 것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는 시민의 권리와 병행하는 시민의 의무라는 관념은 일종의 집합주의를 나타낸다. 따라서 정통 경제이론과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가정하고 있는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주의는 인권과 양립불가능한 것이며, 적어도 일정 정도의 집합주의의 역할을 담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견지하게 된다.

넷째, 총체적이며 포스터모던식의 이해를 할 것을 요구한다. 서구 계몽주의적 진보관의 특징은 제한된 단선적 사고를 거부하고 보다 총체적 이해를 할 것을 요구한다. 가령 어떤 가족, 지역사회 혹은 조직을 이해하고자 할 때

13) 프렉시스라는 개념은 이론과 실천 혹은 알고 행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Freire, 1996).

그것을 구성요소로 분해하기보다는 복합적 전체로 보도록 한다. 또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하나의 ‘바람직한’ 답을 구하려고 하는 강박관념 혹은 단일한 이야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며, 다양한 목소리의 가치를 인정하고 상이한 의미와 다양한 실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다섯째, 인권 개념에 기반한 복지는 모든 생활의 측면에서 시민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목표를 가진다. 단지 학자, 법률가, 정치가 그리고 활동가의 목소리만 반영되어서는 안되며 모든 부분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적 수준에서는 개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지역사회 참여를 고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익히 알고 있는 모든 범위의 기술을 활용하여 참여를 촉진하는 것, 사람들이 행동 집단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통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함께 모이게 하는 것, 또는 실제로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 사람들과 토의하거나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 행동 혹은 조직화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것 등을 말한다.

2. 인권 관점에서의 청소년복지욕구와 문제

청소년복지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는 욕구는 욕구 자체의 언어학적인 의미, 추론적(inference) 성격, 그리고 사회환경과의 관련성 등에 의해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오하이오 주립대 Altschuld교수(1995)는 욕구를 언어학적 분석을 통하여 명사로서의 욕구와 동사로서의 욕구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명사로서의 욕구는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미래 상태)라는 두 조건 사이의 차이를 말하며, 동사로서의 욕구는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의 차이를 채워나가기 위한 그 무엇, 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는 ‘해결’(solution)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즉, 명사로서의 욕구는 바로 문제(problem)를 말하며, 동사로서의 욕구는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service)의 개념과 동일하다(서인혜·공계순, 2004: 26 재인용).

욕구를 추론적 개념으로 파악하여 현재 상태를 미래 또는 바람직한 상태의 관점에서 파악하기도 한다. 로트는(Roth)는 $X(\text{달성하고자 하는 상태})-A(\text{현재 상태})=N(\text{욕구})$ 이라는 공식을 이용하여 욕구를 규정하였으며,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를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음의 다섯 가지 욕구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김성이·김채목, 1997; 서인해·공계순, 2004).

- ① 이상적 상태 - 현재 상태 = 목적상의 차질
- ② 희망하는 상태 - 현재 상태 = 소원상의 차질
- ③ 기대하는 상태 - 현재 상태 = 기대상의 차질
- ④ 규범 - 현재 상태 = 규범상의 차질
- ⑤ 최소한의 상태 - 현재 상태 = 본질적인 차질

욕구를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 그 자체의 특성보다는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에 의한 사회적 정의로 규정되기도 한다. 즉, 칸(Kahn, 1969: 63)은 “욕구란 주어진 한 시점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며, 사회의 전반적 진행 과정에 적절히 참여하고, 적절한 수준의 활동력 및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여 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욕구란 개인이나 집단이 인간의 생존과 성장발달을 위해 필요하여 구하는 것으로 주택, 영양, 보건, 직업, 소득, 지식, 사회참여, 정치활동, 개인의 자유 등이 욕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그 자체는 욕구가 아니며 개인이나 집단이 그것들을 필요로 하여 구할 때 욕구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김성이·김채목, 1997: 16 재인용).

또한 욕구는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되기도 한다. 즉,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욕구와 제3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욕구를 바라보는 욕구로 구분할 수 있다. Moroney의 4가지 사회적 차원의 욕구 중에서 ‘느껴진 욕구’와 ‘표현된 욕구’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욕구이며, ‘규범적 욕구’와 ‘비교된 욕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욕구라 할 수 있다. 즉, ‘느껴진 욕구’(felt need or perceived need)는 개개인이 느끼는 욕구 또는 인지하는 욕구로서 이는 주로 문제를 가진 사람이나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

나는 욕구를 말하며, ‘표현된 욕구’(expressed need)는 무엇인가에 대한 수요에 의해 느껴진 욕구가 직접 행동으로 표출된 욕구를 말한다. 또한 ‘규범적 욕구’(normative need)는 전문가에 의해서 규정된 욕구로서 전문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한 상태를 욕구가 있는 상태로 규정하며, ‘비교 욕구’(relative need)는 다른 인구집단에 존재하는 욕구의 수준상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욕구를 말한다.

지금까지 다양한 의미로 논의되어 온 욕구는 인간의 욕구가 인간의 권리보다는 현실적으로 만져서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 욕구 중심의 실천 원칙이 인권 중심의 실천 원칙보다 먼저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복지실천의 원칙은 욕구와 등등하게 중요한 인간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복지원칙으로 변형시킬 수 있으며, 인간의 적극적 권리를 추구하고 그 자격을 보장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함에 있어서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한 쌍의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 인권은 사회복지의 이론, 가치, 윤리 그리고 실천과 분리될 수 없다. 인간의 욕구에 반응하는 인권은 반드시 옹호되고 촉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인권은 사회 복지 실천의 정당성을 구현하고 동기를 강화한다(UN Centre for Human Rights 저, 이해원 역, 2005: 33-36).

아동과 청소년인권의 대표적인 국제규범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초로 청소년인권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이용교·황옥경·김영지·김형욱·이중섭·박경희, 2005; 길은배·이용교·김영지, 2001).

첫째, 생존권(survival rights)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받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사랑과 보호를 받을 권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교육을 받을 권리, 집과 양부모를 가질 권리, 생존은 물론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둘째, 발달권(development rights)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평균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를 의미한다.

다. 여기에는 교육받을 권리, 정보접근권, 놀이와 오락을 즐길 권리, 문화활동에 참여, 표현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셋째, 보호권(protection rights)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학대를 포함한 폭력이나 착취로부터의 보호,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차별로부터의 보호, 착취에 대한 보호, 위기와 응급상황에서의 보호 등이 포함된다.

넷째, 참여권(participation rights)은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적당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상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가지 권리에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청소년 복지욕구와도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모든 국가에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국제적이고 총체적인 통합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복지욕구는 인권적 측면에서 재조명하는 것이 실천성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하다.

1) 생존욕구와 인권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이자 권리인 생존문제는 청소년복지가 출발하는 기초가 된다. 욕구이론에 의하면, 생존문제는 Maslow의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와 물리적 안전의 욕구(safety needs), 그리고 Alderfer의 생존욕구(existence needs)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의식·주, 보건·의료, 안전 등의 문제가 포함된다. 또한 인권에 관한 보편적 선언 25조(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icle 25)에서는 생존권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자신과 그 가족의 건강과 복리를 위하여 의식주 및 의료보호를 포함하는 적절한 삶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존문제는 모든 청소년에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청소년들이 처한 위기 상황에 따라서 심각성의 정도가 다르다. 특히, 빈곤과 가출 등의 상황은 청소년

년의 기초적인 욕구 충족을 어렵게 하여 의·식·주, 보건·의료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발생시킨다. ‘집 없는’ 청소년과 가출청소년들은 부적절한 숙식과 길거리 생활로 인하여 종종 심각한 건강문제를 겪는다. 노여움과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뿐만 아니라 성과 관련한 질병 등도 발생하고 있다(김향초, 1998; 김성경, 1997). 또한 빈곤은 인간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며 유해하고 불결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한다. 부적절한 영양 상태와 의료혜택의 부재로 인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없게 한다(허남순 외, 2005: 23).

청소년이 경험하는 생활환경 중 주거는 일차적인 생활공간으로서 청소년의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아울러 그들의 사회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eimstra & McFaling, 1978; 정영숙 외, 1999). 청소년들은 대개 가정환경이나 빈곤 등 심각한 가정문제를 이유로 자기 집에서 주거하지 못하고 가족과 아는 사람 사이를 배회하거나, 은신처, 야외, 공공장소 등에서 생활하게 된다. 또한 가출청소년의 경우에 가출기간의 장기화는 주거에 대한 욕구를 더욱 절실하게 하며,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가출자와 함께 집단생활을 하면서 불량 집단화되기 쉽고, 애정관계나 인격적 교류 없이 동거생활을 하여 성병, 임신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김성경, 1997: 95). 청소년들의 주거생활 중 개인공간의 확보문제는 청소년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Dower와 Johnston(1979)은 혼자 사용할 수 있는 개인공간이 없을 때 거실사용이 더 많아짐을 발견하였다. 특히,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도, 그리고 청소년연령이 높아질수록 제2의 거실공간이 없으면 집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더 많음을 발견하였다(정영숙 외, 1999: 178).

청소년 시기는 신체적 발육이 왕성히 이루어지는 시기로 적절한 영양소 공급이 일생 중 어느 시기보다 가장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식사습관, 식성, 식사량은 청소년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불규칙한 식사습관은 청소년 신체발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최종안·차복경, 2004: 2413), 청소년기 결식문제에서 비롯된 영양의 불균형은 성인기에 골다공증(갈슘부족), 위암, 뇌졸중(염부과다섭취), 당뇨(비만)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

히 철분결핍성 빈혈로 인해 인지능력이 저하되기도 한다(허남순 외, 2005: 24에서 재인용). 청소년의 아침식사의 규칙성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보면, 아침식사를 매일 먹는 청소년은 50.2%(중학생 53.5%, 고등학생 46.5%)로 과반수 정도이고, 전혀 안먹는 청소년과 불규칙적인 청소년은 각각 12.9%, 12.9%로,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규칙적인 식사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조혜영·김선아, 2003: 77-78).

청소년들에게 의복은 단순히 생존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자아개념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청소년들은 신체적 자아로서의 자신을 의복을 통해 지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높다. 의복 등을 포함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소극적인 관심은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나타내며, 의복 등을 포함한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곧 높은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져 긍정적인 자기이미지를 갖게 된다. 하지만 의복에 대한 관심이나 의식과는 다르게 실제 의복 구입행위 등은 성, 학년, 물질주의 성향, 성격, 경제수준 등과 밀접히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물질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성격이 외향적일수록,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의복을 많이 구입한다(맹영임·구정화, 2003).

2) 발달욕구와 인권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성숙, 지적인 성장,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시기이다. 심리학자 Erikson(1968)에 의하면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주요한 발달적 변화로 사춘기와 관련된 신체적 변화, 추상적인 사고 능력의 확대, 내적인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의 확대, 부모 및 가족과의 관계의 소원, 사회적 인정의 중요시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발달단계에 따라 다양한 욕구가 나타난다. Scales(1991)는 초기 청소년을 특징짓는 7가지 발달욕구로 성인 또는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통제된 구조로부터의 탈피, 신체적 활동, 창조적인 표현, 효능감 및 학업성취, 가족과 학교에서의 의미 있는 참여, 공동체 참여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Stevenson(1992)은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을 통하여 욕구를 파악한다. 즉,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을 성공적인 사람, 남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

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신체적 활동과 이동의 자유, 그리고 정당한 삶을 원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시기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학교에서의 소외, 자아존중감 및 소속감의 상실, 비행과 약물 등에 대한 대처방법의 상실 등이 종종 발생한다(NMSA, 1996). 이와 관련하여 Schönplflug(1993)는 청소년들의 미래 목표와 현재 상태 사이의 불일치가 높으면, 자기존중감은 낮아지고 음주나 흡연 등과 같은 문제행동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발달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은 자아존중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의 향상은 발달과업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여 상호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Havighurst, 1972; Pinquart et al, 2004).

생태학적 발달이론에서는 청소년발달을 청소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설명한다(Bronfenbrenner, 1979). 즉, 청소년발달은 어떤 특정한 단일한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보다는 청소년과 가정, 청소년과 학교, 지역사회 규범과 가치 등과 같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또한 이러한 환경 내에는 청소년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비행이나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는 보호요인이 존재한다(Bogenschneider, 1996; Howell & Bilchik, 1995). 가정에서의 부적절한 지도감독, 가족구성원 사이의 갈등, 부모의 비행행동, 부적절한 친구관계, 부정적인 학업경험, 지역사회 친밀도 및 지역사회 조직화의 저하 등은 청소년발달에 위험요인으로 나타난다. 또한 또래 및 성인들과 긍정적인 관계의 형성, 안전하고 매력적인 장소의 제공, 적절한 생활기술의 개발, 지역사회 참여기회의 제공, 안전한 환경에서의 새로운 도전 기회의 제공 등은 청소년발달에 도움을 준다(Howell & Bilchik, 1995; Eccles, 1999; Rose-Krasnor et al, 2006; Ferrer-Wreder et al, 2002).

최근 국제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들이 소속해 있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은 청소년발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보호욕구와 인권

청소년보호는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인권적 차원에서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나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Franklin(1986)과 Freeman(1983)은 아동과 청소년권리의 유형을 복지권(welfare rights), 보호권(protective rights), 성인권(adults rights), 부모에 대응되는 권리(rights against parents)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보호권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부적절한 양육, 방임, 착취, 학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Coles(1995)는 보호권(protection rights)을 사회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영역으로서 특히 성적(sexual), 신체적(physical) 학대와 노동현장에서의 착취로부터의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편, 2004; 67-70). 결국 청소년보호에 관한 권리는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및 착취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Naik, 2003).

청소년 노동의 착취는 일 자체나 작업 환경, 특별한 위험요소의 존재 여부, 일에 대한 보상, 고용관계의 특성을 포함하는 요인들에 의해서 좌우된다.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들은 각각 다른 형태의 노동 착취를 경험하기 때문에 성은 노동 착취에 있어서 변수가 된다. 일이 청소년들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방해하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며, 성적 착취나 무장 갈등에의 동원은 위험하고 최악의 형태의 청소년 노동으로 간주된다. 일과 관련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권침해는 근로계약 위반, 저임금, 임금체불, 폭력 및 성희롱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2004년도 조사에 의하면 아르바이트 시 받게 되는 인권침해는 임금체불이 11.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임금 삭감 11.8%, 폭행피해 4.3%, 성적 피해 1.7%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영균 외, 2005: 118).

성적 학대 및 착취는 강간, 상업적인 성적 착취 및 가정 내의 학대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성적 착취는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2003년에 발생한 학대 유형을 보면 중북학대가 39.5%로 가장 많고, 방임 33.0%, 신체적 학대 11.9%, 정서적 학대 7.1%, 성적 학대

4.6%, 유기적 학대 3.9% 등으로 나타났다. 학대 발생장소로는 가정 내가 81.1%, 친척집이 3.9%, 이웃집이 1.3% 등으로 대부분의 학대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영균 외, 2005: 56-57). 가정에서의 학대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형태, 가족관계, 부모의 양육특성 등은 아동 및 청소년 학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학대 피해가 크며, 2세대 가족이 3세대나 4세대 가족형태보다, 편부모가족이 다른 가족형태보다 학대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을 학대하는 가정은 부부불화가 많고, 가족관계가 붕괴되거나 가족 내 상호작용이 적고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난다(이재연·한지숙, 2003; 김준호·김선애, 1997; Biller & Solomon, 1986;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3). 또한 학대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대해 적절하게 감독하지 못하고, 자녀를 통제하는데 있어서 이성이나 애정을 이용하기 보다는 처벌이나 위협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정혜원, 1993;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3).

청소년 사법에서도 인권 피해가 존재한다. 범죄로 인해 구속된 청소년들은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로 고통을 받고, 불법적인 감금이나 공정한 재판의 권리를 부정 당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복리에 피해를 입히고 사회로의 재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선고가 주어지기도 한다.

청소년을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 발달시키는 일은 가정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책무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9조에서는 “여하한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여하한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4) 참여육구와 인권

청소년들을 지역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일정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게 하는 일은 대부분의 국가나 지역사회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청소년 참

여를 국가의 주요한 정책으로 채택하게 하고 있으며, 청소년참여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국내외적인 요구에 따라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이후에 청소년 참여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 왔으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참여에 대한 논의에서 시민권의 개념은 사회참여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즉, 청소년을 그 사회의 정상적인 시민으로 인정해서 책임과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청소년의 참여 능력이나 참여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제한된 시민권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을 견습 시민(apprentice citizens) 또는 불완전한 시민(incomplete citizens)으로 인식해 왔다. 따라서 대개 청소년들에게 보호에 관한 권리는 부여했지만 정치적 권리는 부정되어 왔다. 청소년들에게 참여할 권리는 특전이며, 단지 운 좋은 소수나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Matthews, 2001: 299-300). 그리고 정책적 관심은 청소년의 시민권 개발을 위해 개입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에 대한 기초는 시민권의 개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시민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사회 구성주의 참여모델(socially constructive participation model)과 같은 포괄적인 모델을 따르지 않고, 결핍모델(deficit model), 고용지향모델(employment-oriented model) 또는 경제적 독립모델(respectable economic independence model)과 같은 좁은 개념을 채택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배제시키는 오류에 빠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결핍모델에서는 청소년들을 정치적으로 냉담하고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모른다고 가정하고 있어 청소년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유보하고 있다. 또한 고용지향모델 또는 경제적 독립모델에서는 시민권의 주요한 요소로 고용 또는 경제적 독립 여부 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임금 고용되어 있지 않고 부모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들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상당히 제한된다. 하지만 사회 구성주의 참여모델에서는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공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참여의 범위를 구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을 취한다. 사람들을 고용이나 경제적 독립여부에 따라서 일류시민이나 이류시민, 또는 유보된 시민이나 완전한 시민 등으로 분류하지 않고 지역사회 참여 정도에 따라 구성적으로 참여하는 선한 시민(good citizen), 그렇지 않은 시민 등의 연속체로 구분한다. 결국 이러한 관점을 취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진정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고 비로소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Smith et al, 2005).

이와 같은 포괄적인 시민권적 관점에 기초해 볼 때 청소년의 참여에 대한 권리도 다른 시민과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실제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이슈와 같은 긍정적인 일의 참여를 통해서 책임감과 리더로서의 역할, 의사결정의 기회를 가지게 될 때 문제행동의 가능성을 줄이고 다양한 가치를 개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사회 관련 조직에서 청소년들에게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 정체성, 지역사회 정체성, 사회적 효능성과 기능, 자기결정성 등 청소년 개인의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가치를 개발하게 된다(Hart et al, 1997: 52).

또한 온전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동시에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권리로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인권도 보장된다. 참여는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책임을 지각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즉, 타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정부나 기관 등의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변화의 주체로 인식함으로써 참여가 증진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들은 모든 사람들, 특히 소수집단이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그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청소년들은 타인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지 않으며,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느끼는 것 등이 청소년참여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Ellis, 2004).

III. 청소년 유형별 현황

1. 학생청소년 현황
2. 빈곤청소년 현황
3. 가출청소년 현황
4. 장애청소년 현황

Ⅲ. 청소년 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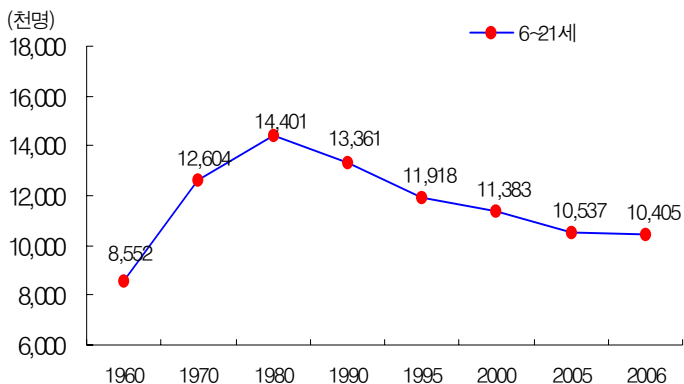
1. 학생청소년 현황

1) 학령인구

2006년도 학령인구(6~21세: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는 10,405천명으로 1980년(14,401천명) 정점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06년의 학년 인구는 학령인구가 가장 많았던 1980년의 14,401천명에 비해 27.7%(3,996천명) 감소한 것이며, 2005년에 비해서도 1.3%(132천명) 감소한 것이다. 2006년도 학령인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초등학교 연령대인 6~11세 인구가 3,915천명, 중학교 연령대인 12~14세가 2,099천명, 고등학교 연령대인 15~17세가 1,891천명, 그리고 대학교 연령대인 18~21세가 2,500천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Ⅲ-1> 2006년도 학령인구

< 학령인구(6~21세) >



자료 : 통계청(2005.1).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2) 중·고등학교 학생 수

2005년도 현재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재학생 수는 총 3,773,600명으로, 중학생이 2,010,704명, 고등학생이 1,762,896명이다. 중학생의 경우에 2000년도 이후에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1년도에 중학생 수가 1,831,152명이던 것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도에는 2,010,704명으로 9.8%p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비교해 보면, 남학생은 2001년도에 960,070명이던 것이 2005년에 1,063,730명으로 10.8%p 증가하였지만, 여학생은 871,082명에서 946,974명으로 8.7%p 증가하였다.

〈표 III-1〉 중학생 연도별 학생수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합계
2001	960,070	871,082	1,831,152
2002	970,692	870,338	1,841,030
2003	980,684	873,957	1,854,641
2004	1,022,950	910,593	1,933,543
2005	1,063,730	946,974	2,010,704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00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5년에는 조금 상승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1년도 고등학생 수는 1,911,173명이었는데 2004년도에 1,746,560명까지 감소하다가 2005년도에는 1,762,896명으로 증가하였다. 남녀별로 보면 남학생은 2004년도 918,578명, 여학생 역시 2004년도 827,982명까지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학교계열로 보면 대체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수는 2002년까지 감소하다가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수는 2000년도 이후에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어 두드러진 대조를 이룬다.

〈표 III-2〉 고등학생 연도별 학생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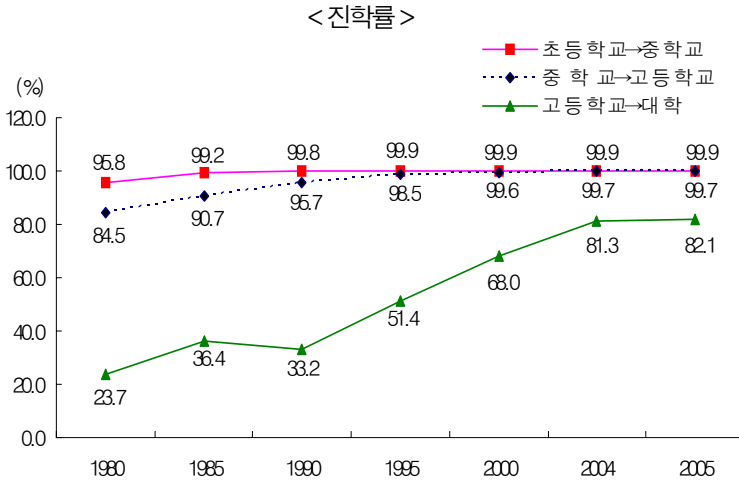
년도	구분	일반계	실업계
2001	남자	662,836	333,431
	여자	597,139	317,767
	합계	1,259,975	651,198
2002	남자	640,522	298,943
	여자	579,624	276,420
	합계	1,220,146	575,363
2003	남자	641,067	284,764
	여자	583,385	257,313
	합계	1,224,452	542,077
2004	남자	644,719	273,859
	여자	587,291	240,691
	합계	1,232,010	514,550
2005	남자	659,986	270,037
	여자	599,806	233,067
	합계	1,259,792	503,104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3) 진학률

2005년 초등학교 졸업자의 중학교 진학률은 99.9%이며,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9.7%로 2003년 이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대학진학률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82.1%로 나타나 2004년 81.3%에 비해 0.8%p 증가하였다. 10년 전인 1995년 51.4%에 비해서는 30.7%p 증가하였다.

<그림 III-2> 진학률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 주 : 1) 진학률= (상급학교 진학자 수/ 졸업생 수) × 100, 기타학교 진학 포함
 2) 전문대학, 일반대학교, 교육대학 등 포함
 3)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00이 넘으므로 절사하였음

2. 빈곤청소년 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청소년 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수는 총 809,745가구이며, 1,513,352명이다. 2004년에 비해 56,064가구가 증가하였으며, 수급 인원은 89,264명이 증가하였다. 지난 5년간 동안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볼 수 있는데, 가구 수는 2001년 대비 16.0%, 인원은 6.6% 증가하였다.

〈표 III-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단위: 가구,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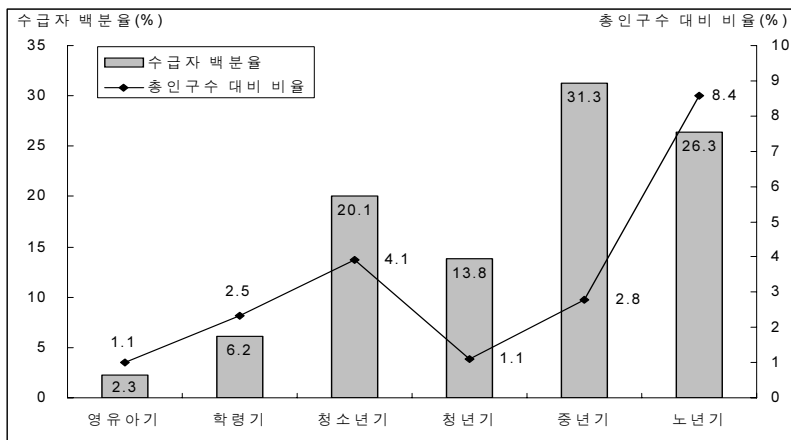
년도	가구	인원
2001	698,075	1,419,995
2002	691,018	1,351,185
2003	717,861	1,374,405
2004	753,681	1,424,088
2005	809,745	1,513,352

자료: 통계청(2006.7). 통계연감.

(2) 생애주기별 수급자 현황

200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현황을 생애주기별로 보면, 중년기(40~64세)가 31.3%로 가장 높으며, 노년기(65세 이상) 26.3%, 청소년기(10~19세) 20.1%, 영유아기(0~4세) 2.3% 등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수를 총인구수와 대비해보면, 영유아기는 1.1%, 학령기는 2.5%, 청소년기는 4.1%, 청소년기는 1.1%, 중년기는 2.8%, 노년기는 8.4%로 나타난다.

〈그림 III-3〉 생애주기별 수급자 백분율 및 수급률 분포(총괄)



주: 1) 생애주기는 영유아기(0~4세), 학령기(5~9세), 청소년기(10~19세), 청년기(20~39세), 중년기(40~64세), 노년기(65세 이상)로 분류함.

2) 통계청(2004). 장래인구추계.

수급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는 노년기(34.0%)가, 남자는 중년기(35.4%)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높기 때문에 보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경우에는 남자가 24.1%로 여자의 17.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4〉 남녀의 수급자 백분율

단위: %

구분	계	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남자	100.0	2.8	7.6	24.1	14.3	35.4	15.8
여자	100.0	1.9	5.2	17.2	13.4	28.3	34

주: 영유아기(0~4세), 학령기(5~9세), 청소년기(10~19세), 청년기(20~39세), 중년기(40~64세), 노년기(65세 이상)

(3) 청소년수급자 현황

200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총 1,337,714명 중에서 10~24세의 청소년수급자는 23.9%인 319,301명이며, 청소년 수급자 중에서 10대 청소년인 10~19세의 경우는 268,980명, 20~24세는 50,32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10~14세 청소년의 경우에는 2002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나, 15~19세와 20~24세의 경우에는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I-5〉 청소년수급자 연령별 현황(연도별)

단위: 명

연도	전체수급자	10~14세	15~19세	20~24세
2001	1,345,526	115,583	162,075	53,581
2002	1,275,625	112,077	146,612	51,348
2003	1,292,690	116,868	140,609	51,018
2004	1,337,714	127,251	141,729	50,321

자료: 보건복지부(2004). 기초생활보장통계자료.

지역별로 10~24세의 청소년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42,0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38,258명), 전남(28,252명), 전북(26,244

명), 부산(26,177명), 경북(25,478명), 대구(21,141명), 경남(21,084명) 등으로, 수도권지역에 가장 많고, 각 지역별로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20~24세의 수급자만을 살펴보면, 경기도(5,169명)보다 서울(5,885명), 전남(5,460명)의 청소년 수급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 청소년수급자 연령별 현황(지역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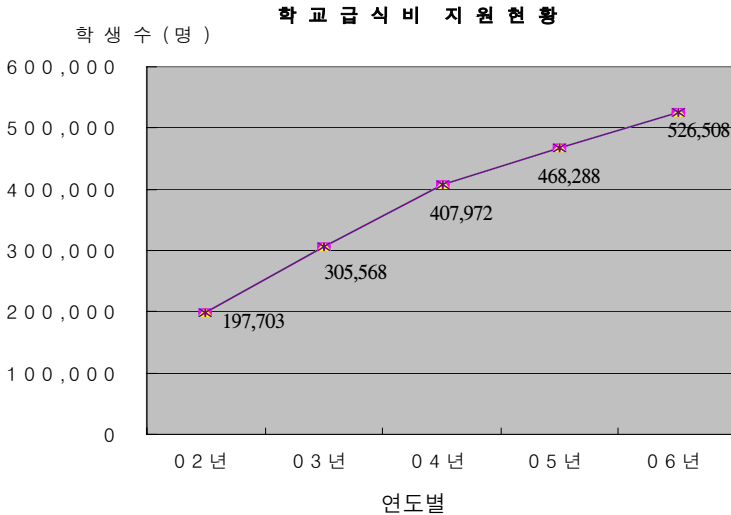
지역	합계(10~24세)	10~14세	15~19세	20~24세
서울	38,258	15,357	17,016	5,885
부산	26,177	10,304	11,855	4,018
대구	21,141	8,576	9,530	3,035
인천	14,462	6,184	6,613	1,665
광주	15,260	6,307	6,481	2,472
대전	10,371	4,380	4,617	1,374
울산	4,227	1,848	1,876	503
경기	42,022	18,187	18,666	5,169
강원	7,610	4,902	5,560	2,158
충북	12,037	4,808	5,316	1,913
충남	16,459	6,380	7,339	2,740
전북	26,244	9,790	11,389	5,065
전남	28,252	10,361	12,431	5,460
경북	25,478	9,343	11,334	4,801
경남	21,084	8,327	9,478	3,279
제주	5,209	2,197	2,228	784

자료: 보건복지부(2004). 기초생활보장통계자료.

2) 무료급식 지원 청소년 현황

교육인적자원부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현황’자료에 의하면, 2006년 4월 20일을 기준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생 52만 6000여명에게 연간 1,755억원의 학교무료급식비를 지원해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동월대비 지원 인원 5만 8000명, 지원액은 308억원 증가된 것으로 무료급식을 제공받은 학생은 전체학생의 6.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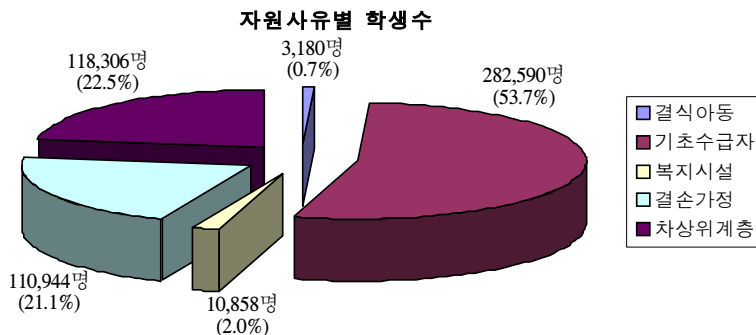
<그림 III-4> 학교급식비 지원현황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6.4.19). 학교체육보건급식과 보도자료

지원 학생을 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21만 2,247명(전체 초등학생의 5.4%), 중학생이 15만 6,674명(7.6%), 고등학생이 15만 7,587명(9.0%)이며, 지원 사유별 현황은, 결식아동 3,810명(0.7%),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 282,590명(53.7%), 복지시설 수용학생 10,858명(2.0%), 모·부자 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등 결손가정 학생이 110,944명(21.1%) 차상위계층의 자녀가 118,306명(22.5%)이다.

<그림 III-5> 무료급식지원사유별 학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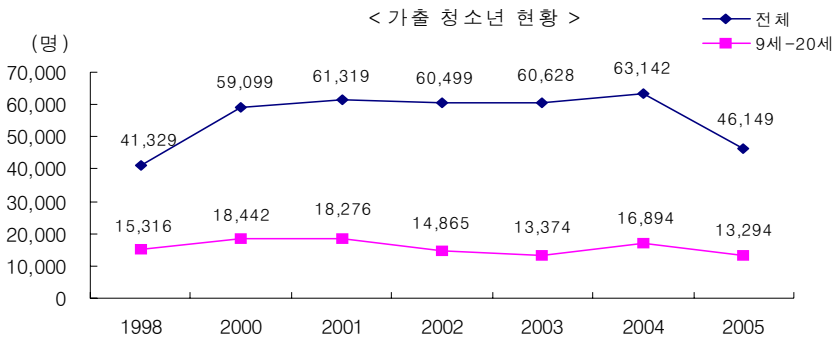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6.4.19). 학교체육보건급식과 보도자료

3. 가출청소년 현황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2005년에 9세부터 20세 미만의 가출청소년은 13,294명으로 2004년의 26,894명에 비해 21.3%나 감소했다. 이는 전체 가출자 46,149명의 28.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가출청소년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가 53.4%(7,099명), 남자가 46.6%(6,195명)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많이 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6> 가출청소년 현황



자료 : 통계청(2006). 청소년통계.

경찰청에서 발생한 가출청소년(9-20세) 발생건수는 2004년도에 16,894건으로 이 중 14,948건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였고, 1,946건의 경우에는 미귀가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 가출청소년 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명

년도	총 발생건수	보호자통보	미귀가
2002	14,865	12,926	1,939
2003	13,374	12,547	827
2004	16,894	14,948	1,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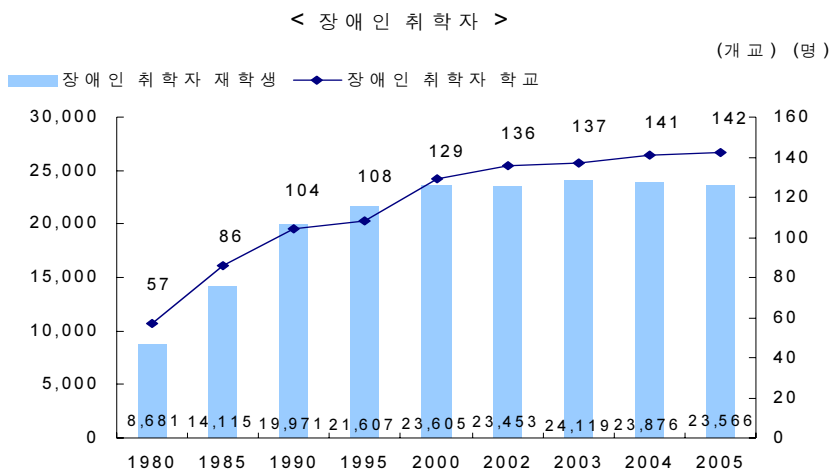
자료: 경찰청(www.police.go.kr)(2005). 경찰백서.

4. 장애청소년 현황

1) 장애인 학교 취학자 수

2005년도 장애인 학교는 142개교로 재학생은 23,566명이다. 재학생 장애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정신지체」가 72.9%로 가장 많고, 「지체부자유」 13.3%, 「청각장애」 7.7%, 「시각장애」 6.2% 순이다. 재학생수는 전년대비 1.3% 감소하였는데, 청각장애인 취학자가 8.4%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그 다음은 지체부자유인으로 3.2%의 감소율을 보였다. 10년 전(1995년)과 비교해보면, 장애인 학교 수와 총재학생은 각각 31.5%, 9.1% 증가한 반면, 청각장애인 수는 46.8% 감소하였다.

<그림 III-7> 장애인취학자



자료:교육인적자원부(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주:1990년 자료는 장애유형에서 「기타」 제외함

2) 장애청소년 진로 현황

장애청소년 진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장애청소년 졸업자 1,941명 중에서 32.6%인 633명이 진학자이며, 30.4%인 591명은 취업자, 그리고 36.9%인 717명은 무직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장애의

경우에 졸업자 172명 중 32.6%(56명)가 진학자이고, 55.2%(95명)가 취업자, 그리고 12.2%(21명)가 무직자이다. 청각장애의 경우에는 졸업자 163명 중 25.8%(42명)가 진학자이고, 65.0%(106명)가 취업자, 그리고 9.2%(15명)가 무직자이다. 정신지체의 경우에는 졸업자 1,211명 중 35.6%(431명)가 진학자이고, 25.5%(309명)가 취업자, 그리고 38.8%(471명)가 무직자이다. 지체부자유 의 경우에는 졸업자 278명 중 30.2%(84명)가 진학자이고, 14.4%(40명)가 취업자, 그리고 55.4%(154명)가 무직자이다. 정서장애의 경우에는 졸업자 117명 중 17.1%(20명)가 진학자이고, 35.0%(41명)가 취업자, 그리고 47.9%(56명)가 무직자이다. 장애유형별로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의 경우에는 취업률이 높고 무직자 비율이 낮은 반면,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의 경우에는 취업률이 낮고 무직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8> 장애청소년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단위: 명

구분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무직자
시각장애	172	56	95	21
청각장애	163	42	106	15
정신지체	1,211	431	309	471
지체부자유	278	84	40	154
정서장애	117	20	41	56
계	1,941	633	591	717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5.4). 교육통계연보.

3) 성별, 연령별 장애청소년 인구

장애출현율을 기초로 2000년도 장애청소년 인구를 추정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0~24세의 청소년은 102,980명이며, 이 중 10~19세의 장애청소년은 62,819명, 20~24세 장애청소년은 40,161명으로 나타난다. 성별로 보면, 남자 장애청소년은 69,584명이고, 여자 장애청소년은 33,396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III-9〉 장애청소년인구 추정

단위 : %, 명

연령	남자	추정수	여자	추정수	전체	추정수
0-4세	0.36	6,254	0.31	4,671	0.33	10,925
5-9세	1	19,286	0.67	11,639	0.84	30,925
10-14세	1.06	19,344	0.5	8,230	0.8	27,574
15-19세	1.26	23,286	0.67	11,959	0.97	35,245
20-24세	2.15	26,954	0.77	13,207	1.36	40,161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IV. 학생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 학생청소년의 복지실태 및 욕구
3. 성별에 따른 복지실태 및 욕구
4. 거주지역에 따른 복지실태 및 욕구
5. 교급에 따른 복지실태 및 욕구
6. 소결

IV. 학생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학생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별·지역별·교급별 분포, 장애유무, 학교성적,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무료급식 수여 여부, 부모와의 동거여부, 결혼상태, 부모의 교육 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학생청소년의 전체 응답자 1,386명에 대한 성별, 지역별, 교급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에 남학생이 58.8%, 여학생이 41.2%였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 학생이 49.8%, 중소도시 학생이 33.7%, 농어촌 학생이 16.5%였고,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55.5%, 고등학생이 44.5%였다. 전체적으로 모집단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지만, 성별로는 모집단(남자 52.8%, 여자 47.2%)에 비해 남학생이 좀 더 많았고, 지역별로는 모집단(대도시 47.3%, 중소도시 38.9%, 농어촌 13.8%)에 비해 대도시 학생과 농어촌 학생이 조금 더 많았다. 그리고 교급별로는 모집단(중학생 53.3%, 고등학생 46.7%)에 비해 고등학생이 조금 더 많이 조사되었다.

〈표 IV-1〉 응답자의 성별, 지역별, 교급별 분포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815	58.8
	여자	571	41.2
	전체	1,386	100.0
지역별	대도시	690	49.8
	중소도시	467	33.7
	농어촌	229	16.5
	전체	1,386	100.0
교급별	중학교	769	55.5
	고등학교	617	44.5
	전체	1,386	100.0

학생청소년의 장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각·청각장애 및 발달장애, 지체장애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1,377명 중 2.7%인 37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표 IV-2〉 장애 유무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37(2.7)	1,340(97.3)	1,377(100.0)

학교 성적은 전체 1,364명 중에서 ‘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7.4%, ‘중’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59.4%, ‘하’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23.2%로,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적을 중간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상’이나 ‘하’는 실제의 경우보다 적었다.

〈표 IV-3〉 학교 성적

단위: 빈도(%)

상	중	하	전체
237(17.4)	811(59.4)	316(23.2)	1,364(100.0)

학생청소년의 빈곤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정형편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무료급식지원 수여 여부 등의 객관적인 측면을 모두 살펴보았다. 먼저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정형편의 경우에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380명 중 64.5%로 가장 많았고, 잘산다는 청소년은 18.5%, 어렵다는 청소년은 17.0%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은 20%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가정형편

단위: 빈도(%)

매우 어려운 편이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잘 사는 편이다	매우 잘사는 편이다	전체
23(1.7)	211(15.3)	890(64.5)	225(16.3)	31(2.2)	1,380(100.0)

그러나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전체 청소년 1,384명 중 5.2%인 71명이었으며, 무료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은 1,385명 중 10.0%인 13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및 무료급식지원 수여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급여 수여 여부	예	71	5.2
	아니오	1,004	72.5
	모름	309	22.3
	전체	1,384	100.0
무료급식지원 수여 여부	예	138	10.0
	아니오	1,132	81.7
	모름	115	8.3
	전체	1,385	100.0

청소년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모와의 동거여부와 결혼상태, 그리고 부모의 교육정도를 살펴보았다.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친부모, 편부모, 계부모 등과의 동거상태를 조사하였다. 현재 친부모 모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83.4%로 대부분이었으며, 친 어머니 또는 친아버지와 살고 있는 경우가 각각 5.4%, 3.3%이었다. 그리고 계모, 계부, 계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각각 0.7%, 1.2%, 1.5%였으며, 기타 가구의 경우는 4.5%로 나타났다.

〈표 IV-6〉 부모와의 동거 상태

단위: 빈도(%)

친부모 모두	친부+ 계모	계부+ 친모	친부	친모	계부모	기타	전체
1,146 (83.4)	10 (0.7)	17 (1.2)	46 (3.3)	74 (5.4)	20 (1.5)	61 (4.5)	1,374 (100.0)

부모의 결혼 상태는 현재 부모가 결혼 또는 재혼, 이혼, 별거, 사별 중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결혼 가정이 85.8%로 대부분이었으며, 이혼가정은 5.8%, 별거가정은 2.2%, 사별가정은 1.5%, 그리고 모른다는 응답은 4.7%였다.

〈표 IV-7〉 부모의 결혼 상태

단위: 빈도(%)

결혼 또는 재혼	이혼	별거	사별	모름	전체
1,176(85.8)	80(5.8)	30(2.2)	21(1.5)	63(4.7)	1,370(100.0)

부모의 교육 정도는 부모 각각에 대한 교육 정도를 조사하였다. 부모 모두 고졸인 경우(아버지 37.2%, 어머니 50.5%)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졸(아버지 26.4%, 어머니 19.0%)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모도 10%가 조금 넘었다.

〈표 IV-8〉 부모의 교육정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부	무학	10	0.7	모	무학	10	0.7
	초졸	55	4.0		초졸	37	2.7
	중졸	112	8.2		중졸	126	9.3
	고졸	510	37.2		고졸	683	50.5
	대졸	362	26.4		대졸	257	19.0
	대학원졸	182	13.3		대학원졸	80	5.9
	모름	141	10.2		모름	160	11.8
	전체	1,372	100.0		전체	1,353	100.0

2. 학생청소년의 복지실태 및 욕구

1) 기초생활실태 및 생존욕구

학생청소년의 생활환경파악을 위해 의식주, 의료·보건, 건강 등의 실태와 이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였다. 특히 지난 1년간의 의식주 생활과 질병 및 치료 경험, 그리고 흡연 및 음주행동으로 인한 신체적 건강과 더불어 심리 정서적 건강실태를 조사하였다.

(1) 의식주

학생청소년들의 지난 1년간의 의식주 생활을 살펴보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경험을 한 학생이 5.4%,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학생이 25.3%,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이나 더러운 옷을 입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0.8%, 혼자 사용하는 방이 없는 학생이 73.5%, 밖에서 자거나 밤새도록 돌아다닌 경험을 한 학생이 2.1%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규칙적인 식사습관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혼자 사용하는 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학생들에게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선행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학생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 밖으로 나가려 하는 경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정영숙 외, 1999: 178).

<표 IV-9> 지난 1년간 의식주 생활

단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하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적이 있다.	937 (68.9)	349 (25.7)	57 (4.2)	16 (1.2)	1,359 (100.0)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	78 (5.8)	264 (19.5)	706 (52.1)	307 (22.7)	1,355 (100.0)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이나 더러운 옷을 입은 적이 있다.	745 (55.1)	513 (38.0)	83 (0.1)	10 (0.7)	1,351 (100.0)
혼자 사용하는 내 방이 없다.	237 (17.5)	122 (9.0)	224 (16.6)	770 (56.9)	1,353 (100.0)
잘 곳이 없어서 밖에서 자거나 밤새도록 돌아다닌 적이 있다.	1,211 (90.0)	107 (7.9)	20 (1.5)	8 (0.6)	1,346 (100.0)

(2) 의료·보건

학생청소년들의 의료·보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1년 내 학교, 병원 등의 기관에서의 건강검진 유무, 질병 및 치료 경험, 질병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하였다. 지난 1년간 건강검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 1,367명 중 44.3%인 606명이고, 55.7%인 761명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지난 1년간 건강검진 경험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606(44.3)	761(55.7)	1,367(100.0)

지난 1년간의 질병 경험을 보면, 충치·잇몸질환이 25.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피부질환이 12.4%, 위장·내과질환이 9.9%, 각종 사고가 6.5%, 성관련 문제나 질병이 0.5%, 당뇨, 고혈압, 심장혈관 질환 등의 만성질환이 0.4%,

백혈병, 암이 0.1%로 나타났다. 학생청소년들은 성장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치과,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많았다.

〈표 IV-11〉 지난 1년간 질병 경험

단위: 빈도(%)

각종 사고	충치잇몸 질환	위장내 과질환	성문제 질병	만성 질환	백혈병. 암	피부 질환	질병 없음	전체
98 (6.5)	386 (25.7)	149 (9.9)	8 (0.5)	6 (0.4)	2 (0.1)	187 (12.4)	668 (44.4)	1,504 (100.0)

질병에 대한 치료는 전체 662명 중 78.1%인 517명이 치료를 하였지만, 21.9%인 145명은 치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질병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약 1/5에 해당하며 지난 1년 내에 많은 학생들이 질병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이다.

〈표 IV-12〉 질병치료 유무

단위: 빈도(%)

예	아니오	전체
517(78.1)	145(21.9)	662(100.0)

학생청소년들이 질병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로는 귀찮아서(46.4%)나 가벼운 증세(32.9%)가 가장 많았으며,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받지 않은 경우도 4.3%로 나타났다. 이 밖에 무서워서 2.9%, 의논할 사람이 없어서 2.1%, 거리가 멀어서 1.4%, 몸이 불편해서 1.4%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생청소년들의 질병치료에 대한 인식이 부주의한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으며, 향후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의료·보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13〉 질병치료 받지 않은 이유

단위: 빈도(%)

가벼운 증세	치료비 없어서	거리가 멀어서	의료 보험 없어서	의논할 사람 없어서	무서워서	귀찮아서	몸이 불편해서	기타	전체
46 (32.9)	6 (4.3)	2 (1.4)	-	3 (2.1)	4 (2.9)	65 (46.4)	2 (1.4)	12 (8.6)	140 (100.0)

(3) 건강

청소년들의 건강은 심리정서적인 측면과 신체적인 측면을 조사하였다. 심리적인 측면으로서 자아존중감과 우울·불안, 그리고 신체적 건강의 측면으로서 음주 및 흡연행동, 자살행위나 자살기도를 조사하였다.

심리·정서적 건강측면으로는 자아존중감과 우울·불안, 비행 등의 심리·사회적 적응문제를 조사하였다.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들에게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묻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은 문항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4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다. 10문항의 합산 점수는 10점에서 40점의 범위를 가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문항간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0.89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은 총점 40점에 평균 29.53점(표준편차 5.67)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상균(1999) 연구의 일반 중·고등학생의 평균 자아존중감 27.84점(표준편차 4.77), 그리고 허남순 외(2005) 연구의 빈곤청소년의 평균 자아존중감 28.99점(표준편차 5.08)보다 약간 높은 것이다.

〈표 IV-14〉 자아존중감

단위: 빈도(%)

영역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아존중감	1,358	29.53	5.67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측면으로는 Achenbach(1991)의 행동조사표를 이용한 청소년의 문제행동 증후군 9개의 하위범주(사회적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 정체감) 중에서 우울·불안(14문항)과 비행(11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 간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우울·불안이 0.85, 비행이 0.70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우울·불안이 평균 7.73점(표준편차 5.13), 비행은 평균 2.41점(표준편차 2.12)을 나타냈다. 이는 허남순 외(2005)의 연구에서 빈곤아동의 우울·불안 평균 4.16점(표준편차 4.50), 비행 평균 1.39점(표준편차 1.78)에 비해 높은 것으로, 우울·불안의 심리정서 문제와 비행의 행동문제에 대해 빈곤아동에 비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 심리·사회적 적응

단위: 빈도(%)

영역	빈도	평균	표준편차
우울·불안	1,369	7.73	5.13
비행	1,373	2.41	2.12

결과적으로 학생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건강 문제는 자아존중감은 과거에 비해 비교적 높아졌다고 할 수 있으나, 우울·불안, 비행행동 등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문제는 보다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앞에서 제시한 심리·사회적 적응의 문제 이외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주 행해지고 있는 흡연, 음주, 자해행위나 자살기도 등의 행동을 조사하였다.

학생청소년들 중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전체 1,373명 중 6.3%였으며, 하루에 반 갑 이상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있는 청소년은 2.8%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도에 청소년위원회(2006)에서 조사된 중·고등학생 흡연율 8.6%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이다.

〈표 IV-16〉 흡연 정도

단위: 빈도(%)

안 피운다	어쩌다 하나씩	하루에 반 갑 정도	하루에 한 갑 이상	전체
1,286(93.7)	48(3.5)	35(2.5)	4(0.3)	1,373(100.0)

음주의 경우에는 전체 1,369명 중 33.7%가 경험이 있었는데, 이 중 30.5%는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만 음주를 하였으며, 1 주일에 1번 이상의 상습적인 음주 청소년은 3.2%로 나타났다. 2005년도의 청소년위원회(2006) 조사 결과인 중·고등학생 음주율 36.6%에 비해서는 조금 낮았다.

〈표 IV-17〉 평소 음주량

단위: 빈도(%)

마신 적 없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1주일에 1-2번 정도	1달에 1-2번 정도	거의 매일	전체
908(66.3)	417(30.5)	10(0.7)	29(2.1)	5(0.4)	1,369(100.0)

학생청소년들의 자해행위나 자살기도의 경험은 전체 1,350명 중 10.3%인 139명이 경험이 있었다. 이는 학생청소년 중 약 1/1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표 IV-18〉 자해행위나 자살기도 경험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139(10.3)	1,211(89.7)	1,350(100.0)

자해행위나 자살기도 경험이 있는 120명 중에서 자해행위나 자살기도 횟수를 보면, 5회 이상이 33.1%로 가장 많고, 2회가 24.2%, 1회 또는 3회가 각각 16.7%, 4회가 9.2% 등으로 나타났다. 일단 자살행동을 한 청소년들에게 자해행위나 자살기도가 반복됨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

에 대한 집중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표 IV-19〉 자해행위나 자살기도 횟수

단위: 빈도(%)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전체
20(16.7)	29(24.2)	20(16.7)	11(9.2)	40(33.1)	120(100.0)

학생청소년 중에서 상습적으로 흡연이나 음주를 하고 있는 학생은 3% 내외이지만 자해행위나 자살기도의 경험이 있는 학생청소년은 1/1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자해행위나 자살기도는 흡연이나 음주의 경우보다도 청소년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 문화여가활동 및 발달욕구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교육, 정보·문화, 여가, 직업, 지역사회 시설 및 서비스, 성·문제행동 등의 실태와 이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였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주요한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학교생활에서의 적응 문제와 진학에 대한 욕구, 정보·문화의 실태와 문제점, 여가 및 직업에 대한 욕구,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과 희망하는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욕구, 성정체성 문제와 지역사회에서의 피해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1) 교육

청소년 교육과 관련해서는 현재 학교에서의 생활 적응과 대학진학에 대한 욕구 등을 조사하였다.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은 대부분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일부 학생들의 경우는 잘 적응하지 못했다. 전체 1,383명 중 94.0%인 1,300명은 잘 적응하였으나 6.0%인 83명은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0〉 학교생활 적응

단위: 빈도(%)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	잘 적응하고 있는 편이다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551(39.8)	749(54.2)	65(4.7)	18(1.3)	1,383(100.0)

등교 현황을 통해서 학교생활 적응 현황을 파악해 보면, 전체 1,384명 중 약 1/5에 해당하는 22.2%가 지난 1년간 학교에 가지 않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1-2번 학교에 가지 않은 청소년이 17.3%로 대부분이었으며, 7일 정도가 3.1%, 보름 정도가 0.7%, 한 달 또는 그 이상이 1.1%로, 일주일 이상 학교에 가지 않은 학생을 합치면 4.6%가 된다.

〈표 IV-21〉 지난 1년 동안 학교 가지 않은 날

단위: 빈도(%)

없다	1-2번	7일 정도	보름 정도	한달 정도	한달 이상	전체
1,077(77.8)	239(17.3)	43(3.1)	10(0.7)	7(0.5)	8(0.6)	1,384(100.0)

학교에 가지 않은 경우 중에서 불가피하게 갈 수 없었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었던 경험과 그 이유를 조사하였다. 먼저 학교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었던 경험을 한 청소년은 전체 1,360명 중 5.4%인 73명이었으며, 94.6%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학교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었던 경험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73(5.4)	1,287(94.6)	1,360(100.0)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었던 이유로는 기타(64.3%)를 제외하고는 귀찮아서 또는 아침에 못 일어나서가 19.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교가 거부해서(4.8%), 가사를 돕기 위해(3.6%), 학비를 못 내서(2.4%), 부모님이 못 가게 해서(2.4%), 가출을 해서(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학생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가 결석의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가사일, 학비부담, 부모만류 등 가정문제도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건강 증진 노력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V-23〉 학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었던 이유

단위 : 명, %

항목	빈도	백분율
학비를 못 내서	2	2.4
가사를 돕기 위해	3	3.6
부모님이 못 가게 해서	2	2.4
학교가 거부해서	4	4.8
귀찮아서 혹은 아침에 못 일어나서	16	19.0
등하교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1	1.2
가출을 해서	2	2.4
기타	54	64.3
전체	84	100.0

학생청소년들의 진학에 대한 욕구는 대학 진학 가능 여부와 이유 등을 조사하였다. 대학 진학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1,379명의 중·고등학생 중 71.4%가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28.6%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IV-24〉 대학 진학 가능 여부

단위: 빈도(%)

예	아니오	전체
985(71.4)	394(28.6)	1,379(100.0)

대학 진학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로는 성적이 안 좋은 것(90.0%)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인 문제(5.9%), 장애(1.0%) 등으로 나타났다. 대학 진학 결정에 성적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었으나, 이 밖에도 경제적인 문제도 대학 진학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IV-25〉 대학 진학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

단위: 빈도(%)

성적이 안 좋아서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님의 무관심으로	장애 때문에	기타	전체
350(90.0)	23(5.9)	-	4(1.0)	12(3.1)	389(100.0)

경제적인 이유로 과외나 학원을 다니지 못한 경험을 한 청소년은 16.1%이며, 83.9%의 청소년들은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 1/6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과외나 학원 등의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V-26〉 경제적인 이유로 과외나 학원을 못 다닌 경험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223(16.1)	1,159(83.9)	1,382(100.0)

(2) 정보·문화

청소년들의 정보문화생활 및 욕구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컴퓨터, 이동전화, PSP, DMB의 소유 여부, 사용시간, 사용용도 등을 조사하였다.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67.0%의 학생들이 이동전화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PSP, DMB의 경우에는 약 3%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컴퓨터의 경우를 보면, 전체 1,380명 중 96.7%의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으며,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청소년은 3.3%에 불과하였다.

〈표 IV-27〉 컴퓨터 소유 여부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1,334(96.7)	46(3.3)	1,380(100.0)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인터넷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97.9%의 청소년들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2.1%의 청소년만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컴퓨터가 인터넷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8〉 인터넷 가능 여부

단위: 빈도(%)

예	아니오	전체
1,246(97.9)	27(2.1)	1,273(100.0)

청소년들의 이동전화, PSP, DMB 등의 정보매체는 이동전화의 경우에 61.0%의 많은 학생청소년들이 가지고 있었으며, PSP는 3.9%, DMB는 3.4%였고,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은 32.0%로 나타났다.

〈표 IV-29〉 정보 매체 소유

단위: 빈도(%)

이동전화	PSP	DMB	가지고 있지않다	전체
837(61.0)	51(3.9)	47(3.4)	440(32.0)	1,375(100.0)

이들 정보매체에 대한 사용시간은 인터넷의 경우에는 1-3시간(49.0%)이 가장 많았으며, 전화(이동전화), PSP, DMB의 경우에는 1시간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화(이동전화)의 경우에는 5시간의 장시간 사용하는 청소년도 10.2%나 되어서 통신비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IV-30> 정보매체 이용시간

단위: 빈도(%)

항목	없음	1시간 미만	1-3시간	3-5시간	5시간 이상	전체
인터넷	89 (6.4)	439 (31.7)	679 (49.0)	124 (8.9)	55 (4.0)	1,386 (100.0)
전화 (이동전화)	387 (27.9)	639 (46.1)	167 (12.0)	51 (3.7)	142 (10.2)	1,368 (100.0)
PSP	1,319 (95.2)	49 (3.5)	10 (0.7)	-	8 (0.6)	1,368 (100.0)
DMB	1,323 (95.5)	50 (3.6)	6 (0.4)	2 (0.1)	5 (0.4)	1,368 (100.0)

정보매체의 사용용도는 매체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인터넷의 경우에는 게임이나 오락이 43.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정보검색이 19.3%, 커뮤니티, 메신저, 통신, 채팅 등의 교제통신이 16.0%, 여가활동이 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화(이동전화)의 경우에는 교제통신(39.4%)으로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여가활동(7.1%)이나 게임·오락(3.5%), 정보검색(2.0%)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SP의 경우에는 게임·오락(3.5%)으로의 사용이 가장 두드러지고, DMB의 경우에는 여가활동(1.4%)과 게임·오락(0.9%)의 사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 정보매체 이용용도

단위: 빈도(%)

항목	없음	정보 검색	게임 오락	학습 교육	교제 통신	여가 활동	쇼핑 예약	동호 회	신문 뉴스 잡지	기타	전체
인터넷	62 (4.5)	263 (19.3)	606 (43.7)	37 (2.7)	222 (16.0)	126 (9.1)	27 (1.9)	4 (0.3)	13 (0.9)	21 (1.5)	1,381 (100.0)
전화 (이동 전화)	408 (29.4)	28 (2.0)	49 (3.5)	9 (0.6)	546 (39.4)	98 (7.1)	3 (0.2)	8 (0.6)	1 (0.1)	236 (17.0)	1,386 (100.0)
PSP	1,319 (95.2)	1 (0.1)	48 (3.5)	3 (0.2)	3 (0.2)	4 (0.3)	1 (0.1)	-	-	7 (0.5)	1,386 (100.0)
DMB	1,330 (96.0)	2 (0.1)	13 (0.9)	2 (0.1)	4 (0.3)	20 (1.4)	1 (0.1)	-	6 (0.4)	8 (0.6)	1,386 (100.0)

1달 평균 통신비용은 3-5만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3만원(23.5%), 5-7만원(21.5%) 등으로 약 80%정도의 청소년들이 7만원 미만의 통신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만원 이상의 통신비용을 지불하는 청소년들도 8.2%나 되었는데, 이 중에는 100만원 이상을 통신비용으로 지불한 경우도 있었다.

<표 IV-32> 1달 평균 통신비용

단위: 빈도(%)

1만원미만	1-3만원	3-5만원	5-7만원	7-9만원	9만원이상	전체
66(6.1)	259(23.5)	383(34.7)	238(21.5)	76(6.9)	89(8.2)	1,111(100.0)

과중한 통신비용으로 인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청소년은 전체 1,341명 중 18.9%인 25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정보매체의 이용에서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한도에서 사용하여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보매체 이용시간과 연계시켜 생각해 보면, 전화(이동전화)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비용 상승이 심리적 부담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표 IV-33〉 통신비용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254(18.9)	1,087(81.1)	1,341(100.0)

(3) 여가

학생청소년의 여가활동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여가시간에 하고 있는 활동과 희망하는 여가활동, 여가활동의 어려운 점 등을 조사하였다. 학생청소년들이 현재 여가시간에 하고 있는 활동으로는 인터넷이나 컴퓨터게임(21.3%)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TV시청(20.5%), 집에서의 휴식(11.9%), 친구만나기(11.4%), 음악·영화감상(10.0%) 등의 활동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학생청소년의 여가활동이 야외보다는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많았으며,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보다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들이 많았다.

〈표 IV-34〉 여가시간에 많이 하고 있는 활동

(중복응답)

항목	빈도(%)	순위	항목	빈도(%)	순위
인터넷·컴퓨터게임	871(21.3)	1	개인적 학습활동	90(2.2)	10
TV시청	838(20.5)	2	예술활동	66(1.6)	11
집에서 휴식하기	488(11.9)	3	쇼핑	59(1.4)	12
친구만나기	465(11.4)	4	산책	48(1.2)	13
음악·영화감상	410(10.0)	5	종교활동	41(1.0)	14
취미활동	190(4.7)	6	동아리활동	14(0.3)	15
독서	168(4.1)	7	여행	14(0.3)	15
집안일 돕기	160(3.9)	8	아르바이트	13(0.3)	16
스포츠 활동	146(3.6)	9	자원봉사	5(0.1)	17

그러나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여가활동은 여행이 16.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영화·음악감상(8.4%), 아르바이트(7.6%), 쇼핑(7.3%), 취미활동(7.3%), 스포츠 활동(7.0%) 등으로 청소년들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여가활동 보다는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5〉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중복응답)

항목	빈도(%)	순위	항목	빈도(%)	순위
여행	657(16.2)	1	독서	198(4.9)	10
음악·영화감상	340(8.4)	2	예술활동	188(4.6)	11
아르바이트	309(7.6)	3	집에서 휴식	165(4.1)	12
쇼핑	298(7.3)	4	동아리활동	157(3.9)	13
취미활동	296(7.3)	5	개인적 학습활동	157(3.9)	13
스포츠활동	285(7.0)	6	자원봉사	109(2.7)	14
인터넷·컴퓨터게임	223(5.5)	7	집안일돕기	109(2.7)	14
친구만나기	220(5.4)	8	TV시청	107(2.6)	15
산책	199(4.9)	9	종교활동	40(1.0)	16

청소년들의 여가나 취미활동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시간부족(65.4%)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여가활동비용에 대한 부담(47.2%), 적절한 장소나 시설의 부족(45.2%), 프로그램의 부족(40.5%), 편의시설 부족(37.6%), 정보 부족(31.8%), 교통 혼잡 및 이용교통수단의 불편(2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들은 여행, 영화·음악감상, 쇼핑, 취미활동 등의 다양하고 활동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싶으나 시간이나 비용, 프로그램의 부족 등으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인터넷·컴퓨터게임, TV시청, 집에서의 휴식 등의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IV-36> 여가나 취미활동의 어려운 점

단위: 빈도(%)

항목	그렇다	아니다	전체
시간이 부족하다	904(65.4)	479(34.6)	1,383(100.0)
비용이 부담된다	653(47.2)	730(52.8)	1,383(100.0)
함께 할 사람이 없다	247(17.9)	1,136(82.1)	1,383(100.0)
적절한 장소 및 시설이 없다	624(45.2)	758(54.8)	1,382(100.0)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440(31.8)	942(68.2)	1,382(100.0)
프로그램이 마땅치 않다	560(40.5)	822(59.5)	1,382(100.0)
교통 혼잡 및 이용교통수단이 불편하다	396(28.6)	987(71.4)	1,383(100.0)
여가시설 내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520(37.6)	863(62.4)	1,383(100.0)
건강이나 체력이 부족하다	191(13.8)	1,192(86.2)	1,383(100.0)

(4) 직업

학생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장래 희망 직업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16.5%의 학생청소년들이 교사를 장래의 직업으로 희망하여 가장 우선순위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무원(10.3%), 의사 또는 약사(6.5%), 판사, 변호사, 검사 등의 법조인(5.2%), 작가, PD, 기자, 아나운서 등의 방송관계자(4.9%), 요리사(4.6%), 사업가나 전문경영인(3.5%), 과학자(3.3%), 경찰(3.1%), 의상디자이너(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많은 학생들이 교사, 공무원 등을 우선시 하는 것은 수입보다는 직업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IV-37> 장래 희망 직업

항목	빈도(%)	순위	항목	빈도(%)	순위
교사	451(16.5)	1	요리사	125(4.6)	6
공무원	283(10.3)	2	사업가·전문경영인	95(3.5)	7
의사, 약사	177(6.5)	3	과학자	89(3.3)	8
판사, 변호사, 검사	141(5.2)	4	경찰	84(3.1)	9
방송관계자	134(4.9)	5	의상디자이너	80(2.9)	10

(5) 지역사회 시설 및 서비스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시설과 서비스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실제로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시설이나 서비스가 청소년들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이나 서비스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청소년들의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의 공공이용시설의 인지도가 가장 높고 이용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의 경우에는 89.1%의 청소년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 70.7%가 이용하였다. 도서관의 경우에도 94.5%의 청소년이 인지하고 있었고, 79.4%의 청소년이 이용하였다. 그리고 미술관의 경우에는 83.3%의 청소년이 알고 있었으나, 53.0%가 이용해 인지도에 비해 이용도가 다소 떨어졌다.

또한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의 청소년시설도 청소년들의 인지도는 높으나 이용 경험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의 자연권 수련시설의 경우에는 78.5%가 알고 있었으나, 과반수가 조금 넘는 56.5%만이 이용하였다.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등의 생활권수련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70.3%로 자연권수련시설보다 조금 떨어졌으며, 이용경험도 35.0%만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는 63.9%의 청소년들이 알고 있었으나 7.2%만이 이용경험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것에 비해서 이용률이 크게 떨어졌다. 청소년상담센터의 경우에도 65.8%의 청소년들이 알고 있었으나, 단지 2.8%만이 이용해 이용률이 매우 떨어졌다.

청소년공부방과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과반수가 조금 넘는 청소년들이 알고 있었으며 10%내외의 청소년들이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는 50.2%였으며, 15.1%의 청소년들이 이용하였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지도는 62.3%였으며, 9.3%의 청소년들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쉼터, 그룹 홈, 미혼모시설,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 등은 보호시

설은 시설의 특성상 청소년들의 인지도 및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각각 살펴보면, 청소년쉼터는 45.3%의 인지도와 5.2%의 이용률을, 그룹 홈은 26.6%의 인지도와 1.9%의 이용률을, 미혼모시설은 32.8%의 인지도와 0.8%의 이용률을, 그리고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42.4%의 인지도와 0.8%의 이용률을 나타냈다.

이 밖에 고용안정센터, 직업훈련원, 청소년자활지원관 등의 직업 관련 시설과 근로청소년회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각각 살펴보면, 고용안정센터는 32.1%의 인지도와 1.0%의 이용률을, 직업훈련원은 42.8%의 인지도와 4.4%의 이용률을, 청소년자활지원관은 34.0%의 인지도와 2.0%의 이용률을, 그리고 근로청소년회관은 29.7%의 인지도와 4.2%의 이용률을 나타냈다.

<표 IV-38>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인지 및 이용여부

단위: 빈도(%)

항목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으나 이용한 적 없다	이용해 본적 있다	전체
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	380(29.3)	464(35.7)	454(35.0)	1,298(100.0)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281(21.5)	287(22.0)	738(56.5)	1,306(100.0)
근로청소년회관	898(70.4)	325(25.5)	53(4.2)	1,276(100.0)
청소년공부방	437(49.8)	449(35.1)	193(15.1)	1,279(100.0)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483(37.7)	680(53.0)	119(9.3)	1,282(100.0)
청소년자활지원관	842(66.0)	408(32.0)	26(2.0)	1,276(100.0)
청소년쉼터	699(54.7)	512(40.1)	67(5.2)	1,278(100.0)
그룹 홈 (공동생활가정)	934(73.4)	314(24.7)	24(1.9)	1,272(100.0)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센터	735(57.6)	531(41.6)	10(0.8)	1,276(100.0)

항목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으나 이용한 적 없다	이용해 본적 있다	전체
청소년상담센터	437(34.2)	804(63.0)	36(2.8)	1,277(100.0)
자원봉사센터	463(36.2)	723(56.6)	92(7.2)	1,278(100.0)
고용안정센터	865(67.8)	397(31.1)	13(1.0)	1,275(100.0)
미혼모시설	855(67.2)	407(32.0)	10(0.8)	1,272(100.0)
직업훈련원 (구 직업보도원)	794(62.2)	464(38.4)	18(4.4)	1,276(100.0)
박물관	142(10.9)	240(18.4)	920(70.7)	1,302(100.0)
도서관	72(5.5)	198(15.1)	1,039(79.4)	1,309(100.0)
미술관	209(16.2)	392(30.3)	693(53.0)	1,294(100.0)

청소년 관련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시설에 대한 이용도가 가장 높았던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 등의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80%이상이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그룹 홈, 청소년상담센터, 자원봉사센터, 미혼모시설 등도 80%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 밖의 시설의 경우에는 60%~70%, 특히, 자연권수련시설과 고용안정센터 등에는 50%대로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IV-39〉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만족도

단위: 빈도(%)

항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전체
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	20(4.4)	105(23.3)	271(60.1)	55(12.2)	451(100.0)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92(12.8)	206(28.7)	366(51.0)	54(7.5)	718(100.0)
근로청소년회관	4(7.5)	15(26.4)	26(49.1)	9(17.0)	53(100.0)
청소년공부방	9(5.2)	34(19.5)	95(54.6)	36(20.7)	174(100.0)

항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5(4.3)	17(14.8)	67(58.3)	26(22.6)	115(100.0)
청소년자활지원관	4(14.8)	5(18.5)	11(40.7)	7(25.9)	27(100.0)
청소년쉼터	3(5.4)	6(10.7)	26(46.4)	21(37.5)	56(100.0)
그룹 홈 (공동생활가정)	2(10.0)	-	8(40.0)	10(50.0)	20(100.0)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센터	2(22.2)	1(11.1)	1(11.1)	5(55.6)	9(100.0)
청소년상담센터	3(7.5)	4(10.0)	20(50.0)	13(32.5)	40(100.0)
자원봉사센터	2(2.3)	12(13.8)	53(60.9)	20(23.0)	87(100.0)
고용안정센터	1(8.3)	4(33.3)	2(16.7)	5(41.7)	12(100.0)
미혼모시설	1(10.0)	1(10.0)	4(40.0)	4(40.0)	10(100.0)
직업훈련원 (구 직업보도원)	2(11.8)	2(11.8)	7(41.2)	6(35.3)	17(100.0)
박물관	25(2.8)	96(10.8)	554(62.0)	218(24.4)	893(100.0)
도서관	39(3.9)	141(14.0)	568(56.3)	260(25.8)	1008(100.0)
미술관	15(2.2)	81(11.8)	412(60.2)	176(25.7)	684(100.0)

시설별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그룹 홈에 만족하는 청소년은 90.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박물관(86.4%), 미술관(85.9%), 자원봉사센터(83.9%), 청소년쉼터(83.9%), 청소년상담센터(82.5%), 도서관(82.1%), 종합사회복지관(80.9%), 미혼모시설(80.0%), 직업훈련원(76.5%), 청소년공부방(75.3%), 생활권 수련시설(72.3%),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66.7%), 청소년자활지원관(66.6%), 근로청소년회관(66.1%), 자연권 수련시설(58.5%), 고용안정센터(5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가장 이용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 관련 시설로는 만족도가 높았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우선순위가 1~3순위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의 자연권수련원, 청소년공

부방, 청소년상담센터, 직업훈련원, 자원봉사센터, 그룹 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40> 가장 이용하고 싶은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항목	빈도(%)	순위	항목	빈도(%)	순위
도서관	511(20.8)	1	청소년공부방	169(6.9)	6
박물관	378(15.4)	2	청소년상담센터	123(5.0)	7
미술관	315(12.8)	3	직업훈련원 (구직업보도원)	93(3.8)	8
청소년쉼터	313(12.7)	4	자원봉사센터	77(3.1)	9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205(8.3)	5	그룹 홈 (공동생활가정)	47(1.9)	10

국가 혹은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의 청소년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 복지 서비스의 인지도는 청소년 복지 서비스 중에서 성교육에 대한 인지도가 71.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69.5%), 캠프 등의 1박 이상의 프로그램(65.8%), 문화·예술활동(65.5%), 학업 및 학습지도(61.8%), 질병상담 및 무료건강검진(60.7%), 개별상담(54.1%), 인권교육(53.7%), 치료비 지원(53.5%), 가족상담(52.1%), 숙식제공(51.4%), 약물예방교육(51.0%) 등의 순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복지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 이용률은 캠프(34.6%)와 성교육(30.3%)이 30%대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활동(19.9%), 학업 및 학습지도(15.0%),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11.0%), 약물예방교육(10.5%)은 10%대의 이용률을, 이 밖의 서비스에는 10% 미만의 낮은 이용률을 나타냈다.

〈표 IV-41〉 청소년 복지 서비스 인지 및 이용여부

단위: 빈도(%)

항목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으나 이용한 적 없다	이용해 본적 있다	전체
개별상담	584(45.9)	626(49.3)	61(4.8)	1,271(100.0)
가족상담	609(47.9)	583(45.8)	80(6.3)	1,272(100.0)
질병상담 및 무료건강 검진	500(39.3)	657(51.7)	115(9.0)	1,272(100.0)
아플 때 치료비 지원	589(46.5)	586(46.2)	93(7.3)	1,268(100.0)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388(30.5)	744(58.5)	140(11.0)	1,272(100.0)
학업 및 학습지도	484(38.2)	594(46.8)	190(15.0)	1,268(100.0)
숙식제공	615(48.6)	582(46.0)	69(5.5)	1,266(100.0)
캠프 등	438(34.2)	400(31.2)	444(34.6)	1,282(100.0)
문화·예술활동	438(34.5)	578(45.6)	252(19.9)	1,268(100.0)
약물예방교육	618(49.0)	511(40.5)	132(10.5)	1,261(100.0)
성교육	367(28.9)	517(40.7)	385(30.3)	1,269(100.0)
인권교육	582(46.3)	561(44.6)	115(9.1)	1,258(100.0)

청소년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70%~80%의 청소년들이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서비스별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질병상담 및 무료건강검진(91.1%)이 가장 높았으며 가족상담(89.0%),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88.8%), 문화·예술활동(85.9%), 개별상담(85.2%), 아플 때 치료비 지원(83.5%)등은 80%대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학업 및 학습지도(79.9%), 인권교육(79.1%), 숙식제공(73.7%), 약물예방교육(72.6%), 성교육(72.4%)등은 70%대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표 IV-42〉 청소년 복지 서비스 만족도

단위: 빈도(%)

항목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전체
개별상담	3(5.6)	5(9.3)	36(66.7)	10(18.5)	54(100.0)
가족상담	2(2.7)	6(8.2)	40(54.8)	25(34.2)	73(100.0)
질병상담 및 무료건강 검진	1(1.0)	8(7.8)	59(57.8)	34(33.3)	102(100.0)
아플 때 치료비 지원	4(4.7)	10(11.8)	39(45.9)	32(37.6)	85(100.0)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3(2.4)	11(8.8)	61(48.8)	50(40.0)	125(100.0)
학업 및 학습지도	8(4.5)	28(15.6)	100(55.9)	43(24.0)	179(100.0)
숙식제공	2(3.5)	13(22.8)	20(35.1)	22(38.6)	57(100.0)
캠프 등	31(7.5)	98(23.6)	211(50.7)	76(18.3)	416(100.0)
문화·예술활동	8(3.3)	26(10.8)	145(60.2)	62(25.7)	241(100.0)
약물예방교육	7(5.6)	27(21.8)	74(59.7)	16(12.9)	124(100.0)
성교육	30(8.1)	72(19.5)	199(53.8)	69(18.6)	370(100.0)
인권교육	6(5.5)	17(15.5)	58(52.7)	29(26.4)	110(100.0)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청소년 복지 서비스로는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캠프 등 1박이상의 수련활동, 성교육, 문화·예술활동, 치료비 지원, 질병 및 무료건강검진, 학업 및 학습지도, 개별상담, 인권교육, 가족상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43〉 가장 필요한 청소년 복지 서비스

항목	빈도(%)	순위	항목	빈도(%)	순위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299(12.4)	1	질병상담 및 무료건강검진	213(8.8)	6
캠프 등 1박이상의 수련활동	293(12.1)	2	학업/학습지도 (교과목지도 등)	188(7.8)	7
성교육	283(11.7)	3	개별상담	187(7.7)	8
문화·예술활동	247(10.2)	4	인권교육	186(7.7)	8
아플 때 치료비 지원	228(9.4)	5	가족상담	116(4.8)	9

(6) 성·문제행동

청소년기에 자칫 잘못하면 발달 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인권적 측면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문제인 성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성관계 경험, 경찰서 및 법적 처벌을 받은 경험, 그리고 가출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① 청소년 성문제

먼저 우리 사회에서 성과 관련된 논의 중에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청소년의 성정체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학생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서 90.6%가 이성애자라고 하였으며, 동성애자는 3.6%, 양성애자는 4.7%, 성전환자는 1.1%로 응답하였다. 청소년 가운데에서는 이성애자 이외에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등의 성정체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일정 정도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IV-44> 성정체성

단위: 빈도(%)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전체
1,179(90.6)	47(3.6)	61(4.7)	14(1.1)	1,301(100.0)

또한 학생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으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3.2%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으로 인해 놀림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5> 성정체성으로 놀림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43(3.2)	1,319(96.8)	1,362(100.0)

성관계 경험은 2.1%의 학생청소년들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위원회(2006)의 2005년도 조사 결과인 4.5%보다는 다소 낮은 것이다. 또한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 중에서 임신하거나 임신 시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6.4%로 임신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6〉 성관계 및 임신 경험

단위: 빈도(%)

문항	있다	없다	전체
성관계 경험	29(2.1)	1,333(97.9)	1,362(100.0)
임신하거나 시킨 경험	14(26.4)	39(73.6)	53(100.0)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지식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성관계 시 피임여부에 대한 경험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성관계 경험이 있는 43명 중에서 79.1%인 34명의 청소년들이 피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따라서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IV-47〉 성관계 시 피임 여부

단위: 빈도(%)

예	아니오	전체
9(20.9)	34(79.1)	43(100.0)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성관계 시 피임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타의 응답을 제외하고는 상대가 싫어해서가 16.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구하기 힘들어서(10.0%)와 살 용기가 없어서(10.0%), 방법을 몰라서(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48〉 피임 하지 않은 이유

단위: 빈도(%)

구하기 힘들어서	살 용기가 없어서	방법을 몰라서	상대가 싫어해서	기타	전체
3(10.0)	3(10.0)	1(3.3)	5(16.7)	18(60.0)	30(100.0)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성매매 경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대가성 성관계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조사결과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16.7%의 청소년들이 대가성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9〉 대가성 성관계 경험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8(16.7)	40(83.3)	48(100.0)

② 청소년범죄

청소년 범죄 및 그로 인한 처벌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잡혀간 경험과 보호관찰 처벌 등의 법적 처분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전체 1,384명의 청소년들 중에서 경찰서에 잡혀 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5.2%로 나타났다. 또한 법적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 1,382명 중에서 1.7%인 23명에 달했다.

〈표 IV-50〉 경찰서 및 법적 처벌 경험

단위: 빈도(%)

문항	있다	없다	전체
경찰서에 잡혀 간 경험	72(5.2)	1,312(94.8)	1,384(100.0)
보호관찰 처벌 등 법적 처벌 경험	23(1.7)	1,359(98.3)	1,382(100.0)

③ 청소년 가출

청소년 문제행동 중에서 대표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 가출행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청소년 중에서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7.0%였으며, 현재 가출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은 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출경험이 있는 학생청소년 중에서 8.6%의 청소년들이 가출상태에 있는 것이다.

〈표 IV-51〉 현재 가출 상태

단위: 빈도(%)

그렇다	아니다	전체
8(0.6)	1,373(99.4)	1,381(100.0)

청소년 가출경험을 가출 횟수를 통해서 보면, 1번의 단순가출이 3.6%로 가장 많았고, 2번이 1.5%, 3~4번이 1.1%, 5~9번이 0.3%, 그리고 10번 이상의 가출은 0.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횟수가 1번인 단순가출이 가출경험의 과반수를 조금 넘으며, 2번의 가출을 포함하면 70% 이상의 가출이 1~2번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표 IV-52〉 가출 경험

단위: 빈도(%)

없다	1번	2번	3-4번	5-9번	10번이상	전체
1,249(93.0)	48(3.6)	20(1.5)	15(1.1)	4(0.3)	7(0.5)	1,343(100.0)

청소년들의 첫 가출 시기는 중학교 시기가 51.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22.5%), 초등학교 고학년(13.2%), 초등학교 저학년(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적으로 민감한 중학교 시기의 가출이 많으며, 초등학교 시기에도 상당수의 가출이 이루어지며 이는 고등학교 시기보다도 많은 수치였다.

〈표 IV-53〉 첫 가출 시기

단위: 빈도(%)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2(12.3)	13(13.2)	51(51.9)	22(22.5)	98(100.0)

청소년들이 가출 후에 집 밖에서 지낸 기간을 보면, 1주일 미만의 단기가출이 63.1%로 가장 많고, 1주일~1개월이 21.4%, 1개월~6개월이 7.8%, 3년 이상이 5.8% 등으로 나타났다. 단기가출이 학생청소년 가출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청소년의 경우는 3년 이상의 장기가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IV-54〉 가출 후 집 밖에서 지낸 기간

단위: 빈도(%)

1주일 미만	1주일- 1개월	1개월- 6개월	6개월- 1년	1년-3년	3년 이상	전체
65(63.1)	22(21.4)	8(7.8)	1(1.0)	1(1.0)	6(5.8)	103(100.0)

3) 사회지원체계 및 보호육구

청소년들의 주요 생활환경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직장·근로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지지 정도와 인권 침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생활실태, 그리고 성추행, 폭력, 학대 등의 피해 경험을 조사하였다.

(1) 가정

학생청소년들의 가정에 대한 생각과 가정에서의 역할, 그리고 가정에서 훈육 및 피해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가족에서의 성인역할, 부모의 양육행동, 가정폭력(청소년학대) 등을 조사하였다.

먼저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약 20%의 청소년들은 가족 간에 싸움이 자주 일어나고, 가족과 함

게 있기를 싫어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10%가 조금 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족이 자랑스럽지 않고, 가족 안에서 자신이 낯선 사람같이 느껴진다고 응답하여, 가족 안에서 정서적으로 관여되지 않고 단절됨을 스스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가족관계에서 갖게 되는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정서적 부분의 지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V-55〉 가족관계

단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체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진정으로 서로를 보살핀다.	23 (1.7)	59 (4.3)	228 (16.5)	460 (33.3)	613 (44.3)	1,383 (100.0)
나는 한순간도 우리 가족과 함께 있기가 싫다.	791 (57.4)	299 (21.7)	220 (16.0)	44 (3.2)	25 (1.8)	1,379 (100.0)
나는 우리 가족과 잘 지낸다.	28 (2.0)	52 (3.8)	180 (13.0)	446 (32.3)	676 (48.9)	1382 (100.0)
우리 가족 안에서 나는 낯선 사람같이 느껴진다.	998 (72.3)	221 (16.0)	108 (7.8)	33 (2.4)	21 (1.5)	1,381 (100.0)
우리 가족에게는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	758 (54.9)	302 (21.9)	213 (15.4)	86 (6.2)	21 (1.5)	1,380 (100.0)
나는 우리 가족이 자랑스럽다.	40 (2.9)	108 (7.8)	259 (18.8)	330 (23.9)	643 (46.6)	1,380 (100.0)

가정에서의 역할과 부담 정도를 보면, 학생청소년들의 가족에 위한 희생 정신이 매우 강하고, 어느 정도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가사일도 하고 있다. 또한 과반수의 청소년은 스스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청소년이 31.3%, 다른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청소년이 72.9%,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청소년이 55.5%, 부모 대신 집안일이나 가사일을 하는 것이 힘들다는 청소년이 29.4%, 부모 대신 동생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봐야 하는 것이 힘들다는 청소년이 16.5%로 나타났다.

〈표 IV-56〉 가족에 대한 생각과 가정에서의 성인역할

단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나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부담스럽다.	501 (36.3)	447 (32.4)	343 (24.9)	89 (6.4)	1,380 (100.0)
내가 희생하더라도 다른 가족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101 (7.3)	272 (19.7)	636 (46.1)	370 (26.8)	1,379 (100.0)
나는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220 (16.0)	393 (28.6)	583 (42.4)	180 (13.1)	1,376 (100.0)
내가 부모님 대신 집안일이나 가사일을 하는 것이 힘들다.	412 (29.9)	560 (40.6)	331 (24.0)	75 (5.4)	1,378 (100.0)
나는 부모님 대신 동생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봐야 하는 것이 힘들다.	675 (50.0)	453 (33.5)	169 (12.5)	54 (4.0)	1,351 (100.0)

부모의 양육행동은 통제 및 지도감독(자녀가 집에 없을 때 누구와 함께 있는 여부에 대해 부모가 알고 있는지, 몇 시에 들어오는지 부모가 알고 있는지, 어른 없이 혼자 집에 있을 때 부모가 전화로 확인하는지), 칭찬 및 보상행동(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해주는지, 공부를 잘 할 때 칭찬을 해주는지), 과잉보호행동(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도와주는지, 자녀가 해야 할 일을 일일이 간섭하는지, 부모의 뜻대로 생활하도록 강요하는지)을 조사하였다.

부모의 훈육행동과 보상행동의 질문에 대하여 대체로 70%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과잉보호행동의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과 함께 부정적인 응답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집에 없을 때 누구와 함께 있는지, 몇 시에 들어오는지를 알고 있었으며, 어른 없이 혼자 집에 있을 때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자녀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할 때 칭찬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약 10% 내외에 해당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관심도 없고, 칭찬도 잘 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도

와주는 부모는 50.6%, 자녀가 하는 일을 일일이 간섭하는 경우는 61.6%로 과잉보호적 태도를 보였으며, 41.0%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생활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7〉 부모의 양육행동

단위: 빈도(%)

영역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체
지도감독	부모님은 내가 집에 없을 때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계신다.	92 (6.7)	167 (12.1)	366 (26.5)	454 (32.8)	304 (22.0)	1,383 (100.0)
	부모님은 내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알고 계신다.	54 (3.9)	122 (8.8)	276 (20.0)	461 (33.3)	470 (34.0)	1,383 (100.0)
	부모님은 내가 어른 없이 혼자 집에 있을 때 전화를 하신다.	72 (5.2)	154 (11.1)	272 (19.7)	331 (23.9)	554 (40.1)	1,383 (100.0)
보상	부모님은 내가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칭찬해 주신다.	40 (2.9)	100 (7.2)	286 (20.7)	390 (28.2)	568 (41.0)	1,384 (100.0)
	부모님은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할 때 칭찬해 주신다.	45 (3.3)	87 (6.3)	249 (18.0)	321 (23.2)	680 (49.2)	1,382 (100.0)
과잉보호	부모님은 내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도와주는 편이다.	260 (18.8)	423 (30.6)	356 (25.8)	177 (12.8)	165 (12.0)	1,381 (100.0)
	부모님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일일이 간섭하는 편이다.	183 (13.2)	348 (25.2)	428 (30.9)	265 (19.2)	159 (11.5)	1,383 (100.0)
	부모님은 내가 부모님의 뜻대로만 생활하도록 강요하신다.	419 (30.3)	397 (28.7)	303 (21.9)	164 (11.9)	98 (7.1)	1,381 (100.0)

청소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정에서의 폭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부모의 청소년에 대한 학대와 부부 간의 폭력행동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부모의 청소년에 대한 학대를 유형별로 보면, 부모의 발에 차이거나 깨물리거나 주먹에 맞은 경험에 있는 청소년은 12.4%, 몽둥이나 굵은 막대

기, 핵대로 맞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4.7%, 칼이나 흉기로 위협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8%으로 가정 내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청소년은 28.9%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꾸짖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5.4%,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와 같은 말은 들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5.6%으로 정서적 폭력을 당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51%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두워질 때까지 혼자 집을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59.4%, 더러운 옷을 입고 지내거나 습기 찬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6.9%,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적이 있었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4.8%,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해도 부모님이 아무 말을 듣지 않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7%로 나타났다. 가정 내 청소년 방임의 수치는 7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부 간의 폭력 행동은 부모 중 한 쪽이 다른 쪽을 때리는 경우가 11.2%, 부모 간에 서로 욕하는 경우는 29.8%로 41%정도의 청소년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은 방임의 형태로 가장 빈번히 일어났다.

〈표 IV-58〉 청소년학대와 가정폭력

단위: 빈도(%)

영역	문항	전혀 없다	1년에 1-2번	2-3개 월에 1-2번	1달에 1-2번	1주일 에 1-2번	전체
신체적학대	부모님의 발에 차이거나 깨물리거나 주먹에 맞았다.	1,213 (87.6)	134 (9.7)	25 (1.8)	7 (0.5)	5 (0.4)	1,384 (100.0)
	부모님이 휘두르는 몽둥이나 굵은 막대기, 핵대로 맞았다.	1,180 (85.3)	167 (12.0)	22 (1.6)	11 (0.8)	4 (0.3)	1,384 (100.0)
	부모님이 칼이나 흉기로 나를 위협했다.	1,360 (98.2)	15 (1.1)	5 (0.4)	2 (0.1)	3 (0.2)	1,385 (100.0)
정서적학대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다.	1,033 (74.6)	256 (18.5)	55 (4.0)	28 (2.0)	12 (0.9)	1,384 (100.0)
	부모님이 나에게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하였다.	1,028 (74.4)	235 (17.0)	60 (4.3)	35 (2.5)	24 (1.7)	1,382 (100.0)

영역	문항	전혀 없다	1년에 1-2번	2-3개 월에 1-2번	1달에 1-2번	1주일 에 1-2번	전체
방 임	부모님이 외출하여 어두워 질 때까지 나 혼자 집을 본 적이 있다.	561 (40.6)	387 (28.0)	186 (13.5)	117 (8.5)	131 (9.5)	1,382 (100.0)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지내거나 습기 찬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1,287 (93.1)	66 (4.8)	14 (1.0)	10 (0.7)	6 (0.4)	1,383 (100.0)
	부모님이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	1,117 (95.2)	54 (3.9)	6 (0.4)	5 (0.4)	2 (0.1)	1,384 (100.0)
	부모님은 내가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해도 나에게 아무 말 안한다.	1,357 (98.3)	14 (1.0)	1 (0.1)	3 (0.2)	6 (0.4)	1,381 (100.0)
가 정 폭 력	집안 내에서 부모님 중 한 분이 다른 한 분을 때리는 것을 본적이 있다.	1,228 (88.8)	122 (8.8)	19 (1.4)	5 (0.4)	9 (0.7)	1,383 (100.0)
	부모님이 서로 욕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972 (70.2)	302 (21.8)	57 (4.1)	31 (2.2)	23 (1.7)	1,385 (100.0)

(2) 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경험과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및 교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지난 1년간 학교에서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듣기 싫은 별명을 듣고 놀림을 받거나 조롱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34.0%, 고의적으로 따돌림을 받거나 골탕을 먹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13.5%, 협박이나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8.8%, 겁을 주거나 때려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이 있는 학생은 8.8%, 뺨, 얼굴, 머리 등을 손이나 주먹을 맞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13.7% 등으로 나타났다.

〈표 IV-59〉 학교에서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단위: 빈도(%)

문항	전혀 없다	1번	2-3번	4번 이상	전체
듣기 싫은 별명을 듣고 놀림 받거나 조롱당한 적이 있다.	911 (66.0)	178 (12.9)	98 (7.1)	193 (14.0)	1,380 (100.0)
고의적으로 따돌림 받거나 골탕을 먹은 적이 있다.	1,195 (86.5)	117 (8.5)	37 (2.7)	32 (2.3)	1,381 (100.0)
협박이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1,257 (91.2)	72 (5.2)	30 (2.2)	19 (1.4)	1,378 (100.0)
나에게 겁을 주거나 때려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다.	1,259 (91.2)	84 (6.1)	21 (1.5)	16 (1.2)	1,380 (100.0)
내 뺨, 얼굴, 머리 등을 손이나 주먹으로 때린 적이 있다.	1,190 (86.3)	97 (7.0)	46 (3.3)	46 (3.3)	1,379 (100.0)

2005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위원회 보고서(2006)에서는 또래나 선후배로부터 지속적인 집단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2.5%, 욕설이나 협박을 겪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15.0%,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이 있는 학생은 11.8%, 폭행을 경험한 학생은 8.3% 등이었다. 이번 조사결과를 청소년위원회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욕설이나 협박, 금품갈취는 2005년에 비해 어느 정도 줄어들었으나, 집단따돌림이나 폭행 피해는 오히려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중·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경험을 보면, 먼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54.3%로 과반수를 조금 넘었으며,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 대해서도 존경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43.3%였으며, 자신을 이해해주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는 학생은 39.4%로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0>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

단위: 빈도(%)

영역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긍정적 경험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한다.	131 (9.5)	218 (15.8)	434 (31.4)	339 (24.5)	261 (18.9)	1,383 (100.0)
	우리 학교에는 나를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162 (11.7)	282 (20.4)	394 (28.5)	299 (21.6)	246 (17.8)	1,383 (100.0)
	나는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118 (8.5)	174 (12.6)	438 (31.7)	358 (25.9)	294 (21.3)	1,382 (100.0)
	학교에 다니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93 (6.7)	152 (11.0)	387 (28.0)	349 (25.2)	402 (29.1)	1,383 (100.0)
부정적 경험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를 차별대우 한다.	396 (28.6)	366 (26.5)	318 (23.0)	189 (13.7)	114 (8.2)	1,383 (100.0)
	선생님께 맞은 적이 있다.	296 (21.4)	237 (17.1)	303 (21.9)	313 (22.6)	235 (17.0)	1,384 (100.0)
	선생님께 모욕을 받은 적이 있다.	720 (52.1)	287 (20.8)	163 (11.8)	118 (8.5)	94 (6.8)	1,382 (100.0)
	선생님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1,276 (92.3)	66 (4.8)	16 (1.2)	13 (0.9)	11 (0.8)	1,382 (100.0)

또한 교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교사가 자신을 차별대우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21.9%, 교사에게 맞은 경험이 있다는 학생은 39.6%, 교사로부터 모욕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학생은 15.3%,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7%로, 상당수의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차별대우 또는 폭력 피해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역사회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과 사회적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지지, 지역사회 응집력, 지역사회에서의 피해 경험 등을 조사하

였다. 지역사회의 지지는 부모, 형제자매, 친척, 학교친구나 선후배, 교사, 전문가 등을 지지원으로 하여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네 가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학생들은 모든 영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다만 다른 지지원에 비해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의 지지는 40% 미만으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친척의 경우에도 다른 영역과는 달리 의논상대로 도움을 준다는 정보적 지지에 대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지지가 46.0%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1〉 사회적 지지

단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나를 사랑하고 돌보아 준다.	부모님	11(0.8)	28(2.0)	367(26.6)	976(70.6)	1,382(100.0)
	형제자매	30(2.3)	127(9.6)	575(43.4)	593(44.8)	1,325(100.0)
	친척	55(4.0)	183(13.4)	674(49.5)	449(33.0)	1,361(100.0)
	학교친구, 선후배	42(3.1)	171(12.5)	805(59.0)	346(25.4)	1,364(100.0)
	학교 선생님	102(7.5)	245(18.1)	728(53.8)	277(20.5)	1,352(100.0)
	사회복지사 등	398(38.7)	243(23.6)	290(28.2)	97(9.4)	1,028(100.0)
나의 능력을 존중해 준다.	부모님	31(2.3)	148(10.7)	516(37.5)	682(49.5)	1,377(100.0)
	형제자매	63(4.8)	216(16.3)	582(44.0)	461(34.9)	1,322(100.0)
	친척	63(4.7)	238(17.7)	658(48.9)	386(28.7)	1,345(100.0)
	학교친구, 선후배	59(4.4)	253(18.8)	760(56.4)	275(20.4)	1,347(100.0)
	학교 선생님	103(7.7)	302(22.7)	689(51.7)	238(17.9)	1,332(100.0)
	사회복지사등	357(35.2)	243(24.0)	314(31.0)	100(9.9)	1,014(100.0)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내가 무언가 의논하거 나 이야기 하고 싶을 때 도움이 된다.	부모님	104(7.6)	307(22.4)	466(34.0)	493(36.0)	1,370(100.0)
	형제자매	165(12.5)	344(26.1)	411(31.2)	396(30.1)	1,316(100.0)
	친척	354(26.6)	454(34.1)	341(25.6)	181(13.6)	1,330(100.0)
	학교친구, 선후배	96(7.1)	173(12.8)	545(40.3)	540(39.9)	1,354(100.0)
	학교 선생님	281(21.2)	436(32.9)	419(31.6)	191(14.4)	1,327(100.0)
	사회복지사 등	469(45.9)	245(24.0)	211(20.6)	97(9.5)	1,022(100.0)
내가 필요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거나 빌려준다.	부모님	32(2.3)	60(4.4)	384(28.1)	890(65.2)	1,366(100.0)
	형제자매	61(4.6)	111(8.4)	484(36.6)	665(50.3)	1,321(100.0)
	친척	161(12.1)	260(19.6)	512(38.5)	396(29.8)	1,329(100.0)
	학교친구, 선후배	56(4.1)	119(8.7)	680(49.8)	511(37.4)	1,366(100.0)
	학교 선생님	204(15.8)	295(22.8)	529(40.9)	265(20.5)	1,293(100.0)
	사회복지사 등	486(48.3)	222(22.1)	209(20.8)	89(8.8)	1,006(100.0)

학생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응집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 지역사회 주민들의 협력, 지역사회에서의 피해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자신의 동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58.0%, 만약에 이사를 하게 될 경우에 자기 동네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는 학생은 69.6%, 동네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으면 기꺼이 서로 도우려 할 것이라는 학생은 50.6%, 동네에서 돈을 빼앗기거나 심하게 두들겨 맞은 적이 학생은 5.0%, 동네에서 칼이나 흉기로 위협을 받거나 다친 적이 있는 학생은 1.5%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의 지역사회에서의 피해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니나 지역사회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수(42.0%)의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협조에 대한 신뢰는 그리 높지 않았다.

〈표 IV-62〉 지역사회 응집력

단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우리 동네가 아이들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204 (14.7)	377 (27.3)	586 (42.3)	218 (15.7)	1,385 (100.0)
내가 만약 이사를 가게 된다면 우리 동네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176 (12.7)	245 (17.7)	542 (39.2)	420 (30.4)	1,383 (100.0)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기꺼이 서로 도우려고 할 것이다.	230 (16.7)	451 (32.8)	516 (37.5)	180 (13.1)	1,377 (100.0)
나는 동네에서 돈을 빼앗기거나 심하게 두들겨 맞은 적이 있다.	1,201 (87.0)	111 (8.0)	54 (3.9)	15 (1.1)	1,381 (100.0)
나는 동네에서 칼이나 흉기로 위협받거나 다친 적이 있다.	1,315 (95.4)	43 (3.1)	11 (0.8)	9 (0.7)	10.78 (100.0)

지역사회의 안전과 관련하여 집, 학교, 동네, 다른 장소 등 지역사회에서의 피해 경험을 조사하였는데, 성추행이나 강간 피해 경험은 2.3%의 학생들이 경험이 있었는데, 1번의 피해 경험이 있었던 학생이 1.1%, 2-3번이 0.5%, 4번이상이 0.7%였다.

〈표 IV-63〉 집, 학교, 동네, 다른 장소 등에서 성추행이나 강간 피해 경험

단위: 빈도(%)

전혀 없다	1번	2-3번	4번이상	전체
1,332(97.7)	15(1.1)	7(0.5)	10(0.7)	1,364(100.0)

집, 학교, 동네, 다른 장소 등에서 성추행이나 강간피해 경험이 있는 26.8%의 학생 중에서 피해 받은 사실을 알린 사람 또는 기관으로는 가까운 친구가 11.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부모 혹은 성인(10.1%), 학교, 경찰서, 사회복지기관, 상담기관, 상담전화 등의 공식적 기관 등의 순이었으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경우도 3.2%로 나타났다.

〈표 IV-64〉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 또는 기관

단위: 빈도(%)

피해 받은 적이 없다	가까운 친구	부모 혹은 성인	공식적 기관	아무에게 알리지 않음	기타	전체
1,011(73.2)	156(11.3)	139(10.1)	22(1.6)	44(3.2)	10(0.7)	1,301(100.0)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45.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타인이 아는 것이 싫어서(25.0%), 가해자 보복이 두려워서(16.7%), 알려야 할 곳을 몰라서(12.5%) 등으로 나타나,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함께 관계 기관의 처리 절차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IV-65〉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단위: 빈도(%)

해결될 것 같이 않아서	타인이 아는 것이 싫어서	가해자 보복이 두려워서	알려야 할 곳을 몰라서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기타	전체
22(45.8)	12(25.0)	8(16.7)	6(12.5)	-	6(12.5)	48(100.0)

(4) 직장·근로

학생들의 일(아르바이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수입, 피해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일(아르바이트)에 대한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은 1,349명 중 15.4%인 208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청소년위원회(2005)에서 실시한 2004년도 조사 결과인 30%대에 비하면 1/2 정도에 해당한다.

〈표 IV-66〉 일(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208(15.4)	1,141(84.6)	1,349(100.0)

중·고등학생들이 일(아르바이트)을 통해서 번 돈은 1달 평균 10만원 미만 이 62.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0만원~20만원(10.3%), 50만원이상 (8.7%), 20~30만원(8.6%)등으로 대부분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7> 일(아르바이트)를 통해서 1달 평균 번 돈

단위: 빈도(%)

10만원미만	10만원- 20만원	20만원- 30만원	30만원- 40만원	40만원- 50만원	50만원이상	전체
109(62.4)	18(10.3)	15(8.6)	12(6.8)	7(4.0)	15(8.7)	176(100.0)

중·고등학생들이 일(아르바이트)을 하게 된 이유로는 용돈을 벌려고 한 경우가 45.6%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들과 즐기기 위해서(25.7%), 직업 체험을 위해서(12.6%), 등록금, 학원비를 위해서(2.4%) 등으로, 생계나 교육적인 목적보다는 소비적인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표 IV-68> 일(아르바이트)을 한 이유

단위: 빈도(%)

용돈이 필요해서	등록금, 학원비를 위해서	생활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친구들과 즐기기 위해	직업 체험을 위해서	기타	전체
94(45.6)	5(2.4)	2(1.0)	53(25.7)	26(12.6)	26(12.6)	206(100.0)

중·고등학생들의 일(아르바이트) 시에 발생한 인권침해 경험은 임금체불이 13.7%, 부당해고가 2.3%, 부당연장근로가 6.5%, 심한 욕설이나 비난이 4.3%, 신체적 폭행 피해가 1.3%,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2.0% 등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위원회(2005)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04년도의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11.9%, 폭행피해가 4.3%, 성적 피해가 1.7%로, 폭행 피해는 줄어들었으나 임금체불이나 성적 피해가 다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표 IV-69> 직장(아르바이트)에서의 피해 경험

단위: 빈도(%)

문항	전혀없음	1번	2-3번	4번이상	전체
일을 했지만 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적이 있다.	258 (86.3)	26 (8.7)	9 (3.0)	6 (2.0)	299 (100.0)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한 적이 있다.	290 (97.6)	4 (1.3)	-	3 (1.0)	297 (100.0)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하도록 강요당한 적이 있다.	276 (93.6)	10 (3.4)	2 (0.7)	7 (2.4)	295 (100.0)
직장(아르바이트)에서 심한 욕설이나 비난을 들은 적이 있다.	284 (95.6)	6 (2.0)	3 (1.0)	4 (1.3)	297 (100.0)
직장(아르바이트)에서 신체적 폭행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292 (98.6)	1 (0.3)	-	3 (1.0)	296 (100.0)
직장(아르바이트)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290 (98.0)	3 (1.0)	-	3 (1.0)	296 (100.0)

중·고등학생들의 직장(아르바이트) 피해 시 대처방법으로는 참는다는 경우가 5.5%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친구와 상의한다(2.8%)와 경찰에 신고한다(2.8%),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다(2.4%), 직장(아르바이트)을 그만둔다(2.1%) 등으로 나타났다.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시 받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70> 직장(아르바이트) 피해 시 대처 방법

항목	빈도	백분율
피해당한 적 없다.	233	80.6
참는다.	16	5.5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7	2.4
친구와 상의한다.	8	2.8
직장(아르바이트)을 그만둔다.	6	2.1
경찰서에 신고한다.	8	2.8
인터넷에 올린다.	3	1.0
노동부에 전화하여 근로감독관과의 상담을 요청한다.	1	0.3
기타	7	2.4
전체	289	100.0

4) 인권 및 참여욕구

(1) 인권 및 사회참여의식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보편적 권리로서, 인권의 개념은 18세기경부터 시작된 개인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바탕으로 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서 출발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그리고 점차 전체 인류를 위한 합법적이고 보편적 욕구인 집합적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도 인권은 청소년의 기본적인 생존 및 성장 발달문제 등에 대하여 국가 사회의 책임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통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있게 하는 기반이 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의 다양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언론과 종교, 문화, 경제활동 등에서의 자유와,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의 문제 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인권과 관련하여 최근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권 및 참여 여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청소년 권리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잘 알고 있었으나, 현재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청소년의 권리행사는 많은 부분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는 67.0%의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인권상황은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데에서만 59.8%가 동의하였을 뿐, 나머지에 대해서는 동의 정도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즉, 학교에서 규칙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청소년들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데에 대해서는 39.5%만이 동의하였고, 학교방송, 학교신문 등에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39.1%가 동의하였다. 또한 성적이나 집안환경에 관계없이 학생회대표로 나갈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40.3%가 동의하였으며,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자신을 설명하고 변호할 수 있다는 데에서는 44.0%가 동의하였다. 또한 문화·예술활동, 아르바이트나 단체활동, 각종 모임이나 활동 등에서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선택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였으며, 진학문제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의 부모의 일방적 강요는 25.1%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경문제, 폭력문제, 성폭력문제 등의 사회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데에 44.2%가 동의하여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표 IV-71> 청소년인권의식 및 참여 여건

단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나는 청소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잘 알고 있다.	90 (6.5)	367 (26.5)	735 (53.1)	192 (13.9)	1,384 (100.0)
학교에서 규칙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들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	453 (32.8)	389 (28.1)	405 (29.3)	136 (9.8)	1,383 (100.0)
학교방송, 학교신문 등에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267 (19.3)	570 (41.2)	464 (33.6)	82 (5.9)	1,383 (100.0)
성적이나 집안환경에 관계없이 학생회 대표로 나갈 수 있다.	299 (21.6)	529 (38.3)	420 (30.4)	134 (9.7)	1,382 (100.0)
징계(벌)을 받게 되었을 때 내가 설명하고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264 (19.2)	506 (36.9)	506 (36.9)	97 (7.1)	1,373 (100.0)
학교에서 우리들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207 (15.0)	348 (25.2)	638 (46.2)	187 (13.6)	1,380 (100.0)
내가 좋아하거나 원하는 모임이나 활동을 어떠한 규제나 간섭 없이 할 수 있다.	197 (14.3)	417 (30.3)	599 (43.5)	165 (12.0)	1,378 (100.0)
진학문제 등 나에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사보다는 부모님(보호자)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	376 (27.3)	656 (47.6)	277 (20.1)	69 (5.0)	1,378 (100.0)
내 적성에 맞는 문화예술 활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123 (8.9)	224 (16.2)	758 (54.9)	276 (20.0)	1,381 (100.0)
아르바이트나 단체활동 등 사회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제재를 많이 받는다.	263 (19.1)	500 (36.3)	471 (34.2)	142 (10.3)	1,376 (100.0)
환경문제, 폭력문제, 성폭력문제 등 나와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	269 (19.5)	499 (36.3)	503 (36.6)	105 (7.6)	1,376 (100.0)

인권은 단순히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보장에 대한 책임을 수반한다.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일반적인 인권 보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소수집단이 처한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거나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변화촉진자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Ife, 2001; Ellis, 2004). 이 연구에서도 학생청소년들이 이와 유사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인권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의 소수집단이라 할 수 있는 동성애, 장애인, 여성집단의 인권에 대한 책임감과 그들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의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학생청소년들은 이들 소외집단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80.2%), 자신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56.9%), 자신의 선택과 참여가 사회변화에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59.3%)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자신에게는 없으며(60.9%), 자신의 책임보다는 정부나 인권단체 등에서 해야 할 일(58.4%)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2> 소외집단 인권에 대한 책임감 및 참여의식

단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나는 타인을 존중하고 소수(동성애, 장애인, 여성 등)의 입장을 고려한다.	103 (7.5)	170 (12.3)	790 (57.4)	314 (22.8)	1,377 (100.0)
나의 선택과 참여가 사회변화에 대해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다.	139 (10.1)	419 (30.5)	656 (47.8)	158 (11.5)	1,372 (100.0)
동성애, 장애인, 여성에 관한 문제(차별, 인권침해와 유린 등)들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256 (18.6)	526 (38.3)	423 (30.8)	168 (12.2)	1,373 (100.0)
나는 동성애, 장애인, 여성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할 힘이 없다.	163 (11.9)	373 (27.2)	560 (40.8)	276 (20.1)	1,372 (100.0)
동성애, 장애인, 여성에 관한 문제들은 나의 책임보다는 정부나 인권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다.	171 (12.4)	401 (29.2)	549 (39.9)	254 (18.5)	1,375 (100.0)

(2) 사회참여 필요도

학생들의 청소년참여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들 사이에서 관심이 많은, 또한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가문화, 경제, 사회, 정책·행정 등에서의 참여 필요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영역에서의 사회 참여에 대한 필요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소감 또는 견해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 76.7%의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청소년 관련 정책과 행정과정에 공식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73.9%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81.0%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74.2%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청소년들끼리 여가문화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79.3%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IV-73〉 사회참여 필요 정도

단위: 빈도(%)

문항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전체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소감 또는 견해를 밝히는 것(교칙제정 등)	150 (11.0)	168 (12.3)	701 (51.2)	349 (25.5)	1,368 (100.0)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과 행정과정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145 (10.6)	212 (15.5)	685 (50.0)	327 (23.9)	1,369 (100.0)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봉사활동 등)	134 (9.8)	124 (9.1)	731 (53.6)	374 (27.4)	1,363 (100.0)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아르바이트 등)	145 (10.6)	208 (15.2)	716 (52.3)	299 (21.9)	1,368 (100.0)
청소년들끼리 여가문화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것	138 (10.1)	145 (10.6)	681 (49.9)	401 (29.4)	1,365 (100.0)

(3) 사회참여 정도

중·고등학교생의 사회참여 욕구와 함께 현재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실태를 파악하고자 여가문화, 경제, 사회, 정책·행정 등에서의 청소년 참여 정도를 각각 조사하였다. 중·고등학생들의 청소년 참여 정도는 참여 필요도와는 다르게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 등과 같은 사회적 활동의 경우만 30%대의 참여경험을 하였을 뿐, 여가문화, 경제활동 등의 나머지 활동의 경우에는 10% 내외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책 및 행정과정에서의 참여 경험은 9.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4〉 사회참여 정도

단위: 빈도(%)

문항	전혀 하고 있지 않다	하고 있지 않다	조금 하고 있다	많이 하고 있다	전체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소감 또는 견해를 밝히는 것(교칙제정 등)	516 (41.1)	523 (41.6)	187 (14.9)	31 (2.5)	1,257 (100.0)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과 행정과정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615 (49.4)	509 (40.9)	102 (8.2)	20 (1.6)	1,246 (100.0)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봉사활동 등)	391 (31.2)	423 (33.7)	289 (31.0)	51 (4.1)	1,254 (100.0)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아르바이트 등)	606 (48.4)	478 (38.1)	150 (12.0)	19 (1.5)	1,253 (100.0)
청소년들끼리 여가문화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것	524 (41.8)	478 (38.1)	208 (16.6)	44 (3.5)	1,254 (100.0)

학생들의 참여 욕구가 높는데 비해 현실적인 참여 여건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참여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단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봉사활동의 경우에만 어느 정도 참여율이 높을 뿐이며 그 이외에는 참여율이 매우 낮다. 특히, 청소년 정책 및 행정과정에서의 청소년참여가 가장 낮게 나타남을 볼 때 중앙정부부처뿐만 아니라

각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3. 성별에 따른 복지실태 및 욕구

1) 기초생활실태 및 생존욕구

기초생활실태는 의식주, 의료·보건 및 건강 등에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나 심리·사회적 적응, 흡연 행동 등의 건강 부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적응 중 우울·불안의 경우에는 여학생이 8.28점으로 남학생의 7.34점보다 점수가 높았으나, 비행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2.59점으로 여학생의 2.16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통해서 여학생의 경우에 우울·불안의 심리정서문제가 남학생보다 많은 반면, 남학생들은 비행의 행동문제가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표 IV-75> 성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우울·불안	남자 (n=803)	7.34	4.91	-3.312***	1145
	여자 (n=566)	8.28	5.38		
비행	남자 (n=808)	2.59	2.03	3.730***	1371
	여자 (n=565)	2.16	2.22		

***p<.001

흡연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을 하고 있는 남학생은 7.9%인데 비해, 여학생은 4.1%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 2배 정도의 흡연을 하고 있었다. 하루에 반 갑 이상의 상습적 흡연

을 하고 있는 학생만을 비교해 보면, 남학생은 3.9%인데 비해, 여학생은 1.2%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3배 이상의 흡연을 하고 있었다.

<표 IV-76> 성별에 따른 흡연 정도

단위: 빈도(%)

구분	안 피운다	어쩌다 하나씩	하루에 반 갑	하루에 한 갑 이상	전체	χ^2 값
남자	744(92.1)	32(4.0)	31(3.8)	1(0.1)	808(100.0)	16.398***
여자	542(95.9)	16(2.7)	4(0.7)	3(0.5)	565(100.0)	

***p<.001

2) 문화여가활동 및 발달욕구

문화여가활동 중에서는 정보·문화활동, 지역사회 시설 및 서비스, 성·문제 행동 등에서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정보·문화

정보매체와 관련해서 보유 여부와 이용시간, 이용용도에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먼저 정보매체 보유는 이동전화, PSP, DMB 중 이동전화의 경우에만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이동전화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여학생은 76.4%가, 남학생은 59.5%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7> 성별에 따른 이동전화 보유 여부

단위: 빈도(%)

항목	구분	보유함	보유안함	전체	χ^2 값
이동전화	남자	485(59.5)	330(40.5)	815(100.0)	42.751***
	여자	436(76.4)	135(23.6)	571(100.0)	

***p<.001

정보매체의 이용시간은 정보매체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는데, 인터넷의 경우에 전반적으로 남학생들의 이용시간이 여학생들보다도 많았으나,

전화(이동전화)의 경우에는 여학생들의 이용시간이 남학생들보다도 전반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시간미만의 인터넷을 이용하는 여학생은 37.7%인데 비해 남학생은 29.5%였으며, 3시간 이상의 인터넷을 이용하는 남학생의 경우는 16.4%였으며, 여학생은 9.5%로 나타났다. 한편 전화(이동전화)의 경우에는 1시간미만 사용은 남학생이 65.6%로 여학생의 62.2%보다 조금 많았으나 3시간이상의 사용은 여학생이 23.9%로 남학생의 15.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8> 성별에 따른 정보기기 이용시간(하루)

단위: 빈도(%)

항목	구분	1시간미만	1-3시간	3-5시간	5시간이상	전체	χ^2 값
인터넷	남자	224 (29.5)	411 (54.1)	86 (11.3)	39 (5.1)	760 (100.0)	20.772***
	여자	215 (37.7)	268 (46.9)	38 (6.7)	16 (2.8)	571 (100.0)	
전화 (이동 전화)	남자	345 (65.6)	101 (19.2)	19 (3.6)	61 (11.6)	526 (100.0)	14.766**
	여자	294 (62.2)	66 (14.0)	32 (6.8)	81 (17.1)	473 (100.0)	

p<.01 *p<.001

정보매체 이용용도는 인터넷의 경우에 남학생의 과반수이상(63.7%)이 게임이나 오락을 하는데 비해, 여학생들은 게임이나 오락(20.4%)보다는 메신저, 통신 등의 교제(31.3%)나 정보검색이나 자료관리(21.7%) 등의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화(이동전화)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 메신저, 통신 등의 교제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밖에도 남학생은 게임오락에 여학생보다 많이 이용하는데 비해, 여학생들은 여가활동(10.7%)의 이용이 남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9> 성별에 따른 정보기기 이용용도

단위: 빈도(%)

항목	구분	정보 검색 자료 관리	게임/ 오락	학습/ 교육	교제 (메신저, 통신 등)	여가 활동	쇼핑/ 예약	동호 회	신문/ 뉴스/ 잡지	기타	전체	χ^2 값
인터넷	남자	149 (19.2)	494 (63.7)	22 (2.8)	50 (6.5)	44 (5.7)	5 (0.6)	2 (0.3)	3 (0.4)	6 (0.8)	775 (100.0)	312.855***
	여자	119 (21.7)	112 (20.4)	15 (2.7)	172 (31.3)	82 (14.9)	22 (4.0)	2 (0.4)	10 (1.8)	15 (2.7)	549 (100.0)	
전화 (이동 전화)	남자	19 (3.7)	34 (6.6)	4 (0.8)	283 (55.1)	37 (7.2)	1 (0.2)	3 (0.6)	0 (0.0)	133 (25.9)	514 (100.0)	20.805**
	여자	9 (1.9)	15 (3.2)	5 (1.1)	263 (56.7)	61 (10.7)	2 (0.4)	5 (1.1)	1 (0.2)	103 (22.2)	464 (100.0)	

p<.01 *p<.001

(2) 지역사회서비스

대부분의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의 인지도나 이용률에서 남녀 간에 차이를 보였다. 직업훈련원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서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시설에 대한 이용 경험은 여학생이 자연권 수련시설(남학생 49.9%, 여학생 65.6%), 생활권 수련시설(남학생 32.6%, 여학생 38.4%), 종합사회복지관(남학생 8.4%, 여학생 10.5%), 자원봉사센터(남학생 7.1%, 여학생 7.3%), 박물관(남학생 67.0%, 여학생 75.9%), 도서관(남학생 75.1%, 여학생 85.4%)을 남학생보다도 많이 이용한 반면, 남학생은 근소한 차이이지만 청소년쉼터(남학생 6.5%, 여학생 3.6%)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남학생 1.1%, 여학생 0.4%), 청소년상담센터(남학생 3.1%, 여학생 2.4%), 미혼모시설(남학생 1.1%, 여학생 0.4%), 직업훈련원(남학생 1.7%, 여학생 0.8%)의 이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0〉 성별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인지 및 이용여부

단위: 빈도(%)

항목	구분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이용해 본 적 있다	전체	χ^2 값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등	남자	251(33.2)	259(34.2)	247(32.6)	757(100.0)	13.473***
	여자	129(23.8)	204(37.7)	208(38.4)	541(100.0)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남자	202(26.5)	180(23.6)	381(49.9)	763(100.0)	36.163***
	여자	80(14.7)	107(19.7)	356(65.6)	543(100.0)	
종합사회복지관	남자	312(41.8)	372(49.8)	63(8.4)	747(100.0)	12.412**
	여자	172(32.1)	307(57.4)	56(10.5)	535(100.0)	
청소년 쉼터	남자	412(55.4)	284(38.2)	48(6.5)	744(100.0)	7.049*
	여자	285(53.4)	230(43.1)	19(3.6)	534(100.0)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	남자	460(62.0)	274(36.9)	8(1.1)	742(100.0)	17.781***
	여자	274(51.3)	258(48.3)	2(0.4)	534(100.0)	
청소년상담센터	남자	281(37.8)	440(59.1)	23(3.1)	744(100.0)	10.695**
	여자	157(29.5)	363(68.1)	13(2.4)	533(100.0)	
자원봉사센터	남자	290(39.0)	401(53.9)	53(7.1)	744(100.0)	5.983*
	여자	173(32.4)	322(60.3)	39(7.3)	534(100.0)	
미혼모시설	남자	521(70.4)	211(28.5)	8(1.1)	740(100.0)	10.926**
	여자	335(63.0)	195(36.7)	2(0.4)	532(100.0)	
직업훈련원 (구 직업보도원)	남자	432(59.6)	287(38.6)	13(1.7)	743(100.0)	6.884*
	여자	352(66.0)	177(33.2)	4(0.8)	533(100.0)	
박물관	남자	95(12.5)	157(20.6)	511(67.0)	763(100.0)	12.113**
	여자	48(8.9)	82(15.2)	409(75.9)	539(100.0)	
도서관	남자	52(6.8)	140(18.3)	575(75.0)	767(100.0)	21.230***
	여자	20(3.7)	59(10.9)	463(85.4)	542(100.0)	

*p<.05 **p<.01 ***p<.001

청소년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모든 시설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문화의 집·청소년수련관 등의 생활권 수련시설의 경우에 여학생의 75.2%가 만족한 데 비해, 남학생은 69.8%가 만족하였으며,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등의 자연권 수련시설의 경우에도 여학생은 65.7%가 만족한 데 비해 남학생은 51.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의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여학생들은 80%이상이 만족하였으나 남학생은 70%대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1> 성별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만족도

단위: 빈도(%)

항목	구분	매우불 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전체	χ^2 값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등	남자	16(6.5)	58(23.7)	137(55.9)	34(13.9)	245(100.0)	8.147*
	여자	4(1.9)	47(22.8)	134(65.0)	21(10.2)	206(100.0)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남자	60(16.0)	120(32.1)	160(42.8)	34(9.1)	374(100.0)	22.330***
	여자	32(9.3)	86(25.0)	206(59.9)	20(5.8)	344(100.0)	
박물관	남자	14(2.8)	69(13.9)	270(54.5)	142(28.7)	495(100.0)	28.875***
	여자	11(2.8)	27(6.8)	284(71.4)	76(19.1)	398(100.0)	
도서관	남자	19(3.4)	90(15.9)	295(52.2)	161(28.5)	565(100.0)	11.857**
	여자	20(4.5)	51(11.5)	273(61.6)	99(22.3)	443(100.0)	
미술관	남자	10(2.6)	59(15.4)	200(52.2)	114(29.8)	383(100.0)	24.807***
	여자	5(1.7)	22(7.3)	212(70.4)	62(20.6)	301(100.0)	

*p<.05 **p<.01 ***p<.001

국가 또는 민간단체의 청소년대상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유사하게 전반적으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플 때 치료비 지원과 인권교육의 경우에만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도 인지도가 높았을 뿐 개별상담, 가족상담, 질병 및 무료건강검진,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숙식 제공, 문화·예술활동 등은 여학생들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2> 성별에 따른 복지서비스 인지 및 이용여부

단위: 빈도(%)

항목	구분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이용해 본 적 있다	전체	χ^2 값
개별상담	남자	358(48.5)	342(46.3)	38(5.1)	738(100.0)	5.989*
	여자	226(42.4)	284(53.3)	23(4.3)	533(100.0)	
가족상담	남자	369(49.9)	318(43.0)	53(7.2)	740(100.0)	6.762*
	여자	240(45.1)	265(49.8)	27(5.1)	532(100.0)	
질병상담 및 무료건강검진	남자	301(40.8)	355(48.1)	82(11.1)	738(100.0)	13.594***
	여자	199(37.3)	302(56.6)	33(6.2)	534(100.0)	
아플 때 치료비 지원	남자	331(45.0)	334(45.4)	71(9.6)	736(100.0)	13.878***
	여자	258(48.5)	252(47.4)	22(4.1)	532(100.0)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남자	246(33.4)	412(55.9)	79(10.7)	737(100.0)	6.888*
	여자	142(26.5)	332(62.1)	61(11.4)	535(100.0)	
숙식제공	남자	364(49.6)	316(43.1)	54(7.4)	734(100.0)	15.259***
	여자	251(47.2)	266(50.0)	15(2.8)	532(100.0)	
문화·예술활동	남자	276(37.4)	321(43.6)	140(19.0)	737(100.0)	6.576*
	여자	162(30.5)	257(48.4)	112(21.1)	531(100.0)	
인권교육	남자	334(45.8)	312(42.7)	84(11.5)	730(100.0)	12.085**
	여자	248(47.0)	249(47.2)	31(5.9)	528(100.0)	

*p<.05 **p<.01 ***p<.001

복지서비스의 이용경험은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는 다르게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과 문화·예술활동의 경우만 여학생의 이용경험이 많았을 뿐, 개별상담, 가족상담, 질병상담 및 무료건강검진, 아플 때 치료비 지원, 숙식 제공, 인권교육 등의 서비스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캠프 등 1박이상의 수련활동에서만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77.6%)이 남학생(62.6%)보다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3〉 성별에 따른 복지서비스 만족도

단위: 빈도(%)

항목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전체	χ^2 값
캠프 등 1박이상의 수련활동	남자	24 (10.1)	65 (27.3)	105 (44.1)	44 (18.5)	238 (100.0)	13.294**
	여자	7 (3.9)	33 (18.5)	106 (59.6)	32 (18.0)	178 (100.0)	

**p<.01

(3) 성·문제행동

성·문제행동은 성정체성과 성관계 경험에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었다. 성정체성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이성애자가 많은데 비해,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는 적었다. 즉, 이성애자의 경우에 남학생은 92.3%, 여학생은 88.3%였으며, 동성애자는 남학생 3.3%, 여학생 4.0%, 그리고 양성애자는 남학생 3.2%, 여학생 6.8%로 나타났다.

〈표 IV-84〉 성별에 따른 성정체성

단위: 빈도(%)

구분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전체	χ^2 값
남자	697(92.3)	25(3.3)	24(3.2)	9(1.2)	755(100.0)	9.995*
여자	482(88.3)	22(4.0)	37(6.8)	5(0.9)	546(100.0)	

*p<.05

성관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남학생은 3.0%였으며, 여학생은 0.9%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3배 이상의 많은 경험을 하였다.

<표 IV-85> 성별에 따른 성관계 경험

단위: 빈도(%)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값
남자	24(3.0)	777(97.0)	801(100.0)	7.015**
여자	5(0.9)	556(99.1)	561(100.0)	

**p<.01

3) 사회지원체계 및 보호육구

(1) 가정

사회적 지원체계 중에서는 가정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피해 경험에서는 남녀 학생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평균 비교를 통해서 보면, 남학생이 1.34 점이고 여학생이 1.19점으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서 친구나 선후배들로부터 폭력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6>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경험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남자 (n=808)	1.34	0.50	5.853***	1374
여자 (n=568)	1.19	0.37		

***p<.001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경험의 경우에는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교사에 대한 존중 등 긍정적 경험의 경우에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교사로부터의 차별대우, 모욕, 체벌, 성희롱 등 부정적 경험의 경우에는 남녀 간에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서 교사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서 차별대우나 폭력 등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표 IV-87>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

항목	구분	평균	표준 편차	t값	자유도
긍정적 경험	남자 (n=812)	3.31	1.02	-1.607	1379
	여자 (n=569)	3.40	0.99		
부정적 경험	남자 (n=809)	2.18	0.83	2.637**	1374
	여자 (n=567)	2.06	0.81		

**p<.01

(3) 지역사회

지역사회에서의 성추행이나 강간 경험도 남녀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여학생의 3.5%가 성추행이나 강간 피해 경험이 있었는데 비해, 남학생은 1.5%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의 피해 경험이 남학생의 2배 이상이 되었다.

<표 IV-88> 성별에 따른 성 추행, 강간 경험

단위: 빈도(%)

구분	전혀없다	1번	2-3번	4번 이상	전체	χ^2 값
남자	785(98.5)	7(0.9)	-	5(0.6)	797(100.0)	11.126*
여자	547(96.5)	8(1.4)	7(1.2)	5(0.9)	567(100.0)	

*p<.05

4. 거주지역에 따른 복지실태 및 욕구

1) 기초생활실태 및 생존욕구

기초생활실태는 의식주, 의료보건 및 건강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나 거주지역별로는 심리·사회적 적응, 음주행동의 건강부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은 우울·불안의 경우에 농어촌지역 학생이 8.65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고, 중소도시(8.02점), 대도시(7.2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행의 경우에도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점수가 2.6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2.60점), 대도시지역(2.2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심리·사회적 적응은 도시화 정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중소지역 학생, 그리고 도시지역 학생의 순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표 IV-89〉 거주지역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우울 불안	대도시 ¹⁾ (n=686)	7.22	5.13	7.730***	-	***	***
	중소도시 ²⁾ (n=463)	8.02	5.11		***	-	-
	농어촌 ³⁾ (n=227)	8.65	5.05		***	-	-
비행	대도시 ¹⁾ (n=686)	2.22	2.06	5.918**	-	**	**
	중소도시 ²⁾ (n=463)	2.60	2.11		**	-	-
	농어촌 ³⁾ (n=227)	2.63	2.53		**	-	-

p<.01 *p<.001

음주에 대한 경험도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소지역, 대도시지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 경험이 있는 농어촌지역 학생은 40.2%인데 비해, 중소도시 학생은 37.4%, 대도시지역의 학생은 29.0%였다.

〈표 IV-90〉 거주지역에 따른 평소 음주량

단위: 빈도(%)

구분	마신 적 없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1주일에 1-2번 정도	1달에 1-2번 정도	거의 매일	전체	χ^2 값
대도시	485 (71.0)	180 (26.4)	5 (0.7)	10 (1.5)	3 (0.4)	683 (100.0)	16.588*
중소도시	289 (62.6)	158 (34.2)	3 (0.6)	11 (2.4)	1 (0.2)	462 (100.0)	
농어촌	134 (59.8)	79 (35.3)	2 (0.9)	8 (3.6)	1 (0.4)	224 (100.0)	

*p<.05

2) 문화여가활동 및 발달육구

문화여가활동에서는 교육이나 여가활동 등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정보매체 보유와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에서만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정보·문화

정보매체 보유는 이동전화, PSP, DMB 중 이동전화의 경우에만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대도시지역의 학생의 70.7%가 이동전화를 가지고 있어서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의 학생들보다 많았으며,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은 과반수 정도인 50.7%로 가장 적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1〉 거주지역에 따른 이동전화 보유 여부

단위: 빈도(%)

항목	구분	보유함	보유안함	전체	χ^2 값
이동전화	대도시	488(70.7)	202(29.3)	690(100.0)	31.710***
	중소도시	317(67.9)	150(32.1)	467(100.0)	
	농어촌	116(50.7)	113(49.3)	229(100.0)	

***p<.001

이동전화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에서도 지역별로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대도시와 중소도시지역의 학생들 간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대도시와 중소도시 학생들이 농어촌지역의 학생들보다는 이용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2〉 거주지역에 따른 이동전화 이용시간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전화 (이동전화)	대도시 ¹⁾ (n=690)	2.26	1.17	4.476*	-	-	*
	중소도시 ²⁾ (n=467)	2.28	1.20		-	-	*
	농어촌 ³⁾ (n=229)	2.01	1.20		*	-	*

*p<.05

(2) 지역사회서비스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인지도나 이용경험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고 이용 경험도 가장 적게 나타나, 농어촌지역의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성이 떨어짐을 보이고 있다.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근로청소년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의 모든

시설에서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이 가장 낮았으며,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과 도서관은 중소도시지역의 학생들이, 그리고 근로청소년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박물관, 미술관은 대도시지역의 학생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내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모른다고 응답한 농어촌학생은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이 34.1%, 근로청소년회관이 78.0%, 종합사회복지관 46.8%, 박물관이 15.5%, 도서관이 6.9%, 미술관이 26.9%인데 비해, 중소도시 지역의 학생들은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이 17.0%, 도서관이 4.1%였으며, 대도시지역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근로청소년회관이 65.6%, 종합사회복지관이 33.8%, 박물관이 9.6%, 미술관이 13.4%로 나타났다.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이용 경험도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이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근로청소년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의 모든 시설에서 가장 적었으며, 대도시지역의 학생들은 근로청소년회관, 미술관 이용에서 가장 경험이 많았고, 중소도시지역의 학생들은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종합사회복지관, 박물관, 도서관의 이용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3〉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인지 및 이용여부

단위: 빈도(%)

항목	구분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으나 이용한적 없다	이용해 본 적 있다	전체	χ^2 값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등	대도시	134(20.5)	143(21.9)	377(57.6)	654(100.0)	49.182***
	중소도시	74(17.0)	80(18.4)	281(64.6)	435(100.0)	
	농어촌	74(34.1)	64(29.5)	79(36.4)	217(100.0)	
근로 청소년회관	대도시	425(65.6)	189(29.2)	34(5.2)	647(100.0)	16.318**
	중소도시	306(73.9)	95(22.9)	13(3.1)	414(100.0)	
	농어촌	167(78.0)	41(19.2)	6(2.8)	214(100.0)	
종합사회복지관	대도시	219(33.8)	376(58.0)	53(8.2)	648(100.0)	20.002***
	중소도시	164(39.2)	203(48.6)	51(12.2)	418(100.0)	
	농어촌	101(46.8)	100(46.3)	15(6.9)	216(100.0)	

항목	구분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으나 이용한적 없다	이용해 본 적 있다	전체	χ^2 값
박물관	대도시	63(9.6)	127(19.4)	463(70.9)	653(100.0)	16.600**
	중소도시	46(10.7)	61(14.2)	323(75.1)	430(100.0)	
	농어촌	34(15.5)	51(23.3)	134(61.2)	219(100.0)	
도서관	대도시	39(6.0)	109(16.6)	507(77.4)	655(100.0)	16.870**
	중소도시	18(4.1)	46(10.5)	373(85.4)	437(100.0)	
	농어촌	15(6.9)	44(20.3)	158(72.8)	217(100.0)	
미술관	대도시	87(13.4)	186(28.7)	374(57.8)	647(100.0)	30.744***
	중소도시	65(15.2)	130(30.4)	233(54.4)	428(100.0)	
	농어촌	59(26.9)	74(33.8)	86(39.3)	219(100.0)	

*p<.05 **p<.01 ***p<.001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등 자연권 수련원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농어촌지역 청소년(82.6%)이 대도시지역 청소년(56.5%)이나 중소도시지역 청소년(54.2%)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4>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만족도

단위: 빈도(%)

항목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전체	χ^2 값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대도시	49 (13.6)	108 (29.9)	180 (49.9)	24 (6.6)	361 (100.0)	23.427***
	중소도시	40 (14.4)	87 (31.4)	131 (47.3)	19 (6.9)	277 (100.0)	
	농어촌	3 (3.8)	11 (13.8)	55 (68.8)	11 (13.8)	80 (100.0)	

***p<.001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 및 이용경험은 질병 및 무료건강검진,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에서만 거주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질병 및 무료건강 검진의 경우에는 대도시지역 학생들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반면, 농어촌지역 학생들

의 인지도는 가장 낮았다. 그러나 장학금 및 생활비지원의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반면, 대도시지역 학생들의 인지도는 가장 낮았다. 한편, 복지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보면, 질병 및 무료건강검진의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이 이용 경험이 가장 적은 반면,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의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의 이용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농어촌학생들의 경우에는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이 많은 반면, 질병 및 무료건강검진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도시지역 학생들의 경우에는 장학금 및 생활비지원보다는 오히려 질병 및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를 잘 알고 있고 이용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95> 거주지역에 따른 복지서비스 인지 및 이용여부

단위: 빈도(%)

항목	구분	모르고 있었다	알고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이용해 본 적 있다	전체	χ^2 값
질병 및 무료건강검진	대도시	242(37.5)	346(53.6)	58(9.0)	646(100.0)	10.835*
	중소도시	160(39.0)	203(49.5)	47(11.5)	410(100.0)	
	농어촌	98(45.4)	108(50.0)	10(4.6)	216(100.0)	
장학금 및 생활비지원	대도시	196(30.5)	404(62.8)	43(6.7)	643(100.0)	64.810***
	중소도시	133(32.4)	237(57.8)	40(9.8)	410(100.0)	
	농어촌	59(26.9)	103(47.0)	57(26.0)	219(100.0)	

*p<.05 **p<.01 ***p<.001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질병상담 및 무료건강검진, 숙식제공의 경우에 거주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질병상담 및 무료건강검진의 경우에 대도시나 중소도시지역 학생들의 만족도는 92%였으나 농어촌지역 학생은 66.7%만이 만족하였으며, 숙식제공의 경우에도 대도시지역 학생들은 87.5%가 만족하고 있었으나 농어촌지역 학생들은 42.9%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대도시나 중소도시지역 학생에 비해 낮았다.

〈표 IV-96〉 거주지역에 따른 복지서비스 만족도

단위: 빈도(%)

항목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전체	χ^2 값
질병상담 및 무료건강검진	대도시	-	4 (8.0)	31 (62.0)	15 (30.0)	50 (100.0)	18.554*
	중소도시	-	2(4.7)	22 (51.2)	19 (44.2)	43 (100.0)	
	농어촌	1 (11.1)	2 (22.2)	6 (66.7)	-	9 (100.0)	
숙식제공	대도시	-	4 (12.5)	13 (40.6)	15 (46.9)	32 (100.0)	20.327**
	중소도시	-	7 (38.9)	5 (27.8)	6 (33.3)	18 (100.0)	
	농어촌	2 (28.6)	2 (28.6)	2 (28.6)	1 (14.3)	7 (100.0)	

*p<.05 **p<.01

3) 사회지원체계 및 보호육구

사회적 지원체계 중에서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경험은 차이가 없었으나 학교폭력, 교사 및 학교경험, 일 경험 등에서 거주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대도시 지역의 학생들과 농어촌지역의 학생들 간에 차이가 있었다. 농어촌 학생들이 대도시지역의 학생들에 비해서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폭력피해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7〉 거주지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대도시 ¹⁾ (n=686)	1.25	0.42	5.069**	-	-	**
중소도시 ²⁾ (n=464)	1.29	0.49		-	-	-
농어촌 ³⁾ (n=226)	1.35	0.47		**	-	-

**p<.01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경험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교사에 대한 존경 등 긍정적 경험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차이가 없었으나, 교사로부터의 차별대우, 모욕, 체벌, 성희롱 등의 부정적 경험의 경우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의 학생들 간에 차이가 있었다. 즉, 중소도시지역의 학생들이 대도시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부정적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8〉 거주지역에 따른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부정적 경험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긍정적경험	대도시 ¹⁾ (n=686)	3.37	0.98	0.951	-	-	-
	중소도시 ²⁾ (n=467)	3.29	1.01		-	-	-
	농어촌 ³⁾ (n=226)	3.38	1.07		-	-	-
부정적경험	대도시 ¹⁾ (n=685)	2.07	0.82	4.598**	-	**	-
	중소도시 ²⁾ (n=467)	2.19	0.80		**	-	-
	농어촌 ³⁾ (n=226)	2.21	0.89		-	-	-

**p<.01

일(아르바이트) 경험은 중소도시 지역의 학생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농어촌 학생, 대도시 학생의 순으로 나타났다. 20.3%의 중소도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고 있는데 비해, 농어촌지역의 학생은 19.9%, 그리고 대도시지역 학생의 경우에는 10.6%만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도시지역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 비해서 일 경험보다는 학교공부를 더욱 중시하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V-99〉 거주지역에 따른 일(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빈도(%)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값
대도시	71(10.6)	598(89.4)	669(100.0)	23.520***
중소도시	92(20.3)	362(79.7)	454(100.0)	
농어촌	45(19.9)	181(80.1)	226(100.0)	

***p<.001

5. 교급에 따른 복지실태 및 욕구

1) 기초생활실태 및 생존욕구

기초생활실태는 의식주, 의료·보건, 건강 등의 모든 영역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의식주

학생들의 부정적인 의식주생활에 대한 평균 비교에서 고등학생이 2.07점, 중학생이 1.97점으로 나타나, 규칙적인 식사생활, 계절에 적합한 의복 착용, 일정한 주거생활 등 의식주생활에서 고등학생들에 비해서 중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건전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00〉 교급에 따른 의식주생활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중학생 (n=742)	1.97	0.34	-5.547***	1338
고등학생 (n=598)	2.07	0.34		

***p<.001

(2) 의료·보건

건강검진 경험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많았는데, 지난 1년 내 학교, 병원 등의 기관에서의 건강검진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은 49.4%였으며, 중학생은 40.2%로 나타났다.

<표 IV-101> 교급에 따른 건강검진 유무

단위: 빈도(%)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값
중학생	305(40.2)	453(59.8)	758(100.0)	11.551***
고등학생	301(49.4)	308(50.6)	609(100.0)	

***p<.001

(3) 건강

자아존중감은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척도범위 10~40점 중에서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25.39점으로 중학생의 24.88점 보다 높았다.

<표 IV-102> 교급에 따른 자아존중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중학생 (n=752)	24.88	2.67	-3.632***	1338
고등학생 (n=606)	25.39	2.42		

***p<.001

심리·사회적 적응은 우울·불안과 비행 모두의 영역에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도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많이 겪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IV-103〉 교급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우울·불안	중학생 (n=761)	6.89	4.81	-6.729***	1234
	고등학생 (n=608)	8.76	5.34		
비행	중학생 (n=758)	2.27	1.68	-2.589**	1019
	고등학생 (n=615)	2.58	2.55		

p<.01 *p<.001

흡연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11.3%가 흡연을 하고 있는데 비해, 중학생은 2.4%가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약 5배 정도의 많은 흡연을 하였다.

〈표 IV-104〉 교급에 따른 흡연 정도

단위: 빈도(%)

구분	안 피운다	어쩌다 하나씩	하루에 반 갑	하루에 한 갑 이상	전체	χ^2 값
중학생	742(97.6)	14(1.8)	3(0.4)	1(0.1)	760(100.0)	48.666***
고등학생	544(88.7)	34(5.5)	32(5.2)	3(0.5)	613(100.0)	

***p<.001

음주의 경우에도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50.3%가 음주 경험이 있는데 비해, 중학생은 20.2%로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2배 이상 음주 경험이 많았다.

<표 IV-105> 교급에 따른 평소 음주량

단위: 빈도(%)

구분	마신 적 없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1주일에 1-2번 정도	1달에 1-2번 정도	거의 매일	전체	χ^2 값
중학생	604(79.8)	145(19.2)	1(0.1)	6(0.8)	1(0.1)	757(100.0)	142.200***
고등학생	304(49.7)	272(44.4)	9(1.5)	23(3.8)	4(0.7)	612(100.0)	

***p<.001

2) 문화여가활동 및 발달욕구

문화여가활동은 교육, 정보·문화, 지역사회서비스, 성·문제행동 등의 영역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교육

학교생활의 적응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도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대부분인 96.5%가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한 데 비해, 고등학생의 경우는 90.9%가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은 중학생의 경우 3.5%,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약 9%로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2배 이상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06> 교급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단위: 빈도(%)

구분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	잘 적응하고 있는 편이다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χ^2 값
중학생	378(49.2)	363(47.3)	22(2.9)	5(0.7)	768(100.0)	71.263***
고등학생	173(28.1)	386(62.8)	43(7.0)	13(2.1)	615(100.0)	

***p<.001

(2) 정보·문화

정보매체 보유는 이동전화, PSP, DMB 중 이동전화의 경우에만 교급별로 차이가 있었다.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에 비해서 이동전화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고등학생의 77.9%, 중학생의 57.3%가 이동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7> 교급에 따른 이동전화 보유 여부

단위: 빈도(%)

항목	구분	보유함	보유안함	전체	χ^2 값
이동전화	중학생	441(57.3)	329(42.7)	770(100.0)	65.454***
	고등학생	480(77.9)	136(22.1)	616(100.0)	

***p<.001

정보매체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인터넷의 경우에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도, 그리고 전화(이동전화)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시간을 보면, 1시간미만이 중학생 28.5%인데 비해 고등학생은 40.6%였으며, 3시간이상은 중학생이 15.1%인데 비해 고등학생은 12.4%로 중학생의 이용시간이 많았다. 한편, 전화(이동전화)의 이용시간을 보면, 1시간미만이 중학생은 68.9%인데 비해 고등학생은 59.0%였으며, 3시간이상은 중학생이 16.0%인데 비해 고등학생은 22.7%로 고등학생의 이용시간이 많았다.

<표 IV-108> 교급에 따른 정보기기 이용시간(하루)

단위: 빈도(%)

항목	구분	1시간미만	1-3시간	3-5시간	5시간이상	전체	χ^2 값
인터넷	중학생	205(28.5)	407(56.5)	81(11.3)	27(3.8)	720(100.0)	24.957***
	고등학생	234(40.6)	272(47.1)	43(7.5)	28(4.9)	577(100.0)	
전화 (이동전화)	중학생	345(68.9)	76(15.2)	29(5.8)	51(10.2)	501(100.0)	17.637***
	고등학생	294(59.0)	91(18.3)	22(4.4)	91(18.3)	498(100.0)	

***p<.001

정보매체의 이용용도를 보면, 인터넷의 경우에 중학생들은 과반수이상 (56.1%)이 게임이나 오락을 하고 있는데 비해 고등학생들은 33.1%가 게임이나 오락을 하고 있었으며, 중학생에 비해서 정보검색이나 자료관리(중학생 17.1%, 고등학생 24.0%), 메신저, 통신 등의 교제(중학생 14.3%, 고등학생 19.8%)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이동전화)의 경우에는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에 비해서 메신저, 통신 등의 교제를 많이 하고 있었으며, 중학생들은 고등학생들에 비해서 여가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9> 교급에 따른 정보기기 이용용도

단위: 빈도(%)

항목	구분	정보 검색/ 자료 관리	게임/ 오락	학습/ 교육	교제 (메신저, 통신 등)	여가 활동	쇼핑/ 예약	동호 회	신문/ 뉴스/ 잡지	기타	전체	χ^2 값
인터넷	중학생	125 (17.1)	409 (56.1)	11 (1.5)	104 (14.3)	58 (8.0)	10 (1.4)	1 (0.1)	2 (0.3)	9 (1.2)	729 (100.0)	79.862 5***
	고등 학생	143 (24.0)	197 (33.1)	26 (4.4)	118 (19.8)	68 (11.4)	17 (2.9)	3 (0.5)	11 (1.8)	12 (2.0)	595 (100.0)	
전화 (이동 전화)	중학생	22 (4.5)	21 (4.3)	6 (1.2)	226 (46.7)	55 (11.4)	2 (0.4)	5 (1.0)	-	147 (30.4)	484 (100.0)	44.785 ***
	고등 학생	6 (1.2)	28 (5.7)	3 (0.6)	320 (64.8)	43 (8.7)	1 (0.2)	3 (0.6)	1 (0.2)	89 (18.0)	494 (100.0)	

***p<.001

(3)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볼 때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서 인지도가 높았다. 문화의 집·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자원봉사센터, 고용안정센터, 미혼모시설, 직업훈련원, 도서관 등의 모든 시설에서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 청소년 관련 시설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이용 경험에서는 시설별로 차이가 없었다.

문화의 집·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고용안정센터, 도서관의 경우에는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에 비해서 이용 경험이 많았으나, 청소년상담센터, 자원봉사센터, 미혼모시설, 직업훈련원의 경우에는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이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0> 교급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인지 및 이용여부

단위: 빈도(%)

항목	구분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으나 이용한적 없다	이용해 본 적 있다	전체	χ^2 값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등	중학생	253(35.2)	238(33.1)	228(31.7)	719(100.0)	27.364***
	고등학생	127(21.9)	225(38.9)	227(39.2)	579(100.0)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중학생	198(27.3)	161(22.2)	367(50.6)	726(100.0)	34.475***
	고등학생	84(14.5)	126(21.7)	370(63.8)	580(100.0)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	중학생	457(64.3)	249(35.0)	5(0.7)	711(100.0)	30.002***
	고등학생	277(49.0)	283(50.1)	5(0.9)	565(100.0)	
청소년상담센터	중학생	279(39.2)	409(57.4)	24(3.4)	712(100.0)	20.507***
	고등학생	159(28.1)	394(69.7)	12(2.1)	565(100.0)	
자원봉사센터	중학생	274(38.4)	380(53.2)	60(8.4)	714(100.0)	8.532*
	고등학생	189(33.5)	343(60.8)	32(5.7)	564(100.0)	
고용안정센터	중학생	502(70.7)	201(28.3)	7(1.0)	710(100.0)	6.065*
	고등학생	363(64.2)	196(34.7)	6(1.1)	565(100.0)	
미혼모시설	중학생	515(72.6)	188(26.5)	6(0.8)	709(100.0)	21.511***
	고등학생	341(60.6)	218(38.7)	4(0.7)	563(100.0)	
직업훈련원 (구 직업보도원)	중학생	491(69.0)	208(29.2)	13(1.8)	712(100.0)	37.049***
	고등학생	304(53.9)	256(45.4)	4(0.7)	564(100.0)	
도서관	중학생	51(7.0)	125(17.2)	551(75.8)	727(100.0)	13.622***
	고등학생	21(3.6)	74(12.7)	487(83.7)	582(100.0)	

*p<.05 **p<.01 ***p<.001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청소년자활지원관의 경우만 제외하고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청소년자활지원관, 청소년상담센터,

자원봉사센터,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의 대부분의 시설에서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에 비해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IV-111> 교급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만족도

단위: 빈도(%)

항목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전체	χ^2 값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중학생	37(10.3)	87(24.3)	197(55.0)	37(10.3)	358(100.0)	18.037***
	고등학생	55(15.3)	119(33.1)	169(46.9)	17(4.7)	360(100.0)	
청소년 자활지원관	중학생	4(28.6)	4(28.6)	2(14.3)	4(28.6)	14(100.0)	10.375*
	고등학생	-	1(7.7)	6(69.2)	3(23.1)	13(100.0)	
청소년 상담센터	중학생	2(7.4)	-	15(55.6)	10(37.0)	27(100.0)	9.348*
	고등학생	1(7.7)	4(30.8)	5(38.5)	3(23.1)	13(100.0)	
자원봉사센터	중학생	2(3.5)	3(5.3)	36(63.2)	16(28.1)	57(100.0)	11.765**
	고등학생	-	9(30.0)	17(56.7)	4(13.3)	30(100.0)	
박물관	중학생	14(2.8)	45(8.9)	305(60.0)	144(28.3)	508(100.0)	12.162**
	고등학생	11(2.9)	51(13.2)	249(64.7)	74(19.2)	385(100.0)	
도서관	중학생	20(3.7)	61(11.4)	293(54.9)	160(30.0)	534(100.0)	13.479**
	고등학생	19(4.0)	80(16.9)	275(58.0)	100(21.1)	474(100.0)	
미술관	중학생	8(2.1)	34(8.8)	224(58.2)	119(30.9)	385(100.0)	16.589***
	고등학생	7(2.3)	47(15.7)	188(62.9)	57(19.1)	299(100.0)	

*p<.05 **p<.01 ***p<.001

중학생의 각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이 65.3%, 청소년자활지원관이 42.9%, 청소년상담센터가 92.6%, 자원봉사센터가 91.3%, 박물관이 88.3%, 도서관이 84.9%, 미술관이 89.1%인데 비해, 고등학생들의 만족도는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이 51.6%, 청소년자활지원관이 92.3%, 청소년상담센터가 61.6%, 자원봉사센터가 70.0%, 박물관이 83.9%, 도서관이 79.1%, 미술관이 82.0%로 나타났다.

청소년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학업 및 학습지도, 캠프 등의 수련활동의 경우에는 중학생의 인지도가 높았으나, 개별상담,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숙식제공 등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의 경우에는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의 경우만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서비스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2> 교급에 따른 청소년 복지서비스 인지 및 이용여부

단위: 빈도(%)

항목	구분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이용해 본 적 있다	전체	χ^2 값
개별상담	중학생	345 (48.8)	325 (46.0)	37 (5.2)	707 (100.0)	6.929*
	고등학생	239 (42.4)	301 (53.4)	24 (4.3)	564 (100.0)	
가족상담	중학생	339 (47.9)	306 (43.2)	63 (8.9)	708 (100.0)	19.660***
	고등학생	270 (47.9)	277 (49.1)	17 (3.0)	564 (100.0)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중학생	239 (33.8)	406 (57.4)	62 (8.8)	707 (100.0)	13.233**
	고등학생	149 (26.4)	338 (59.8)	78 (13.8)	565 (100.0)	
학업/학습지도	중학생	264 (37.4)	317 (44.9)	125 (17.7)	706 (100.0)	9.409**
	고등학생	220 (39.1)	277 (49.3)	65 (11.6)	562 (100.0)	
숙식제공	중학생	344 (48.8)	313 (44.4)	48 (6.8)	705 (100.0)	6.259*
	고등학생	271 (48.3)	269 (48.0)	21 (3.7)	561 (100.0)	
캠프 등 1박이상의 수련활동	중학생	239 (33.5)	207 (29.0)	267 (37.4)	713 (100.0)	6.291*
	고등학생	199 (35.0)	193 (33.9)	177 (31.1)	569 (100.0)	

*p<.05 **p<.01 ***p<.001

청소년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는 캠프 등의 수련활동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중학생(74.3%)이 고등학생(61.4%)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3〉 교급에 따른 복지서비스 만족도

단위: 빈도(%)

항목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전체	χ^2 값
캠프 등 1박 이상 수련활동	중학생	13 (5.3)	50 (20.4)	124 (50.6)	58 (23.7)	245 (100.0)	15.722***
	고등학생	18 (10.5)	48 (28.1)	87 (50.9)	18 (10.5)	171 (100.0)	

***p<.001

(4) 성·문제행동

청소년 성·문제행동으로는 성 정체성, 성관계, 가출 등의 경험을 조사하였다. 성정체성에 대해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서 이성애자(88.7%)가 적는데 반해 동성애자(4.9%)와 양성애자(5.4%)가 많았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이성애자(92.8%)가 많고 동성애자(2.2%)와 양성애자(3.8%)는 중학생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4〉 교급에 따른 성정체성

단위: 빈도(%)

구분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전체	χ^2 값
중학생	621(88.7)	34(4.9)	38(5.4)	7(1.0)	700(100.0)	8.956**
고등학생	558(92.8)	13(2.2)	23(3.8)	7(1.2)	601(100.0)	

**p<.01

성관계 경험은 중학생이 1.2%, 고등학생이 3.3%로, 고등학생이 중학생의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에 실시된 청소년위원회(2006) 조사 결과인 중학생 2.2%, 고등학생 7.0%와 비교해볼 때, 성관계 경험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15> 교급에 따른 성관계 경험

단위: 빈도(%)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값
중학생	9(1.2)	746(98.8)	755(100.0)	7.140**
고등학생	20(3.3)	587(96.7)	607(100.0)	

**p<.01

가출경험도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은 9.4%인데 비해 중학생은 5.1%였으며, 중·고등학생 모두 1번(중학생 2.7%, 고등학생 4.7%)의 일회성 단순가출이 가장 많았다. 2005년도의 청소년위원회(2006) 조사 결과인 중학생 8.0%, 고등학생 11.9%와 비교하면 가출경험이 다소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16> 교급에 따른 가출 경험

단위: 빈도(%)

구분	없다	1번	2번	3-4번	5-9번	10번 이상	전체	χ^2 값
중학생	712 (94.9)	20 (2.7)	8 (1.1)	4 (0.5)	3 (0.4)	3 (0.4)	750 (100.0)	12.885*
고등학생	537 (90.6)	28 (4.7)	12 (2.0)	11 (1.9)	1 (0.2)	4 (0.7)	593 (100.0)	

*p<.05

3) 사회지원체계 및 보호육구

사회적 지원체계에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직장·근로의 모든 영역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가정

가정에서의 부모에 의한 학대 경험을 교급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방임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에 비해서 부모에 의한 방임의 경험이 많았다. 이는 자녀들의 의식주, 출석, 질

병 등의 문제에 대해서 부모들이 중학생에 비해서 고등학생에게 관심을 덜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IV-117〉 교급에 따른 부모의 청소년학대

항목	구분	평균	표준 편차	t값	자유도
신체적 학대	중학생 (n=768)	1.12	0.32	-1.414	1381
	고등학생 (n=615)	1.14	0.41		
정서적 학대	중학생 (n=766)	1.37	0.64	-0.675	1254
	고등학생 (n=615)	1.39	0.70		
방임	중학생 (n=766)	1.31	0.39	-3.325***	1374
	고등학생 (n=610)	1.39	0.47		

***p<.001

(2) 학교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경험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교사에 대한 존경 등 긍정적 경험의 경우에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많았으나, 교사로부터의 차별대우, 모욕, 매, 성희롱 등의 부정적 경험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교사를 비롯한 학교교육 환경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더욱 열악해지고 이로 인해 교사나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보다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IV-118〉 교급에 따른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긍정적 경험	중학생 (n=767)	3.51	1.00	7.110***	1379
	고등학생 (n=614)	3.13	0.98		
부정적 경험	중학생 (n=765)	2.02	0.80	-5.649***	1276
	고등학생 (n=614)	2.27	0.84		

***p<.001

(3) 지역사회

지역사회에서의 지지 정도가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부모, 형제자매, 친척, 학교친구나 선후배, 교사, 전문가 등 을 지지원으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여 각 지지원들의 총점을 비교하였다. 조사 결과, 중학생들이 모든 사회적 지지 영역에서 고등학생보다도 높은 점수를 받아서 사회적 지지는 연령이 어릴수록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사회적 지지의 총점 영역인 6~24점 중에서 중학생은 정서적 지지가 18.43점, 평가적 지지 17.58점, 정보적 지지 16.05점, 물질적 지지가 17.54점인데 비해, 고등학생은 정서적 지지가 17.32점, 평가적 지지 16.64점, 정보적 지지 14.77점, 물질적 지지가 17.02점으로 나타났다.

〈표 IV-119〉 교급에 따른 사회적 지지

항목	구분	총점	표준 편차	t값	자유도
나를 사랑하고 돌보아준다.	중학생 (n=562)	18.43	3.30	5.382***	1007
	고등학생 (n=447)	17.32	3.22		
나의 능력을 존중해 준다.	중학생 (n=556)	17.58	3.73	4.040***	992
	고등학생 (n=438)	16.64	3.54		
내가 무언가 의논하거나 이야기 하고 싶을 때 도움이 된다.	중학생 (n=559)	16.05	4.14	5.190***	977
	고등학생 (n=442)	14.77	3.80		
내가 필요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거나 빌려준다.	중학생 (n=555)	17.54	3.84	2.215**	972
	고등학생 (n=439)	17.02	3.51		

p<.01 *p<.001

지역사회에서의 학생들의 피해 경험 중에서 성추행이나 강간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는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서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3.8%가 성추행이나 강간 피해 경험이 있었던데 비해서 중학생은 1.2%로, 고등학생이 중학생의 약 3배 정도 피해 경험이 많았다.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성추행이나 강간피해 경험 중 2번 이상의 상습적 폭행 피해는 중학생이 50%, 그리고 고등학생이 60%로 나타났다.

<표 IV-120> 교급에 따른 성추행, 강간 경험

단위: 빈도(%)

구분	전혀없다	1번	2-3번	4번 이상	전체	χ^2 값
중학생	747(98.8)	6(0.8)	1(0.1)	2(0.3)	756(100.0)	11.551**
고등학생	585(96.2)	9(1.5)	6(1.0)	8(1.3)	608(100.0)	

**p<.01

(4) 직장·근로

일(아르바이트) 경험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많았는데, 고등학생의 18.5%가 일(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던데 비해서 중학생은 12.9%만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1> 교급에 따른 일(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빈도(%)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값
중학생	96(12.9)	648(87.1)	744(100.0)	8.050**
고등학생	112(18.5)	493(81.5)	605(100.0)	

**p<.01

4) 인권 및 참여욕구

일반적인 청소년인권과 소외집단의 인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회참여 경험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1) 인권 및 사회참여의식

인권 및 사회참여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는데, 중학생들은 고등학생들보다도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소외집단에 대한 책임감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하겠다는 의식은 고등학생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의 인권 및 참여에 대한 의식은 고등학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추상적이며 책임감이 수반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자기 자신이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서 문제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식도 고등학생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V-122〉 청소년 인권 및 참여의식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나는 청소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잘 알고 있다	중학생 (n=768)	2.81	0.76	3.643***	1307
	고등학생 (n=616)	2.66	0.78		
소외집단 인권에 대한 책임감 및 참여의식	중학생 (n=659)	1.76	0.62	-1.991*	1213
	고등학생 (n=570)	1.83	0.60		

*p<.05 ***p<.001

(2) 사회참여 정도

학생들의 사회참여 정도는 사회참여 의식과 마찬가지로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 정책 및 행정과정에서의 참여, 봉사활동참여, 아르바이트참여, 여가문화행사참여 등 5개 영역에서의 참여에 대해서 평균 4점 만점을 기준으로 사회참여 점수를 비교한 결과, 고등학생은 평균 2.72점인데 비해 중학생은 2.60점으로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서 사회참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3> 교급에 따른 사회참여 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중학생 (n=757)	2.60	0.58	-4.090***	1357
고등학생 (n=607)	2.72	0.50		

***p<.001

6. 소결

이 장에서는 인권관점에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학생청소년의 복지실태와 관련 욕구를 조사하였다.

첫째, 생존권의 영역에서 살펴보면, 학생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자살에 대한 심각성이 우려된다. 학생청소년은 빈곤, 가출, 장애청소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의식주생활을 보였고, 주요 질병은 충치 및 잇몸질환(25.7%), 피부질환(12.4%) 등이었다. 질병 치료를 받지 않은 청소년 중 21.9%가 대부분이 귀찮고(46.4%) 가벼운 증세(32.9%)를 치료받지 않은 이유로 응답하였으며, 치료비가 없는 경우는 4.3%에 머물렀다. 자아존중감은 과거에 비해 비교적 높아졌으나, 불안·우울 등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나빠졌으며, 상습적 흡연과 음주를 하고 있는 청소년은 약 3%, 자해행위 및 자살기도의 경험에 있는 학생은 1/10정도로 나타났다.

둘째, 발달권의 영역에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지역사회 내 기관(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94.0%)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으나 대학진학 가능성에 대해서는 28.6%가 부정적이었다. 거의 모든 학생청소년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PSP와 DMB는 3%정도 보유하고 있었고, 18.9%가 과중한 통신비용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인터넷과 컴퓨터게임(21.3%), TV시청(20.5%)이었으나, 장래 희망하는 활동은 여행(16.2%)과 영화

음악감상(8.4%), 아르바이트(7.6%)등으로 나타났다. 학생청소년 중 9.4%가 성소수자였으며, 3.2%가 자신의 성정체성으로 인해 놀림이나 따돌림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경험은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의 공공이용시설이 가장 높았다. 가장 이용하고 싶어 하는 기관도 이용시설이 우선순위가 높았다. 복지서비스도 과반수이상의 학생청소년들이 알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복지서비스의 이용률은 10%정도였다. 그러나 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만족도는 70~80%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캠프, 성교육, 문화·예술 활동 등이었다.

셋째, 보호권의 영역에서 살펴보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가정, 학교 등에서 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어서 청소년 인권 보호 차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먼저 가정에서는 신체적 학대 경험이 약 10%, 정서적 학대 경험이 약 25%, 가족관계에서의 문제가 있는 청소년은 10-20%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나 선배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은 협박이나 위협 8.8%, 금품갈취 8.8%, 집단 따돌림 13.5%, 폭행 34.0%이었으며, 교사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은 구타 39.6%, 모욕 15.3%, 성희롱 1.7%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은 신체적 폭행 1.3%, 욕설이나 비난 4.3%, 성추행이나 성폭행 2.0%였다.

넷째, 참여권의 영역에서 살펴보면, 청소년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청소년들이 알고 있었으나, 현재 학교를 비롯하여 가정, 사회에서의 청소년권리행사는 많은 부분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인 인권보장에 대해서는 동의가 높으나 문제해결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참여의식은 낮았다. 학생청소년의 70%정도가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표명, 경제활동, 정책 및 행정과정, 여가문화행사 기획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실제 참여경험은 대부분 10-20%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청소년참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성별에 따른 복지실태와 욕구를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에 우울·불안 등의 문제나 지역사회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반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음주, 흡연, 성관계와 학교 폭력에서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에 지역사회 관련 시설에 대한 인지도나 이용률이 낮음을 볼 때 이를 위한 개선이 요청된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우울·불안과 비행의 수치가 높은 반면, 흡연 경험은 남학생이 여학생의 2배, 성관계 경험은 남학생이 여학생의 3배 정도 높았다.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의 인지도나 이용률은 직업훈련원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인지도가 낮았고, 만족도에서도 모든 청소년 기관(시설)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낮았다. 반면 복지서비스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지도가 낮았지만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피해와 교사에 대한 부정적 경험은 남학생이 많았으나, 지역사회에서의 성추행이나 강간은 여학생이 많았다.

여섯째, 거주지역에 따른 복지실태와 욕구를 살펴보면, 농어촌지역의 학생 청소년이 심리·사회적으로 가장 불안정하며, 비행 경험이 많고, 정보화 기기 및 복지시설에 대한 혜택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인권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이들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함을 볼 수 있다. 농어촌지역 학생들은 우울·불안 및 비행의 수치가 높고, 학교폭력의 피해 경험도 많고, 음주 경험도 가장 많았으며, 이동전화 등 정보화 기기의 보유실태도 가장 낮았다. 또한 청소년 기관(시설)과 복지서비스의 인지 및 이용경험도 가장 낮았다.

일곱째, 교급에 따른 복지실태와 욕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중학생에 비해서 고등학생이 우울·불안 등 심리·사회적 적응의 문제가 많고, 음주, 흡연, 성관계 등의 비행경험이 많으며, 학교에서의 적응이나 경험도 중학생에 비해 부정적이었다. 지역사회 내 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중학생에 비해서 높았으나 이용 경험은 중학생과 큰 차이는 없었으며, 만족도는 오히려 중학생에 비해서 떨어졌다. 중학교 생활에 비해서 고등학교 생활이 청소년들의 욕구를 제한하는 측면이 강하여 심리적, 사회적 적응과 여가생활 기회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권리 및 참여의식에 대한 조사에서도 나타나는데,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의식은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높은 데 반해, 소외집단의 인권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사회참여의식은 고등학생이 높아, 고등학생이 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높음을 보이고 있다.

V. 빈곤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 빈곤청소년의 복지실태 및 욕구
3. 성별에 따른 복지실태 및 욕구
4. 거주지역에 따른 복지실태 및 욕구
5. 가족형태에 따른 복지실태 및 욕구
6. 소결

V. 빈곤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보건복지부 결연사업의 대상청소년이다. 결연사업이란 1976년 정부의 ‘불우아동 건전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1981년 민간주도로 전환되면서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에 위탁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인 빈곤아동·청소년과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주 대상은 소년소녀가정 아동·청소년, 시설보호아동·청소년, 가정위탁보호아동·청소년, 모부자세대 및 재가노인세대 등 기타 빈곤세대이며(보건복지부, 2004), 정부가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정책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 빈곤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빈곤집단이라 할 수 있다.

2005년 12월 현재 결연사업 총 대상자수는 245,518명이며 이중 양육시설, 재가보호노인과 재가보호장애인을 제외하면, 소년소녀가정 4,402명, 가정위탁보호 11,782명, 저소득모자가정 62,941명, 기타 빈곤가정 88,684명 등 총 167,809명이었다. 이 결연대상 중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들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이 청소년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이들에 대한 결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복지재단 산하 전국 16개 시·도 지부에 5개 대상별 인구비율과 담당 사례 수에 따라 표본사례수를 할당하였고, 각 기관에서는 할당 사례 수에 맞게 빈곤가정 청소년을 추출하였다. 전체 결연대상 청소년 비율에 따라 가장 많은 수의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부의 경우 60사례, 가장 적게 할당된 기관은 대전지부로 22사례가 할당되었다. 기관별로 청소년비율에 따라 사례수가 먼저 할당된 이후에 각 기관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대상군의 비율에 따라 사례를 배정하도록 하였다. 그 중 회수된 설문지 601개가 최종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분석의 대상이 된 빈곤청소년 601명을 보다 상세한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소년소녀가정 청소년 66명(11.0%), 조부모대리양육가정 청소년 83명(13.8%), 친인척위탁양육가정 청소년 45명(7.5%), 일반위탁가정 청소년 17명(2.8%), 모자가정 청소년 195명(32.4%), 부자가정 청소년 43명(7.2%), 기타 일반빈곤가정 청소년 152명(25.3%) 등이었다.

〈표 V-1〉 응답자의 가정형태별 분포

구분		빈도	백분율
가정형태별	소년소녀가정	66	11.0
	조부모대리양육가정	83	13.8
	친인척위탁양육가정	45	7.5
	일반위탁가정	17	2.8
	모자가정	195	32.4
	부자가정	43	7.2
	기타 일반빈곤가정	152	25.3
	전체	601	100.0

사전조사를 위해 2006년 4월 6일부터 12일까지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14개 지부에서 중·고생 각각 1명을 대상으로 총 28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표의 문항을 수정·보완한 후 최종 조사표가 완성되었다. 정확하고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조사자 지침이 작성되었고, 한국복지재단 본부의 선임사회복지사와 연구원에 의해 조사를 담당할 전국 16개 기관의 담당 직원과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전교육이 유선과 서면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그 교육에서 청소년자신과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청소년이 설문을 작성할 때,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본 조사는 2006년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조사자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나 담당 직원에 의해 실시되었다. 가정방문이나 조사대상자가 기관에 내방하여 직접 대면하고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조사표

의 작성은 조사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표 V-2> 응답자의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급별 분포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251	41.8
	여자	350	58.2
	전체	601	100.0
지역별	대도시	286	47.6
	중소도시	224	37.3
	농어촌	91	15.1
	전체	601	100.0
연령별	13-15세	157	26.4
	16-18세	345	58.1
	19세 이상	92	15.5
	전체	594	100.0
교급별	중학교	251	41.8
	인문고	130	21.6
	실업고	204	33.9
	기타	16	2.6
	전체	601	100.0

응답자의 성별, 지역별, 연령별, 학교급별로 분류는 <표 V-2>와 같다. 전체 601명 중 남자청소년은 251명(41.8%), 여자청소년은 350명(58.2%)이었다. 거주 지역은 크게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구분하여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286명(47.6%),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224명(37.3%), 농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91명(15.1%)이었다. 연령별로는 13세에서 20세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일반고·실업고로 구분하였는데, 중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은 251명(41.8%), 일반고를 다니는 청소년은 130명(21.6%), 실업고를 다니는 청소년은 204명(33.9%)이었다. 또한 기타 특수학교, 직업학교,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도 16명(2.6%)이었다.

<표 V-3> 장애 유무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17(2.9)	573(97.1)	590(100.0)

조사대상 청소년의 장애여부를 살펴본 결과, 시각장애·청각장애·발달장애·지체장애 등 장애가 있는 청소년은 17명(2.9%), 장애가 없는 청소년은 573명(97.1%)으로 나타나 대부분은 비장애청소년으로 나타났다.

<표 V-4> 학교 성적

단위: 빈도(%)

상	중	하	전체
80(13.4)	352(59.0)	165(27.6)	597(100.0)

조사대상 청소년의 학교 성적을 상·중·하로 구분하면 상은 80명(13.4%), 중은 352명(59.0%), 하는 165명(27.6%)이었다. 빈곤청소년의 자기보고에 의하면 대다수의 학생이 중위권 이상의 성적임을 알 수 있다.

<표 V-5> 가정형편

단위: 빈도(%)

매우 어려운 편이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잘 사는 편이다	매우 잘사는 편이다	전체
87(14.5)	393(65.4)	112(18.6)	8(1.3)	1(0.2)	601(100.0)

<표 V-5>와 같이 전체 601명의 가정형편을 분석해보면 보통이하의 가정형편이 98.5%(매우 어려운 편이다 14.5%, 어려운 편이다 65.4%, 보통이다 18.6%)로 나타난다. 대다수의 청소년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V-6>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및 무료급식지원 수급 여부와 연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받는 청소년은 452명(75.3%)이고 무료급식

지원을 받는 청소년은 508명(84.7%)이었다.

<표 V-6>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및 무료급식지원 수급 여부

구분		빈도	백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여 여부	예	452	75.3
	아니오	41	6.8
	모름	107	17.8
	전체	600	100.0
무료급식 지원 수여 여부	예	508	84.7
	아니오	60	10.0
	모름	32	5.3
	전체	600	100.0

조사대상 청소년의 부모의 결혼 상태를 분석한 결과는 <표 V-7>과 같다.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225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사별은 124명(21.2%)이었고, 부모의 결혼 상태를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도 16.3%인 95명이나 되었다. 부모의 이혼·별거·사별을 경험한 한부모가족의 청소년은 384명(65.7%)이었다. 결혼 또는 재혼을 한 부모는 105명(18.0%)이었다. 이렇게 빈곤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과 달리 부모의 결혼을 통한 안정된 ‘정상가족’의 경우보다 가족형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

<표 V-7> 부모의 결혼 상태

단위: 빈도(%)

결혼 또는재혼	이혼	별거	사별	모름	전체
105(18.0)	225(38.5)	35(6.0)	124(21.2)	95(16.3)	584(100.0)

부모와의 동거 상태를 분석한 것은 <표 V-8>이다. 조사 결과 친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전체 31.5%로 기타 다음으로 가장 많았고, 친부모와 동거(11.7%), 친부(9.0%), 계부모(1.2%), 친부+계모(1.0%), 계부+친모(0.7%)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대부분 조부모나 친척에 위탁되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표 V-8〉 부모와의 동거 상태

단위: 빈도(%)

친부모 모두	친부+ 계모	계부+ 친모	친부	친모	계부모	기타	전체
69 (11.7)	6 (1.0)	4 (0.7)	53 (9.0)	186 (31.5)	7 (1.2)	265 (44.9)	590 (100.0)

친부나 친모에 의해 양육될 수 없게 된 이후 몇 번이나 보호형태가 바뀌었는지를 조사하였다. 양친부모 또는 친부나 친모와 함께 하고 있어 보호형태가 바뀌지 않는 빈곤청소년은 245명(41.2%)에 불과해 58.8%는 보호형태가 한 번 이상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형태가 1번 변화한 청소년이 281명(47.3)으로 가장 많았고, 3회 이상 경험한 청소년도 14명(2.4%)이나 되었다. 심지어 최대 7회까지 보호형태가 변화한 청소년도 있었다. 빈곤 자체보다 보호형태의 불안정성이 청소년의 발달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표 V-9〉 보호형태의 변화 회수

구분	빈도	백분율
0회	245	41.2
1회	281	47.3
2회	54	9.1
3회 이상	14	2.4
전체	594	100.0

부모의 교육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V-10>과 같다. 부와 모 모두 고졸인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경우 교육정도가 고졸 이하가 52.7%이고, 모의 경우 고졸 이하가 57.0%인 것으로 나타나 부가 모보다 교육정도가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부모 교육정도에 대한 과장 보고(over reporting) 경향을 감안한다면, 빈곤청소년 부모의 교육정도는 고졸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조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V-10> 부모의 교육정도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부	무학	19	3.5	모	무학	20	3.7
	초졸	57	10.5		초졸	50	9.2
	중졸	54	9.9		중졸	68	12.6
	고졸	157	28.8		고졸	170	31.4
	대졸	38	7.0		대졸	24	4.4
	대학원졸	17	3.1		대학원졸	4	0.7
	모름	203	37.2		모름	205	37.9
	전체	545	100.0		전체	541	100.0

2. 빈곤청소년의 복지실태 및 욕구

1) 기초생활실태 및 생존욕구

(1) 의식주

빈곤청소년의 지난 1년간 의식주 생활은 <표 V-11>과 같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 6%(그런 편이다 4.5%, 매우 그렇다 1.5%)로 36명이나 되었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그렇지 않다는 37.1%(전혀 그렇지 않다 6.6%, 거의 그렇지 않다 30.5%)이었다. 빈곤청소년의 상당수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이나 더러운 옷을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8.5%(그런 편이다 7.8%, 매우 그렇다 0.7%)이었다. 혼자 사용하는 내 방이 있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58.8%(전혀 그렇지 않다 40.5%, 거의 그렇지 않다 18.3%)이었다. 빈곤청소년의 대부분은 자신의 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개인적인 독립공간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잘 곳이 없어서 밖에서 자거나 밤새도록 돌아다닌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8%(그런 편이다 1.0%, 매우 그렇다 1.4%)이었다. 하지만 본 조사대상이 결연사업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대상인 때문인지 대부분의 빈곤청소년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의식주 생활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표 V-11> 지난 1년간 의식주 생활

단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적이 있다.	361 (60.8)	197 (33.2)	27 (4.5)	9 (1.5)	594 (100.0)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	39 (6.6)	181 (30.5)	287 (48.3)	87 (14.6)	594 (100.0)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이나 더러운 옷을 입은 적이 있다.	325 (54.8)	218 (36.8)	46 (7.8)	4 (0.7)	593 (100.0)
혼자 사용하는 내 방이 있다.	239 (40.5)	108 (18.3)	131 (22.2)	112 (19.0)	590 (100.0)
잘 곳이 없어서 밖에서 자거나 밤새도록 돌아다닌 적이 있다.	505 (85.6)	71 (12.0)	6 (1.0)	8 (1.4)	590 (100.0)

(2) 의료·보건

지난 1년간 건강검진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표 V-12>와 같다. 건강검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51명(42.5%)이고,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39명(57.5%)나 되었다. 이렇게 건강검진 비율이 낮으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확률도 함께 낮아지게 된다. 한 지난 1년간 질병 경험을 살펴본 결과(<표 V-13>), 충치 잇몸 질환이 169명(28.1%)으로 가장 높았고, 위장내과질환이 92명(15.3%), 피부질환이 78명(13.0%), 각종 사고가 42명(7.0%), 만성질환이 9명(1.5%), 성문제 질병이 3명(0.5%), 백혈병·암이 1명(0.2%)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2> 지난 1년간 건강검진 경험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251(42.5)	339(57.5)	590(100.0)

<표 V-13> 지난 1년간 질병 경험

단위: 빈도(%)

각종 사고	충치·잇몸 질환	위장·내과 질환	성문제 질병	만성질환	백혈병, 암	피부질환	전체
42(7.0)	169(28.1)	92(15.3)	3(0.5)	9(1.5)	1(0.2)	78(13.0)	601(100.0)

질병치료 유무에 대해 살펴본 결과, 치료를 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204명(65.8%)이었고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도 106명(34.2%)이나 되었다(<표 V-14>). 질병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는 가벼운 증세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6명(40.9%)이었고, 치료비가 없어서 29명(33%), 귀찮아서 8명(9.1%), 무서워서 5명(9.1%), 의료보험이 없어서·의논할 사람이 없어서·몸이 불편해서가 1명(1.1%) 순으로 나타났다.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아직도 빈곤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의식주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은 아직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V-14> 질병치료 유무

단위: 빈도(%)

예	아니오	전체
204(65.8)	106(34.2)	310(100.0)

<표 V-15> 질병치료 받지 않은 이유

단위: 빈도(%)

가벼운 증세	치료비 없어서	의료보험 없어서	의논할 사람 없어서	무서워서	귀찮아서	몸이 불편해서	기타	전체
36 (40.9)	29 (33.0)	1 (1.1)	1 (1.1)	5 (5.7)	8 (9.1)	1 (1.1)	7 (8.0)	88 (100.0)

(3) 건강

빈곤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 흔히 사용되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검증된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에게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묻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은 문항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4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10문항의 합산 점수는 10점에서 40점의 범위를 가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항간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0.88로 나타났다.

<표 V-16>에서 보듯이, 본 연구의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 40점 총점에 평균 29.27점(표준편차 5.16)을 나타냈다. 이는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점수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동일하게 결연사업대상 가정을 표집하여 빈곤아동(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허남순 외(2005)의 연구에서 평균 자아존중감은 28.99점(표준편차 5.08)이었다. 오승환(2000)의 연구에서 저소득 결손가정 아동의 평균 자아존중감은 26.53점(표준편차 3.5)으로, 일반가정 아동의 평균 자아존중감은 26.70점(표준편차 4.1)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상균(1999)의 연구에서 일반 중·고등학생의 평균 자아존

중감은 27.84점(표준편차 4.77)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빈곤청소년들은 또래들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약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V-16> 자아존중감

영역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아존중감	599	29.27	5.16

본 연구에서는 빈곤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Achenbach의 개념을 활용한 한국판 자기행동평가척도(K-YSR)의 일부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한국판 자기행동평가척도는 Achenbach가 아동,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아동행동조사표(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한국적 특성에 맞게 수정한 척도로서, 국내 여러 선행 연구들(오승환, 2000; 정선욱, 2002)에서 사용되었다. Achenbach (1991)는 심리·사회적 적응을 ‘문제행동 증후군’을 나타내는 정도로 이해하고, 문제행동 증후군으로서 9개의 하위범주(사회적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 정체감 문제)를 포함하였다. 특히 이 가운데 사회적 위축과 신체증상, 우울·불안을 포함하는 심리정서문제와 비행과 공격성을 포함하는 행동문제를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정서문제 중 우울·불안(14문항) 하위척도를, 행동문제 중에서 비행(12문항) 하위척도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이들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에 문제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우울·불안이 0.85, 비행이 0.81로 나타났다.

<표 V-17>에서 보듯이, 빈곤청소년들은 14개의 우울과 불안 문항들에 대해 평균 7.10점(표준편차 4.94)을 나타냈다. 이 점수들은 국내 선행 연구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편이다. 동일하게 결연사업대상 빈곤아동을 조사한 허남순 외(2005)의 연구에서는 우울·불안 척도에서 평균 4.16점(표준편차 4.50)을 보고하였다. 또한 시설보호 아동을 조사한 정선욱(2002)의 연구는 우울·불안 척도(14문항)에서 평균 6.00점(표준편차 4.54)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

에서 살펴본 빈곤청소년들은 우울·불안의 심리정서문제가 아동기보다 높아진 점과 시설 아동들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은 우려할만한 사실로 판단된다.

또한 빈곤청소년들은 12개의 비행 문항들에 대해 평균 1.99점(표준편차 2.22)을 나타냈다. 이 점수들은 국내 선행 연구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오승환(2000)은 저소득 결손가정 아동들의 비행을 이보다 훨씬 높게 보고하였는데, 비행 척도(11문항)에서 평균 3.23점(표준편차 2.9)으로 나타났다. 정선옥(2002) 역시 시설보호 아동들의 비행을 본 연구의 빈곤아동들에 비해 훨씬 높게 보고하였는데, 비행 척도(9문항)에서 평균 3.49점(표준편차 2.44)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빈곤청소년들은 우울·불안의 심리정서문제는 심각하지만 비행의 행동문제에서 저소득 결손가정과 시설에 거주하는 또래들에 비해 문제가 적은 것으로, 즉 보다 적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 청소년의 경우 결연사업의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빈곤상황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장기간 후원결연을 맺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기간 지속적 빈곤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우울증과 불안 증세 등과 같은 내재화된 문제가 나타나지만, 이혼, 카드빚 등으로 중산층에서 빈곤가족으로 갑자기 추락한 청소년에게서는 공격성과 비행 등과 같은 외현화된 문제들이 발견된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Chung, 2004; McLoyd, 1998).

<표 V-17> 심리·사회적 적응

영역	빈도	평균	표준편차
우울·불안	600	7.10	4.94
비행	600	1.99	2.22

다음은 청소년의 흡연, 음주, 자살기도 경험과 횡수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흡연정도를 살펴본 결과<표 V-18>, 담배를 안 피우는 경우가 555명(92.3%)으로 나타나 빈곤청소년의 거의 대부분 흡연하지 않았다. 또한 평소 음주량에 대한 응답도 마신 적 없다가 442명(73.7%)으로 나타나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다(<표 V-19>). 조사대상 빈곤청소년들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대부분 흡연·음주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8> 흡연 정도

단위: 빈도(%)

안 피운다	어쩌다 하나씩	하루에 반 갑 정도	하루에 한 갑 이상	전체
555(92.3)	28(4.7)	16(2.7)	2(0.3)	601(100.0)

<표 V-19> 평소 음주량

단위: 빈도(%)

마신 적 없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1주일에 1-2번 정도	1달에 1-2번 정도	거의 매일	전체
442(73.7)	132(22.0)	11(1.8)	12(2.0)	3(0.5)	600(100.0)

빈곤청소년의 자해나 자살기도여부를 조사한 결과, 자해 행위를 하거나 자살을 기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5명(5.9%)이었고,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556명(94.1%)이었다(<표 V-20>). 자해행위나 자살기도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자해행위나 자살기도 횟수는 2회가 9명(27.3%)으로 가장 많았고 3회가 8명(24.2%), 5회 이상이 6명(18.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적어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2회 이상이 대부분(84.8%)을 차지하는 점은 한 번이라도 자해행위나 자살을 시도한 경우 이들이 반복해서 자해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V-20> 자해행위나 자살기도 경험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35(5.9)	556(94.1)	591(100.0)

〈표 V-21〉 자해행위나 자살기도 횟수

단위: 빈도(%)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전체
5(15.2)	9(27.3)	8(24.2)	5(15.2)	6(18.1)	33(100.0)

2) 문화여가활동 및 발달욕구

(1) 교육

빈곤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잘 적응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93.6%(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 42.5%, 잘 적응하고 있는 편이다 51.1%)이었고, 적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6.3%(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5.5%,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0.8%)이었다(〈표 V-22〉). 대다수의 빈곤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학교 가지 않은 날에 대한 응답에서 1번 이상 학교를 가지 않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68명(28.1%)이었다. 그 중 한 달 이상이 5명(0.8%), 한 달 정도 7명(1.2%), 15일 정도 14명(2.3%), 7일 정도 19명(3.2%), 1-2번 정도가 123명(20.6%)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결석한 경우의 대부분이 장기 결석이 아니라 1-2번 정도 학교에 빠진 것에 불과하여 학교적응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V-22〉 학교생활 적응

단위: 빈도(%)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	잘 적응하고 있는 편이다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254(42.5)	305(51.1)	33(5.5)	5(0.8)	597(100.0)

〈표 V-23〉 지난 1년 동안 학교 가지 않은 날

단위: 빈도(%)

없다	1-2번	7일 정도	보름 정도	한 달 정도	한 달 이상	전체
430(71.9)	123(20.6)	19(3.2)	14(2.3)	7(1.2)	5(0.8)	598(100.0)

또한 학교를 가고 싶는데 갈 수 없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9명(10.1%)이었다. 이들이 학교를 가고 싶는데 갈 수 없었던 이유는 귀찮아서 혹은 아침에 못 일어나서라는 개인 나태의 이유가 8명(12.9%)으로 가장 많았고, 괴롭힘이 무서워서 6명(9.7%), 부모님이 못 가게 해서 5명(8.1%), 가사를 돕기 위해 4명(6.5%), 학교가 거부해서 3명(4.8%), 가출을 해서 2명(3.2%), 학교 내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학비를 못 내서가 각각 1명(1.6%)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나태가 아닌 다른 이유들은 학교사회복지사 등 학교 내 전문가들의 도움이 시급하게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표 V-24> 학교 가고 싶는데 갈 수 없었던 경험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59(10.1)	525(89.9)	584(100.0)

<표 V-25> 학교 가고 싶는데 갈 수 없었던 이유

항목	빈도	백분율
학비를 못 내서	1	1.6
가사를 돕기 위해	4	6.5
부모님이 못 가게 해서	5	8.1
학교가 거부해서	3	4.8
괴롭힘이 무서워서	6	9.7
귀찮아서 혹은 아침에 못 일어나서	8	12.9
학교 내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1	1.6
가출을 해서	2	3.2
기타	32	51.6
전체	62	100.0

또한 빈곤청소년 본인의 대학 진학 가능 여부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였다.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63.5%,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36.5%로 조사되었다(<표 V-26>). 그 중 대학 진학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로는 좋지 않은 성적이 118명(56.5%)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인 이유 80명(38.3%) 기타 10명(4.8%) 장애가 1명(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6〉 대학 진학 가능 여부

단위: 빈도(%)

예	아니오	전체
377(63.5)	217(36.5)	594(100.0)

〈표 V-27〉 대학 진학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

단위: 빈도(%)

성적이 안좋아서	경제적인 이유로	장애 때문에	기타	전체
118(56.5)	80(38.3)	1(0.5)	10(4.8)	209(100.0)

경제적인 이유로 과외나 학원을 못 다닌 경험은 있다는 경우가 전체 596명 중 329명(55.2%)으로 나타나 상당수가 경제적인 이유로 사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서 이러한 사교육 상의 불평등은 학교성적의 차이로 나타나고 이는 다시 대학진학, 직업선택, 배우자선택 등에서의 불이익으로 계속 악순환 된다. 이러한 악순환은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교육을 보완할만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표 V-28〉 경제적인 이유로 과외나 학원을 못 다닌 경험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329(55.2)	267(44.8)	596(100.0)

(2) 정보·문화

컴퓨터의 소유 여부는 약 90%가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었으며(<표 V-29>), 인터넷 가능 여부도 약 90% 이상이 인터넷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표 V-30>).

<표 V-29> 컴퓨터 소유 여부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535(89.6)	62(10.4)	597(100.0)

<표 V-30> 인터넷 가능 여부

단위: 빈도(%)

예	아니오	전체
485(92.9)	37(7.1)	522(100.0)

<표 V-31> 정보 매체 소유

단위: 빈도(%)

이동 전화	PSP	DMB	가지고 있지 않다	전체
343(57.1)	4(0.7)	5(0.8)	239(39.8)	591(100.0)

정보매체 소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동전화를 소유한 경우가 343명(57.1%)으로 가장 많았고, DMB 5명(0.8%) PSP가 4명(0.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보매체 중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239명(39.8%)이나 되었다.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2005년 12월말 현재 전 국민의 78%를 차지하는 3,800여 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휴대폰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빈곤청소년의 42.9%가 이동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않은 것은 집단따돌림이나 열등감 등의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일 평균 정보매체 이용시간은 <표 V-32>와 같다. 인터넷은 하루 1시간 이상을 이용하는 경우가 60.6%로 나타났고, 특히 인터넷 중독을 예상할 수 있는 5시간이상의 장시간 이용하는 경우도 4.7%나 되었다. 또한 전화(이동 전화)는 1시간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269명(44.8%), 1-3시간이 40명(6.7%), 5시간 이상 33명(5.5%) 3-5시간 15명(2.5%) 순이었다. PSP, DMB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매체 이용시간도 많지 않았다.

<표 V-32> 1일 평균 정보매체 이용시간

단위: 빈도(%)

항목	없음	1시간미만	1-3시간	3-5시간	5시간이상	전체
인터넷	76(12.6)	161(26.8)	283(47.1)	53(8.8)	28(4.7)	601(100.0)
전화 (이동전화)	244(40.6)	269(44.8)	40(6.7)	15(2.5)	33(5.5)	601(100.0)
PSP	591(98.3)	8(1.3)	2(0.3)	-	-	601(100.0)
DMB	590(98.2)	7(1.2)	3(0.5)	-	1(0.2)	601(100.0)

<표 V-33> 정보매체 이용용도

단위: 빈도(%)

항목	없음	정보 검색	게임 오락	학습 교육	교제 통신	여가 활동	쇼핑 예약	동호회	신문 뉴스 잡지	기타	전체
인터넷	66 (11.0)	154 (25.6)	195 (32.4)	37 (6.2)	96 (16.0)	39 (6.5)	3 (0.5)	3 (0.5)	4 (0.7)	4 (0.7)	601 (100.0)
전화 (이동 전화)	255 (42.4)	5 (0.8)	5 (0.8)	1 (0.2)	165 (27.5)	29 (4.8)	1 (0.2)	2 (0.3)	0 (0.0)	138 (23.0)	601 (100.0)

정보매체 이용용도는 <표 V-33>과 같다. 약 50%의 청소년이 인터넷을 게임·오락, 교제·통신(채팅) 등을 하는데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게임·오락(32.4%)으로 나타났다. 특히 5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게임·오락을 하

는데 인터넷을 이용하였다. 이는 인터넷 중독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전화(이동전화)의 경우 교제 통신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전화를 5시간이상 사용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교제 통신을 하는데 전화를 사용하였다.

〈표 V-34〉 1달 평균 통신비용

단위: 빈도(%)

1만원미만	1-3만원	3-5만원	5-7만원	7-9만원	9만원이상	전체
23(5.3)	114(26.1)	189(43.3)	76(17.4)	16(3.7)	18(4.1)	436(100.0)

1달 평균 통신비용은 3-5만원이 189명(43.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3만원이 114명(26.1%)이었다. 5만원이상의 통신비용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25.2%나 되었다. 또한 이러한 통신비용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부담감이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381명(68.5%),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 175명(31.5%)이었다. 대부분 3만원이상의 통신요금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부담감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많은 이유는 본인이 직접 요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혹은 일상생활에서 경제적 감각에 대한 가정교육이 부족한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V-35〉 통신비용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175(31.5)	381(68.5)	556(100.0)

(3) 여가

〈표 V-36〉은 여가 시간에 많이 하는 활동을 조사한 것이다. 인터넷·컴퓨터 게임이 54.2%로 가장 많았고, TV시청이 53.4%, 친구만나기 37.8%, 집에서 휴식 31.8%, 집안일 돕기 25.3%, 음악·영화감상 21.5%, 독서 13.3%, 취미 활동 12.5%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10%미만의 비율을 가진 여가활동으

로는 학습 활동, 종교 활동, 스포츠 활동, 산책, 예술 활동, 동아리 활동, 아르바이트, 쇼핑하기, 자원봉사, 여행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실내에서 주로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6> 여가시간에 많이 하고 있는 활동

(중복응답)

항목	빈도(%)	순위	항목	빈도(%)	순위
인터넷,컴퓨터게임	326(54.2)	1	종교 활동	50(8.3)	10
TV시청	321(53.4)	2	스포츠 활동	37(6.2)	11
친구 만나기	227(37.8)	3	산책	25(4.2)	12
집에서 휴식	191(31.8)	4	예술 활동	25(4.2)	12
집안일 돕기	152(25.3)	5	동아리 활동	16(2.7)	13
음악·영화감상	129(21.5)	6	아르바이트	13(2.2)	14
독서	80(13.3)	7	쇼핑하기	10(1.7)	15
취미 활동	75(12.5)	8	자원봉사	6(1.0)	16
학습 활동	56(9.3)	9	여행	4(0.7)	17

다음으로 <표 V-37>은 앞으로 미래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을 조사한 것이다. 여행이 42.3%로 가장 많았고, 취미활동 26.6%, 음악·영화감상 25.3%, 쇼핑하기 22.6%, 아르바이트 22.0%, 스포츠 활동 19.8%, 예술 활동·친구 만나기 16.5%, 인터넷·컴퓨터 게임이 15.8%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자원봉사, 학습 활동, 동아리 활동, 독서, 산책, 집에서 휴식, TV시청, 집안일 하기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에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여행이 가장 낮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반해,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에서는 여행이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표 V-37>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중복응답)

항목	빈도(%)	순위	문항	빈도(%)	순위
여행	254(42.3)	1	자원봉사	71(11.8)	9
취미 활동	160(26.6)	2	학습 활동	70(11.6)	10
음악·영화감상	152(25.3)	3	동아리 활동	65(10.8)	11
쇼핑하기	136(22.6)	4	독서	59(9.8)	12
아르바이트	132(22.0)	5	산책	55(9.2)	13
스포츠 활동	119(19.8)	6	집에서 휴식	53(8.8)	14
친구만나기	99(16.5)	7	TV시청	43(7.2)	15
예술 활동	99(16.5)	7	집안일 돕기	38(6.3)	16
인터넷·컴퓨터게임	95(15.8)	8	종교 활동	20(3.3)	17

<표 V-38> 여가나 취미활동의 어려운 점

단위: 빈도(%)

항목	그렇다	아니다	전체
시간이 부족하다	325(54.8)	268(45.2)	593(100.0)
비용이 부담된다	401(67.6)	192(32.4)	593(100.0)
함께 할 사람이 없다	115(19.4)	477(80.6)	592(100.0)
적절한 장소 및 시설이 없다	276(46.5)	317(53.5)	593(100.0)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203(34.4)	387(65.6)	590(100.0)
프로그램이 마땅치 않다	254(43.1)	335(56.9)	589(100.0)
교통 혼잡 및 이용교통수단이 불편하다	186(31.5)	405(68.5)	591(100.0)
여가시설 내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234(39.6)	357(60.4)	591(100.0)
건강이나 체력이 부족하다	103(17.5)	487(82.5)	590(100.0)

여가나 취미활동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 V-38>), 빈곤청소년의 50% 이상이 시간 부족이나 비용 부담 때문에 여가나 취미활동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비용 부담이 67.6%로 가장 높은 이유를 차지했다. 또한 응답자의 40% 이상이 적절한 장소 및 시설의 부족, 프로그램 부족 등을 여가나 취미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4) 직업

빈곤청소년의 장래 희망 직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 V-39>), 교사가 152명(25.3%)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135명(22.5%), 연예인 73명(12.1%), 사회복지사 58명(9.7%), 방송관계자·요리사 53명(8.8%), 회사원은행원 47명(7.8%), 경찰 44명(7.3%), 기술자 42명(7%), 의상·헤어디자이너 41명(6.8%), 컴퓨터 프로그래머 37명(6.2%)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 직업으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이 많았던 빈곤아동 조사(허남순 외, 2005)와는 달리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 직업이 좀 더 현실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39> 장래 희망 직업

항목	빈도(%)	순위	항목	빈도(%)	순위
교사	152(25.3)	1	회사원은행원	47(7.8)	6
공무원	135(22.5)	2	경찰	44(7.3)	7
연예인	73(12.1)	3	기술자	42(7.0)	8
사회복지사	58(9.7)	4	의상디자이너 헤어디자이너	41(6.8)	9
방송관계자 요리사	53(8.8)	5	컴퓨터 프로그래머	37(6.2)	10

(5) 지역사회서비스

<표 V-40>은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에 대한 인지 및 이용여부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박물관, 도서관의 경우 빈곤청소년의 60%이상이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문화의 집·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종합사회복지관, 미술관 등은 30%이상이 이용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로청소년회관·청소년자활지원관·그룹 홈·고용안정센터·미혼모시설에 대해서는 빈곤청소년의 60%이상이 모르고 있었다. 많은 빈곤청소년들이 대다수의 청소년 관련 기관을 모르고 있었거나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심지어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을 제외한 14개의 청소년 관련기관 중 하나도 모른다는 청소년이 99명(16.6%)으로 나타났고, 14개의 청소년 관련기관 중 1개도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55명

(26.1%)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관련기관들은 청소년들이 접근 용이하도록 다양한 홍보 전략과 유인책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V-40〉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인지 및 이용여부

단위: 빈도(%)

항목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으나 이용한 적 없다	이용해 본적 있다	전체
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	160(27.6)	206(35.6)	213(36.8)	579(100.0)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154(26.6)	184(31.7)	242(41.7)	580(100.0)
근로청소년회관	381(66.6)	171(29.9)	20(3.5)	572(100.0)
청소년공부방	191(32.8)	230(39.5)	161(27.7)	582(100.0)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121(20.9)	248(42.8)	211(36.4)	580(100.0)
청소년자활지원관	354(62.0)	197(34.5)	20(3.5)	571(100.0)
청소년쉼터	278(48.6)	260(45.5)	34(5.9)	572(100.0)
그룹 홈 (공동생활가정)	393(68.7)	170(29.7)	9(1.6)	572(100.0)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	331(57.9)	237(41.4)	4(0.7)	572(100.0)
청소년상담센터	178(31.2)	368(64.4)	25(4.4)	571(100.0)
자원봉사센터	178(31.2)	304(53.2)	89(15.6)	571(100.0)
고용안정센터	381(66.7)	184(32.2)	6(1.1)	571(100.0)
미혼모시설	355(62.2)	210(36.8)	6(1.1)	571(100.0)
직업훈련원 (구 직업보도원)	339(59.5)	223(39.1)	8(1.4)	570(100.0)
박물관	60(10.4)	130(22.5)	388(67.1)	578(100.0)
도서관	28(4.8)	83(14.3)	468(80.8)	579(100.0)
미술관	89(15.7)	255(45.1)	222(39.2)	566(100.0)

실제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표 V-40>에서 이용자가 10명 이하인 그룹홈,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고용안정센터, 미혼모시설, 직업훈련원 등은 제외하고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용자의 80%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청소년상담센터가 21.7%(매우 불만족 4.3%, 불만족 17.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수련원 19.9%(매우 불만족 4.2%, 불만족 15.7%), 문화의 집 19.4%(매우 불만족 1.4%, 불만족 18.0%) 순으로 나타났다(<표 V-41>).

<표 V-41>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만족도

단위: 빈도(%)

항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전체
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	3(1.4)	38(18.0)	143(67.8)	27(12.8)	211(100.0)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10(4.2)	37(15.7)	162(68.6)	27(11.4)	236(100.0)
근로청소년회관	1(5.6)	2(11.1)	14(77.8)	1(5.6)	18(100.0)
청소년공부방	6(4.0)	17(11.3)	96(63.6)	32(21.2)	151(100.0)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5(2.6)	14(7.1)	118(60.2)	59(30.1)	196(100.0)
청소년자활지원관	0(0.0)	1(5.9)	10(58.8)	6(35.3)	17(100.0)
청소년쉼터	2(6.9)	2(6.9)	15(51.7)	10(34.5)	29(100.0)
청소년상담센터	1(4.3)	4(17.4)	11(47.8)	7(30.4)	23(100.0)
자원봉사센터	1(1.2)	7(8.4)	54(65.1)	21(25.3)	83(100.0)
박물관	7(1.9)	26(7.2)	240(66.3)	89(24.6)	362(100.0)
도서관	10(2.2)	46(10.3)	279(62.7)	110(24.7)	445(100.0)
미술관	5(2.3)	18(8.4)	139(64.7)	53(24.7)	215(100.0)

가장 이용하고 싶은 청소년 관련 기관은 도서관이 27.0%로 가장 높았고, 미술관 23.8%, 박물관 19.1%, 컴퓨터 18.8%, 수련원·유스호스텔 18.6%, 공부방 17.6%, 문화의 집·수련관 16.8%, 상담센터 11.0%, 직업훈련원 8.3%, 자원봉사센터 8.2%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의 경우 가장 많은 빈곤청소년들이 이용한 적이 있다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용하고 싶은 청소년 관련 기관 1순위로도 뽑혔다.

<표 V-42> 가장 이용하고 싶은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항목	빈도(%)	순위	항목	빈도(%)	순위
도서관	162(27.0)	1	공부방	106(17.6)	6
미술관	143(23.8)	2	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101(16.8)	7
박물관	115(19.1)	3	상담센터	66(11.0)	8
컴퓨터	113(18.8)	4	직업훈련원	50(8.3)	9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112(18.6)	5	자원봉사센터	49(8.2)	10

청소년 복지서비스 인지 및 이용여부에 대해 많은 빈곤청소년들이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12개의 복지서비스 중 한 개도 모른다고 응답한 빈곤청소년은 156명(26.4%)으로 나타났고, 하나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빈곤청소년은 116명(19.6%)으로 나타났다. 빈곤청소년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은 가장 많은 빈곤청소년들이 이용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64.7%), 그 다음으로 캠프 등 1박 이상의 수련활동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0.4%). 반면 상담 또는 교육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90%가 모르고 있거나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표 V-43>).

〈표 V -43〉 청소년 복지서비스 인지 및 이용여부

단위: 빈도(%)

항목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으나 이용한 적 없다	이용해 본적 있다	전체
개별상담	248(43.1)	230(40.0)	97(16.9)	575(100.0)
가족상담	279(49.0)	240(42.2)	50(8.8)	569(100.0)
질병상담 및 무료건강검진	249(43.9)	248(43.7)	70(12.3)	567(100.0)
아플 때 치료비 지원	211(37.3)	159(28.1)	195(34.5)	565(100.0)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77(13.3)	128(22.0)	376(64.7)	581(100.0)
학업 및 학습지도	193(33.9)	211(37.0)	166(29.1)	570(100.0)
숙식제공	282(50.4)	209(37.4)	68(12.2)	559(100.0)
캠프 등 수련활동	188(33.0)	151(26.5)	230(40.4)	569(100.0)
문화예술활동	229(40.5)	224(39.6)	113(20.0)	566(100.0)
약물예방교육	302(53.8)	198(35.3)	61(10.9)	561(100.0)
성교육	209(37.0)	190(33.6)	166(29.4)	565(100.0)
인권교육	299(52.9)	207(36.6)	59(10.4)	565(100.0)

실제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청소년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치료비 지원이 94.6%(만족 53.5%, 매우 만족 41.1%)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개별상담이 94.4%(만족 77.5%, 매우 만족 16.9%),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이 94.0%(만족 52.3%, 매우 만족 41.7%), 질병상담 및 무료건강 검진이 92.6%(만족 67.2%, 매우 만족 25.4%)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만족도가 낮은 것은 약물예방교육이었는데 만족한다는 비율이 79.7%(만족 66.1%, 매우 만족 13.6%)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이용자의 80% 이상이 본인이 이용한 복지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복지서비스는 이용하기만 하면 이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V -44〉 청소년 복지서비스 만족도

단위: 빈도(%)

항목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전체
개별상담	2(2.2)	3(3.4)	69(77.5)	15(16.9)	89(100.0)
가족상담	-	4(9.1)	33(75.0)	7(15.9)	44(100.0)
질병상담 및 무료건강검진	2(3.0)	3(4.5)	45(67.2)	17(25.4)	67(100.0)
아플 때 치료비 지원	1(0.5)	9(4.9)	99(53.5)	76(41.1)	185(100.0)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3(0.9)	18(5.1)	183(52.3)	146(41.7)	350(100.0)
학업 및 학습지도	1(0.7)	17(11.2)	98(64.5)	36(23.7)	152(100.0)
숙식제공	1(1.6)	7(11.1)	35(55.6)	20(31.7)	63(100.0)
캠프 등 수련활동	2(0.9)	24(11.2)	124(57.7)	65(30.2)	215(100.0)
문화·예술 활동	2(1.9)	11(10.7)	60(58.3)	30(29.1)	103(100.0)
약물예방교육	-	12(20.3)	39(66.1)	8(13.6)	59(100.0)
성교육	4(2.6)	26(16.8)	103(66.5)	22(14.2)	155(100.0)
인권교육	1(1.8)	10(18.2)	30(54.5)	14(25.5)	55(100.0)

빈곤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청소년 복지서비스는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장학금·생활비지원이 43.9%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치료비 지원이 29.3%, 학업·학습지도 21.6%, 캠프 등 수련활동 17.6%, 문화·예술 활동 15.5%, 개별상담 12.8%, 질병상담 10.8%, 가족상담 8.3%, 성교육 7.8%, 인권교육 6.0% 순으로 나타났다(〈표 V -45〉). 이미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적인 지원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여전히 경제적인 지원이었다.

〈표 V -45〉 가장 필요한 청소년 복지서비스

항목	빈도(%)	순위	항목	빈도(%)	순위
장학금 생활비지원	263(43.9)	1	개별상담	77(12.8)	6
치료비 지원	176(29.3)	2	질병상담	65(10.8)	7
학업·학습지도	130(21.6)	3	가족상담	50(8.3)	8
캠프 등 수련활동	106(17.6)	4	성교육	47(7.8)	9
문화·예술 활동	93(15.5)	5	인권교육	36(6.0)	10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에 대한 빈곤청소년들의 생각을 살펴보았다(<표 V-46>).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을 통해 낙인감을 느끼고 있는 경우는 약 10% 정도에 불과하였고, 90%이상이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신도 남을 돕고 싶다는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부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청소년의 적응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조절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동일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서비스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이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표 V-46>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에 대한 생각

단위: 빈도(%)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주변 사람들은 내가 부유하지 않아서 나를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것 같다.	248 (41.5)	268 (44.8)	74 (12.4)	8 (1.3)	598 (100.0)
주변 사람들은 내가 외부의 지원(현금, 서비스 등)을 받아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다.	307 (51.3)	232 (38.8)	53 (8.9)	6 (1.0)	598 (100.0)
주변 사람들은 내가 외부의 지원(현금, 서비스 등)을 받아서 나를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것 같다.	330 (55.4)	208 (34.9)	50 (8.4)	8 (1.3)	596 (100.0)
현재 내 생활에 도움이 되므로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8 (1.3)	18 (3.0)	292 (49.1)	277 (46.6)	595 (100.0)
나중에 나도 어려운 이웃을 꼭 돕고 싶다.	8 (1.3)	19 (3.2)	284 (47.7)	284 (47.7)	595 (100.0)
도움 받는 사실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다.	142 (23.9)	291 (48.9)	143 (24.0)	19 (3.2)	595 (100.0)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207 (34.9)	291 (49.1)	85 (14.3)	10 (1.7)	593 (100.0)
고맙기보다는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된다.	292 (49.1)	253 (42.5)	45 (7.6)	5 (0.8)	595 (100.0)

(6) 성·문제 행동

<표 V-47>은 성적체성에 대한 응답이다. 대부분이 이성애자라고 응답하였으나 양성애자 31명, 동성애자 12명, 성전환자도 5명이나 되었다. 빈곤청소년의 8.7%가 성적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7> 성적체성

단위: 빈도(%)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전체
506(91.3)	12(2.2)	31(5.6)	5(0.9)	554(100.0)

성적체성으로 놀림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을 2명 밖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놀림이나 차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적체성을 드러내는 커밍아웃(coming out)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표 V-48> 성적체성으로 놀림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2(0.3)	579(99.7)	581(100.0)

<표 V-49>는 성관계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빈곤청소년 중 11명이 성관계를 경험하였으며 임신하거나 시킨 경험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V-50>).

<표 V-49> 성관계 경험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11(1.9)	573(98.1)	584(100.0)

<표 V-50> 임신하거나 시킨 경험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	29(100.0)	29(100.0)

성관계 시 피임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 피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을 하지 않은 이유는 피임도구를 살 용기가 없어서가 23.1%로 가장 많았고, 상대가 싫어해서 15.4%, 방법을 몰라서 7.7% 순으로 나타났다(<표 V-52>). 또한 빈곤청소년 중에 대가성이 있는 성매매형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도 소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53>).

<표 V-51> 성관계 시 피임 여부

단위: 빈도(%)

예	아니오	전체
3(13.0)	20(87.0)	23(100.0)

<표 V-52> 피임 하지 않은 이유

단위: 빈도(%)

구하기 힘들어서	살 용기가 없어서	방법을 몰라서	상대가 싫어해서	기타	전체
-	3(23.1)	1(7.7)	2(15.4)	7(53.8)	13(100.0)

<표 V-53> 대가성 성관계 경험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2(8.7)	21(91.3)	23(100.0)

<표 V-54>는 경찰서에 잡혀 간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경찰서에 잡혀 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4명(7.4%)이고,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552명(92.6%)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처분 등 법적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9명(1.5%)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V-55>).

<표 V-54> 경찰서에 잡혀 간 경험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44(7.4)	552(92.6)	596(100.0)

<표 V-55> 보호관찰 처분 등 법적 처벌 받은 경험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9(1.5)	587(98.5)	596(100.0)

다음은 빈곤청소년의 가출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현재 가출 상태라고 응답한 경우는 4명이었다(<표 V-56>). 이전의 가출 경험이 1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62명(11%)이었고, 그 중 10번 이상 가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4명이나 되었다(<표 V-57>). 첫 가출 시기는 중학교 시기가 62.8%로 가장 많으며,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고등학교 시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순으로 나타났다(<표 V-58>). 가출 후 집 밖에서 지낸 시기는 주로 1주일 미만이 63.9%로 가장 많았고, 1주일-1개월, 1개월-6개월, 6개월-1년 순으로 나타났다(<표 V-59>). 빈곤청소년 가출의 대부분은 1회성, 1주일 미만의 기간의 단순가출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가출이 만성화되거나 장기화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표 V-56> 현재 가출 상태

단위: 빈도(%)

그렇다	아니다	전체
4(0.7)	589(99.3)	593(100.0)

〈표 V-57〉 가출 경험

단위: 빈도(%)

없다	1번	2번	3-4번	5-9번	10번이상	전체
493(88.8)	29(5.2)	13(2.3)	13(2.3)	3(0.5)	4(0.7)	555(100.0)

〈표 V-58〉 첫 가출 시기

단위: 빈도(%)

초등학교저학년	초등학교고학년	중학교시기	고등학교시기	고등학교졸업후	전체
3(4.7)	13(20.3)	40(62.5)	7(10.9)	1(1.6)	64(100.0)

〈표 V-59〉 가출 후 집 밖에서 지낸 기간

단위: 빈도(%)

1주일미만	1주일 - 1개월	1개월 - 6개월	6개월 - 1년	1년-3년	3년 이상	전체
46(63.9)	12(16.7)	10(13.9)	2(2.8)	1(1.4)	1(1.4)	72(100.0)

3) 사회지원체계 및 보호욕구

(1) 가족

부모(혹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어른)의 양육행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모의 지도감독, 보상, 과잉보호 등의 영역을 살펴보았다. 부모의 지도감독은 부모가 자녀가 집에 없을 때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있는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알고 있는지, 혼자 집에 있을 때 전화하는지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부모의 보상행동은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칭찬해 주는지, 공부 잘할 때 칭찬해 주는지 등을 통해 살펴보았고, 부모의 과잉보호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도와주는 편인지, 일일이 간섭하는 편인지, 부모님 뜻대로만 생활하도록 강요받는지 등의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부모의 지도감독에 관한 3문항의 질문에 대해 대체로 50%이상의 경우에 긍정적인 응답결과를 보였으나, 집에 없을 때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있는지, 혼자 집에 있을 때 전화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20%를 넘었

다(<표 V-60>). 이러한 부모의 지도감독의 부족은 방임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아동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발달과 적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모의 보상에 관한 2문항의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약 10%의 부모들은 올바른 행동을 하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도 전혀 혹은 거의 칭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과잉보호에 관한 질문에서는 과잉보호를 상당히 하고 있다는 응답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과잉보호가 중산층 아동에게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빈곤청소년이 폭력과 범죄가 많은 위험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우 과잉보호가 청소년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외국의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Baldwin et al., 1990; Chung, 2004; Furstenberg, 1993; Jarrett, 1995; Masten & Coatsworth, 1998). 우리나라에서는 과잉보호가 빈곤청소년의 발달에 어떤 작용을 할 것인지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표 V-60> 부모의 양육행동

단위: 빈도(%)

영역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체
지도감독	부모님은 내가 집에 없을 때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계신다.	69 (11.6)	74 (12.5)	182 (30.7)	157 (26.5)	111 (18.7)	593 (100.0)
	부모님은 내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알고 계신다.	44 (7.4)	50 (8.4)	110 (18.5)	202 (34.1)	187 (31.5)	593 (100.0)
	부모님은 내가 어른 없이 혼자 집에 있을 때 전화를 하신다.	63 (10.6)	89 (15.0)	158 (26.6)	130 (21.9)	154 (25.9)	594 (100.0)
보상	부모님은 내가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칭찬해 주신다.	26 (4.4)	42 (7.1)	171 (28.8)	173 (29.1)	182 (30.6)	594 (100.0)
	부모님은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할 때 칭찬해 주신다.	28 (4.7)	41 (6.9)	138 (23.3)	189 (31.9)	197 (33.2)	593 (100.0)
과잉보호	부모님은 내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도와주는 편이다.	97 (16.4)	158 (26.6)	176 (29.7)	100 (16.9)	62 (10.5)	593 (100.0)
	부모님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일일이 간섭하는 편이다.	67 (11.3)	129 (21.8)	222 (37.6)	106 (17.9)	67 (11.3)	591 (100.0)
	부모님은 내가 부모님의 뜻대로만 생활하도록 강요하신다.	141 (23.8)	167 (28.2)	162 (27.4)	85 (14.4)	37 (6.3)	592 (100.0)

<표 V-61>은 청소년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한 것이다. 신체적 학대의 3문항의 경우 대부분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1번 이상 경험한 경우도 대체로 10%정도 되었다. 반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는 경우는 129명(21.8%)이었고, 부모님이 나에게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와 같은 언어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161명(27.2%)이었다. 이는 정서적 학대가 신체적 학대보다 더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님이 외출하여 어두워 질 때까지 나 혼자 집을 본 적이 있는 경우가 248명(42.1%)이나 되어 방임이 가장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는 의료적 방임이나 학교에 무단으로 결석해도 아무 말하지 않는다는 교육적 방임은 각각 7.1%, 6.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빈곤청소년에게 가정폭력을 목격했는지를 질문한 결과, 부모님이 서로 때리는 것을 목격한 경우가 9.8%, 서로 욕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가 20.5%로 나타났다.

<표 V-61> 청소년학대와 가정폭력

단위: 빈도(%)

영역	문항	전혀 없다	1년에 1-2번	2-3개월 에 1-2번	1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전체
신체적 학대	부모님의 발에 차이거나 깨물리거나 주먹에 맞았다.	530 (89.5)	44 (7.4)	10 (1.7)	3 (0.5)	5 (0.8)	592 (100.0)
	부모님이 휘두르는 몽둥이나 굵은 막대기, 혁대로 맞았다.	537 (91.0)	32 (5.4)	13 (2.2)	4 (0.7)	4 (0.7)	590 (100.0)
	부모님이 칼이나 흉기로 나를 위협했다.	581 (98.3)	9 (1.5)	1 (0.2)	0 (0.0)	0 (0.0)	591 (100.0)
정서적 학대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다.	463 (78.2)	88 (14.9)	15 (2.5)	14 (2.4)	12 (2.0)	592 (100.0)
	부모님이 나에게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하였다.	431 (72.8)	96 (16.2)	33 (5.6)	18 (3.0)	14 (2.4)	592 (100.0)
방 임	부모님이 외출하여 어두워 질 때까지 나 혼자 집을 본 적이 있다.	341 (57.9)	133 (22.6)	49 (8.3)	30 (5.1)	36 (6.1)	589 (100.0)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지내거나 습기 찬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551 (92.9)	25 (4.2)	6 (1.0)	5 (0.8)	6 (1.0)	593 (100.0)
	부모님이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	553 (93.4)	27 (4.6)	9 (1.5)	1 (0.2)	2 (0.3)	592 (100.0)
	부모님은 내가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해도 나에게 아무 말 안한다.	569 (96.1)	15 (2.5)	3 (0.5)	1 (0.2)	4 (0.7)	592 (100.0)
	집안 내에서 부모님 중 한 분이 다른 한 분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	532 (90.2)	36 (6.1)	10 (1.7)	9 (1.5)	3 (0.5)	590 (100.0)
가 정 폭 력	부모님이 서로 욕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469 (79.5)	74 (12.5)	22 (3.7)	10 (1.7)	15 (2.5)	590 (100.0)

<표 V-62>는 가족관계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가족 간의 두터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 가족에게는 싸움이 자주 일어난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29.9%나 되어 질문 중 가장 부정적인 대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순간도 우리 가족과 함께 있기가 싫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21.2%, 또한 우리 가족이 자랑스럽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14.0%로 나타났다. 이러한 질문에 부정적인 응답을 한 청소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62> 가족관계

단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체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진정으로 서로를 보살핀다.	19 (3.2)	38 (6.3)	139 (23.2)	204 (34.1)	199 (33.2)	599 (100.0)
나는 한순간도 우리 가족과 함께 있기가 싫다.	319 (53.4)	151 (25.3)	94 (15.7)	24 (4.0)	9 (1.5)	597 (100.0)
나는 우리 가족과 잘 지낸다.	16 (2.7)	31 (5.2)	113 (18.8)	214 (35.7)	226 (37.7)	600 (100.0)
우리 가족 안에서 나는 낯선 사람같이 느껴진다.	380 (63.7)	133 (22.3)	62 (10.4)	12 (2.0)	10 (1.7)	597 (100.0)
우리 가족에게는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	247 (41.3)	171 (28.6)	128 (21.4)	40 (6.7)	12 (2.0)	598 (100.0)
나는 우리 가족이 자랑스럽다.	27 (4.5)	57 (9.5)	177 (29.5)	140 (23.4)	198 (33.1)	599 (100.0)

<표 V-63>은 가족에 대한 생각과 집에서의 성인역할을 나타낸 것이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는 34.5%로 나타났으며,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56.5%나 되었다. 또한 부모님 대신 가사를 하는 것이 힘들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30%를 차지하였다.

〈표 V-63〉 가족에 대한 생각과 집에서의 성인역할

단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나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부담스럽다.	181 (30.3)	210 (35.2)	174 (29.1)	32 (5.4)	597 (100.0)
내가 희생하더라도 다른 가족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45 (7.6)	90 (15.1)	319 (53.5)	142 (23.8)	596 (100.0)
나는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77 (13.0)	181 (30.5)	258 (43.4)	78 (13.1)	594 (100.0)
내가 부모님 대신 집안일이나 가사를 하는 것이 힘들다.	156 (26.1)	262 (43.9)	156 (26.1)	23 (3.9)	597 (100.0)
나는 부모님 대신 동생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봐야 하는 것이 힘들다.	268 (45.9)	227 (38.9)	76 (13.0)	13 (2.2)	584 (100.0)

(2) 학교

다음은 학교에서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을 조사한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은 폭력 피해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1번 이상의 경험이 있는 비율은 듣기 싫은 별명을 듣고 놀림 받거나 조롱당한 적이 있다는 적이 29.1%로 가장 높았고, 고의적으로 따돌림 받거나 골탕을 먹은 적이 있는 경우 13.2%, 내 뺨얼굴머리 등을 손이나 주먹으로 맞은 적이 있는 경우 10.9%, 나에게 겁을 주거나 때려서 돈이나 물건 빼앗긴 적이 있는 경우 9.3%, 협박이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8.6% 순으로 나타났다(<표 V-64>).

〈표 V-64〉 학교에서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단위: 빈도(%)

문항	전혀없다	1번	2-3번	4번 이상	전체
듣기 싫은 별명을 듣고 놀림 받거나 조롱당한 적이 있다.	423 (70.9)	91 (15.2)	47 (7.9)	36 (6.0)	597 (100.0)
고의적으로 따돌림 받거나 골탕을 먹은 적이 있다.	519 (86.8)	40 (6.7)	21 (3.5)	18 (3.0)	598 (100.0)

문항	전혀없다	1번	2-3번	4번 이상	전체
협박이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547 (91.5)	34 (5.7)	13 (2.2)	4 (0.7)	598 (100.0)
나에게 겁을 주거나 때려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다.	542 (90.6)	37 (6.2)	14 (2.3)	5 (0.8)	598 (100.0)
내 뺨, 얼굴, 머리 등을 손이나 주먹으로 때린 적이 있다.	533 (89.1)	38 (6.4)	14 (2.3)	13 (2.2)	598 (100.0)

<표 V-65>는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대부분의 문항에서 과반수의 학생들은 교사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학교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128명(21.4%)이었고, 나를 이해해주시고 인정해주시는 선생님이 있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이 120명(16.7%)이나 되었다. 이는 교사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학생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표 V-65>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

단위: 빈도(%)

영역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긍정적 경험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한다.	31 (5.2)	97 (16.2)	185 (30.9)	159 (26.5)	127 (21.2)	599 (100.0)
	우리 학교에는 나를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35 (5.8)	65 (10.9)	192 (32.1)	153 (25.5)	154 (25.7)	599 (100.0)
	나는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26 (4.3)	50 (8.3)	205 (34.2)	173 (28.9)	145 (24.2)	599 (100.0)
	학교에 다니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17 (2.8)	40 (6.7)	173 (29.0)	182 (30.5)	185 (31.0)	597 (100.0)
부정적 경험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를 차별대우 한다.	252 (42.2)	179 (30.0)	114 (19.1)	41 (6.9)	11 (1.8)	597 (100.0)
	선생님께 맞은 적이 있다.	164 (27.4)	144 (24.1)	152 (25.4)	108 (18.1)	30 (5.0)	598 (100.0)
	선생님께 모욕을 받은 적이 있다.	377 (62.9)	115 (19.2)	60 (10.0)	41 (6.8)	6 (1.0)	599 (100.0)
	선생님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542 (90.5)	38 (6.3)	11 (1.8)	6 (1.0)	2 (0.3)	599 (100.0)

(3) 지역사회

<표 V-66>은 사회적 지지를 나타낸 것이다. 빈곤청소년들은 부모님, 형제 자매, 친척, 학교친구·선후배, 학교선생님, 사회복지사 등 주변 사람 대부분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거의 모든 문항에서 부모님이 가장 큰 지지를 보인다고 응답하였고, 형제·자매가 다음 순위를 구성하여 가족의 지지가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무언가 의논하거나 이야기 하고 싶을 때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서만 부모보다도 친구가 가장 큰 지지를 보인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부모와 정서적인 부분을 공감하지만 대화는 친구들과 더 잘 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청소년기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복지사도 학교선생님과 비슷한 정도 지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는 사회복지사도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V-66> 사회적 지지

단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나를 사랑하고 돌보아준다.	부모님	32(6.3)	46(9.0)	166(32.5)	267(52.3)	511(100.0)
	형제자매	26(5.1)	48(9.4)	234(46.1)	200(39.4)	508(100.0)
	친척	48(8.8)	92(16.8)	256(46.8)	151(27.6)	547(100.0)
	학교친구,선후배	24(4.2)	76(13.2)	305(53.1)	169(29.4)	574(100.0)
	학교 선생님	21(3.7)	79(13.8)	325(56.9)	146(25.6)	571(100.0)
	사회복지사 등	21(4.0)	65(12.5)	289(55.7)	144(27.7)	519(100.0)
나의 능력을 존중해준다.	부모님	31(6.1)	66(13.1)	240(47.5)	168(33.3)	505(100.0)
	형제자매	31(6.2)	91(18.2)	239(47.9)	138(27.7)	499(100.0)
	친척	41(7.5)	103(18.8)	301(55.0)	102(18.6)	547(100.0)
	학교친구,선후배	19(3.3)	84(14.7)	346(60.6)	122(21.4)	571(100.0)
	학교 선생님	19(3.4)	92(16.2)	338(59.6)	118(20.8)	567(100.0)
	사회복지사 등	19(3.7)	74(14.6)	313(61.6)	102(20.1)	508(100.0)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내가 무언가의논 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을때 도움이된다.	부모님	62(12.4)	98(19.6)	206(41.3)	133(26.7)	499(100.0)
	형제자매	58(11.7)	120(24.3)	200(40.5)	116(23.5)	494(100.0)
	친척	113(21.2)	181(34.0)	175(32.8)	64(12.0)	533(100.0)
	학교친구,선후배	32(5.5)	85(14.7)	261(45.2)	199(34.5)	577(100.0)
	학교 선생님	55(9.8)	169(30.1)	253(45.0)	85(15.1)	562(100.0)
	사회복지사등	59(11.8)	142(28.3)	228(45.5)	72(14.4)	501(100.0)
내가 필요할때 자기가가지 고 있는 것을 주거나빌려 준다.	부모님	45(9.1)	43(8.7)	190(38.5)	215(43.6)	493(100.0)
	형제자매	34(6.8)	58(11.6)	223(44.8)	183(36.7)	498(100.0)
	친척	76(14.3)	136(25.7)	224(42.3)	94(17.7)	530(100.0)
	학교친구,선후배	23(4.0)	59(10.1)	304(52.2)	196(33.7)	582(100.0)
	학교 선생님	49(8.9)	146(26.5)	249(45.3)	106(19.3)	550(100.0)
	사회복지사 등	52(10.7)	132(27.3)	217(44.8)	83(17.1)	484(100.0)

사회적 지지를 총점으로 환산하여 살펴본 결과 부모가 가장 지지정도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 친구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분리되고자 하는 시기로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잦은 갈등이 일어나고 동성친구나 이성친구 등 또래집단에 몰두한다. 이러한 일반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빈곤청소년은 부모의 지지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 -67〉 사회적 지지 총점

영역	빈도	평균	표준편차
부모	490	12.39	3.14
형제자매	485	12.04	2.91
친척	520	10.76	3.06
학교친구 선후배	556	12.30	2.40
학교선생님	543	11.41	2.54
사회복지사 등	476	11.32	2.68

<표 V-68>은 지역사회 응집력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동네가 아이들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47.9% (전혀 그렇지 않다 15.1%, 그렇지 않다 32.8%)를 차지하였고, 이사를 가게 된다면 동네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냐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40.7%(전혀 그렇지 않다 17.1%, 그렇지 않다 23.6%)를 차지하였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기꺼이 서로 도우려고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50.5%(전혀 그렇지 않다 16.1%, 그렇지 않다 34.4%)를 차지하였다. 빈곤청소년의 약 반 수 정도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네에서 돈을 빼앗기거나 맞거나(2.7%) 위협을 받았다(1.3%)고 응답한 경우는 매우 적었다.

<표 V-68> 지역사회 응집력

단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우리 동네가 아이들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90 (15.1)	196 (32.8)	259 (43.4)	52 (8.7)	597 (100.0)
내가 만약 이사를 가게 된다면 우리 동네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102 (17.1)	141 (23.6)	246 (41.1)	109 (18.2)	598 (100.0)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기꺼이 서로 도우려고 할 것이다.	96 (16.1)	206 (34.4)	240 (40.1)	56 (9.4)	598 (100.0)
나는 동네에서 돈을 빼앗기거나 심하게 두들겨 맞은 적이 있다.	517 (87.0)	61 (10.3)	16 (2.7)	-	594 (100.0)
나는 동네에서 칼이나 흉기로 위협받거나 다친 적이 있다.	551 (92.3)	38 (6.4)	6 (1.0)	2 (0.3)	597 (100.0)

<표 V-69>는 집, 학교, 동네, 다른 장소 등에서 성추행이나 강간 경험을 조사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전혀 없다(97.8%)고 응답하였고, 1번이상은 2.3%로 나타났다. 피해 받은 경우 피해사실을 알린 곳은 가까운 친구 8.2%,

부모 혹은 성인 7.3%, 공식적 기관이 1.8% 순으로 나타났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음이 2.5%로 조사되었다(<표 V-70>).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이유는 알려도 해결 될 것 같지 않아서 라고 응답한 경우가 43.8%로 가장 많았고, 타인이 아는 것이 싫다고 응답한 경우가 37.5%로 조사되었다(<표 V-71>). 이는 기존의 성교육 내에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을 경우 대응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가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V-69> 집, 학교, 동네, 다른 장소 등에서 성추행이나 강간 경험

단위: 빈도(%)

전혀 없다	1번	2-3번	4번 이상	전체
579(97.8)	11(1.9)	1(0.2)	1(0.2)	592(100.0)

<표 V-70>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 또는 기관

단위: 빈도(%)

피해 받은 적이 없다	가까운 친구	부모 혹은 성인	공식적 기관	아무에게 알리지 않음	기타	전체
456(75.9)	49(8.2)	44(7.3)	11(1.8)	15(2.5)	6(1.0)	601(100.0)

<표 V-71>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단위: 빈도(%)

해결될 것 같이 않아서	타인이 아는 것이 싫어서	가해자 보복이 두려워서	알려야 할 곳을 몰라서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기타	전체
7(43.8)	6(37.5)	-	-	1(6.3)	2(12.5)	16(100.0)

(4) 직장·근로

일(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580명 중 158명(27.2%)이었고,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422명(72.8%)이었다. 일(아르바이트)을 통해 1달 평균 번 돈은 10만원미만이 41.9%로 가장 많았으며, 30-40만원이

14.0%, 20-30만원이 13.2%, 10-20만원이 11.8%, 50만원이상이 8.8% 순으로 나타났다.

〈표 V-72〉 일(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158(27.2)	422(72.8)	580(100.0)

〈표 V-73〉 일(아르바이트)를 통해서 1달 평균 번 돈

단위: 빈도(%)

10만원 미만	10만원-20만원	20만원-30만원	30만원-40만원	40만원-50만원	50만원 이상	전체
57(41.9)	16(11.8)	18(13.2)	19(14.0)	14(10.3)	12(8.8)	136(100.0)

일(아르바이트)을 한 이유는 용돈이 필요해서가 81명(53.6%)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27명(17.9%)이었다. 경제적인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표 V-74〉).

〈표 V-74〉 일(아르바이트)을 한 이유

단위: 빈도(%)

용돈이 필요해서	등록금, 학원비를 위해서	생활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친구들과 즐기기 위해	직업 체험을 위해서	기타	전체
81(53.6)	4(2.6)	27(17.9)	14(9.3)	16(10.6)	9(6.0)	151(100.0)

직장(아르바이트)에서의 피해경험은 대부분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일을 했지만 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적이 1번 이상인 경우가 16%나 되었다. 또한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1번 이상 되는 경우가 13.4%나 되었다. 이러한 피해 시 대처방법에 대해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1%, 노동부에 전화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6%,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1%였다. 나머지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으로 친구와 상의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6.8%, 참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4.8%, 그만둔다고 응답한 경우가 1.6%, 인터넷에 올린다고 응답한 경우가 0.5% 순이었다(<표 V-76>).

<표 V-75> 직장(아르바이트)에서의 피해 경험

단위: 빈도(%)

문항	전혀 없음	1번	2-3번	4번이상	전체
일을 했지만 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적이 있다.	168 (84.0)	24 (12.0)	7 (3.5)	1 (0.5)	200 (100.0)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한 적이 있다.	187 (95.4)	7 (3.6)	2 (1.0)	-	196 (100.0)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하도록 강요당한 적이 있다.	168 (86.6)	12 (6.2)	6 (3.1)	8 (4.1)	194 (100.0)
직장(아르바이트)에서 심한 욕설이나 비난을 들은 적이 있다.	182 (93.3)	7 (3.6)	4 (2.1)	2 (1.0)	195 (100.0)
직장(아르바이트)에서 신체적 폭행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192 (98.5)	3 (1.5)	-	-	195 (100.0)
직장(아르바이트)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193 (99.0)	2 (1.0)	-	-	195 (100.0)

<표 V-76> 직장(아르바이트) 피해 시 대처 방법

항목	빈도	백분율
피해당한 적 없다.	154	81.1
참는다.	9	4.7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4	2.1
친구와 상의한다.	12	6.3
직장(아르바이트)을 그만둔다.	3	1.6
경찰서에 신고한다.	2	1.1
인터넷에 올린다.	1	0.5
노동부에 전화하여 근로감독관과의 상담을 요청한다.	3	1.6
기타	2	1.1
전체	190	99.0

4) 인권 및 참여욕구

(1) 인권 및 사회참여의식

<표 V-77>은 청소년인권의식 및 참여 여건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들은 누려야 할 권리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3.1%이었고, 알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도 37%나 되었다. 참여 여건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비슷하였다. 그 중 진학문제 등 나에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사보다는 부모님(보호자)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질문에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75.1%로 가장 많은 응답이 있었다. 이 질문에서 청소년은 부모님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강요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청소년의 의견이 수용됨을 알 수 있었다.

<표 V-77> 청소년인권의식 및 참여 여건

단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나는 청소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잘 알고 있다.	35 (5.9)	186 (31.1)	315 (52.7)	62 (10.4)	598 (100.0)
학교에서 규칙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들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	109 (18.2)	233 (39.0)	206 (34.4)	50 (8.4)	598 (100.0)
학교방송, 학교신문 등에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59 (9.9)	283 (47.4)	220 (36.9)	35 (5.9)	597 (100.0)
성적이나 집안환경에 관계없이 학생회 대표로 나갈 수 있다.	94 (15.7)	273 (45.7)	194 (32.5)	36 (6.0)	597 (100.0)
징계(벌)를 받게 되었을 때 내가 설명하고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62 (10.5)	234 (39.5)	259 (43.7)	38 (6.4)	593 (100.0)
학교에서 우리들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51 (8.6)	151 (25.4)	310 (52.2)	82 (13.8)	594 (100.0)
내가 좋아하거나 원하는 모임이나 활동을 어떠한 규제나 간섭 없이 할 수 있다.	44 (7.4)	179 (29.9)	301 (50.3)	74 (12.4)	598 (100.0)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진학문제 등 나에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사보다는 부모님(보호자)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	148 (24.8)	300 (50.3)	132 (22.1)	17 (2.8)	597 (100.0)
내 적성에 맞는 문화예술 활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26 (4.4)	107 (18.0)	359 (60.2)	104 (17.4)	596 (100.0)
아르바이트나 단체활동 등 사회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제재를 많이 받는다.	95 (15.9)	267 (44.6)	190 (31.8)	46 (7.7)	598 (100.0)
환경문제, 폭력문제, 성폭력문제 등 나와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	64 (10.7)	251 (42.0)	254 (42.5)	28 (4.7)	597 (100.0)

<표 V-78> 소외집단 인권에 대한 책임감 및 참여의식

단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나는 타인을 존중하고 소수(동성애, 장애인, 여성 등)의 입장을 고려한다.	24 (4.0)	42 (7.0)	386 (64.4)	147 (24.5)	599 (100.0)
나의 선택과 참여가 사회변화에 대해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다.	30 (5.0)	179 (29.9)	327 (54.6)	63 (10.5)	599 (100.0)
동성애, 장애인, 여성에 관한 문제(차별, 인권침해와 유린 등)들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75 (12.5)	282 (47.1)	177 (29.5)	65 (10.9)	599 (100.0)
나는 동성애, 장애인, 여성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할 힘이 없다.	39 (6.5)	146 (24.4)	274 (45.7)	140 (23.4)	599 (100.0)
동성애, 장애인, 여성에 관한 문제들은 나의 책임보다는 정부나 인권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다.	47 (7.9)	179 (29.9)	252 (42.1)	120 (20.1)	598 (100.0)

소외집단 인권에 대한 책임감 및 참여의식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몇 가지 문항을 질문하였다. 소수의 입장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88.9%(매우 그렇다 24.5%, 가끔 그렇다 64.4%)이고, 소수문제들이 자신과 관계있다(역문항)고 응답한 경우가 59.6%(전혀 그렇지 않다 12.5%, 그렇지 않다 47.1%)이다. 그러나 반면 해결할 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69.1%(매우 그렇다 23.4%, 가끔 그렇다 45.7%), 정부나 인권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62.2%(매우 그렇다 20.1%, 가끔 그렇다 42.1%)나 되었다. 빈곤청소년의 경우 소외집단 인권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나타내면서도 참여의식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2) 사회참여 필요도

<표 V-79>는 사회참여 필요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소감 또는 견해를 밝히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과 행정과정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 청소년들끼리 여가문화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빈곤청소년의 약 80%이상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참여에 대해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V-79> 사회참여 필요 정도

단위: 빈도(%)

문항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전체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소감 또는 견해를 밝히는 것(교칙제정 등)	35 (5.9)	60 (10.1)	379 (63.9)	119 (20.1)	593 (100.0)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과 행정과정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38 (6.4)	70 (11.8)	396 (66.9)	88 (14.9)	592 (100.0)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봉사활동 등)	21 (3.5)	34 (5.7)	364 (61.4)	174 (29.3)	593 (100.0)

문항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전체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아르바이트 등)	26 (4.4)	58 (9.7)	362 (60.7)	150 (25.2)	596 (100.0)
청소년들끼리 여가문화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것	29 (4.9)	55 (9.3)	363 (61.3)	145 (24.5)	592 (100.0)

(3) 사회참여 정도

앞서 살펴본 <표 V-79>에서 제시한 사회참여 필요 정도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표 V-80>에서 사회참여 정도를 조사한 바 응답자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사회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개의 문항 중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봉사활동 등)에만 빈곤청소년의 약 50%가 실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내 자원봉사가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빈곤청소년의 대부분은 사회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깊게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회참여 정도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표 V-80> 사회참여 정도

단위: 빈도(%)

문항	전혀 하고 있지 않다	하고 있지 않다	조금 하고 하다	많이 하고 있다	전체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소감 또는 견해를 밝히는 것(교칙제정 등)	174 (31.2)	278 (49.9)	100 (18.0)	5 (0.9)	557 (100.0)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과 행정과정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231 (41.8)	283 (51.2)	36 (6.5)	3 (0.5)	553 (100.0)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봉사활동 등)	106 (18.9)	177 (31.6)	239 (42.7)	38 (6.8)	560 (100.0)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아르바이트 등)	192 (34.5)	254 (45.6)	94 (16.9)	17 (3.1)	557 (100.0)
청소년들끼리 여가문화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것	183 (32.9)	241 (43.3)	111 (20.0)	21 (3.8)	556 (100.0)

3. 성별에 따른 복지실태 및 욕구

본 장에서는 성별에 따른 빈곤청소년의 복지실태 및 욕구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청소년은 남자가 251명(41.8%), 여자가 350명(58.2%)이었으며 빈곤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생존욕구, 보호욕구, 발달욕구, 참여욕구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V-81〉 빈곤청소년의 성별 분포

구분	빈도	백분율
남자	251	41.8
여자	350	58.2
전체	601	100.0

1) 기초생활실태 및 생존욕구

(1) 의식주

먼저 성별에 따른 의식주 생활을 살펴본 결과 남자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이나 더러운 옷을 입은 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2〉 성별에 따른 의식주생활

문항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	남자 (n=247)	2.79	0.77	1.95 ⁺	592
	여자 (n=347)	2.66	0.81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이나 더러운 옷을 입은 적이 있다.	남자 (n=247)	1.64	0.71	2.88 ^{**}	591
	여자 (n=346)	1.48	0.62		

⁺p<.10 ^{**}p<.01

(2) 의료·보건

성별에 따른 건강검진 유무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남자청소년의 경우 43.3%가 건강검진을 받았고, 여자청소년의 경우 41.9%가 건강검진을 받았다. 건강검진 유무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3〉 성별에 따른 건강검진 유무

단위: 빈도(%)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값
남자	106(43.4)	138(56.6)	244(100.0)	0.14
여자	145(41.9)	201(58.1)	346(100.0)	

(3) 건강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아존중감은 성별의 차이이기보다 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학자들이 주장했듯이 자아존중감은 일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것이다(Levy, 1997; Rosenberg, Schooler, Schoenbach, & Rosenberg, 1995). 이러한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나타냈다(<표 V-84>).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 등 여러 가지 영역을 반영하는 다양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Pope, McHale, & Craighead, 1988).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영역성을 고려하게 되면 성별 차이에 대한 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표 V-84〉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남자 (n=250)	29.00	5.08	-1.07	597
여자 (n=349)	29.46	5.22		

성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은 우울·불안, 비행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표 V-85>). 우울·불안은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더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은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0.1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은 여성에게 빈도가 더 높고 비행은 남성이 더 많이 저지른다는 일반적인 결론과 일치하는 것이다.

<표 V-85> 성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우울·불안	남자 (n=251)	6.50	4.46	-2.52*	598
	여자 (n=349)	7.53	5.22		
비행	남자 (n=251)	2.20	2.17	1.93 ⁺	598
	여자 (n=349)	1.85	2.25		

+p<.10 *p<.05

<표 V-86> 성별에 따른 흡연 정도

단위: 빈도(%)

구분	안 피운다	어쩌다 하나씩	하루에 반갑	하루에 한갑 이상	전체	χ^2 값
남자	220(87.6)	19(7.6)	11(4.4)	1(0.4)	251(100.0)	13.72**
여자	335(95.7)	9(2.6)	5(1.4)	1(0.3)	350(100.0)	

**p<.01

성별에 따른 흡연 정도에 대해 알아본 결과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표 V-86>).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흡연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에 따른 평소 음주량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의 음주량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87> 성별에 따른 평소 음주량

단위: 빈도(%)

구분	마신 적 없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1주일에 1-2번 정도	1달에 1-2번 정도	거의 매일	전체	χ^2 값
남자	185(73.7)	52(20.7)	7(2.8)	6(2.4)	1(0.4)	251(100.0)	2.89
여자	257(73.6)	80(22.9)	4(1.1)	6(1.7)	2(0.6)	349(100.0)	

성별에 따른 자살행위나 자살기도 경험은 여자청소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V-88>).

<표 V-88> 성별에 따른 자살행위나 자살기도 경험

단위: 빈도(%)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값
남자	13(5.3)	233(94.7)	246(100.0)	0.31
여자	22(6.4)	323(94.6)	348(100.0)	

2) 문화여가활동 및 발달육구

(1) 교육

학교는 청소년들의 제 2의 가정이자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다. 학교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가정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며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신체적·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는 것은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교적응은 빈곤청소년의 사회적 성취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허남순 외, 2005).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V-89>), 남녀청소년 모두 90%이상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보고하여 별다른 성별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가정에서는 청소년에게 독립적인 공부방 등 적절한 학습공간, 학업에

필요한 준비물이나 사교육 등을 제공하지 못하여 학업성취를 저해하고 학교 적응을 방해하기도 한다(허남순 외, 2005). 이렇게 일반적으로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의 보고는 이외의 결과로 판단된다. 이들의 긍정적 학교적응 경험에 대한 요인파악은 다른 빈곤청소년에게도 모범이 될 수 있는 좋은 연구주제로 판단된다.

<표 V-89>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단위: 빈도(%)

구분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	잘 적응하고 있는 편이다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χ^2 값
남자	97(39.1)	134(54.0)	15(6.0)	2(0.8)	248(100.0)	2.11
여자	157(45.0)	171(49.0)	18(5.2)	3(0.9)	349(100.0)	

(2) 정보·문화

성별에 따른 정보매체 이용시간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과 전화(이동전화)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인터넷은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이용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V-90>). 반면 전화(이동전화)는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사용시간이 많았고 이러한 차이는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표 V-90> 성별에 따른 정보매체 이용시간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인터넷	남자 (n=251)	2.73	1.03	1.47	599
	여자 (n=350)	2.61	0.92		
전화 (이동전화)	남자 (n=251)	1.60	0.82	-5.77***	599
	여자 (n=350)	2.07	1.11		

***p<.001

(3)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와 이용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성별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인지 및 이용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다(<표 V-91>). 이는 14개의 청소년 관련기관(시설) 중 모른다고 응답한 숫자, 알고 있지만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숫자,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숫자를 총점으로 계산하여 성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에 비해 각 기관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관련기관의 숫자와 알고 있지만 이용해본 적이 없는 청소년 관련기관의 숫자가 더 높았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여자청소년들은 남자청소년 보다 청소년 관련기관(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V-91> 성별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인지 및 이용여부

항목	구분	평균	표준 편차	t값	자유도
모르고 있었다	남자 (n=249)	6.60	4.62	1.07	593
	여자 (n=346)	6.21	4.16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남자 (n=249)	5.46	4.50	0.46	593
	여자 (n=346)	5.30	3.96		
이용해 본 적 있다	남자 (n=249)	1.51	1.51	-3.01**	593
	여자 (n=346)	1.95	1.91		

**p<.01

〈표 V-92〉 성별에 따른 청소년 복지서비스 인지 및 이용여부

항목	구분	평균	표준 편차	t값	자유도
모르고 있었다	남자 (n=247)	4.56	4.16	-0.59	589
	여자 (n=344)	4.76	4.01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남자 (n=247)	4.26	3.72	1.24	589
	여자 (n=344)	3.90	3.32		
이용해 본 적 있다	남자 (n=247)	2.80	2.50	0.03	589
	여자 (n=344)	2.79	2.39		

12개의 청소년복지서비스 중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숫자, 알고 있지만 이용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숫자,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숫자를 계산하고 이를 변수로 사용하여 성별에 따른 청소년 복지 서비스 인지 및 이용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이 빈곤청소년이라 청소년복지 서비스의 이용이 높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12개 중 3개미만으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지원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낙인감과 긍정적 태도로 구분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주변 사람들은 내가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나를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것 같다’, ‘도움 받는 사실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다’,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등의 4문항으로 서비스 수급에 대한 낙인감을 측정하였다. 또한 ‘현재 내 생활에 도움이 되므로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나도 어려운 이웃을 꼭 돕고 싶다’ 등의 2문항으로 서비스 수급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게 하고 평균하여 척도

를 만들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낙인감과 긍정적 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서비스 수급에 대한 낙인감이 0.74, 서비스 수급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0.74로 나타났다.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서비스 수급에 대한 낙인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서비스 수급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서비스 수급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더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93> 성별에 따른 서비스 수급에 대한 태도

항목	구분	평균	표준 편차	t값	자유도
낙인감	남자 (n=251)	1.78	0.53	0.65	598
	여자 (n=349)	1.75	0.55		
긍정적 태도	남자 (n=249)	3.34	0.60	-2.61**	594
	여자 (n=347)	3.46	0.51		

**p<.01

(4) 성문제행동

청소년의 성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정체성과 성적체성으로 인해 놀림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을 조사하였다.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성정체성(<표 V-94>)과 성별에 따른 성적체성으로 놀림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V-95>).

<표 V-94> 성별에 따른 성 정체성

단위: 빈도(%)

구분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전체	χ^2 값
남자	208(92.9)	7(3.1)	7(3.1)	2(0.9)	224(100.0)	5.79
여자	298(90.3)	5(1.5)	24(7.3)	3(0.9)	330(100.0)	

<표 V-95> 성별에 따른 성 정체성으로 놀림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

단위: 빈도(%)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값
남자	1(0.4)	239(99.6)	240(100.0)	0.06
여자	1(0.3)	340(99.7)	341(100.0)	

성별에 따른 성관계 경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V-96>). 성별에 상관없이 빈곤청소년의 극소수만이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96> 성별에 따른 성관계 경험

단위: 빈도(%)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값
남자	7(2.9)	234(97.1)	241(100.0)	2.32
여자	4(1.2)	339(98.8)	343(100.0)	

성별에 따른 현재 가출상태와 가출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가출상태와 가출경험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가출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V-97> 성별에 따른 현재 가출 상태

단위: 빈도(%)

구분	그렇다	아니다	전체	χ^2 값
남자	2(0.8)	243(99.2)	245(100.0)	0.13
여자	2(0.6)	346(99.6)	348(100.0)	

<표 V-98> 성별에 따른 가출 경험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남자 (n=231)	1.26	0.842	0.97	553
여자 (n=324)	1.20	0.690		

성별에 따른 경찰서에 잡혀간 경험을 살펴보았다.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경찰서에 잡혀간 경험이 훨씬 많았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보호관찰 여부를 살펴본 결과,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보호관찰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V-99> 성별에 따른 경찰서에 잡혀간 경험

단위: 빈도(%)

구분	그렇다	아니다	전체	χ^2 값
남자	32(13.0)	215(87.0)	247(100.0)	19.16***
여자	12(3.4)	337(96.6)	349(100.0)	

**p<.01

<표 V-100> 성별에 따른 보호관찰 여부

단위: 빈도(%)

구분	그렇다	아니다	전체	χ^2 값
남자	7(2.8)	240(97.2)	247(100.0)	4.97*
여자	2(0.6)	347(99.4)	349(100.0)	

*p<.05

3) 사회지원체계 및 보호육구

(1) 가족

성별에 따른 부모의 청소년 학대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부모님의 발에 차이거나 깨물리거나 주먹에 맞았다”, “부모님이 휘두르는 몽둥이나 굵은 막대기, 혁대로 맞았다” 등 3문항으로 신체적 학대를 측정하였고,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다”, “부모님이 나에게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하였다” 등 2문항으로 정서적 학대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지내거나 습기 찬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부모님은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 “부모님은 이유 없이 내가 학교에 결석해도 나에게 아무 말 안 한다” 등 4문항으로 방임을 측정하였다. 학대 경험을 ‘전혀 없었다’를 ‘0’으로, ‘1년에 1~2번 정도’를 ‘1’로, ‘2~3개월에 1~2번 정도’를 ‘2’로 ‘한 달에 1~2번 정도’를 ‘3’으로, ‘일주일에 1~2번 정도’를 ‘4’로 환산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학대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신체적 학대가 0.67, 정서적 학대가 0.74, 방임이 0.64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와 방임 모두에서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과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신체적 학대는 남자청소년이 더 많이 경험하고 방임은 여자청소년이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V-101> 성별에 따른 부모의 청소년학대

항목	구분	평균	표준 편차	t값	자유도
신체적 학대	남자 (n=248)	1.12	0.38	0.60	590
	여자 (n=344)	1.10	0.33		

항목	구분	평균	표준 편차	t값	자유도
정서적 학대	남자 (n=248)	1.40	0.79	-0.11	590
	여자 (n=344)	1.41	0.75		
방임	남자 (n=248)	1.24	0.46	-1.37	592
	여자 (n=346)	1.29	0.46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부모님은 내가 집에 없을 때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계신다”, “부모님은 내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알고 계신다”, “부모님은 내가 어른 없이 혼자 집에 있을 때 전화를 하신다” 등 3문항으로 부모의 지도감독을 측정하였고, “부모님은 내가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칭찬해 주신다”, “부모님은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할 때 칭찬해 주신다” 등의 2문항을 통해 부모의 보상행동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내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도와주는 편이다”, “부모님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일일이 간섭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내가 부모님의 뜻대로만 생활하도록 강요하신다” 등의 3문항으로 부모의 과잉보호를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의 5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고 평균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도감독, 보상행동, 과잉보호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지도감독이 0.77, 보상행동이 0.87, 과잉보호가 0.63으로 나타났다.

빈곤가정에서는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에게 더 많은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보상행동도 여자청소년에게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자청소년의 경우 부모가 더 과잉보호한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V-102> 성별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

항목	구분	평균	표준 편차	t값	자유도
지도감독	남자 (n=250)	3.29	1.03	-3.67***	592
	여자 (n=344)	3.60	1.00		
보상	남자 (n=250)	3.69	1.07	-1.90 ⁺	592
	여자 (n=344)	3.85	1.01		
과잉보호	남자 (n=249)	2.86	0.93	2.50*	591
	여자 (n=344)	2.67	0.85		

+p<.10 *p<.05 **p<.01

(2) 학교

학교는 학습과 성장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학교폭력의 가해 또는 피해와 같은 부정적 경험이 발생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은 등교를 거부하거나, 학교활동 및 친구들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기피하고, 자신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이상균, 1999; Boulton & Underwood, 1992; Olweus, 1993). 신체적 상해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할 수도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자살시도 또는 자살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아동들은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는 태도를 갖게 되며 (Kochenderfer & Ladd, 1996),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질 수 있다 (Olweus, 1993). 학교폭력을 경험한 아동들은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으며(Olweus, 1993) 이는 낮은 학업성취와 학교부적응의 원인이 된다 (최진희, 2000; Hoover & Hazler, 1991). 이러한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학교폭력 경험에서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V-103>).

〈표 V-103〉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경험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남자 (n=248)	1.28	0.49	2.51*	596
여자 (n=350)	1.19	0.41		

*p<.05

학교 선생님을 존경한다든지, 학생을 이해하고 인정해주시는 선생님이 학교에 있다든지, 학교생활에 만족한다든지 등은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으로 분류하여 척도를 구성하였고, 선생님이 차별대우 한다든지, 학교에서 선생님께 맞은 적이 있다든지, 선생님께 모욕을 받은 적이 있다든지, 선생님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든지 등은 부정적인 경험으로 분류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긍정적 경험이 0.84, 부정적 경험이 0.69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V-104>). 특히 남자청소년의 경우 여자청소년보다 학교에서 부정적인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V-104〉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긍정적 경험	남자 (n=251)	3.60	0.91	0.17	598
	여자 (n=349)	3.59	0.91		
부정적 경험	남자 (n=250)	1.84	0.71	0.99	597
	여자 (n=349)	1.78	0.68		

(3) 지역사회

사회적 지지 척도는 “나를 사랑하고 돌보아준다”, “나의 능력을 존중해 준다”, “내가 무언가 의논하거나 이야기 하고 싶을 때 도움이 된다”, “내가 필요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거나 빌려준다”의 4문항을 각각 부모, 형제자매, 친척, 학교친구, 학교선생님, 사회복지사 등이 실제로 그러한지 질문하고 대상별로 평균하여 합산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부모의 지지가 0.89, 형제자매의 지지가 0.86, 친척의 지지가 0.87, 학교친구의 지지가 0.78, 학교선생님의 지지가 0.82,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의 지지가 0.86, 전체 사회적 지지가 0.8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교친구의 지지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학교친구로부터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표 V-105〉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

항목	구분	평균	표준 편차	t값	자유도
부모의 지지	남자 (n=214)	12.18	3.33	-1.31	488
	여자 (n=276)	12.55	2.98		
형제자매의 지지	남자 (n=212)	12.12	2.93	0.51	483
	여자 (n=273)	11.98	2.90		
친척의 지지	남자 (n=222)	11.01	2.97	1.61	518
	여자 (n=298)	10.58	3.11		

항목	구분	평균	표준 편차	t값	자유도
학교친구의 지지	남자 (n=238)	11.83	2.42	-4.11***	554
	여자 (n=318)	12.66	2.32		
학교선생님의 지지	남자 (n=233)	11.55	2.44	1.14	541
	여자 (n=310)	11.30	2.61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의 지지	남자 (n=203)	11.39	2.70	0.51	474
	여자 (n=273)	11.26	2.66		
사회적 지지 총점	남자 (n=220)	66.60	13.79	1.01	515
	여자 (n=297)	65.36	12.74		

***p<.001

성별에 따른 성추행, 강간 피해 경험을 살펴본 결과(<표 V-106>),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성추행이나 강간 피해경험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V-106> 성별에 따른 성추행, 강간 피해경험

단위: 빈도(%)

구분	전혀없다	1번	2-3번	4번이상	전체	χ^2 값
남자	246(99.6)	1(0.4)	-	-	247(100.0)	6.39 ⁺
여자	333(96.5)	10(2.9)	1(0.3)	1(0.3)	345(100.0)	

+p<.10

(4) 직장·근로

성별에 따른 일(아르바이트)경험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일(아르바이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경험도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V-107> 성별에 따른 일(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빈도(%)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값
남자	48(20.2)	190(79.8)	238(100.0)	10.189***
여자	110(32.2)	232(67.8)	342(100.0)	

***p<.001

직장피해경험 척도는 직장(아르바이트)에서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8시간 초과근무, 욕설, 폭행 등 6가지의 피해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이를 평균하여 합산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0.70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직장(아르바이트)에서의 피해 경험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표 V-108>).

<표 V-108> 성별에 따른 직장(아르바이트)에서의 피해 경험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남자 (n=71)	1.09	0.28	-0.73	198
여자 (n=129)	1.12	0.23		

4) 인권 및 참여욕구

(1) 인권 및 사회참여의식

다음은 청소년의 인권 및 사회참여의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V-109>는 성별에 따라 빈곤청소년이 청소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잘 알고 있는지 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표 V-110>은 성별에 따른 동성애, 장애인 등 소외집단 인권에 대한 책임감 및 참여의식에 대해 알아본 것이다. 이에서도 역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V-109> 성별에 따른 청소년권리 인지도부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남자 (n=249)	2.66	0.730	-0.47	596
여자 (n=349)	2.69	0.745		

<표 V-110> 성별에 따른 소외집단 인권에 대한 책임감 및 참여의식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남자 (n=250)	2.76	0.47	0.30	597
여자 (n=349)	2.75	0.41		

(2) 사회참여 정도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소감 또는 견해를 밝히는지,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과 행정과정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는지, 봉사활동 등을 하는지,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아르바이트 등의 활동을 하는지, 청소년들끼리 여가문화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하는지 등을 질문하여 청소년의 사회참여정도를 파악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질문하고 이를 평균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0.79이었다. 성별에 따른 사회참여 정도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V-111>).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사회참여가 더 높았다.

<표 V-111> 성별에 따른 사회참여 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남자 (n=229)	1.84	0.56	-3.90***	562
여자 (n=335)	2.03	0.56		

***p<.001

4. 거주지역에 따른 복지실태 및 욕구

본 장에서는 거주지역에 따른 빈곤청소년의 복지실태 및 욕구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중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286명(47.6%)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224명(37.3%), 농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91명(15.1%)이었다. 빈곤청소년들의 거주지역에 따른 생존욕구, 보호욕구, 발달욕구, 참여욕구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V-112〉 빈곤청소년의 거주지역

구분	빈도	백분율
대도시	286	47.6
중소도시	224	37.3
농어촌	91	15.1
전체	601	100.0

1) 기초생활실태 및 생존욕구

(1) 의식주

거주지역에 따른 생존욕구에서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의식주생활에 대한 문항을 검토하였다. 5개의 문항 중 “혼자 사용하는 내 방이 있다”는 한 개의 문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빈곤청소년이 혼자 사용하는 독립공간을 가진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빈곤청소년이었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빈곤청소년이 가장 낮았다. Scheffe사후검증을 통해서 중소도시 빈곤청소년과 대도시 빈곤청소년 간의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3〉 거주지역에 따른 의식주 생활(혼자 사용하는 내 방이 있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대도시 ¹⁾ (n=281)	2.07	1.13	3.20*	+	+	
중소도시 ²⁾ (n=219)	2.32	1.17				
농어촌 ³⁾ (n=90)	2.28	1.22				

+p<.10 *p<.05

(2) 의료·보건

거주지역에 따라 건강검진 유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건강검진 유무는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빈곤청소년의 약 60%정도가 건강검진을 받았다.

〈표 V-114〉 거주지역에 따른 건강검진 유무

단위: 빈도(%)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값
대도시	122(43.1)	161(56.9)	283(100.0)	0.13
중소도시	93(42.5)	126(57.5)	219(100.0)	
농어촌	36(40.9)	52(59.1)	88(100.0)	

(3) 건강

먼저 거주지역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중소도시 빈곤청소년이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대도시 빈곤청소년, 농어촌 빈곤청소년 순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V-115〉 거주지역에 따른 자아존중감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대도시 (n=284)	29.27	5.36	0.02
중소도시 (n=224)	29.29	4.91	
농어촌 (n=91)	29.18	5.21	

또한 거주지역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중소도시 청소년의 경우 우울불안은 가장 높고, 비행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V-116〉 거주지역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우울불안	대도시 (n=285)	6.94	5.22	0.32
	중소도시 (n=224)	7.29	4.56	
	농어촌 (n=91)	7.10	4.97	
비행	대도시 (n=285)	2.07	2.51	0.55
	중소도시 (n=224)	1.87	1.81	
	농어촌 (n=91)	2.05	2.21	

거주지역에 따른 흡연, 음주, 자살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2) 문화여가활동 및 발달육구

(1) 교육

거주지역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정도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빈곤청소년의 90% 이상이 주관적인 의미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표 V-117〉 거주지역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단위: 빈도(%)

구분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	잘 적응하고 있는 편이다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χ^2 값
대도시	114(40.0)	149(52.3)	19(6.7)	3(1.1)	285(100.0)	2.11
중소도시	95(42.8)	114(51.4)	11(5.0)	2(0.9)	222(100.0)	
농어촌	45(50.0)	42(46.7)	3(3.3)	-	90(100.0)	

(2) 정보·문화

거주지역에 따라 인터넷과 전화(이동전화) 사용시간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대도시 빈곤청소년이 다른 지역 청소년보다 전화(이동전화)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3) 지역사회서비스

거주지역에 따라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인지 및 이용여부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농어촌 빈곤청소년은 14개의 청소년 관련기관(시설) 중 평균 7.7개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인지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빈곤청소년은 5.9개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인지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Scheffe사후검증에서도 농어촌 빈곤청소년과 대도시 빈곤청소년의 차이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알고 있지만 이용한 적이 없는 청소년 관련기관(시설)의 숫자도 대도시 빈곤청소년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중소도시 빈곤청소년, 농어촌 빈곤청소년 순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용해 본적이 있는 청소년 관련기관(시설)의 숫자는 중소도시 빈곤청소년의 경우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대도시 빈곤청소년, 농어촌 빈곤청소년의 순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농어촌 빈곤청소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청소년 관련기관(시설)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어촌 지역에 청소년 관련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에서는 청소년 관련시설에서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인프라 확충에 더 신경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V -118>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 관련기관(시설) 인지 및 이용여부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모르고 있었다	대도시 ¹⁾ (n=284)	5.92	4.32	5.84**			**
	중소도시 ²⁾ (n=221)	6.43	4.33				+
	농어촌 ³⁾ (n=90)	7.70	4.32		**	+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이 없다	대도시 ¹⁾ (n=284)	5.75	4.17	3.14*			+
	중소도시 ²⁾ (n=221)	5.20	4.24				
	농어촌 ³⁾ (n=90)	4.54	4.01		+		
이용해 본 적이 있다	대도시 ¹⁾ (n=284)	1.78	1.69	4.48*			+
	중소도시 ²⁾ (n=221)	1.93	1.92				*
	농어촌 ³⁾ (n=90)	1.28	1.54		+	*	

+p<.10 *p<.05 **p<.01

다음으로 거주 지역에 따른 청소년 복지서비스 인지 및 이용여부에서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농어촌 빈곤청소년은 12개의 청소년 복지서비스 중 모르고 있는 숫자가 가장 많았고, 이용해본 숫자는 가장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V-119〉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 복지서비스 인지 및 이용여부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모르고 있었다	대도시 ¹⁾ (n=283)	4.47	4.05	2.08
	중소도시 ²⁾ (n=218)	4.62	3.92	
	농어촌 ³⁾ (n=90)	5.47	4.42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이 없다	대도시 ¹⁾ (n=283)	4.22	3.39	0.84
	중소도시 ²⁾ (n=218)	3.98	3.53	
	농어촌 ³⁾ (n=90)	3.70	3.72	
이용해 본 적이 있다	대도시 ¹⁾ (n=283)	2.83	2.35	0.67
	중소도시 ²⁾ (n=228)	2.86	2.39	
	농어촌 ³⁾ (n=90)	2.52	2.81	

마지막으로 거주지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에 대한 태도(낙인감, 긍정적 태도)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4) 성·문제행동

거주지역에 따른 성정체성, 성관계 경험, 임신여부, 대가성 성매매 여부, 가출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거주지역에 따라 경

찰서에 잡혀간 경험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 빈곤청소년이 경찰서에 잡혀간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호관찰 경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들은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0> 거주지역에 따른 경찰서에 잡혀간 경험

단위: 빈도(%)

구분	그렇다	아니다	전체	χ^2 값
대도시	14(4.9)	269(95.1)	283(100.0)	6.25*
중소도시	24(10.8)	199(89.2)	223(100.0)	
농어촌	6(6.7)	84(93.3)	90(100.0)	

*p<.05

<표 V-121> 거주지역에 따른 보호관찰 여부

단위: 빈도(%)

구분	그렇다	아니다	전체	χ^2 값
대도시	2(0.7)	281(99.3)	283(100.0)	6.59*
중소도시	7(3.1)	216(96.9)	223(100.0)	
농어촌	0(0.0)	90(100.0)	90(100.0)	

*p<.05

3) 사회지원체계 및 보호육구

(1) 가족

거주지역에 따른 부모의 학대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농어촌 빈곤청소년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도시 빈곤청소년은 방임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V-122〉 거주지역에 따른 부모의 청소년학대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신체적 학대	대도시 ¹⁾ (n=284)	1.11	4.05	0.78
	중소도시 ²⁾ (n=217)	1.09	3.92	
	농어촌 ³⁾ (n=91)	1.14	4.42	
정서적 학대	대도시 ¹⁾ (n=284)	1.39	3.39	0.74
	중소도시 ²⁾ (n=217)	1.38	3.53	
	농어촌 ³⁾ (n=91)	1.49	3.72	
방임	대도시 ¹⁾ (n=284)	1.29	2.35	0.74
	중소도시 ²⁾ (n=219)	1.24	2.39	
	농어촌 ³⁾ (n=91)	1.28	2.81	

거주지역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지도감독이나 과잉보호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반면 부모의 보상행동 측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중소도시 빈곤청소년이 대도시 빈곤청소년보다 본인이 잘한 일을 했을 때 부모로부터 보상을 더 잘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V-123〉 거주지역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보상	대도시 ¹⁾ (n=285)	3.68	1.07	3.06*	*	*	
	중소도시 ²⁾ (n=218)	3.91	0.99				
	농어촌 ³⁾ (n=91)	3.79	1.03				

*p<.05

(2) 학교

거주지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경험,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 경험, 부정적 경험 차이를 살펴보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3) 지역사회

거주지역에 따른 사회적 지지 측면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부모, 형제 자매, 친구 등 다른 영역에서의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지만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의 지지 측면에서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중소도시에서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의 지지가 가장 높았고 농어촌에서 가장 낮았다. 이는 농어촌 지역에서 사회복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V-124> 거주지역에 따른 사회적 지지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의 지지	대도시 ¹⁾ (n=216)	11.36	2.81	2.82 ⁺			+
	중소도시 ²⁾ (n=189)	11.52	2.66				
	농어촌 ³⁾ (n=71)	10.65	2.22			+	

+p<.10

(4) 직장·근로

거주지역에 따라 일(아르바이트) 경험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중소도시 빈곤청소년들이 가장 일(아르바이트)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도시 빈곤청소년들이 가장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아르바이트 피해경험에서의 거주지역 간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표 V-125> 거주지역에 따른 일(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빈도(%)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값
대도시	68(24.8)	206(75.2)	274(100.0)	1.56
중소도시	64(29.6)	152(70.4)	216(100.0)	
농어촌	26(28.9)	64(71.1)	90(100.0)	

4) 인권 및 참여욕구

(1) 인권 및 사회참여의식

거주지역에 따라 빈곤청소년이 청소년권리를 잘 알고 있는지 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대도시 빈곤청소년이 청소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잘 알고 있다고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농어촌 빈곤청소년은 가장 낮게 청소년권리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거주지역에 따른 동성애, 장애인 등 소외집단 인권에 대한 책임감 및 참여의식에 대해 알아본 결과,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V-126>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권리 인지도부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대도시 ¹⁾ (n=283)	2.74	0.72	2.90 ⁺	+		+
중소도시 ²⁾ (n=224)	2.65	0.74				
농어촌 ³⁾ (n=91)	2.54	0.78				

+p<.10

(2) 사회참여 정도

거주지역에 따른 실제 사회참여 정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5. 가족형태에 따른 복지실태 및 욕구

본 장에서는 빈곤청소년들의 가족형태에 따른 생존욕구, 보호욕구, 발달욕구, 참여욕구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빈곤청소년들의 가족형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표 V-127>). 첫째, 빈곤청소년이 친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양친부모가정’의 형태로서, 총 573명 중 69명(12.0%)만이 이에 해당하였다. 둘째, 청소년이 친아버지와 함께 사는 ‘부자가정’으로서, 53명(9.2%)이 이에 해당하였다. 셋째, 청소년이 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모자가정’으로서, 186명(32.5%)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친부모 모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기타 가정’의 형태는 265명(46.2%)으로 나타났다. ‘기타 가정’으로 분류된 청소년들 중에는 조부모와 함께 사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으며(78명, 13.6%), 이 밖에 소년소녀가장세대(59명, 10.3%), 친인척 위탁양육(40명, 7.0%), 일반가정위탁(11명, 1.9%), 기타(77명, 13.4%)의 형태로 양육되고 있었다. 본 조사에 포함된 빈곤청소년들은 ‘기타 가정’의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양친부모가정이 아닌 가정은 전체 빈곤청소년들의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7> 빈곤청소년의 가족형태

구분	빈도	백분율
양친부모가정	69	12.0
부자가정	53	9.2
모자가정	186	32.5
기타 가정	265	46.2
소년소녀가장세대	(59)	(10.3)
조부모 대리양육	(78)	(13.6)
친인척 위탁양육	(40)	(7.0)
일반가정위탁	(11)	(1.9)
기타	(77)	(13.4)
전체	573	100.0

1) 기초생활실태 및 생존욕구

(1) 의식주

가족형태에 따른 생존욕구에서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의식주생활에 대한 문항을 검토하였다. 5개의 문항 중 “혼자 사용하는 내 방이 있다”는 한 개의 문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기타 가정의 빈곤청소년이 혼자 사용하는 독립공간을 가진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부자가정 빈곤청소년, 모자가정 빈곤청소년 순이었고, 양친부모가정의 빈곤청소년이 그 비율이 가장 낮았다. Scheffe사후검증을 통해서 기타가정 빈곤청소년과 양친부모가정 빈곤청소년 간의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8> 가족형태에 따른 의식주 생활(혼자 사용하는 내 방이 있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4)
양친부모가정 ¹⁾ (n=68)	1.84	1.10	3.81**				*
부자가정 ²⁾ (n=53)	2.17	1.24					
모자가정 ³⁾ (n=180)	2.09	1.09					
기타 ⁴⁾ (n=261)	2.33	1.20		*			

*p<.05 **p<.01

(2) 의료·보건

가족형태에 따라 건강검진 유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건강검진 유무는 가족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건강

먼저 가족형태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기타 가정의 빈곤청소년이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모자가정 빈곤

청소년, 부자가정 빈곤청소년, 양친부모가정 빈곤청소년 순이었다. 특히하게 양친부모가정 빈곤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V-129〉 가족형태에 따른 자아존중감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양친부모가정 (n=69)	28.25	6.27	2.02
부자가정 (n=53)	28.60	5.52	
모자가정 (n=185)	29.08	5.22	
기타 (n=264)	29.75	4.82	

또한 가족형태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양친부모가정의 빈곤청소년의 경우 우울불안이 가장 높았고, 비행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V-130〉 가족형태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우울·불안	양친부모가정 (n=69)	7.71	4.79	1.63
	부자가정 (n=53)	6.25	4.59	
	모자가정 (n=185)	7.60	5.26	
	기타 (n=265)	6.90	4.81	
비행	양친부모가정 (n=69)	2.12	1.84	0.15
	부자가정 (n=53)	1.98	2.48	
	모자가정 (n=185)	1.92	2.17	
	기타 (n=265)	1.94	1.99	

가정형태에 따른 흡연정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자가정 빈곤청소년이 가장 흡연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자가정 빈곤청소년이 가장 흡연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가족형태에 따른 음주, 자살시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V-131> 가족형태에 따른 흡연 정도

단위: 빈도(%)

구분	안 피운다	어쩌다 하나씩	하루에 반갑	전체	χ^2 값
양친부모가정	64(92.8)	4(5.8)	1(1.4)	69(100.0)	10.89 ⁺
부자가정	47(88.7)	3(5.7)	3(5.7)	53(100.0)	
모자가정	178(95.7)	8(4.3)	-	186(100.0)	
기타	242(91.3)	11(4.2)	12(4.5)	265(100.0)	

+p<.10

2) 문화여가활동 및 발달육구

(1) 교육

가족형태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정도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가족형태와 상관없이 빈곤청소년의 90% 이상이 주관적인 의미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가족형태에 따른 지난 1년간의 결석일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자가정 빈곤청소년의 결석일수가 가장 낮았고, 부자가정 빈곤청소년의 결석일수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V-132> 가족형태에 따른 지난 1년간 결석일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4)
양친부모가정 ¹⁾ (n=68)	1.37	0.90	2.39 ⁺				
부자가정 ²⁾ (n=52)	1.69	1.15				+	
모자가정 ³⁾ (n=185)	1.34	0.69			+		
기타 ⁴⁾ (n=265)	1.43	0.88					

+p<.10

(2) 정보.문화

가족형태에 따라 인터넷과 전화(이동전화) 사용시간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3) 지역사회서비스

가족형태에 따라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인지 및 이용여부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부자가정의 빈곤청소년은 14개의 청소년 관련기관(시설) 중 평균 7.9개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인지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친부모가정의 빈곤청소년은 14개 중 5.4개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인지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알고 있지만 이용한 적이 없는 청소년 관련기관(시설)의 숫자는 양친부모가정의 빈곤청소년이 가장 높았고, 부자가정의 빈곤청소년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용해 본적이 있는 청소년 관련기관(시설)의 숫자는 양친부모가정의 빈곤청소년의 경우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모자가정의 빈곤청소년, 부자가정의 빈곤청소년, 기타가정의 빈곤청소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V-133〉 가족형태에 따른 청소년 관련기관(시설) 인지 및 이용 이용여부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4)
모르고 있었다	양친부모가정 ¹⁾ (n=68)	5.38	4.16	3.67*	*	*	+	
	부자가정 ²⁾ (n=53)	7.94	4.43					
	모자가정 ³⁾ (n=184)	6.17	4.32			+		
	기타 ⁴⁾ (n=262)	6.50	4.40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양친부모가정 ¹⁾ (n=68)	6.19	4.17	2.41 ⁺	+	+		
	부자가정 ²⁾ (n=53)	4.13	3.96					
	모자가정 ³⁾ (n=184)	5.36	4.18					
	기타 ⁴⁾ (n=262)	5.40	4.26					
이용해 본 적 있다	양친부모가정 ¹⁾ (n=68)	1.91	1.60	1.15				
	부자가정 ²⁾ (n=53)	1.87	2.17					
	모자가정 ³⁾ (n=184)	1.89	1.77					
	기타 ⁴⁾ (n=262)	1.61	1.73					

+p<.10 *p<.05 **p<.01

다음으로 가족형태에 따른 청소년 복지서비스 인지 및 이용여부에서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부자가정 빈곤청소년은 12개의 청소년 복지서비스 중 모르고 있는 숫자가 가장 많았고, 기타가정의 빈곤청소년은 모르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숫자가 가장 적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반면 복지서비스의 이용여부 측면에서는 기타 가정의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양친부모가정 청소년, 모자가정 청소년, 부자가정 청소년 순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부자가정 청소년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복지서비스에 가장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V-134〉 가족형태에 따른 청소년 복지서비스 인지 및 이용 이용여부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4)
모르고 있었다	양친부모가정 ¹⁾ (n=66)	4.55	4.13	1.62				
	부자가정 ²⁾ (n=53)	5.19	4.10					
	모자가정 ³⁾ (n=183)	5.17	4.25					
	기타 ⁴⁾ (n=261)	4.38	3.93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양친부모가정 ¹⁾ (n=66)	4.12	3.52	0.47				
	부자가정 ²⁾ (n=53)	4.43	3.82					
	모자가정 ³⁾ (n=183)	3.82	3.51					
	기타 ⁴⁾ (n=261)	4.05	3.43					
이용해 본 적 있다	양친부모가정 ¹⁾ (n=66)	2.65	2.57	4.53**				+ *
	부자가정 ²⁾ (n=53)	2.23	1.88					
	모자가정 ³⁾ (n=183)	2.44	2.38					
	기타 ⁴⁾ (n=261)	3.18	2.51					

+p<.10 *p<.05 **p<.01

마지막으로 가족형태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에 대한 태도(낙인감, 긍정적 태도)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4) 성문제행동

가족형태에 따른 성정체성, 성관계 경험, 임신여부, 대가성 성매매 여부, 가출, 경찰서에 잡혀간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족형태에 따라 보호관찰 여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가정 빈곤청소년이 보호관찰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양친부모가정 빈곤청소년이 보호관찰 경험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들은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5> 가족형태에 따른 보호관찰 여부

단위: 빈도(%)

구분	그렇다	아니다	전체	χ^2 값
양친부모가정	-	67(100.0)	67(100.0)	14.32**
부자가정	4(7.5)	49(92.5)	53(100.0)	
모자가정	3(1.6)	181(98.4)	184(100.0)	
기타	2(0.8)	262(99.2)	264(100.0)	

**p<.01

3) 사회지원체계 및 보호육구

(1) 가족

가족형태에 따른 부모의 학대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양친부모가정의 빈곤청소년이 신체적 학대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가정의 빈곤청소년이 신체적 학대를 가장 적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반면 정서적 학대는 모자가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방임은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부모가정에서 방임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와 방임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V-136> 가족형태에 따른 부모의 청소년 학대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4)
신체적 학대	양친부모가정 ¹⁾ (n=68)	1.20	0.50	3.45*	+			+
	부자가정 ²⁾ (n=53)	1.18	0.37					
	모자가정 ³⁾ (n=186)	1.11	0.39					
	기타 ⁴⁾ (n=257)	1.07	0.25					
정서적 학대	양친부모가정 ¹⁾ (n=68)	1.38	0.61	1.09				
	부자가정 ²⁾ (n=53)	1.25	0.43					
	모자가정 ³⁾ (n=186)	1.46	0.81					
	기타 ⁴⁾ (n=257)	1.38	0.80					
방임	양친부모가정 ¹⁾ (n=68)	1.27	0.37	1.77				+ *
	부자가정 ²⁾ (n=53)	1.31	0.58					
	모자가정 ³⁾ (n=186)	1.31	0.46					
	기타 ⁴⁾ (n=257)	1.22	0.40					

+p<.10 *p<.05

가족형태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자가정 청소년들이 부모의 지도감독이나 부모의 보상을 가장 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그 다음으로 양친부모가정 청소년, 부자가정 청소년 순이었고, 기타 가정 청소년들이 가장 낮게 부모의 지도감독과 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반면 과잉보호 측면에서는 가족형태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V-137> 가족형태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4)
지도감독	양친부모가정 ¹⁾ (n=69)	3.54	0.98	6.82***				***
	부자가정 ²⁾ (n=53)	3.40	0.96					
	모자가정 ³⁾ (n=185)	3.73	0.88					
	기타 ⁴⁾ (n=259)	3.29	1.11				***	
보상	양친부모가정 ¹⁾ (n=69)	3.86	1.00	5.19**				**
	부자가정 ²⁾ (n=53)	3.75	1.12					
	모자가정 ³⁾ (n=185)	4.01	0.85					
	기타 ⁴⁾ (n=259)	3.62	1.14				**	
과잉보호	양친부모가정 ¹⁾ (n=69)	2.67	0.84	0.44				
	부자가정 ²⁾ (n=53)	2.75	0.99					
	모자가정 ³⁾ (n=185)	2.81	0.87					
	기타 ⁴⁾ (n=259)	2.75	0.91					

p<.01 *p<.001

(2) 학교

가족형태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경험,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 경험, 부정적 경험 차이를 살펴보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3) 지역사회

가족형태에 따른 사회적 지지 측면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여러 가지 영역 중에 부모의 지지, 친척의 지지, 사회적 지지 총점 등의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지 측면에서는 모자가정 청소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양친부모가정 청소년, 부자가정 청소년 순이었으며, 기타가정 청소년의 부모의 지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척의 지지 측면에서는 부자가정 청소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양친부모가정 청소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0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 총점을 살펴본 결과, 부자가정의 사회적 지지 총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가정의 사회적 지지총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사회적 지지 측면은 기타 가정 청소년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망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V-138〉 가족형태에 따른 사회적 지지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4)
부모의 지지	양친부모가정 ¹⁾ (n=64)	12.88	2.41	20.47***				***
	부자가정 ²⁾ (n=49)	12.71	2.62					**
	모자가정 ³⁾ (n=178)	13.43	2.48					***
	기타 ⁴⁾ (n=180)	11.02	3.67		***	**	***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4)
친척의 지지	양친부모가정 ¹⁾ (n=57)	9.68	3.12	3.14*	*			*
	부자가정 ²⁾ (n=49)	11.04	3.10					
	모자가정 ³⁾ (n=166)	10.65	2.99					
	기타 ⁴⁾ (n=228)	11.02	3.06					
사회적 지지 총점	양친부모가정 ¹⁾ (n=58)	67.03	13.36	3.90**				+
	부자가정 ²⁾ (n=50)	69.04	13.97					
	모자가정 ³⁾ (n=169)	67.45	12.44					
	기타 ⁴⁾ (n=219)	63.58	14.32					

+p<.10 *p<.05 **p<.01 ***p<.001

(4) 직장·근로

가족형태에 따라 일(아르바이트) 경험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아르바이트 피해경험에서의 가족형태 간 차이를 살펴 본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4) 인권 및 참여욕구

(1) 인권 및 사회참여의식

가족형태에 따라 빈곤청소년이 청소년권리를 잘 알고 있는지 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가족형태에 따른 동성애, 장애인 등 소외집단 인권에 대한 책임감 및 참여의식에 대해 알아본 결과, 가족형태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2) 사회참여 정도

가족형태에 따른 실제 사회참여 정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6. 소결

빈곤청소년의 물리적인 가정환경이나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보았을 때 빈곤청소년은 심리적인 발달이나 정서적, 인지적 영역의 발달 등에서 일반청소년들 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다. 특히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가정해체로 인해 수차례 보호형태가 바뀐 경험도 있는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의 청소년 등이며 이런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학교 부적응 등은 이미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빈곤청소년들이 모든 면에서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하지만 예측과 달리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조사대상에 포함된 빈곤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인 지원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다. 동일한 빈곤 상황이라도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는 빈곤청소년들은 부모의 갑작스런 실직, 질병, 이혼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국가로부터 적절한 소득보장이나 민간단체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청소년과는 적응수준이나 문제의 양상 등이 매우 상이할 수 있다. 조사대상 빈곤청소년들은 대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며 그 외에 한국복지재단으로부터 매달 일정금액의 결연후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서비스가 청소년들의 열악한 환경이나 문화적 환경을 극복하고 학교나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만들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관심과 집중적인 지원이 빈곤청소년의 적응에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과 빈곤청소년 중에서도 만족스런 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반청소년과 다를 바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정익중 외, 2005).

둘째, 빈곤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하면서 학생을 주 표집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의무교육기간(초1-중3)에는 학교부적응문제가 있어도 학교에 머무르게 된다. 하지만 의무교육기간이 끝나면 탈학교의 상황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빈곤청소년의 경우 학교부적응으로 인해 의무교육기간이 끝나게 되면 퇴학당하거나 학교를 중퇴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만으로도 그들의 적응정도가 높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표집과정에서 가장 부적응하고 있는 빈곤청소년이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학교 내 빈곤청소년이 건강하게 발달하고 있을 가능성이나 학교에서 성장하는 빈곤청소년의 경우 적어도 일반청소년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은 학교를 중심으로 표집한 일반청소년 내의 하위집단 비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에서 표집한 청소년 중 무료급식이나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청소년을 분리하여 일반청소년과 비교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일반청소년이 수급청소년에 비해 조금 더 높았고 이는 유의수준 .10에서만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우울불안이나 비행은 수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더 높았지만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또한 흡연, 음주, 자살기도, 가출, 경찰서에 잡혀간 경험 등도 수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약간 더 높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는 일반청소년과 수급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V-139> 자아존중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수급청소년 (n=150)	28.39	5.56	-2.624 ⁺	1355
일반청소년 (n=1207)	29.67	5.68		

+p<.10

<표 V-140> 심리·사회적 적응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우울·불안	수급청소년 (n=149)	8.55	5.35	2.075	1366
	일반청소년 (n=1219)	7.63	5.10		
비행	수급청소년 (n=148)	2.80	2.58	2.359	1370
	일반청소년 (n=1224)	2.36	2.05		

<표 V-141> 흡연 정도

단위: 빈도(%)

구분	안 피운다	어쩌다 하나씩	하루에 반갑	하루에 한 갑 이상	전체	χ^2 값
수급청소년	137 (90.7)	9 (6.0)	4 (2.6)	1 (0.7)	151 (100.0)	3.901
일반청소년	1148 (94.0)	39 (3.2)	31 (2.5)	3 (0.2)	1221 (100.0)	

<표 V-142> 음주량

단위: 빈도(%)

구분	마신 적 없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1주일에 1-2번 정도	1달에 1-2번 정도	거의 매일	전체	χ^2 값
수급청소년	87 (58.0)	58 (38.7)	1 (0.7)	4 (2.7)	-	150 (100.0)	6.420
일반청소년	821 (67.4)	358 (29.4)	9 (0.7)	25 (2.1)	5 (0.4)	1218 (100.0)	

〈표 V-143〉 자살행위나 자살기도 경험

단위: 빈도(%)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값
수급청소년	19(12.8)	130(87.2)	149(100.0)	1.086
일반청소년	120(10.0)	1080(90.0)	1200(100.0)	

〈표 V-144〉 가출 경험

구분	없다	1번	2번	3- 4번	5- 9번	10번이 상	전체	χ^2 값
수급청소년	136 (92.5)	6 (4.1)	-	1 (0.7)	1 (0.7)	3 (2.0)	147 (100.0)	10.978 ⁺
일반청소년	1112 (93.1)	42 (3.5)	20 (1.7)	14 (1.2)	3 (0.3)	4 (0.3)	1195 (100.0)	

+p<.10

〈표 V-145〉 경찰서에 잡혀간 경험여부

단위: 빈도(%)

구분	그렇다	아니다	전체	χ^2 값
수급청소년	11(7.3)	140(92.7)	151(100.0)	1.484
일반청소년	61(5.0)	1171(95.0)	1232(100.0)	

〈표 V-146〉 학교생활 적응

단위: 빈도(%)

구분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	잘 적응하고 있는 편이다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χ^2 값
수급청소년	59(39.1)	82(54.3)	6(4.0)	4(2.6)	151(100.0)	2.580
일반청소년	492(40.0)	666(54.1)	59(4.8)	14(1.1)	1231(100.0)	

〈표 V-147〉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긍정적 경험	수급청소년 (n=151)	3.39	0.95	0.575	1378
	일반청소년 (n=1229)	3.34	1.01		
부정적 경험	수급청소년 (n=150)	2.10	0.82	-0.596	1373
	일반청소년 (n=1225)	2.14	0.83		

학교생활에 대한 내용도 수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주관적 인식도, 학교생활에서의 긍정적 경험이나 부정적 경험도 일반청소년과 수급청소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긍정적 경험은 수급청소년이 더 높았고, 부정적 경험은 수급청소년이 더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것 자체가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일반청소년과 수급청소년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학교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거나 공부만 일정정도 따라간다면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이 덜 미치는 공간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니면 가장 문제가 심각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빈곤청소년은 대부분 탈학교의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닌가하는 조심스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다. 따라서 빈곤청소년을 학교에 계속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복지의 중요한 개입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빈곤청소년 내 하위집단 별 비교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대부분 예상할 수 있는 결과들이었다. 예를 들어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 농어촌 청소년이 대도시나 중소도시 청소년보다 더 부정적인 발달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하위집단 별 비교에서 가장 의외의 결과는 양친부모가정 빈곤청소년이 다른 가족형태보다 더 취약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양친부모가정 빈곤청소년은 자아

존중감도 가장 낮았고, 불안우울, 비행의 수준은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학대도 가장 심각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타 가정이나 부자가정보다 더 취약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한부모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모자가정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발달과 적응과정에 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양친부모가정의 청소년들이 한부모가정이나 기타 가정의 청소년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한다. 빈곤상황에서는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점에 주목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빈곤상황에서 부모 모두가 일부의 부재는 기타 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에게 더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양친부모가정의 청소년들보다 모든 면에서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던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기타 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가정생활이나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보았을 때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사회적 적응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불안이나 비행 측면 등은 양친부모가정의 청소년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빈곤가정의 경우 구조상으로는 양친부모이지만 부모의 알코올문제나 가출 그리고 야간 취업 등으로 인해 부모의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해 기능적으로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이나 기관의 지원에 있어서 모부자가정보다 더 적게 지원받으며, 가정생활에 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 그 결과로 적응상에 더 큰 문제를 경험할 수 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타 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의 빈곤청소년들은 부모의 부재가 주는 위험 때문에 더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집중적인 관심과 지지가 기타 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의 청소년들의 열악한 가정환경이나 문화적인 환경을 극복하고 적어도 다른 빈곤청소년과는 차이가 없이 성장하도록 만들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같은 빈곤상황이라도 부모가 있으면 그 부모가 자녀문제를 해결해주겠거니 생각하는데 반해 부모가 없으면 좀 더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빈곤가족

에게도 가족책임주의가 투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가족책임주의를 통해 가족중심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국가가 방관하게 되고 국가책임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김혜란 외, 2004). 부모가 있는 빈곤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가족책임주의를 통해 부모에게만 빈곤청소년의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종종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빈곤청소년의 사례는 부모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모니터링되고 사례 관리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Ⅵ. 가출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 가출청소년의 복지실태 및 욕구
3. 성별에 따른 복지실태 및 욕구
4. 가출기간에 따른 복지실태 및 욕구
5. 소결

VI. 가출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가출청소년으로, 이 때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 없이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정의하고, 본 연구에서 가출청소년은 지난 1년 이내에 이러한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표집을 위해 전국의 청소년쉼터를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쉼터에서 실시하는 거리상담에 참여한 청소년에 대해 임의표집을 실시하였다. 총 462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이 가운데 지난 1년 이내에 하루 이상 가출 상태에 있었던 청소년 331명이 연구 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 대상자 331명의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급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자가 35.0%, 여자가 65.0%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가출청소년 가운데 여자청소년이 더 많이 조사되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2; 김지혜, 2005a; 통계청, 2006). 이는 여자청소년을 수용하는 보호시설이 더 많거나 여자 가출청소년에 대한 신고율이 높은 등 표집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일 가능성이 있으나, 중·고등학교, 소년원, 분류심사원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자청소년 가운데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이 높았던 것을 고려하면(정기선 등, 2001), 실제로 여자청소년의 가출이 상당히 많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52.9%, 중소도시 44.7%, 농어촌 2.4%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12세에서 22세까지 조사되었으며, 12-13세 3.6%, 14-16세 39.8%, 17-19세 49.8%, 20-22세 6.7%로 분포되었다. 교급별로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41.8%, 중학교 24.5%,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20.0%, 특수학교, 대안학교, 직업학교 등 기타학교 13.6%로 조사되어,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청소년이 학교를 중단하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 응답자의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급별 분포

구분	빈도	백분율
성 별	남자	116
	여자	215
	전체	331
지역별	대도시	175
	중소도시	148
	농어촌	8
	전체	331
연령별	12-13세	12
	14-16세	131
	17-19세	164
	20-22세	22
	전체	329
교급별	학교안다님	138
	중학교	81
	고등학교1)	66
	기타학교2)	45
	전체	330

- 1) 고등학교에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를 포함함.
 2) 기타학교에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직업학교 등이 포함됨.

지난 1년 동안 가출기간은 전체 청소년 331명 가운데 1주일 미만이 10.3%, 1주일 이상 1개월 미만이 21.1%,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22.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9.4%,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24.2%, 1년 내내 가출해 있었던 청소년이 13.0%로, 상당수가 장기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들이었다.

〈표 VI-2〉 지난 1년간 가출기간

단위 : 빈도(%)

1주일 미만	1주일- 1개월미만	1개월- 3개월미만	3개월- 6개월미만	6개월- 1년미만	1년	전체
34(10.3)	70(21.1)	73(22.1)	31(9.4)	80(24.2)	43(13.0)	331(100.0)

장애 유무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330명 중 3.3%인 11명이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지체장애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3〉 장애 유무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11(3.3)	319(96.4)	330(100.0)

학교성적은 전체 331명 중 상이 6.6%, 중이 36.9%, 하가 56.5%로, 자신의 성적이 중이거나 하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VI-4〉 학교 성적

단위: 빈도(%)

상	중	하	전체
22(6.6)	122(36.9)	187(56.5)	331(100.0)

응답자의 생활형편은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정형편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무료급식지원 수여 여부 등의 객관적인 측면을 모두 살펴보았다. 먼저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정형편의 경우에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329명 중 45.9%로 가장 많았고, 잘 산다는 청소년은 6.4%, 어렵다는 청소년은 47.7%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이 절반을 차지하였다.

〈표 VI-5〉 가정형편

단위: 빈도(%)

매우 어려운 편이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잘 사는 편이다	매우 잘사는 편이다	전체
59(17.9)	98(29.8)	151(45.9)	17(5.2)	4(1.2)	329(100.0)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 330명 중 23.3%인 77명 이었으며, 무료급식을 받고 있는 청소년도 36.7%인 121명으로, 실제로 많은 청소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6〉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및 무료급식지원 수여 여부

구분		빈도	백분율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급여 수여 여부	예	77	23.3
	아니오	154	46.7
	모름	99	30.0
	전체	330	100.0
무료급식 지원 수여 여부	예	121	36.7
	아니오	157	47.6
	모름	52	15.8
	전체	330	100.0

부모와의 동거여부와 결혼상태, 그리고 부모의 교육정도를 살펴보았다.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친부모 모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24.9%이었으며,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와 사는 한부모 가구의 경우가 각각 10.9%, 8.2%이었다. 계모, 계부, 계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는 각각 9.7%, 3.9%, 1.5%였으며, 기타 가구는 40.9%로 나타났다. 기타 가구는 청소년이 다른 친척과 살거나, 가정이 해체되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상태를 반영하는 응답으로 볼 수 있다.

〈표 VI-7〉 부모와의 동거 상태

단위: 빈도(%)

친부모 모두	친부+ 계모	계부+ 친모	친부	친모	계부모	기타	전체
82 (24.9)	32 (9.7)	13 (3.9)	36 (10.9)	27 (8.2)	5 (1.5)	135 (40.9)	330 (100.0)

부모의 결혼 상태는 결혼 가정이 38.2%이었으며, 이혼가정이 29.4%, 별거 가정은 11.9%, 사별가정은 5.8%, 모른다는 응답은 14.7%로 나타났다.

〈표 VI-8〉 부모의 결혼 상태

단위: 빈도(%)

결혼 또는 재혼	이혼	별거	사별	모름	전체
125(38.2)	96(29.4)	39(11.9)	19(5.8)	48(14.7)	327(100.0)

부모의 교육 정도는 부모 모두 고졸인 경우(아버지 32.8%, 어머니 35.7%)가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학력은 그 다음으로 대졸 13.5%, 중졸 12.6%, 초졸 10.4%로 나타났고, 무학이나 대학원졸도 각각 4.6%, 3.7%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그 다음으로 중졸 14.3%가 많았고, 대졸 6.4%, 초졸 6.1%, 대학원졸 4.1%, 무학 2.2%로 나타났다.

〈표 VI-9〉 부모의 교육정도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부	무학	15	4.6	모	무학	7	2.2
	초졸	34	10.4		초졸	19	6.1
	중졸	41	12.6		중졸	45	14.3
	고졸	107	32.8		고졸	112	35.7
	대졸	44	13.5		대졸	20	6.4
	대학원졸	12	3.7		대학원졸	13	4.1
	모름	73	22.4		모름	98	31.2
	전체	326	100.0		전체	314	100.0

2. 가출청소년의 복지실태 및 욕구

1) 기초생활실태 및 생존욕구

(1) 의식주

가출청소년들의 지난 1년간의 의식주 생활을 살펴보면, 하루 종일 아무 것도 먹지 못한 경험을 한 청소년은 30.6%,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은 청소년은 54.6%,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이나 더러운 옷을 입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4.6%, 혼자 사용하는 방이 없는 청소년은 60.1%, 잘 곳이 없어서 밖에서 자거나 밤새도록 돌아다닌 경험을 한 청소년은 55.9%로 나타났다. 많은 가출청소년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거나,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계절에 맞는 위생적인 옷을 입지 못하여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많은 청소년이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잘 장소가 없어 노숙을 하거나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경험을 하여, 거리의 위험에 노출되고 안전에 위협을 받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대다수의 가출청소년이 의식주라는 가장 기초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등 가정과 사회에서 방임된 채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VI-10> 지난 1년간 의식주 생활

단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하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적이 있다.	103 (31.5)	124 (37.9)	68 (20.8)	32 (9.8)	327 (100.0)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	60 (18.5)	117 (36.1)	111 (34.3)	36 (11.1)	324 (100.0)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이나 더러운 옷을 입은 적이 있다.	109 (33.5)	136 (41.8)	71 (21.8)	9 (2.8)	325 (100.0)
혼자 사용하는 내 방이 있다.	148 (46.1)	45 (14.0)	52 (16.2)	76 (23.7)	321 (100.0)
잘 곳이 없어서 밖에서 자거나 밤새도록 돌아다닌 적이 있다.	69 (21.1)	75 (22.9)	126 (38.5)	57 (17.4)	327 (100.0)

(2) 의료·보건

지난 1년간 건강검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 327명 중 53.8%로 176명이었고, 건강검진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46.2%인 151명이었다. 가출청소년은 가출로 인해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데 청소년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한 조치가 적다고 판단된다.

〈표 VI-11〉 지난 1년간 건강검진 경험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176(53.8)	151(46.2)	327(100.0)

지난 1년간의 질병 경험을 보면, 전체 청소년 331명 가운데 질병이 있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21명(66.8%)이었고, 이들이 321건의 중복응답을 하여 1인당 1-2개의 질병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한 질병 가운데에는 충치·잇몸 질환이 2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위장내과질환 18.6%, 피부질환 15.1%, 각종사고 8.8%, 성문제질환 6.7%, 만성질환 1.2%, 백혈병·암 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12〉 지난 1년간 질병 경험

단위: 빈도(%)

각종 사고	충치·잇몸 질환	위장내과 질환	성문제 질환	만성 질환	백혈병, 암	피부 질환	질병 없음	전체
38 (8.8)	103 (23.9)	80 (18.6)	29 (6.7)	5 (1.2)	1 (0.2)	65 (15.1)	110 (25.5)	431 (100.0)

지난 1년 동안 질병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 217명 가운데 질병을 치료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72.4%이었고, 치료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7.6%이었다.

〈표 VI-13〉 질병치료 유무

단위: 빈도(%)

예	아니오	전체
157(72.4)	60(27.6)	217(100.0)

가출청소년들이 질병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로는 치료비가 없어서가 30.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귀찮아서(23.1%), 증세가 가벼워서(18.5%), 무서워서(6.2%), 몸이 불편해서(6.2%), 거리가 멀어서(1.5%), 의료보험이 없어서(1.5%), 의논할 사람이 없어서(1.5%) 등으로 나타났다. 많은 청소년이 치료비가 없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질병에 대해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가출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아직 부족함을 드러낸다.

〈표 VI-14〉 질병치료 받지 않은 이유

단위: 빈도(%)

가벼운 증세	치료비 없어서	거리가 멀어서	의료 보험 없어서	의논할 사람 없어서	무서워서	귀찮아서	몸이 불편해서	기타	전체
12 (18.5)	20 (30.8)	1 (1.5)	1 (1.5)	1 (1.5)	4 (6.2)	15 (23.1)	4 (6.2)	7 (10.8)	65 (100.0)

(3) 건강

심리정서적인 측면과 행동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았다. 먼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여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다.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묻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은 문항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4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다. 10문항의 합산 점수는 10점에서 40점의 범위를 가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문항간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0.87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26.64점(표준편차 5.70)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상균(1999) 연구에서 일반 중·고등학생의 평균 자아존중감이 27.84점(표준편차 4.77), 허남순 외(2005) 연구에서 빈곤청소년의 평균 자아존중감이 28.99점(표준편차 5.08)으로 나타났던 것보다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출청소년들은 일반 중·고등학생 집단이나 빈곤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VI-15> 자아존중감

단위: 빈도(%)

영역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아존중감	326	26.64	5.70

가출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Achenbach(1991)의 문제행동 증후군 9개의 하위범주(사회적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 정체감 문제) 중에서 심리정서문제로서 우울·불안(14문항) 하위척도를, 그리고 행동문제로서 비행(11문항) 하위척도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항간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우울·불안이 0.86, 비행이 0.82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들의 우울·불안은 평균 10.77점(표준편차 5.70), 비행은 평균 8.34점(표준편차 4.67)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남순 외(2005)가 빈곤아동을 조사한 연구에서 우울·불안의 평균이 4.16점(표준편차 4.50), 비행의 평균이 1.39점(표준편차 1.78)으로 나타났던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시설보호아동을 조사한 정선욱(2002)의 연구에서 우울·불안 척도(14문항)에서 평균 6.00점(표준편차 4.54), 비행(9문항)척도에서 평균 3.49점(표준편차 2.44)으로 나타났던 것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가출청소년들은 빈곤 아동이나 시설아동에 비해 우울·불안의 심리정서문제와 비행의 행동문제를 현저히 많이 겪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VI-16〉 심리·사회적 적응

단위: 빈도(%)

영역	빈도	평균	표준편차
우울·불안	324	10.77	5.70
비행	322	8.34	4.67

가출청소년들의 흡연에 대해서는, 전체 330명 중 66.1%가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출청소년이 대부분 흡연을 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위원회(2006)에서 조사된 중·고등학생 흡연율 8.6%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이다.

흡연 정도로 보면 하루에 반 갑 이상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있는 청소년이 45.5%로 거의 절반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가출청소년은 일반적인 학생 집단에 비해 더욱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흡연문제를 겪는 것으로 드러난다.

〈표 VI-17〉 흡연 정도

단위: 빈도(%)

안 피운다	어쩌다 하나씩	하루에 반갑 정도	하루에 한 갑 이상	전체
112(33.9)	68(20.6)	99(30.0)	51(15.5)	330(100.0)

가출청소년의 음주경험을 살펴본 결과, 전체 330명 중 80%가 음주를 하고 있었으며, 이 중 51.2%는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만 음주를 하였고, 1달에 1-2번 정도는 8.5%, 1주일에 1번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는 청소년은 20.3%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청소년위원회(2006)에서 조사된 중·고등학생 음주율 36.6%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가출청소년은 음주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청소년에 비해 더욱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상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18〉 평소 음주량

단위: 빈도(%)

마신적 없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1달에 1-2번 정도	1주일에 1-2번 정도	거의 매일	전체
66(20.0)	169(51.2)	28(8.5)	52(15.8)	15(4.5)	330(100.0)

가출청소년의 자해행위나 자살기도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 330명 중 28.8%인 95명이 자해행위나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치는 청소년보호위원회(2004)의 연구에서 자살 시도 경험 청소년이 12.8%이었던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가출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자살의 위험이 높아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표 VI-19〉 자해행위나 자살기도 경험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95(28.8)	235(71.2)	330(100.0)

자해행위나 자살기도의 횟수는, 1회가 17.6%, 2회 29.4%, 3회 28.2%, 4회 이상이 24.8%로 자해나 자살시도를 경험한 청소년의 82.4%가 1회에 그치지 않고 다시 반복하였고, 그 회수가 매우 여러 번 반복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한 번 자해행위나 자살시도를 했던 청소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VI-20〉 자해행위나 자살기도 횟수

단위: 빈도(%)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전체
15(17.6)	25(29.4)	24(28.2)	2(2.4)	19(22.4)	85(100.0)

2) 문화여가활동 및 발달욕구

(1) 교육

가출청소년의 교육과 관련하여 정규학교 재학여부와 결석상황, 복학시도, 복학과 관련한 어려움, 검정고시 응시 경험, 대학진학에 대한 생각 등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전체 청소년 330명 가운데 정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은 39.4%이었고, 정규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는 청소년은 60.6%로 절반이나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집단의 진학률(중학교진학 99.9%, 고등학교진학 99.7%)과 휴학, 중퇴, 제적생 비율(중학교 0.7%, 일반계 고등학교 1.2%, 실업계 고등학교 3.4%)을 고려할 때(통계청, 2006), 가출청소년의 학교중단의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가출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학업이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은 실업, 빈곤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어 크게 우려가 되는 현상이다.

〈표 VI-21〉 정규학교 재학 여부

단위: 빈도(%)

그렇다	아니다	전체
130(39.4)	200(60.6)	330(100.0)

지난 1년 동안 학교에 결석한 날이 전혀 없는 청소년은 전체 326명 중 15.6%에 불과하였고, 1-2번 가지 않은 청소년이 8.3%, 7일 정도가 8.6%, 보름 정도가 6.1%, 한 달 정도가 9.5%, 한 달 이상이 51.8%이었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청소년이 일주일 이상 결석하고 절반이상의 청소년이 한 달 이상 결석하고 있어,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이 장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22〉 지난 1년 동안 학교 가지 않은 날

단위: 빈도(%)

없다	1-2번	7일 정도	보름 정도	한달 정도	한달 이상	전체
51(15.6)	27(8.3)	28(8.6)	20(6.1)	31(9.5)	169(51.8)	326(100.0)

학교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었던 경험을 한 청소년은 41.1%이고, 그러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58.9%로, 많은 청소년이 비자발적으로 결석을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표 VI-23〉 학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었던 경험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129(41.1)	185(58.9)	314(100.0)

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갈 수 없던 이유는 가출을 했기 때문이 47.6%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이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못 갔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청소년은 교육을 중단하려는 자발적인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기 보다는 부모나 교사에게 발견되지 않으려는 등 가출과 관련된 다른 상황적 이유 때문에 학교를 중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청소년이 집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학교를 다닐 가능성이 있음을 드러낸다. 다음으로 귀찮거나 아침에 못 일어나서 학교에 가지 못했다는 응답이 17.5%로 많았다. 이것은 보호자의 관심과 통제와 관련된 것으로, 청소년이 의도적으로 결석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보호자의 훈육이 부족할 때에 결석이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 외에 학교에 갈 수 없던 이유는 부모님이 못 가게 해서 7.1%, 학교가 거부해서 4.8%, 학비를 못 내서 3.2%, 괴롭힘이 무서워서 2.4% 등이었다.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청소년의 교육을 거부하거나,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거나, 학비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등의 상황은 청소년의 교육권을 방해하는 외적인 요인으로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표 VI-24〉 학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었던 이유

항목	빈도	백분율
학비를 못 내서	4	3.2
가사를 돕기 위해	-	-
부모님이 못 가게 해서	9	7.1
학교가 거부해서	6	4.8
괴롭힘이 무서워서	3	2.4
귀찮아서 혹은 아침에 못 일어나서	22	17.5
등하교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	-
학교 내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	-
가출을 해서	60	47.6
기타	22	17.5
전체	126	100.0

정규학교에 복학하였거나 복학하려고 생각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 321명 중 39.9%이었다. 현재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가운데 복학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9.8%이었고, 정규학교 중퇴 중인 청소년 가운데 복학경험이나 의도가 있었던 청소년은 46.2%로 거의 절반이었다. 가출청소년이 학교를 중단하고 있더라도 이 가운데 상당수는 복학하려고 시도하거나 복학할 의사가 있음을 드러낸다.

〈표 VI-25〉 정규학교 복학경험 또는 복학의도

단위: 빈도(%)

구분	복학경험 · 의도 있다	복학경험 · 의도 없다	전체
정규학교 재학 중	37(29.8)	87(70.2)	124(100.0)
정규학교 중퇴	91(46.2)	106(53.8)	197(100.0)
전체	128(39.9)	193(60.1)	321(100.0)

가출청소년이 복학하려고 할 때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였다. 복학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61.6%)이었

고, 입학(복학)하는 서류절차가 복잡함(58.2%)이었다. 많은 가출청소년이 학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절차상의 까다로움과 입학·복학과 관련된 정보의 부족을 큰 장벽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등록비와 교재비 등 돈이 걱정임(47.9%), 어떻게 해야 학교에 돌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음(47.1%), 학교 선생님이 나를 나쁘게 볼까봐 두려움(40.6%),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아 어느 학교를 가야할 지 모르겠음(32.6%), 부모나 보호자가 없어서 혼자 입학(복학)하기 어려움(26.8%), 학교에서 입학(복학)하는 것을 거부함(25.0%) 등의 순이었다.

〈표 VI-26〉 복학할 때의 어려움

단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어떻게 해야 학교에 돌아갈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31 (25.2)	34 (27.6)	47 (38.2)	11 (8.9)	123 (100.0)
입학(복학)하는 서류절차가 복잡하다.	29 (23.8)	22 (18.0)	54 (44.3)	17 (13.9)	122 (100.0)
학교에서 내가 입학(복학)하는 것을 거부한다.	45 (37.5)	45 (37.5)	20 (16.7)	10 (8.3)	120 (100.0)
등록비와 교재비 등 돈이 걱정이다.	35 (28.5)	29 (23.6)	40 (32.5)	19 (15.4)	123 (100.0)
학교 선생님이 나를 나쁘게 볼까봐 두렵다.	37 (30.1)	36 (29.3)	42 (34.1)	8 (6.5)	123 (100.0)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이다.	37 (30.1)	22 (17.9)	46 (37.4)	18 (14.6)	123 (100.0)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32 (25.6)	16 (12.8)	48 (38.4)	29 (23.2)	125 (100.0)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아서 어느 학교를 가야할 지 모르겠다.	40 (32.5)	43 (35.0)	27 (22.0)	13 (10.6)	123 (100.0)
부모나 보호자가 없어서 내가 혼자 학교에 입학(복학)하기 어렵다.	65 (52.8)	25 (20.3)	16 (13.0)	17 (13.8)	123 (100.0)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 316명 중 49명인 15.5%이었다. 이 가운데 일부과목 합격한 청소년은 17명으로 전체 중 5.4%이었고, 전과목 합격한 청소년은 32명으로 전체 중 10.1%이었다. 현재 정규학교를 중퇴한 청소년 195명만 대상으로 살펴보면, 일부과목 합격 8.2%, 전과목 합격 13.3%로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1.5%이었다. 가출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정규학교를 중퇴하였더라도 학력을 취득하고 있으며, 더 많은 청소년들이 학력을 취득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VI-27> 검정고시 합격 경험

단위: 빈도(%)

구분	검정고시 합격경험 없다	일부과목 합격	전과목 합격	전체
정규학교 재학 중	113(94.2)	1(0.8)	5(5.0)	120(100.0)
정규학교중퇴	153(78.5)	16(8.2)	26(13.3)	195(100.0)
전체	267(84.5)	17(5.4)	32(10.1)	316(100.0)

가출청소년들의 진학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 진학 가능 여부와 이유 등을 조사하였다. 대학 진학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330명 중 46.7%가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53.3%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절반 이상의 청소년이 대학진학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발견되며, 이것은 2005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이 82.1%인 것을 고려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통계청,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의 청소년이 대학 진학에 대해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가출청소년의 대학 진학을 주요한 진로 지도의 영역 가운데 하나로 고려해야 함을 드러낸다.

〈표 VI-28〉 대학 진학 가능 여부

단위: 빈도(%)

예	아니오	전체
154(46.7)	176(53.3)	330(100.0)

대학 진학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로는 성적이 안 좋은 것(67.3%)이 가장 큰 이유이며, 다음으로 경제적인 문제(8.3%), 장애(7.7%), 부모님의 무관심(4.2%) 등이었다. 대부분 성적이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경제적인 문제도 대학 진학에 어느 정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I-29〉 대학 진학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

단위: 빈도(%)

성적이 안 좋아서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님의 무관심으로	장애 때문에	기타	전체
113(67.3)	14(8.3)	7(4.2)	13(7.7)	21(12.5)	168(100.0)

경제적인 이유로 과외나 학원을 다니지 못한 경험을 한 가출청소년은 37.6%이며, 62.4%의 청소년들은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가출청소년들은 학업으로 인해 복학이나 대학 진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VI-30〉 경제적인 이유로 과외나 학원을 못 다닌 경험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124(37.6)	206(62.4)	330(100.0)

(2) 정보·문화

가출청소년들의 정보문화생활 및 욕구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컴퓨터, 이동전화, PSP, DMB의 소유 여부, 사용시간, 사용용도 등을 조사하였다. 컴퓨터 소유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329명 중 90.3%의 청소년들이 현재 살고 있는 곳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며,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청소년은 9.7%이었다. 청소년이 가출을 하였다라도 컴퓨터에서 컴퓨터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의 컴퓨터 접근성이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VI-31〉 컴퓨터 소유 여부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297(90.3)	32(9.7)	329(100.0)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게 인터넷 가능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다. 95.6%의 청소년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4.4%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컴퓨터가 보급된 경우 거의 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I-32〉 인터넷 가능 여부

단위: 빈도(%)

예	아니오	전체
283(95.6)	13(4.4)	296(100.0)

가출청소년들의 이동전화, PSP, DMB 등의 정보매체의 소유 여부에 대해서는 이동전화를 가진 청소년이 38.1%, PSP는 1.2%, DMB는 2.1%등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 PSP, DMB 등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청소년이 60.7%로, 가출청소년 사이에 개인통신매체의 보급률은 높지 않게 나타났다.

〈표 VI-33〉 정보 매체 소유

단위: 빈도(%)

이동전화	PSP	DMB	가지고 있지 않다	전체
126(38.1)	4(1.2)	7(2.1)	201(60.7)	331(100.0)

이들 정보매체에 대한 하루 평균 사용시간에 대해서는 인터넷의 경우 1-3시간(38.4%)이 가장 많았고 전화 또는 이동전화의 경우, 1시간미만이 32.3%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인터넷과 전화의 사용시간이 하루 3시간 이내이지만, 5시간이상 장시간 사용하는 청소년도 각각 13.9%, 13.0%로 나타나, 인터넷 중독이 의심되거나 장시간 전화로 인한 비용부담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있을 가능성이 보인다.

〈표 VI-34〉 정보매체 이용시간

단위: 빈도(%)

항목	없음	1시간미만	1-3시간	3-5시간	5시간이상	전체
인터넷	18 (5.4)	98 (29.6)	127 (38.4)	42 (12.7)	46 (13.9)	331 (100.0)
전화 (이동전화)	145 (43.8)	107 (32.3)	25 (7.6)	11 (3.3)	43 (13.0)	331 (100.0)

정보매체의 이용용도로는 인터넷의 경우에는 게임이나 오락이 42.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교제통신이 30.5%, 정보검색 11.8%, 여가활동 3.3%, 학습교육 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화(이동전화)의 경우에는 교제통신이 21.5%로 가장 많고, 여가활동 8.2%, 게임오락 3.3% 등의 순이었다. 청소년들은 인터넷이나 전화를 정보검색이나 학습의 용도보다는 게임이나 교제를 위한 수단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표 VI-35> 정보매체 이용용도

단위: 빈도(%)

항목	없음	정보 검색	게임 오락	학습 교육	교제 통신	여가 활동	쇼핑 예약	동호회	신문 뉴스 잡지	기타	전체
인터넷	17 (5.1)	39 (11.8)	140 (42.3)	8 (2.4)	101 (30.5)	11 (3.3)	3 (0.9)	3 (0.9)	-	9 (2.7)	331 (100.0)
전화 (이동전화)	163 (49.2)	3 (0.9)	11 (3.3)	1 (0.3)	71 (21.5)	27 (8.2)	1 (0.3)	3 (0.9)	-	51 (15.4)	331 (100.0)

(3) 여가

가출청소년의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현재 여가시간에 하고 있는 활동과 희망하는 여가활동, 여가활동의 어려운 점 등을 조사하였다. 여가시간에 하는 활동은 세 가지씩 중복하여 선택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총 943건의 응답 가운데 청소년들은 여가시간에 인터넷이나 컴퓨터 게임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며(18.5%), 그 다음으로 TV시청(15.6%), 집에서 휴식(13.7%), 친구만나기(12.9%), 음악·영화감상(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여가시간에 주로 실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VI-36> 여가시간에 많이 하고 있는 활동

(중복응답)

항목	빈도(%)	순위	항목	빈도(%)	순위
인터넷·컴퓨터게임	174(18.5)	1	아르바이트	32(3.4)	10
TV시청	147(15.6)	2	스포츠활동	23(2.4)	11
집에서 휴식	129(13.7)	3	쇼핑하기	19(2.0)	12
친구만나기	122(12.9)	4	개인적 학습활동	14(1.5)	13
음악·영화감상	67(7.1)	5	예술활동	13(1.4)	14
집안일 돕기	51(5.4)	6	여행	12(1.3)	15
독서	45(4.8)	7	종교활동	10(1.1)	16
취미활동	40(4.2)	8	자원봉사	8(0.8)	17
산책	33(3.5)	9	동아리활동	4(0.4)	18

가출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여가활동으로는 아르바이트(13.4%)라고 응답하여, 가출청소년의 경제저거 욕구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여행(11.7%), 친구만나기(9.3%), 음악·영화감상(8.9%), 인터넷·컴퓨터게임(8.7%), 쇼핑하기(8.0%), 취미활동(6.7%) 등으로, 현재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에 하고 있는 여가활동과는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보이며, 희망하는 여가활동에서는 야외활동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VI-37>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중복응답)

항목	빈도(%)	순위	문항	빈도(%)	순위
아르바이트	128(13.4)	1	산책	40(4.2)	10
여행	112(11.7)	2	개인적 학습활동	36(3.8)	11
친구만나기	89(9.3)	3	TV시청	35(3.7)	12
음악·영화감상	85(8.9)	4	집에서 휴식	34(3.6)	13
인터넷·컴퓨터게임	83(8.7)	5	자원봉사	28(2.9)	14
쇼핑하기	76(8.0)	6	동아리활동	27(2.8)	15
취미활동	64(6.7)	7	독서	16(1.7)	16
예술활동	42(4.4)	8	집안일 돕기	11(1.2)	17
스포츠활동	42(4.4)	9	종교활동	6(0.6)	18

가출청소년들의 여가나 취미활동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비용부담(55.3%)이었고, 그 다음으로 적절한 장소와 시설이 없음(39.2%), 시간 부족(36.8%), 프로그램이 마땅치 않음(36.0%), 정보를 얻기 어려움(34.5%), 교통 혼잡이나 이용교통수단의 불편(33.5%), 여가시설 내 편의시설의 부족(33.4%), 함께 할 사람이 없음(23.2%), 건강이나 체력이 부족함(21.3%) 등의 순이었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야외활동에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원하는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경험하고, 결국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는 인터넷이나 컴퓨터게임, TV시청, 집에서 휴식 등의 정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I-38〉 여가나 취미활동의 어려운 점

단위: 빈도(%)

항목	그렇다	아니다	전체
시간이 부족하다	121(36.8)	208(63.2)	329(100.0)
비용이 부담된다	183(55.3)	148(44.7)	331(100.0)
함께 할 사람이 없다	76(23.2)	252(76.8)	328(100.0)
적절한 장소 및 시설이 없다	129(39.2)	200(60.8)	329(100.0)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113(34.5)	215(65.5)	328(100.0)
프로그램이 마땅치 않다	118(36.0)	210(64.0)	328(100.0)
교통 혼잡 및 이용교통수단이 불편하다	110(33.5)	218(66.5)	328(100.0)
여가시설 내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110(33.4)	219(66.6)	329(100.0)
건강이나 체력이 부족하다	70(21.3)	258(78.7)	328(100.0)

(4) 직업

가출청소년들의 직업관련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진로지도 경험과 욕구, 장래희망직업, 직업훈련 참여욕구와 어려움 등을 알아보았다. 진로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 325명 중 53.2%이고, 그러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46.8%이었다. 진로지도를 받은 청소년 172명 중에서 진로지도가 도움이 되었다는 청소년은 69.2%이었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청소년은 30.8%이었다. 한편, 전체 청소년 329명 중에서 진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은 56.2%이고, 그렇지 않은 청소년은 43.8%이었다. 절반 정도의 청소년이 진로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고, 진로지도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지만, 다른 절반의 청소년들은 진로지도에의 욕구조차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에 대한 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기화하는 것부터 서비스에서 다루어야 함을 드러낸다.

〈표 VI-39〉 진로지도 관련 경험

단위: 빈도(%)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진로지도를 받은 경험	있다	173	53.2
	없다	152	46.8
	전체	325	100.0
진로지도 도움정도	많이 도움됨	28	16.3
	약간 도움됨	91	52.9
	별로 도움 안 됨	45	26.2
	전혀 도움 안 됨	8	4.7
	전체	172	100.0
진로지도 프로그램 참여의사	있다	185	56.2
	없다	144	43.8
	전체	329	100.0

가출청소년들이 장래 희망하는 직업으로는 헤어디자이너(12.5%)가 가장 많았고, 연예인(9.5%), 요리사(8.4%), 교사(7.7%), 사회복지사(7.0%), 의상디자이너(6.4%), 공무원(5.3%), 운동선수(5.3%), 경찰(5.0%), 컴퓨터프로그래머(4.0%) 등의 순이었다.

〈표 VI-40〉 장래 희망 직업

항목	빈도(%)	순위	항목	빈도(%)	순위
헤어디자이너	73(12.5)	1	의상디자이너	37(6.4)	6
연예인	55(9.5)	2	공무원	31(5.3)	7
요리사	49(8.4)	3	운동선수	31(5.3)	8
교사	45(7.7)	4	경찰	29(5.0)	9
사회복지사	41(7.0)	5	컴퓨터 프로그래머	23(4.0)	10

희망하는 직업관련 직업훈련이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은 전체 325명 중 84.3%로 대부분이었고, 그렇지 않은 청소년은 15.7%이었다.

〈표 VI-41〉 희망직업관련 직업훈련 참여의사

단위: 빈도(%)

예	아니오	전체
274(84.3)	51(15.7)	325(100.0)

희망직업관련 직업훈련에 참여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시간부족(84.3%)으로 대부분의 청소년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절반 이상의 청소년이 비용의 부담(64.8%)과 정보의 부족(59.2%)을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었고,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청소년들이 적절한 장소와 시설이 없음(46.3%), 프로그램이 마땅치 않음(45.7%), 함께 할 사람이 없음(44.6%)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표 VI-42〉 희망직업관련 직업훈련 참여의 어려운 점

단위: 빈도(%)

항목	그렇다	아니다	전체
시간이 부족하다	274(84.3)	51(15.7)	325(100.0)
비용이 부담된다	212(64.8)	115(35.2)	327(100.0)
함께 할 사람이 없다	146(44.6)	181(55.4)	327(100.0)
적절한 장소 및 시설이 없다	150(46.3)	174(53.7)	324(100.0)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193(59.2)	133(40.8)	326(100.0)
프로그램이 마땅치 않다	149(45.7)	177(54.3)	326(100.0)

(5) 지역사회서비스

가출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시설과 서비스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실제로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시설이나 서비스가 청소년들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이나 서비스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인지도를 살펴보면,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은 청소년쉼터(90.9%)이고, 다음으로 도서관(90.4%), 박물관(83.8%), 미술관(81.2%), 종합사회복지관(66.4%), 문화의 집·청소년수련관 등의 생활권수련시설(71.3%),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등 자연권 수련시설(71.2%), 청소년상담센터(72.8%), 자원봉사센터(63.1%), 청소년공부방(62.5%), 직업훈련원(52.3%), 그룹 홈(49.2%),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시설(46.3%), 청소년자활지원관(45.4%), 미혼모시설(43.2%), 근로청소년회관(39.8%), 고용안정센터(38.6%) 등의 순이었다.

이용률은 청소년쉼터(81.9%)가 가장 높았고, 도서관(69.6%), 박물관(61.5%), 미술관(47.9%),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등 자연권 수련시설(44.6%), 문화의 집·청소년수련관 등의 생활권수련시설(43.0%), 청소년상담센터(24.6%), 청소년 공부방(22.5%), 종합사회복지관(15.0%), 그룹 홈(14.7%), 자원봉사센터(13.8%), 근로청소년회관(11.1%), 청소년자활지원관(8.3%), 직업훈련원(7.7%), 고용안정센터(5.5%), 미혼모시설(2.3%),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시설(2.3%) 등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쉼터의 경우 인지도와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등 청소년시설의 인지도와 이용률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상담센터, 자원봉사센터, 청소년공부방 등은 인지도는 높은 편이지만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정센터, 직업훈련원, 청소년자활지원관, 근로청소년회관 등은 인지도와 이용률이 모두 낮았다. 그룹 홈, 미혼모시설,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시설 등 청소년쉼터 이외의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의 청소년이 인지하고 있지만 이용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시설의 특성상 특정한 욕구가 있는 경우에만 접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I-43〉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인지 및 이용여부

단위: 빈도(%)

항목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으나 이용한 적 없다	이용해 본적 있다	전체
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	90(28.7)	89(28.3)	135(43.0)	314(100.0)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91(28.8)	84(26.6)	141(44.6)	316(100.0)
근로청소년회관	189(60.2)	90(28.7)	35(11.1)	314(100.0)
청소년공부방	118(37.5)	126(40.0)	71(22.5)	315(100.0)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105(33.6)	161(51.4)	47(15.0)	313(100.0)
청소년자활지원관	171(54.6)	116(37.1)	26(8.3)	313(100.0)
청소년쉼터	29(9.1)	29(9.1)	262(81.9)	320(100.0)
그룹 홈 (공동생활가정)	159(50.8)	32.6(34.5)	46(14.7)	313(100.0)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	166(53.7)	136(44.0)	7(2.3)	309(100.0)
청소년상담센터	85(27.2)	151(48.2)	77(24.6)	313(100.0)
자원봉사센터	115(36.9)	154(49.4)	43(13.8)	312(100.0)
고용안정센터	189(61.4)	102(33.1)	17(5.5)	308(100.0)
미혼모시설	176(56.8)	127(41.0)	7(2.2)	310(100.0)
직업훈련원 (구 직업보도원)	148(47.7)	138(44.5)	24(7.7)	310(100.0)
박물관	50(16.2)	69(22.3)	190(61.5)	309(100.0)
도서관	30(9.6)	65(20.8)	218(69.6)	313(100.0)
미술관	58(18.8)	103(33.3)	148(47.9)	309(100.0)

청소년 관련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근로청소년회관(93.1%), 자원봉사센터(94.3%), 청소년쉼터(92.1%)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문화의 집·청소년수련관 등 생활권수련시설(87.4%), 그룹 홈(85.4%), 청소년공부방(81.2%), 청소년상담센터(80.6%), 박물관(80.1%),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등 자연권 수련시설(77.2%), 고용안정센터(76.9%), 도서관(76.8%), 종합사회복지관(76.2%), 미술관(75.9%), 청소년자활지원관(72.3%), 직업훈련원(65.0%) 등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시설과 미혼모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이용자가 적어 추후 연구에서 보완하여 조사해야 할 것이다.

<표 VI-44>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만족도

단위: 빈도(%)

항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전체
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	3(2.4)	13(10.2)	89(70.1)	22(17.3)	127(100.0)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5(3.7)	26(19.1)	86(63.2)	19(14.0)	136(100.0)
근로청소년회관	1(3.4)	1(3.4)	21(72.4)	6(20.7)	29(100.0)
청소년공부방	3(4.7)	9(14.1)	39(60.9)	13(20.3)	64(100.0)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3(7.1)	7(16.7)	27(64.3)	5(11.9)	42(100.0)
청소년자활지원관	2(11.1)	3(16.7)	10(55.6)	3(16.7)	18(100.0)
청소년쉼터	1(0.4)	18(7.4)	123(50.8)	100(41.3)	242(100.0)
그룹 홈 (공동생활가정)	2(4.9)	4(9.8)	26(63.4)	9(22.0)	41(100.0)
성매매 피해여성지원센터	-	-	3(100.0)	-	3(100.0)

항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청소년상담센터	4(5.6)	10(13.9)	38(52.8)	20(27.8)	72(100.0)
자원봉사센터	1(2.9)	1(2.9)	24(68.6)	9(25.7)	35(100.0)
고용안정센터	-	3(23.1)	8(61.5)	2(15.4)	13(100.0)
미혼모시설	1(20.0)	2(40.0)	2(40.0)	-	5(100.0)
직업훈련원 (구 직업보도원)	2(10.0)	5(25.0)	12(60.0)	1(5.0)	20(100.0)
박물관	5(2.8)	31(17.1)	122(67.4)	23(12.7)	181(100.0)
도서관	8(3.9)	40(19.3)	128(61.8)	31(15.0)	207(100.0)
미술관	7(5.0)	27(19.1)	90(63.8)	17(12.1)	141(100.0)

가출청소년들이 가장 이용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 관련 시설로는 청소년쉼터와 문화의집·청소년수련관 등이 각각 1위와 2위로 우선순위가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상담센터, 직업훈련원, 도서관, 그룹 홈, 청소년공부방, 미술관, 자원봉사센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은 청소년쉼터와 문화의집·청소년수련관 등 생활권 수련시설에 대해, 높은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 이용의도를 보이고 있어, 이들 시설이 가출 청소년들의 욕구를 해결해주는 주요한 통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VI-45〉 가장 필요한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항목	빈도(%)	순위	항목	빈도(%)	순위
청소년쉼터	172(27.7)	1	도서관	41(6.6)	5
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	60(9.7)	2	그룹 홈 (공동생활가정)	37(6.0)	6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57(9.2)	3	청소년공부방	36(5.8)	7
청소년상담센터	54(8.7)	4	미술관	29(4.7)	8
직업훈련원	54(8.7)	4	자원봉사센터	20(3.2)	9

국가 혹은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의 청소년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 복지 서비스 중에서 성교육에 대한 인지도가 82.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캠프 등 1박 이상의 프로그램(77.5%), 숙식제공(76.7%), 개별상담(75.5%), 문화·예술활동(75.5%), 장학금 및 생활비지원(69.6%), 학업 및 학습지도(69.0%), 질병상담 및 무료건강검진(68.7%), 아플 때 치료비지원(65.0%), 가족상담(64.9%), 약물예방교육(64.9%), 인권교육(61.3%) 등의 순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복지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 이용률은 성교육(53.3%), 캠프(53.0%), 숙식제공(51.6%), 개별상담(48.3%) 등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활동(38.9%), 아플 때 치료비지원(37.3%), 질병상담 및 무료건강검진(34.2%), 학업 및 학습지도(31.3%), 약물예방교육(29.4%), 장학금 및 생활비지원(25.6%), 가족상담(20.5%), 인권교육(20.1%) 등의 순이었다.

<표 VI-46> 청소년 복지 서비스 인지 및 이용여부

단위: 빈도(%)

항목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으나 이용한 적 없다	이용해 본적 있다	전체
개별상담	79(24.5)	88(27.2)	156(48.3)	323(100.0)
가족상담	110(35.1)	139(44.4)	64(20.5)	313(100.0)
질병상담 및 무료건강 검진	99(31.3)	109(34.5)	108(34.2)	316(100.0)
아플 때 치료비 지원	110(35.0)	87(27.7)	117(37.3)	314(100.0)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95(30.4)	138(44.1)	80(25.6)	313(100.0)
학업 및 학습지도	98(31.0)	119(37.7)	99(31.3)	316(100.0)
숙식제공	74(23.3)	80(25.2)	164(51.6)	318(100.0)
캠프 등	71(22.5)	77(24.4)	167(53.0)	315(100.0)
문화·예술활동	77(24.5)	115(36.6)	122(38.9)	314(100.0)
약물예방교육	111(35.1)	112(35.4)	93(29.4)	316(100.0)
성교육	56(17.7)	92(29.0)	169(53.3)	317(100.0)
인권교육	121(38.7)	129(41.2)	63(20.1)	313(100.0)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가출청소년에 대해서 만족도를 살펴보면, 70%이상의 청소년들이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개별 서비스별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아플 때 치료비지원(96.3%),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94.5%), 질병상담 및 무료건강검진(93.0%)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숙식제공(91.7%), 문화·예술활동(91.2%), 인권교육(87.9%), 캠프(86.3%), 학업 및 학습지도(83.7%), 개별상담(83.3%), 약물예방교육(79.6%), 성교육(75.5%), 가족상담(70.1%)에 대한 만족도의 순으로 높았다.

〈표 VI-47〉 청소년 복지서비스 만족도

단위: 빈도(%)

항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전체
개별상담	6(4.0)	19(12.7)	86(57.3)	39(26.0)	150(100.0)
가족상담	8(14.0)	9(15.8)	30(52.6)	10(17.5)	57(100.0)
질병상담 및 무료건강 검진	-	7(6.9)	57(56.4)	37(36.6)	101(100.0)
아플 때 치료비 지원	-	4(3.7)	59(54.1)	46(42.2)	109(100.0)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	4(5.6)	38(52.8)	30(41.7)	72(100.0)
학업 및 학습지도	2(2.2)	13(14.1)	51(55.4)	26(28.3)	92(100.0)
숙식제공	6(3.9)	7(4.5)	81(52.3)	61(39.4)	155(100.0)
캠프 등	5(3.3)	16(10.5)	89(58.2)	43(28.1)	153(100.0)
문화·예술활동	2(18.0)	8(7.1)	60(53.1)	43(38.1)	113(100.0)
약물예방교육	1(1.1)	17(19.3)	46(52.3)	24(27.3)	88(100.0)
성교육	5(3.2)	33(21.3)	81(52.3)	36(23.2)	155(100.0)
인권교육	1(1.7)	6(10.3)	30(51.7)	21(36.2)	58(100.0)

가출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청소년 복지서비스로는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14.4%)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캠프 등 1박 이상의 수련활동(13.3%), 성교육(12.5%), 숙식제공(11.0%), 개별상담(10.1%), 아플 때 치료비 지원(9.0%), 가족상담(6.6%), 문화·예술활동(6.1%), 질병상담 및 무료건강검진(5.8%), 학업 및 학습지도(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출

청소년들은 생활비와 같이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원하는 한편, 캠프와 같은 여가활동의 기회, 성교육, 숙식제공, 개별상담 등과 같이 가출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어려움과 관련된 지원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I-48〉 가장 필요한 청소년 복지서비스

항목	빈도(%)	순위	항목	빈도(%)	순위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90(14.4)	1	아플 때 치료비 지원	56(9.0)	6
캠프 등	83(13.3)	2	가족상담	41(6.6)	7
성교육	78(12.5)	3	문화·예술활동	38(6.1)	8
숙식제공	69(11.0)	4	질병상담 및 무료건강 검진	36(5.8)	9
개별상담	63(10.1)	5	학업 및 학습지도	28(4.5)	10

(6) 성정체성과 성행동

먼저 가출청소년들의 성정체성을 조사한 결과, 전체 320명 중 이성애자는 87.2%이었고,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은 12.8%이었다. 이는 장재홍 등(2003)의 연구에서 동성애 성향에 고민한 청소년이 11.0%이었고 이영식 등(2005)의 연구에서 동성애 성향이 있는 청소년이 12.7%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수치이지만 여기에는 양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구분이 없이 동성애 성향을 기준으로 측정하여 비교에 한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외국의 연구에서 청소년 동성애자가 6~10%, 양성애자가 30%이하이고, 가출청소년 가운데 성소수자 집단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Owens, 1998).

〈표 VI-49〉 성정체성

단위: 빈도(%)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전체
279(87.2)	21(6.6)	13(4.1)	7(2.2)	320(100.0)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는 가출청소년은 전체 320명 중 85.3%이었고, 14.7%는 불편하게 느낀다고 하였다. 청소년기는 성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므로, 청소년들이 성정체성에 관하여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VI-50> 성정체성에 대한 편안함

단위: 빈도(%)

매우 편안하게 느낀다	편안하게 느끼는 편	불편하게 느끼는 편	매우 불편하게 느낀다	전체
112(35.0)	161(50.3)	29(9.1)	18(5.6)	320(100.0)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으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놀림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전체 320명 중 20명인 6.3%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으로 인해 놀림이나 따돌림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이 놀림이나 차별을 받는 이유의 하나로 성정체성이 작용할 수 있어, 성정체성과 관련된 사회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겠다.

<표 VI-51> 성정체성으로 놀림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20(6.3)	300(93.8)	320(100.0)

가출청소년 중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6.5%로 나타났는데, 청소년위원회(2006)의 조사 결과인 4.5%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다.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 중에서 임신하거나 임신시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6.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성관계 시 피임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피임을 하는 청소년은 23.5%이고, 그렇지 않은 청소년은 76.5%로 나타났다. 피임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방법을 몰라서가 27.3%로 가장 많고, 살 용기가 없어서 15.9%, 상대가 싫어서 13.6%, 구하기 힘들어서 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관계 경험

가운데 동성과의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5.2%이었고, 돈 등의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한 성매매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3.9%로 나타났다. 많은 가출청소년이 성관계를 경험하지만 대부분이 피임을 하지 않아 성관련 질병에 노출되거나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거나 시킬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피임의 방법을 모르는 등 성지식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가출청소년의 성에 대해서는 성관계 임신, 피임, 동성과의 성적 접촉, 성매매 등의 이슈를 다양하고 현실성 있게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VI-52〉 성경험

단위: 빈도(%)

문항	구분	빈도	비율
성관계 경험	있다	118	36.5
	없다	205	63.5
	전체	323	100.0
임신하거나 시킨 경험	있다	19	16.2
	없다	98	83.8
	전체	117	100.0
피임여부	피임 한다	27	23.5
	피임하지 않는다	88	76.5
	전체	115	100.0
피임하지 않는 이유	구하기 힘들어서	8	9.1
	살 용기가 없어서	14	15.9
	방법을 몰라서	24	27.3
	상대가 싫어해서	12	13.6
	기타	30	34.1
	전체	88	100.0
동성과의 성관계 경험	있다	6	5.2
	없다	109	94.8
	전체	115	100.0
대가성 성관계 경험	있다	16	13.9
	없다	99	86.1
	전체	115	100.0

(7) 비행행동

청소년 비행과 그로 인한 처벌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잡혀간 경험과 보호관찰 처벌 등의 법적 처분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전체 330명의 청소년들 중에서 경찰서에 잡혀 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54.2%로 절반 이상이였다. 또한 보호관찰처분 등 법적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 330명 중에서 21.8%로 나타났다. 많은 청소년이 자신의 잘못으로 경찰서에 가거나 공식적인 법적 보호나 통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볼 때, 가출청소년이 비행 가능성이 높은 집단임에 유의하여 비행 예방과 보호를 위해 사회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

〈표 VI-53〉 경찰서 및 법적 처벌 경험

단위: 빈도(%)

문항	있다	없다	전체
경찰서에 잡혀 간 경험	179(54.2)	151(45.8)	330(100.0)
보호관찰 처분 등 법적 처벌경험	72(21.8)	259(78.2)	330(100.0)

3) 사회지원체계 및 보호욕구

(1) 가족

가출청소년의 가족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가출 경험, 귀가 욕구와 어려움, 가정폭력, 가족관계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지난 1년 동안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현재 가출한 상태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 331명 중 56.2%이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3.8%이었다. 여기서 가출상태가 아니라고 응답한 청소년 가운데에는 현재 보호시설에 있으면서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지만,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하에 입소하고 있어 가출상태가 아니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I-54〉 현재 가출 상태

단위: 빈도(%)

그렇다	아니다	전체
186(56.2)	145(43.8)	331(100.0)

청소년 가출경험을 가출 횟수를 통해서 보면, 1번의 단순가출이 19.1%이었고, 2번이 10.9%, 3~4번이 20.5%, 5~9번이 23.8%, 10번 이상이 25.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가출횟수의 최소값은 1번이고 최대값은 200으로, 평균은 9.5회(표준편차 18.7)이었다. 본 연구에서 많은 청소년이 가출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하며, 70%가 3회 이상 가출을 반복하였음을 볼 수 있다.

〈표 VI-55〉 가출 경험

단위: 빈도(%)

1번	2번	3-4번	5-9번	10번 이상	전체
58(19.1)	33(10.9)	62(20.5)	72(23.8)	78(25.7)	303(100.0)

가출청소년들의 첫 가출 시기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시기인 14~16세가 53.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인 11~13세(23.9%), 고등학교 시기인 17~19세(11.9%),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인 8~10세(8.3%), 미취학 시기인 7세 이하(1.8%), 20세 이상(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첫 가출이 중학교 연령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14~19세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비율이 6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미취학 연령을 포함하여 초등학교시기에 첫 가출이 일어나는 비율도 34.0%로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가출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가출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아동 가출부터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VI-56〉 첫 가출 시기

단위: 빈도(%)

7세 이하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전체
6(1.8)	27(8.3)	78(23.9)	176(53.8)	39(11.9)	1(0.3)	327(100.0)

청소년들이 가출 후에 집 밖에서 지낸 기간을 모두 합한 총 기간을 살펴보면, 1주일 미만 10.6%, 1주일~1개월 12.7%, 1개월~3개월 14.2%, 3개월~6개월 5.7%, 6개월~1년 12.1%, 1년~3년이 31.4%, 3년 이상 13.3% 등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가출기간이 1주일 미만인 청소년은 10.6%에 지나지 않고, 1년 이상의 장기 가출청소년이 44.7%로 나타나, 가출청소년 중 상당수가 가출상태를 장기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한편, 한 번 가출한 후 가출상태를 유지하는 기간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들이 가장 최근에 가출 한 후 집 밖에서 지낸 기간을 조사하였다. 최근 가출 후 집 밖에서 지낸 기간은 1주일 미만이 13.1%, 1주일~1개월이 14.3%, 1개월~3개월이 16.7%, 3개월~6개월이 9.5%, 6개월~1년 11.3%, 1년~3년 26.2%, 3년 이상 8.9% 등이었다. 최근 가출한 후에 6개월 이상 지낸 청소년이 46.4%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 가출이 한 번 발생한 후 가출상태가 매우 길게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가출이 청소년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적 어려움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표 VI-57〉 가출 후 집 밖에서 지낸 기간

단위: 빈도(%)

항목	1주일 미만	1주일- 1개월	1개월- 3개월	3개월- 6개월	6개월- 1년	1년-3년	3년 이상	전체
총 기간	35 (10.6)	42 (12.7)	47 (14.2)	19 (5.7)	40 (12.1)	104 (31.4)	44 (13.3)	331 (100.0)
최근 가출기간	22 (13.1)	24 (14.3)	28 (16.7)	16 (9.5)	19 (11.3)	44 (26.2)	15 (8.9)	168 (100.0)

현재 가출 상태라고 응답한 청소년 183명 중, 부모님의 거주지를 안다는 청소년은 77.6%이었다. 22.4%는 부모님이 어디 사는지 몰라 귀가하려고 해도 귀가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VI-58〉 부모님(보호자)의 거주지를 아는지 여부

단위: 빈도(%)

그렇다	아니다	전체
142(77.6)	41(22.4)	183(100.0)

현재 가출 상태인 청소년 185명 가운데, 부모님이나 보호자와의 연락빈도는 전혀 연락하지 않음이 31.1%이고 거의 연락하지 않음이 15.7%로, 절반 정도의 청소년이 거의 혹은 전혀 부모나 보호자와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락빈도가 한 달에 한 번인 경우는 11.4%, 6개월에 한 번은 2.2%, 1년에 한 번은 1.6%, 거의 매일은 10.3% 등이었다. 거의 매일 혹은 일주일의 한 번 정도로 자주 연락하는 청소년도 36.2%로 나타나, 많은 청소년들이 가출한 상태에서도 가족과의 연락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VI-59〉 부모님(보호자)과 연락 빈도

단위: 빈도(%)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번	한 달에 한번	6개월에 한번	일 년에 한번	거의 연락하지 않음	전혀 연락하지 않음	전체
19(10.3)	48(25.9)	21(11.4)	4(2.2)	3(1.6)	29(15.7)	61(33.0)	185(100.0)

현재 가출 상태인 청소년의 귀가 욕구는 27.0%가 귀가를 원한다고 하였고, 73.0%가 귀가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대다수의 청소년이 귀가에 대한 욕구가 없지만, 10명 중 2~3명의 청소년은 귀가의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VI-60〉 귀가 욕구

단위: 빈도(%)

매우 원한다	조금 원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전체
14(7.6)	36(19.5)	61(33.0)	74(40.0)	185(100.0)

현재 가출 상태인 청소년들이 귀가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돌아가도 전과 같은 문제를 다시 겪을까봐 걱정되어서(54.6%)이었다.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집에 돌아간 이후에 변화의 희망이 없는 것을 귀가하지 않는 이유로 지목하여, 가출 청소년이 가족과 재결합할 때 단순히 귀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가족의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 개입이 필요함을 드러낸다. 그 다음 이유는 가도 가출한 상태가 간섭받지 않아서 편하고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하여(34.1%), 청소년이 가출 상태에 익숙해진 것도 귀가에 장애가 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다른 이유는 가족이 싫어해서(25.9%), 부모님의 꾸중이나 처벌이 두려워서(21.6%), 학교의 처벌이나 징계가 두려워서(8.1%), 돈을 벌 수 있어서(8.1%), 갈 집이 없어서(6.5%) 등의 순이었다.

〈표 VI-61〉 귀가 거부의 이유

단위: 빈도(%)

문항	그렇다	아니다	전체
돌아가도 전과 같은 문제를 다시 겪을까봐 걱정되어서	101(54.6)	84(45.4)	185(100.0)
부모님의 꾸중이나 처벌이 두려워서	40(21.6)	145(78.4)	185(100.0)
학교의 처벌이나 징계가 두려워서	15(8.1)	170(91.9)	185(100.0)
가출한 상태가 간섭받지 않아서 편안하고 자유로우므로	63(34.1)	122(65.9)	185(100.0)
돈을 벌 수 있어서	15(8.1)	170(91.9)	185(100.0)
갈 집이 없다	12(6.5)	173(93.5)	185(100.0)
가도 가족들이 싫어한다	48(25.9)	137(74.1)	185(100.0)

가출청소년의 귀가와 관련된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청소년

년에 대해 가출 후 귀가 방법, 재가출까지의 기간, 귀가 시 필요한 도움 등 귀가와 관련된 사항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았다. 먼저, 가출 후 귀가방법으로는 자발적으로 귀가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61.6%,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나를 찾아 귀가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61.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쉼터 등 보호시설에 있다가 귀가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44.8%, 경찰이 집으로 보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33.9%이었다. 가출청소년의 귀가는 자발적인 귀가와 타의에 의한 귀가의 형태가 모두 나타나고 있다.

<표 VI-62> 가출 후 귀가 방법

단위: 빈도(%)

문항	전혀없음	가끔	자주	거의항상	전체
내가 자발적으로 귀가하였다	122(38.4)	108(34.0)	38(11.9)	50(15.7)	318(100.0)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나를 찾아 귀가하였다	121(38.5)	107(34.1)	48(15.3)	38(12.1)	314(100.0)
경찰이 집으로 보냈다	207(66.1)	60(19.2)	28(8.9)	18(5.8)	313(100.0)
쉼터 등 보호시설에 있다가 귀가하였다	176(55.2)	86(27.0)	31(9.7)	26(8.2)	319(100.0)

귀가시 동행해 준 사람이 없었던 청소년은 전체 329명 중 40.7%이었고, 31.9%는 친구가, 11.9%는 경찰이, 5.5%는 사회복지사가 동행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한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가 혼자 귀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출과 귀가의 과정에서 청소년이 가족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하는 사회적 도움이 미약하다는 것이 나타난다.

<표 VI-63> 귀가시 동행해 준 사람

단위: 빈도(%)

없음	친구	경찰	사회복지사	기타	전체
134(40.7)	105(31.9)	39(11.9)	18(5.5)	33(10.0)	329(100.0)

귀가 후 다시 가출하지 않았다는 청소년은 19.0%이었고, 재가출기간이 1일은 12.2%, 8~15일 11.6%, 16~30일 10.4% 등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이내에 재가출하는 청소년이 39.1%로 전체 청소년의 3분의 1이상이었고, 한 달 이내에 재가출한 청소년을 누적으로 합계하면 61.1%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귀가 후 재가출이 한 달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족과의 재결합 후 최소 한 달 동안 지속적인 개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VI-64〉 귀가 후 재가출까지 기간

단위: 빈도(%)

가출하지 않음	1일	2-7일	8-15일	16-30일	31일 이상	전체
62(19.0)	40(12.2)	88(26.9)	38(11.6)	34(10.4)	65(19.9)	327(100.0)

가출청소년이 가출 후 귀가할 때 가장 필요한 도움은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40.1%)으로 많은 가출청소년은 가족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아무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19.9%),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19.0%), 취업을 하도록 도와주면 좋겠다(6.7%), 친구를 사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5.2%),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4.0%) 등의 순이었다.

〈표 VI-65〉 귀가시 필요한 도움

항목	빈도	백분율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131	40.1
학교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13	4.0
친구를 사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17	5.2
취업을 하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22	6.7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	62	19.0
아무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	65	19.9
기타	17	5.2
전체	327	100.0

가출청소년의 가족관계를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의 청소년에 대한 학대와 가정폭력을 조사하였다. 먼저 신체적인 학대를 보면, 부모님의 발에 차이거나 깨물리거나 주먹에 맞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53.9%, 몽둥이나 굵은 막대기, 혁대로 맞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50.6%, 칼이나 흉기로 위협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4.5%이었다. 정서적인 학대를 보면,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꾸짖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56.5%,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와 같은 말을 들은 청소년은 67.9%이었다. 방임을 보면, 부모님이 외출하여 어두워질 때까지 혼자 집을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70.6%, 더러운 옷을 입고 지내거나 습기 찬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32.1%,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부모님이 그냥 내버려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28.7%, 이유 없이 결석을 해도 부모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경험을 한 청소년이 28.0%이었다. 성적 학대를 보면, 내가 싫은데도 부모님이 몸(성기)을 만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6.7%, 내가 싫은데도 부모님이 옷을 억지로 벗게 하여 내 몸을 보려고 한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5.5%이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목격 경험을 보면, 집안 내에서 부모님 중 한 분이 다른 한 분을 때리는 것을 본적이 있는 청소년은 30.0%이었고, 부모님이 서로 욕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청소년은 53.3%이었다. 절반 이상의 청소년이 심각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경험하고, 30~50%의 청소년이 가정폭력을 목격하고, 30%내외의 청소년이 방임을 경험하고, 5~6%의 청소년이 성적 학대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는 이러한 경험을 1주일에 1~2번씩 상습적으로 한 청소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이 가출하는 원인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표 VI-66〉 청소년학대와 가정폭력

단위: 빈도(%)

영역	문항	전혀 없다	1년에 1-2번	2-3개 월에 1-2번	1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전체
신체적학대	부모님의 발에 차이거나 깨물리거나 주먹에 맞았다.	152 (46.1)	87 (46.1)	37 (11.2)	24 (7.3)	30 (9.1)	330 (100.0)
	부모님이 휘두르는 몽둥이나 굵은 막대기, 혁대로 맞았다.	163 (49.4)	71 (21.5)	34 (10.3)	26 (7.9)	36 (10.9)	330 (100.0)
	부모님이 칼이나 흉기로 나를 위협했다.	282 (85.5)	26 (7.9)	6 (1.8)	4 (1.2)	12 (3.6)	330 (100.0)
정서적학대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다.	144 (43.5)	67 (20.3)	33 (10.0)	34 (10.3)	52 (15.8)	330 (100.0)
	부모님이 나에게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하였다.	106 (32.1)	81 (24.5)	33 (10.0)	44 (13.3)	66 (20.0)	330 (100.0)
방임	부모님이 외출하여 어두워 질 때까지 나 혼자 집을 본 적이 있다.	96 (29.4)	66 (20.2)	31 (9.5)	48 (14.7)	86 (26.3)	327 (100.0)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지내거나 습기 찬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224 (67.9)	57 (17.3)	15 (4.5)	18 (5.5)	16 (4.8)	330 (100.0)
	부모님이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	234 (71.3)	41 (12.5)	21 (6.4)	13 (4.0)	19 (5.8)	328 (100.0)
	부모님은 내가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해도 나에게 아무 말 안한다.	237 (72.0)	32 (9.7)	11 (3.3)	17 (5.2)	32 (9.7)	329 (100.0)
성적폭력	내가 싫은데도 부모님이 나의 몸(성기)을 만진 적이 있다.	308 (93.3)	6 (1.8)	3 (0.9)	8 (2.4)	5 (1.5)	330 (100.0)
	내가 싫은데도 부모님이 옷을 억지로 벗게 하여 내 몸을 보려고 한 적이 있다.	312 (94.5)	9 (2.7)	2 (0.6)	3 (0.9)	4 (1.2)	330 (100.0)
가정폭력	집안 내에서 부모님 중 한 분이 다른 한 분을 때리는 것을 본적이 있다.	231 (70.0)	51 (15.5)	13 (3.9)	21 (6.4)	14 (4.2)	330 (100.0)
	부모님이 서로 욕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154 (46.7)	78 (23.6)	25 (7.6)	30 (9.1)	43 (13.0)	330 (100.0)

가출청소년의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가족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서로 보살핀다는 청소년은 55.1%, 가족과 잘 지낸다는 청소년은 47.9%, 우리 가족이 자랑스럽다는 청소년은

46.4%이었다.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한순간도 우리 가족과 함께 있기가 싫다는 청소년은 56.7%, 가족 안에서 낯선 사람같이 느껴진다는 청소년은 48.2%, 가족에게서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는 청소년은 57.0%이었다. 이와 같이 가출청소년들 가운데에서도 절반정도는 가족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또 절반이상의 청소년이 부정적인 가족관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집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의 상태는 청소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드러낸다.

〈표 VI-67〉 가족관계

단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체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진정으로 서로를 보살핀다.	78 (23.7)	70 (21.3)	91 (27.7)	47 (14.3)	43 (13.1)	329 (100.0)
나는 우리 가족과 잘 지낸다.	100 (30.5)	71 (21.6)	75 (22.9)	41 (12.5)	41 (12.5)	328 (100.0)
나는 우리 가족이 자랑스럽다.	108 (33.0)	67 (20.5)	76 (23.2)	24 (7.3)	52 (15.9)	327 (100.0)
나는 한순간도 우리 가족과 함께 있기가 싫다.	71 (21.6)	71 (21.6)	83 (25.3)	51 (15.5)	52 (15.9)	328 (100.0)
우리 가족 안에서 나는 낯선 사람같이 느껴진다.	106 (32.3)	64 (19.5)	78 (23.8)	32 (9.8)	48 (14.6)	328 (100.0)
우리 가족에게는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	80 (24.5)	60 (18.4)	72 (22.1)	66 (20.2)	48 (14.7)	326 (100.0)

(2) 학교

지난 1년간 학교에서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을 조사하였다. 듣기 싫은 별명을 듣고 놀림을 받거나 조롱당한 경험이 있는 가출청소년은 47.1%, 고의적으로 따돌림을 받거나 골탕을 먹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2.8%, 협박이나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1.3%, 집을 주거나 때려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8.0%, 뺨, 얼굴, 머리

등을 손이나 주먹을 맞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40.5%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가출청소년 중 30~40%의 청소년이 학교에서 폭력피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표 VI-68> 학교에서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단위: 빈도(%)

문항	전혀 없다	1번	2-3번	4번이상	전체
듣기 싫은 별명을 듣고 놀림 받거나 조롱당한 적이 있다.	174 (52.9)	63 (19.1)	42 (12.8)	50 (15.2)	329 (100.0)
고의적으로 따돌림 받거나 골탕을 먹은 적이 있다.	221 (67.2)	52 (15.8)	26 (7.9)	30 (9.1)	329 (100.0)
협박이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226 (68.7)	46 (14.0)	31 (9.4)	26 (7.9)	329 (100.0)
나에게 겁을 주거나 때려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다.	237 (72.0)	39 (11.9)	30 (9.1)	23 (7.0)	329 (100.0)
내 뺨, 얼굴, 머리 등을 손이나 주먹으로 때린 적이 있다.	195 (59.5)	50 (15.2)	38 (11.6)	45 (13.7)	328 (100.0)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경험을 보면, 먼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27.8%이었고,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청소년들은 22.8%로, 학교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낮게 나타난다. 교사에 대해서 존경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21.0%였으며, 자신을 이해해주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는 청소년은 33.0%로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교사가 자신을 차별 대우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26.9%, 교사에게 맞은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은 45.4%, 교사로부터 모욕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은 25.4%,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7%이었다. 많은 청소년들이 교사에 의한 신체적 폭력, 차별대우, 정서적, 성적 폭력의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 가출청소년이 교사로부터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을 드러낸다.

〈표 VI-69〉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

단위: 빈도(%)

영역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긍정적 경험	학교에 다니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96 (29.6)	53 (16.4)	85 (26.2)	48 (14.8)	42 (13.0)	324 (100.0)
	나는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103 (31.7)	68 (20.9)	80 (24.6)	46 (14.2)	28 (8.6)	325 (100.0)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한다.	103 (31.7)	79 (24.3)	75 (23.1)	33 (10.2)	35 (10.8)	325 (100.0)
	우리 학교에는 나를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88 (27.2)	54 (16.7)	74 (22.8)	63 (19.4)	45 (13.6)	324 (100.0)
부정적 경험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를 차별대우 한다.	91 (28.1)	70 (21.6)	76 (23.5)	45 (13.9)	42 (13.0)	324 (100.0)
	선생님께 맞은 적이 있다.	72 (22.2)	44 (13.6)	61 (18.8)	71 (21.9)	76 (23.5)	324 (100.0)
	선생님께 모욕을 받은 적이 있다.	126 (39.0)	67 (20.7)	48 (14.9)	38 (11.8)	44 (13.6)	323 (100.0)
	선생님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282 (86.8)	23 (7.1)	11 (3.4)	4 (1.2)	5 (1.5)	325 (100.0)

(3) 지역사회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과 사회적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 지역사회 응집력, 지역사회에서의 피해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부모, 형제자매, 친척, 학교친구·선후배, 교사, 전문가 등을 지지원으로 하여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네 가지를 조사하였다. 먼저 정서적 지지로서 나를 사랑하고 돌보아준다는 응답을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는 58.2%, 형제자매 57.8%, 친척 45.1%, 학교친구와 선후배 71.8%, 학교선생님 52.0%, 사회복지사 등 74.8%로 나타났다. 평가적 지지로서 나의 능력을 존중해 준다는 응답을 보면, 부모에 대해서는 46.5%, 형제자매 46.5%, 친척 37.0%, 학교친구·선후배 65.5%, 학교 선생님

51.8%, 사회복지사 등은 68.4%이었다. 정보적 지지로서 내가 무언가 의논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을 때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는 36.1%, 형제자매 33.6%, 친척 26.0%, 학교친구·선후배 70.3%, 학교선생님 40.6%, 사회복지사 등은 68.5%이었다. 마지막으로 물질적 지지로서 내가 필요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거나 빌려준다는 응답을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는 51.0%, 형제자매 50.7%, 친척 33.5%, 학교친구·선후배 72.6%, 학교선생님 37.2%, 사회복지사 등은 58.7%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은 학교친구나 선후배들로부터 전반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65.5%~72.6%),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부터 역시 높은 수준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58.7%~74.8%). 부모님의 지지(36.1%~58.2%)와 학교 교사의 지지(37.2%~52.0%)의 수준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표 VI-70> 사회적 지지

단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나를 사랑하고 돌보아 준다	부모님	60(18.7)	74(23.1)	116(36.1)	71(22.1)	321(100.0)
	형제자매	59(19.0)	72(23.2)	127(40.8)	53(17.0)	311(100.0)
	친척	91(28.7)	83(26.2)	106(33.4)	37(11.7)	317(100.0)
	학교친구,선후배	28(8.7)	63(19.6)	159(49.4)	72(22.4)	322(100.0)
	학교 선생님	60(19.0)	91(28.9)	127(40.3)	37(11.7)	315(100.0)
	사회복지사 등	35(11.1)	44(14.0)	136(43.3)	99(31.5)	314(100.0)
나를 능력을 존중해 준다.	부모님	79(24.7)	92(28.8)	98(30.6)	51(15.9)	320(100.0)
	형제자매	77(24.8)	89(28.7)	110(35.5)	34(11.0)	310(100.0)
	친척	97(30.9)	101(32.2)	90(28.7)	26(8.3)	314(100.0)
	학교친구,선후배	44(13.8)	66(20.7)	158(49.5)	51(16.0)	319(100.0)
	학교 선생님	79(24.8)	74(23.3)	127(39.9)	38(11.9)	318(100.0)
	사회복지사 등	44(14.1)	55(17.6)	142(45.4)	72(23.0)	313(100.0)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내가 무언가 의논하거나 이야기 하고 싶을 때 도움이 된다.	부모님	117(37.0)	85(26.9)	79(25.0)	35(11.1)	316(100.0)
	형제자매	112(33.8)	91(29.7)	64(20.9)	39(12.7)	306(100.0)
	친척	143(45.8)	88(28.2)	61(19.6)	20(6.4)	312(100.0)
	학교친구,선후배	43(13.3)	53(16.4)	124(38.4)	103(31.9)	323(100.0)
	학교 선생님	93(29.7)	93(29.7)	92(29.4)	35(11.2)	313(100.0)
	사회복지사 등	36(11.5)	63(20.1)	119(37.9)	96(30.6)	314(100.0)
내가 필요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거나 빌려준다.	부모님	85(26.7)	71(22.3)	109(34.3)	53(16.7)	318(100.0)
	형제자매	85(27.8)	66(21.6)	103(33.7)	52(17.0)	306(100.0)
	친척	131(41.9)	77(24.6)	78(24.9)	27(8.6)	313(100.0)
	학교친구,선후배	39(12.0)	50(15.4)	158(48.6)	78(24.0)	325(100.0)
	학교 선생님	102(32.7)	94(30.1)	96(30.8)	20(6.4)	312(100.0)
	사회복지사 등	60(19.2)	69(22.1)	117(37.5)	66(21.2)	312(100.0)

지난 1년 동안 집이나 학교를 제외한 지역사회에서의 피해 경험과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 또는 기관, 그리고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전체 청소년 330명 중 돈을 빼앗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2.1%, 심하게 두들겨 맞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3.3%, 칼이나 흉기로 위협받거나 다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0.3%, 성추행이나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0.6%이었다. 가출청소년들은 거리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폭력범죄 등의 피해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지역사회에서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VI-71> 지역사회에서 피해 경험

단위: 빈도(%)

문항	전혀 없다	1번	2-3번	4번 이상	전체
돈을 빼앗긴 적이 있다.	224 (67.9)	54 (16.4)	37 (11.2)	15 (4.5)	330 (100.0)
심하게 두들겨 맞은 적이 있다.	220 (66.7)	54 (16.4)	32 (9.7)	24 (7.3)	330 (100.0)
칼이나 흉기로 위협받거나 다친 적이 있다.	296 (89.7)	21 (6.4)	9 (2.7)	4 (1.2)	330 (100.0)
성추행이나 강간을 당한 적이 있다.	295 (89.4)	22 (6.7)	12 (3.6)	1 (0.3)	330 (100.0)

집, 학교, 지역사회에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122명(36.9%)에 대해서,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렸는지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조사하였다. 피해를 당했을 때 가까운 친구에게 알린 청소년이 45.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아무에게 알리지 않은 청소년이 20.6%, 학교, 경찰서, 사회복지기관, 상담기관, 상담전화 등의 공식적 기관에 알린 청소년이 15.1%, 부모나 성인에게 알린 청소년이 13.4%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들은 피해를 당한 경우 가까운 친구에게 알리거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식적 기관이나 성인에게 알리는 일이 비교적 적어, 적절히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반복적인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I-72>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 또는 기관

단위: 빈도(%)

가까운 친구	부모 혹은 성인	공식적 기관	아무에게 알리지 않음	기타	전체
107(45.0)	32(13.4)	36(15.1)	49(20.6)	14(5.9)	238(100.0)

피해 경험이 있어도 아무에게 알리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그 이유는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가 4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타인이 아는 것이

싫어서(17.5%),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10.0%),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7.5%), 알려야 할 곳을 몰라서(5.0%) 등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타인의 도움에 대해 불신하고 있으며, 오히려 타인이 알게 되거나 가해자가 보복할 경우에 자신이 겪게 될 이차적인 불이익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어 이것이 반복적인 범죄피해의 원인이 된다고 보인다.

〈표 VI-73〉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단위: 빈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타인이 아는 것이 싫어서	가해자 보복이 두려워서	알려야 할 곳을 몰라서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기타	전체
18(45.0)	7(17.5)	4(10.0)	2(5.0)	3(7.5)	6(15.0)	40(100.0)

범죄피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주요 기관인 경찰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경찰이 보호해 주었다고 경험한 청소년은 36.7%이었다. 반면, 집이 어디인지 말하라고 위협당하거나(28.0%), 죄를 자백하라고 위협을 당하거나(24.1%), 억울하게 범죄인 취급을 당하거나(26.7%), 무시당한 경험이 있는 등(33.6%), 경찰로부터 억울한 처우를 받는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의사에 반해 강제로 귀가시키거나 보낸 적이 있는 청소년은 29.4%이었다. 가출 청소년 가운데에는 경찰의 보호를 받은 청소년도 많지만, 오히려 앞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범죄피해를 경험하면서도 성인과 공식기관에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적절하게 보호를 받도록 하는데 경찰을 비롯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표 VI-74〉 경찰과의 경험

단위: 빈도(%)

문항	전혀없다	1번	2-3번	4번이상	전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경찰이 나를 보호해 주었다.	209(63.3)	71(21.5)	32(9.7)	18(5.5)	330(100.0)
집이 어디인지 말하라고 경찰에게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	237(72.0)	45(13.7)	29(8.8)	18(5.5)	329(100.0)
죄를 자백하라고 경찰에게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	249(75.9)	39(11.9)	25(7.6)	15(4.6)	328(100.0)
경찰하게 억울하게 범죄인 취급을 당한 적이 있다.	242(73.3)	57(17.3)	21(6.4)	10(3.0)	330(100.0)
경찰이 나를 무시했다.	219(66.4)	53(16.1)	25(7.6)	33(10.0)	330(100.0)
경찰이 내 의사에 반해 강제로 귀가시키거나 보낸 적이 있다.	233(70.6)	52(15.8)	20(6.1)	25(7.6)	330(100.0)

(5) 직장·근로

가출청소년들의 일(아르바이트)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수입, 피해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일(아르바이트)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16명 중 62.3%인 197명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것은 통계청(2006)에서 15~24세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33.3%로 나타났던 것에 비해 높은 수치로, 가출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VI-75〉 일(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197(62.3)	119(37.7)	316(100.0)

가출청소년들이 일(아르바이트)을 통해서 번 돈은, 1달 평균 10만원 미만 24.6%, 10~20만원 8.7%, 20~30만원 6.6%, 30~40만원 12.6%, 40~50만원 7.7%, 50~100만원 31.7%, 100만원이상 8.7% 등으로, 가출청소년 중 40.4%가 50만

원이상의 높은 소득을 얻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1달 소득 최소값은 2,500원 이고 최대값은 400만원으로, 평균은 43만원(표준편차 431674.16)이었다. 청소년들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수입을 일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용돈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생계활동으로서의 경제활동에 대해 교육과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표 VI-76> 일(아르바이트)를 통해서 1달 평균 번 돈

단위: 빈도(%)

10만원 미만	10만원-20만원	20만원-30만원	30만원-40만원	40만원-50만원	50만원-100만원	100만원 이상	전체
45(24.6)	16(8.7)	12(6.6)	23(12.6)	14(7.7)	57(31.7)	16(8.7)	183(100.0)

가출청소년들이 일(아르바이트)을 할 때 발생한 인권침해 경험은 임금체불이 27.4%, 부당해고가 15.8%, 부당연장근로가 23.5%, 심한 욕설이나 비난이 23.2%, 신체적 폭행 피해가 4.6%,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3.1% 등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위원회(2005)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04년도의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11.9%, 폭행피해가 4.3%, 성적 피해가 1.7%로, 가출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직장에서 더 많은 피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VI-77> 직장(아르바이트)에서의 피해 경험

단위: 빈도(%)

문항	전혀없음	1번	2-3번	4번이상	전체
일을 했지만 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적이 있다.	143 (72.6)	38 (19.3)	13 (6.6)	3 (1.5)	197 (100.0)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한 적이 있다.	165 (84.2)	22 (11.2)	6 (3.1)	3 (1.5)	196 (100.0)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하도록 강요당한 적이 있다.	150 (76.5)	22 (11.2)	8 (4.1)	16 (8.2)	196 (100.0)

문항	전혀 없음	1번	2-3번	4번 이상	전체
직장(아르바이트)에서 심한 욕설이나 비난을 들은 적이 있다.	149 (76.8)	25 (12.9)	11 (5.7)	9 (4.6)	194 (100.0)
직장(아르바이트)에서 신체적 폭행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187 (95.4)	3 (1.5)	6 (3.1)	-	196 (100.0)
직장(아르바이트)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190 (96.9)	3 (1.5)	3 (1.5)	-	196 (100.0)

직장(아르바이트)에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가출청소년 89명(26.9%)에 대해 청소년이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조사한 결과, 참는다는 경우가 41.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친구와 상의한다(15.7%), 직장(아르바이트)을 그만둔다(12.4%), 경찰서에 신고한다(5.6%), 노동부에 전화하여 근로감독관과의 상담을 요청한다(5.6%),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다(3.4%), 인터넷에 올린다(2.2%) 등의 순이었다. 많은 청소년들이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받는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피해를 감수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인 성인이나 공식적인 기관을 활용하는 청소년이 매우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VI-78> 직장(아르바이트) 피해 시 대처 방법

항목	빈도	백분율
참는다.	37	41.6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3	3.4
친구와 상의한다.	14	15.7
직장(아르바이트)을 그만둔다.	11	12.4
경찰서에 신고한다.	5	5.6
인터넷에 올린다.	2	2.2
노동부에 전화하여 근로감독관과의 상담을 요청한다.	5	5.6
기타	12	13.5
전체	89	100.0

직장(아르바이트) 이외에 가출청소년들이 돈을 얻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돈을 주로 어떻게 얻었는지 조사하였다. 돈을 얻는 방법 중 부모님(보호자)에게 받는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78.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빌리거나 얻음(58.8%), 아르바이트(55.2%), 이전에 모아둔 돈을 사용(51.6%), 사회복지기관(시설)에서 받음(42.2%), 훔치거나 빼앗음(26.1%), 구걸이나 앵벌이(21.7%), 원조교제나 성매매(5.9%) 등의 순이었다. 가출청소년들은 주로 부모나 보호자, 친구 등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얻거나 일을 하는 등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돈을 얻고 있지만 절도, 앵벌이, 성매매 등비합법적인 수단으로 돈을 얻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표 VI-79〉 돈을 얻는 방법

단위: 빈도(%)

문항	전혀없음	가끔	자주	거의 항상	전체
부모님(보호자)에게 받는다.	71 (22.0)	118 (36.5)	47 (14.5)	87 (26.9)	323 (100.0)
사회복지기관(시설)에서 받는다.	185 (57.8)	70 (21.9)	35 (10.9)	30 (9.4)	320 (100.0)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번다.	146 (44.8)	101 (31.0)	45 (13.8)	34 (10.4)	326 (100.0)
이전에 모아 둔 돈을 사용한다.	155 (48.4)	108 (33.8)	42 (13.1)	15 (4.7)	320 (100.0)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빌리거나 얻는다.	133 (41.2)	139 (43.0)	36 (11.1)	15 (4.6)	323 (100.0)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거나 빼앗는다.	238 (73.9)	53 (16.5)	17 (5.3)	14 (4.3)	322 (100.0)
구걸이나 앵벌이를 해서 얻는다.	252 (78.3)	48 (14.9)	14 (4.3)	8 (2.5)	322 (100.0)
원조교제나 성매매를 한다.	304 (94.1)	11 (3.4)	3 (0.9)	5 (1.5)	323 (100.0)

가출청소년의 소비활동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1달 평균 쓰는 돈의 액수는 1만원 미만인 19.6%, 1~3만원인 23.9%, 3~5만원인 13.7%, 5~10만원인 20.2%, 10~30만원인 10.9%, 30만원 이상이 9.0%이었다.

<표 VI-80> 1달 평균 쓰는 돈

단위: 빈도(%)

쓰지 않음	1만원 미만	1만원- 3만원	3만원- 5만원	5만원- 10만원	10만원- 30만원	30만원 이상	전체
9(2.8)	63(19.6)	77(23.9)	44(13.7)	65(20.2)	35(10.9)	29(9.0)	322(100.0)

지난 1년 동안 돈을 주로 사용한 용도를 보면, 먹을 것이 27.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는 것(26.4%), 옷 구입(16.6%), 물건 구입(13.5%), 자는 것(9.1%), 저축(3.0%), 공부(2.1%) 등의 순이었다. 가출청소년의 소비에는 먹는 것과 유희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81> 돈을 사용한 용도

항목	빈도	비율
먹을 것을 산다(식사, 간식 등).	238	27.3
노는 데 쓴다(노래방 등).	230	26.4
옷을 사는 데 쓴다.	145	16.6
물건을 사는 데 쓴다.	118	13.5
자는 데 쓴다(여관 등).	79	9.1
저축한다.	26	3.0
공부를 위해 쓴다.	18	2.1
기타	18	2.1

(4) 보호시설

청소년들이 가출하여 생활하는 동안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보호시설이 7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있는 집이 16.0%, PC방, 찜질방, 여관, 거리 등을 돌아다니며 지내는 경우가 2.7%, 친구 집이 2.4%, 친척집이 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청소년이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고, 일부는 부모(보호자)와 함께 있거나 거리나 친구 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있었다.

<표 VI-82> 현재 살고 있는 곳

단위: 빈도(%)

보호시설	부모님이 나 보호자 있는 집	친척집	친구 집	PC방 등을 돌아다니 며 지냄	기타	전체
250(75.5)	53(16.0)	2(0.6)	8(2.4)	9(2.7)	9(2.7)	331(100.0)

청소년들이 청소년쉼터,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 그룹 홈 등 보호시설에서 지낸 총 기간을 보면, 1일~1주일미만이 15.4%, 1주일~1개월이 14.5%, 1개월~6개월이 25.2%, 6개월~1년이 16.1%, 1년~3년이 10.6%, 3년이상 3.0%로 나타났다. 보호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청소년은 15.2%이었다. 청소년들 중 1개월이내의 단기로 보호시설을 이용한 청소년은 29.9%에 불과하였고, 29.7%는 1년이상 보호시설에서 지낸 것으로 보아,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일시적인 구호의 개념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보호가 요청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VI-83> 보호시설에서 지낸 기간

단위: 빈도(%)

없음	1일-1주일 미만	1주일- 1개월	1개월- 6개월	6개월-1년	1년-3년	3년이상	전체
50 (15.2)	51 (15.4)	48 (14.5)	83 (25.2)	53 (16.1)	35 (10.6)	10 (3.0)	330 (100.0)

보호시설에 대한 이용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들이 가출 후 보호시설을 이용한다면 그 이유는 주로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가장 큰 이유는 잠자고 먹고 씻는 등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전체 329명 중 52.9%가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항상 이용함(11.2%), 춥거나 비가 내리는 등 날씨 때문에(9.4%), 임신했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등 어쩔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8.5%), 아플 때(3.6%) 등이었다. 한편,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는 청소년도 3.6% 있었다.

〈표 VI-84〉 가출 후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이유

항목	빈도	백분율
의식주 해결(잠자고 먹고 씻기 위해)	174	52.9
항상 이용한다	37	11.2
날씨(춥거나 비가 내릴 때 등)	31	9.4
어쩔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임신했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28	8.5
아플 때	12	3.6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	12	3.6
기타	35	10.6
전체	329	100.0

가출 후 보호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은 보호시설의 규칙이 엄격한 것(23.5%), 집에 억지로 돌려보낼까봐(19.0%), 보호시설에 대해 잘 몰라서(13.4%) 등을 가장 큰 이유로 지적했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의 접근을 확보하려면, 보호시설 규칙의 강도를 조절하고, 귀가에 대해 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것을 알리고 실천하며, 보호시설에 대한 궁금증과 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과 떨어지기 싫어서(11.1%), 보호시설에 있는 다른 청소년들과 갈등이 있어서(8.7%), 시설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8.5%), 안전한 것 같지 않아서(4.9%), 시설이 너무 멀리 있어서(2.8%) 등을 지적했다.

〈표 VI-85〉 보호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항목	빈도	백분율
보호시설의 규칙이 엄격해서 (외출, 기상시간, 술담배 사용, 종교적 규칙 등)	125	23.5
집에 억지로 돌려보낼까봐	101	19.0
보호시설에 대해 잘 몰라서	71	13.4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과 떨어지기 싫어서	59	11.1
보호시설에 있는 다른 청소년들과 갈등이 있어서	46	8.7

항목	빈도	백분율
시설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45	8.5
안전한 것 같지 않아서	26	4.9
시설이 너무 멀리 있어서	15	2.8
실무자(사회복지사, 직원 등)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10	1.9
깨끗하지 않아서	7	1.3
기타	26	4.9
전체	531	100.0

주) 2가지 중복응답.

보호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 보호시설에서 제공되는 보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청소년들은 식사와 간식에 대해 90.4%가 만족스럽다고 하고, 잠자리에 대해 91.4%가 만족스럽다고 하였다.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81.3%이고, 아플 때 치료를 잘 받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87.4%이었다. 청소년들은 보호시설에서 제공하는 보호기능에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표 VI-86> 보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단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정말 그렇다	전체
보호시설의 식사와 간식이 만족스러운 편이다.	8 (2.9)	19 (6.8)	115 (41.1)	138 (49.3)	280 (100.0)
보호시설의 잠자리가 만족스러운 편이다.	8 (2.9)	16 (5.7)	110 (39.3)	146 (52.1)	280 (100.0)
보호시설에서 폭력이 발생했을 때 보호를 받는 편이다.	22 (7.9)	30 (10.8)	114 (41.2)	111 (40.1)	277 (100.0)
보호시설에서 아플 때 치료를 잘 받는 편이다.	14 (5.0)	21 (7.6)	82 (29.5)	161 (57.9)	278 (100.0)

가출청소년은 주거지가 자주 변동한다는 것이 일반 청소년과 달리 특징적인 양상이며, 청소년의 지역적 이동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출 후 지역을 선택하는 기준과 가출 전후에 생활한 지역을 조사하였다. 청소년들이 가출 후 지역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곳(86.6%)이었고, 그 다음으로 친구가 있는 곳(81.1%), 쉼터 등 서비스가 있는 곳(74.0%), 놀거리가 많은 곳(72.7%), 집에서 먼 곳(65.7%),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찾지 못하는 곳(63.6%), 사람이 많은 곳(5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가출 이후 도움을 받을 곳을 찾아 장소를 이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쉼터와 같이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청소년의 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VI-87> 가출 후 지역선택 기준

단위: 빈도(%)

문항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조금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체
친구가 있는 곳	25 (7.6)	37 (11.3)	110 (33.5)	156 (47.6)	328 (100.0)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곳	15 (4.6)	29 (8.8)	109 (33.2)	175 (53.4)	328 (100.0)
놀거리가 많은 곳	27 (8.3)	62 (19.0)	119 (36.5)	118 (36.2)	326 (100.0)
사람이 많은 곳	41 (12.5)	116 (35.5)	92 (28.1)	78 (23.9)	327 (100.0)
쉼터 등 서비스가 있는 곳	30 (9.2)	55 (16.8)	124 (37.9)	118 (36.1)	327 (100.0)
집에서 먼 곳	34 (10.4)	78 (23.9)	105 (32.1)	110 (33.6)	327 (100.0)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찾지 못하는 곳	48 (14.7)	71 (21.7)	75 (22.9)	133 (40.7)	327 (100.0)

청소년들이 실제 이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출 전 생활한 지역과 가출하여 생활한 지역을 조사하였다. 가출 전 생활한 지역은 경기도(23.4%), 서울

(20.5%), 충청도(10.2%), 전라도(9.6%), 인천(6.3%), 강원도(5.6%), 경상도(5.3%), 대구(4.3%), 대전(4.3%), 제주도(4.0%), 부산(3.3%), 광주(3.0%), 울산(0.3%) 등의 순이었다. 각 지역에 대해 가출하여 가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가본 지역은 서울(55.0%)이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47.7%), 인천(29.3%), 부산(20.5%), 충청도(19.3%), 대전(19.0%), 전라도(17.2%), 대구(15.7%), 광주(14.8%), 강원도(12.1%), 경상도(9.4%), 울산(6.9%), 제주도(3.9%) 등의 순이었다. 청소년들의 출신 지역은 비교적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가출 후 서울과 수도권, 인천, 부산 등 광역시에 많은 청소년이 이동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표 VI-88〉 가출 전·후 생활한 지역

단위: 빈도(%)

지역	가출 전 생활지역	가출 후 생활한 지역
서울	62(20.5)	182(55.0)
인천	19(6.3)	97(29.3)
부산	10(3.3)	68(20.5)
대구	13(4.3)	52(15.7)
광주	9(3.0)	49(14.8)
울산	1(0.3)	23(6.9)
대전	13(4.3)	63(19.0)
경기도	71(23.4)	158(47.7)
강원도	17(5.6)	40(12.1)
충청도	31(10.2)	64(19.3)
경상도	16(5.3)	31(9.4)
전라도	29(9.6)	57(17.2)
제주도	12(4.0)	13(3.9)

4) 인권 및 참여욕구

(1) 인권 및 사회참여의식

인권과 참여 여건에 대한 가출청소년들의 의식을 조사하였다. 청소년으로서 누려야 할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51.4%로 절반이 조금 넘었다. 진학문제 등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자신의 의사가 존중된다는 청소년은 67.6%, 적성에 맞는 문화예술 활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청소년은 62.7%로 과반수가 조금 넘었다. 한편, 징계(벌)를 받게 되었을 때 설명하고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청소년은 45.9%, 좋아하거나 원하는 모임이나 활동을 규제나 간섭 없이 할 수 있다는 청소년은 47.5%, 환경문제, 폭력문제, 성폭력문제 등 나와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청소년은 46.9% 등으로 과반수에 조금 미치지 못하였다.

〈표 VI-89〉 청소년인권의식 및 참여 여건

단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나는 청소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잘 알고 있다.	45 (13.6)	116 (35.0)	139 (42.0)	31 (9.4)	331 (100.0)
징계(벌)를 받게 되었을 때 내가 설명하고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68 (20.5)	111 (33.5)	134 (40.5)	18 (5.4)	331 (100.0)
내가 좋아하거나 원하는 모임이나 활동을 어떠한 규제나 간섭 없이 할 수 있다.	66 (19.9)	108 (32.6)	124 (37.5)	33 (10.0)	331 (100.0)
진학문제 등 나에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사보다는 부모님(보호자)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	117 (35.5)	106 (32.1)	81 (24.5)	26 (7.9)	330 (100.0)
내 적성에 맞는 문화예술 활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53 (16.1)	70 (21.2)	158 (47.9)	49 (14.8)	330 (100.0)
환경문제, 폭력문제, 성폭력문제 등 나와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	81 (24.5)	95 (28.7)	130 (39.3)	25 (7.6)	331 (100.0)

(2) 보호시설에서의 인권

가출청소년의 경우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호시설에서의 인권 보장의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입·퇴소와 관련된 자기 결정권에 관하여, 청소년들 가운데 입소가 다른 사람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86.4%이었고, 퇴소에 대한 자신의 결정이 존중되는 편이라는 청소년은 80.6%로, 입·퇴소와 관련하여 대다수 청소년이 자기 결정권이 존중된다고 경험하지만 그렇지 않은 청소년도 15~20% 나타났다. 보호시설 내에서 자율성과 사생활 보장에 관련하여,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청소년은 61.5%, 사생활이 보장된다는 청소년은 83.0%, 자신의 사진 사용에 대해 보호시설에서 동의를 구하는 편이라는 청소년은 70.0%로 나타나, 보호시설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비밀보장의 의무에 대한 민감성이 다소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원하면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편이라는 청소년이 76.7%, 원하면 외출을 할 수 있는 편이라는 청소년은 81.3%로 나타나, 보호시설 내에서 통신과 외출과 관련된 자율성이 종종 제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청소년의 동의를 기반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내가 번 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고 있다는 청소년은 68.9%로, 일부 청소년들은 자신이 번 돈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나타난다. 보호시설 내 규칙에 대한 의사표현과 참여에 관련하여, 보호시설에서 생활수칙을 만들 때 참여할 수 있는 편이라는 청소년은 77.4%, 생활수칙을 만들 때 나의 의사가 반영되는 편이라는 청소년은 65.9%로 나타났다.

〈표 VI-90〉 보호시설에서의 인권

단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정말 그렇다	전체
보호시설에 다른 사람이 나를 강제로 데려왔다	175 (62.7)	66 (23.7)	24 (8.6)	14 (5.0)	279 (100.0)
보호시설에서 퇴소에 대해 나의 결정이 존중되는 편이다	21 (7.5)	33 (11.8)	112 (40.1)	113 (40.5)	279 (100.0)
보호시설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39 (14.0)	68 (24.4)	73 (26.2)	99 (35.3)	279 (100.0)
보호시설에서 나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편이다	11 (4.0)	36 (12.9)	118 (42.4)	113 (40.6)	278 (100.0)
보호시설에서 나의 사진을 사용할 때 나의 동의를 구하는 편이다	25 (9.0)	58 (20.9)	92 (33.2)	102 (36.8)	277 (100.0)
보호시설에서 원하면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편이다	19 (6.8)	46 (16.5)	104 (37.3)	110 (39.4)	279 (100.0)
보호시설에서 원하면 외출을 할 수 있는 편이다	19 (6.8)	33 (11.9)	107 (38.5)	119 (42.8)	278 (100.0)
보호시설에 있는 동안 내가 번 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잘 알고 있다	46 (16.8)	39 (14.2)	90 (32.8)	99 (36.1)	274 (100.0)
보호시설에서 생활수칙을 만들 때 참여할 수 있다	21 (7.5)	42 (15.1)	118 (42.3)	98 (35.1)	279 (100.0)
보호시설에서 생활수칙을 만들 때 나의 의견이 반영되는 편이다	34 (12.3)	60 (21.7)	106 (38.4)	76 (27.5)	276 (100.0)

3. 성별에 따른 복지실태 및 욕구

가출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의 복지실태와 욕구를 비교하여 조사하였다. 전체 청소년 331명 중에서 남자청소년은 116명(35.0%)이고 여자청소년은 215명(65.0%)이었다.

1) 기초생활실태 및 생존욕구

(1) 의식주

여자청소년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적이 있는 경험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규칙적인 식사, 계절에 맞고 깨끗한 의복, 혼자 사용하는 방이 있음, 노숙 경험 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VI-91> 성별에 따른 의식주생활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적이 있다	남자 (n=115)	1.87	0.89	-3.101**	325
	여자 (n=212)	2.21	0.97		

**p<.01

(2) 건강

신체적 건강과 관련하여, 건강검진 유무는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심리사회적 건강에 대해서는, 자아존중감의 경우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높았고, 우울·불안은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불안 수준이 높아, 심리적인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VI-92> 성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자아존중감	남자 (n=113)	28.18	5.67	3.605***	324
	여자 (n=213)	25.83	5.56		
우울·불안	남자 (n=112)	8.62	5.23	-5.121***	322
	여자 (n=212)	11.90	5.63		

***p<.001

흡연과 음주의 경우, 성별에 따른 흡연정도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음주량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적어도 한 번 이상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86.0%인데 비해, 남자청소년은 69.0%로 적었다. 또, 여자청소년 중 1주일에 1-2번이나 거의 매일 음주하는 청소년은 21.5%로 남자청소년(18.1%)에 비해 조금 더 많아 여자청소년이 음주율이 높고 음주빈도가 잦은 경향을 보인다. 성별에 따른 자살행위나 자살기도의 경험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VI-93> 성별에 따른 평소 음주량

구분	마신 적 없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1달에 1-2번 정도	1주일에 1-2번 정도	거의 매일	전체	χ^2 값
남자	36 (31.0)	48 (41.4)	11 (9.5)	15 (12.9)	6 (5.2)	116 (100.0)	15.539**
여자	30 (14.0)	121 (58.5)	17 (7.9)	37 (17.3)	9 (4.2)	214 (100.0)	

**p<.01

2) 문화여가활동 및 발달욕구

(1) 교육

성별에 따라 정규학교 재학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정규학교에 다니고 있는 남자청소년은 30.4%인데 비해, 여자청소년은 44.2%로 더 많았다.

<표 VI-94> 성별에 따른 정규학교 재학 여부

구분	그렇다	아니다	전체	χ^2 값
남자	35(30.4)	80(69.6)	115(100.0)	5.934*
여자	95(44.2)	120(55.8)	215(100.0)	

*p<.05

복학을 했거나 복학을 생각한 경험여부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복학할 때의 어려움에서는 몇 가지 항목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여자청소년은 학교 선생님이 나를 나쁘게 볼까봐 두렵다(남자 30.0%, 여자 45.8%),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남자 51.3%, 여자 66.7%) 등에 대한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였다. 한편, 복학의 방법을 모름, 서류절차의 복잡함, 학교에서의 거부, 등록비와 교재비 등 돈에 대한 걱정,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아 어려움, 부모나 보호자가 없다는 어려움 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정규학교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는 비율이 더 많기는 하지만, 복학하는 경우에는 복학 이후 학교 적응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VI-95〉 성별에 따른 복학할 때의 어려움

단위: 빈도(%)

문항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값
학교 선생님이 나를 나쁘게 볼까봐 두렵다	남자	19(47.5)	9(22.5)	9(22.5)	3(7.5)	40(100.0)	9.352*
	여자	18(21.7)	27(32.5)	33(39.8)	5(6.0)	83(100.0)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남자	18(43.9)	2(4.9)	12(29.3)	9(22.0)	41(100.0)	12.341**
	여자	14(16.7)	14(16.7)	36(42.9)	20(23.8)	84(100.0)	

*p<.05 **p<.01

(2) 정보·문화

정보와 문화의 영역에서 정보매체의 보유는 컴퓨터, 인터넷, 이동전화 중 인터넷과 이동전화의 경우 남녀 간에 차이를 보였다.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보다 인터넷(남자 91.3%, 여자 97.9%)과 이동전화(남자 29.3%, 여자 42.8%)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96> 성별에 따른 인터넷과 이동전화 보유 여부

항목	구분	보유함	보유안함	전체	χ^2 값
인터넷	남자	94(91.3)	9(8.7)	103(100.0)	7.106**
	여자	189(97.9)	4(2.1)	193(100.0)	
이동전화	남자	34(29.3)	82(70.7)	116(100.0)	5.808*
	여자	92(42.8)	123(57.2)	215(100.0)	

*p<.05 **p<.01

인터넷과 이동전화의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이용용도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인터넷의 경우, 남자청소년은 과반수 이상(64.8%)이 게임이나 오락을 하는데 비해, 여자청소년들은 게임이나 오락(34.0%)보다는 메신저, 통신 등의 교제(40.8%)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이동전화)의 경우에는 여자청소년은 메신저, 통신 등 교제활동(47.3%)과 여가활동(17.1%)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남자청소년도 메신저, 통신 등 교제활동(25.8%)과 여가활동(12.8%)에 많이 사용하지만 비율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낮으며 그 외 정보검색과 자료관리(5.1%) 등 다른 용도에의 사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여자청소년들은 교제를 위하여, 남자청소년들은 게임이나 오락을 위하여 정보기기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으며, 두 집단 모두 그 외의 용도에 대한 정보 활용 수준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VI-97> 성별에 따른 정보기기 이용용도

항목	구분	정보검색/자료관리	게임/오락	학습/교육	교제(메신저, 통신 등)	여가활동	쇼핑/예약	동호회	신문/뉴스/잡지	기타	전체	χ^2 값
인터넷	남자	11 (10.2)	70 (64.8)	6 (5.6)	17 (15.7)	-	2 (1.9)	-	-	2 (1.9)	108 (100.0)	44.739 ***
	여자	28 (13.6)	70 (34.0)	2 (1.0)	84 (40.8)	11 (5.3)	1 (0.5)	3 (1.5)	-	7 (3.4)	206 (100.0)	
전화(이동전화)	남자	2 (5.1)	3 (7.7)	-	10 (25.6)	5 (12.8)	1 (2.6)	-	-	18 (46.2)	39 (100.0)	15.625*
	여자	1 (0.8)	8 (6.2)	1 (0.8)	61 (47.3)	22 (17.1)	-	3 (2.3)	-	33 (25.6)	129 (100.0)	

*p<.05 ***p<.001

(3)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의 인지도나 이용률에서 남녀 간에 차이를 알아보았다. 먼저,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 근로청소년회관, 자활지원관, 청소년쉼터, 그룹 홈, 청소년상담센터, 자원봉사센터, 고용안정센터, 박물관, 도서관 등의 인지도와 이용률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남자 청소년의 경우,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등 생활권 수련시설(남자 53.7%, 여자 37.4%), 종합사회복지관(남자 24.1%, 여자 10.2%), 직업훈련원(남자 13.2%, 여자 4.9%)등에서 여자청소년에 비해 인지도는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이용률은 더 높았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공부방에 대해 인지도(남자 52.8%, 여자 67.6%)와 이용률(남자 19.4%, 여자 24.2%)이 모두 높았다. 한편, 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남자 28.0%, 여자 55.9%), 미혼모시설(남자 32.4%, 여자 49.0%)등은 여성의 인지도와 이용률이 높았다. 미술관(남자 72.9%, 여자 85.9%)의 경우 여자청소년의 인지도가 높았지만 이용률에는 차이가 없었다. 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이나 미혼모시설과 같이 여성에게 특화된 기관이외의 청소년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청소년공부방을 제외하고 대체로 남자청소년의 이용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VI-98> 성별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인지 및 이용여부

항목	구분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으나 이용 안했다	이용해 본적 있다	전체	χ^2 값
문화의 집·청소년수련관	남자	31(28.7)	19(17.6)	58(53.7)	108(100.0)	11.106**
	여자	59(28.6)	70(34.0)	77(37.4)	206(100.0)	
청소년공부방	남자	51(47.2)	36(33.3)	21(19.4)	108(100.0)	6.705*
	여자	67(32.4)	90(43.5)	50(24.2)	207(100.0)	
종합사회복지관	남자	42(38.9)	40(37.0)	26(24.1)	108(100.0)	17.061***
	여자	63(30.7)	121(59.0)	21(10.2)	205(100.0)	
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남자	77(72.0)	29(27.1)	1(0.9)	107(100.0)	22.051***
	여자	89(44.1)	107(53.0)	6(3.0)	202(100.0)	

항목	구분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으나 이용 안했다	이용해 본적 있다	전체	χ^2 값
미혼모시설	남자	73(67.6)	30(27.8)	5(4.6)	108(100.0)	14.583**
	여자	103(51.0)	97(48.0)	2(1.0)	202(100.0)	
직업훈련원 (구직업보도원)	남자	47(44.3)	45(42.5)	14(13.2)	106(100.0)	6.760*
	여자	101(49.5)	93(45.6)	10(4.9)	204(100.0)	
미술관	남자	29(27.1)	27(25.2)	51(47.7)	107(100.0)	9.278*
	여자	29(14.4)	76(37.6)	97(48.0)	202(100.0)	

*p<.05 **p<.01 ***p<.001

성별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의 만족도에서는, 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관 등 생활권수련시설, 근로청소년회관, 청소년공부방, 종합사회복지관, 자활지원관, 청소년쉼터, 그룹 홈, 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상담센터, 자원봉사센터, 고용안정센터, 미혼모센터, 직업훈련원,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청소년수련원 등 자연권 수련시설의 경우 남자청소년 가운데 25.0%가 매우 만족하고 여자청소년 가운데 7.1%가 매우 만족한 등의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는 남녀 청소년의 만족도의 차이가 없으나, 자연권 수련시설에 대해 여자청소년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들 시설에서 여자청소년들의 특성과 요구에 덜 민감한 것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표 VI-99> 성별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만족도

항목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전체	χ^2 값
청소년수련원 · 유스호스텔 등	남자	2(3.8)	8(15.4)	29(55.8)	13(25.0)	52(100.0)	8.693*
	여자	3(3.6)	18(21.4)	57(67.9)	6(7.1)	84(100.0)	

*p<.05

국가 또는 민간단체의 청소년대상 복지서비스로서, 개별상담, 가족상담, 질병상담, 치료비지원, 장학금지원, 학업학습지도, 숙식제공, 캠프 등 수련활동, 문화·예술활동, 약물예방교육, 성교육, 인권교육 등에 대한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에서는 남녀 가출청소년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4) 성정체성과 성행동

성정체성에서는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남자청소년 중 동성애자는 4.7%인 것에 비해 여자청소년은 7.5%로 더 많아 여자청소년 동성애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한편 여자청소년 가운데 양성애자는 4.7%로 남자청소년이 2.8%인 것에 비해 더 많고, 트랜스젠더인 남자청소년은 5.6%로 여자청소년이 0.5%인 것보다 많았다. 전체적으로 남녀 청소년 가운데 성소수자 청소년의 비율은 각각 13.1%, 12.7%로 큰 차이가 없지만, 남자청소년의 경우 트랜스젠더의 이슈를, 여자청소년의 경우 동성애의 이슈를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성정체성과 관련된 청소년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표 VI-100> 성별에 따른 성정체성

구분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전체	χ^2 값
남자	93(86.9)	5(4.7)	3(2.8)	6(5.6)	107(100.0)	10.098*
여자	186(87.3)	16(7.5)	10(4.7)	1(0.5)	213(100.0)	

*p<.05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인 가출청소년 41명 중 성정체성 때문에 놀림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은 여자청소년들 사이에서 더 높게 나타나(남자 7.1%, 여자 37.0%), 여자청소년들의 경우 성정체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여자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성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표 VI-101〉 성별에 따른 성정체성으로 놀림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값
남자	1(7.1)	13(92.9)	14(100.0)	4.197*
여자	10(37.0)	17(63.0)	27(100.0)	

*p<.05

성별에 따른 성관계 경험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가출청소년 가운데 성관계 경험이 있는 남자청소년은 28.1%이었고, 여자청소년은 41.1%로 더 높았다. 그러나 임신을 했거나 임신을 시킨 경험, 대가성 성관계 경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성관계에 더욱 많이 노출되어 있어, 여자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성교육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로부터의 보호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도 대가성 성관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매매의 문제가 여자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표 VI-102〉 성별에 따른 성관계 경험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값
남자	32(28.1)	82(71.9)	114(100.0)	5.441*
여자	86(41.1)	123(58.9)	209(100.0)	

*p<.05

3) 사회지원체계 및 보호육구

(1) 가족

가출 횟수와 첫 가출 연령에서 남녀 가출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남자청소년의 평균 가출 횟수는 15.48회인데 비해 여자청소년은 6.36회로 적었고, 남자청소년의 첫 가출 연령 평균은 13.45세인데 비해 여자청소년은 14.38세로 조금 더 높았다. 한편 총 가출기간은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남자청소년은 더 어린 나이에 가출하여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행동을 더 많이 반복하는 것에 비해, 여자청소년은 조금 더 늦은 나이에 집에서 나오며 한 번 나온 뒤에 집밖에서 지내는 기간이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VI-103> 성별에 따른 가출 경험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가출횟수	남자 (n=105)	15.48	28.03	3.235**	116.99
	여자 (n=198)	6.36	9.56		
첫가출연령	남자 (n=116)	13.45	2.79	-3.092**	196.67
	여자 (n=211)	14.38	2.23		

**p<.01

부모의 거주지를 아는지 여부, 부모님과의 연락빈도, 귀가욕구 등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가출 후 귀가방법에서는 자발적으로 귀가한 경험이 있는 남자청소년은 56.2%인데 비해 여자청소년은 64.6%로 더 많았고, 경찰이 보내 귀가한 경험이 있는 남자청소년은 42.0%인데 비해 여자청소년은 29.4%로 더 적었다. 여자 가출청소년의 경우 자발적인 귀가가 더 많고 경찰에 의한 귀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밖에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찾아 귀가하거나 쉼터 등 보호시설에 있다가 귀가한 경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귀가 후 재가출까지 기간, 귀가 시 동행해 준 사람, 귀가 시 필요한 도움 등에서도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VI-104> 성별에 따른 가출 후 귀가 방법

단위: 빈도(%)

문항	구분	전혀없음	가끔	자주	거의항상	전체	χ^2 값
내가 자발적으로 귀가하였다	남자	49 (43.8)	30 (26.8)	10 (8.9)	23 (20.5)	112 (100.0)	7.796*
	여자	73 (35.4)	78 (37.9)	28 (13.6)	27 (13.1)	206 (100.0)	
경찰이 집으로 보냈다	남자	65 (58.0)	24 (21.4)	11 (9.8)	12 (10.7)	112 (100.0)	9.815*
	여자	142 (70.6)	36 (17.9)	17 (8.5)	6 (3.0)	201 (100.0)	

*p<.05

부모의 청소년학대에 대해서는 여자청소년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높고, 남자청소년의 성적 학대 경험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신체적 학대와 방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여자청소년의 경우 정서적 학대 경험에, 남자청소년의 경우 성적 학대 경험에 더욱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105> 성별에 따른 부모의 청소년학대

항목	구분	평균	표준 편차	t값	자유도
신체적 학대	남자 (n=116)	1.82	1.10	0.021	328
	여자 (n=214)	1.82	0.98		
정서적 학대	남자 (n=116)	2.28	1.39	-2.070*	328
	여자 (n=214)	2.61	1.38		
방임	남자 (n=114)	1.86	0.88	-1.280	322
	여자 (n=210)	2.00	0.93		
성적학대	남자 (n=116)	1.23	0.69	2.328*	156.33
	여자 (n=214)	1.09	0.39		

*p<.05

(2) 학교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경험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교사에 대한 존중 등 긍정적 경험의 경우에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교사로부터의 차별대우, 모욕, 매, 성희롱 등 부정적 경험의 경우에는 남녀 간에 차이를 보였다. 즉,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학교에서 차별대우나 폭력 등 부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06>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

항목	구분	평균	표준 편차	t값	자유도
긍정적 경험	남자 (n=114)	2.67	1.26	1.037	208.96
	여자 (n=209)	2.53	1.10		
부정적 경험	남자 (n=115)	2.21	0.96	-1.983*	319
	여자 (n=206)	2.42	0.90		

*p<.05

(3) 지역사회

사회적 지지 경험은 부모, 형제자매, 친척, 학교친구·선후배, 교사, 전문가 등의 지지원으로부터 받는 지지의 총 합계를,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네 가지에 대해 조사하여 성별에 따라 비교하였다.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영역은 평가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이었고,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평가적 지지로서 능력을 존중받는지에 대한 남자청소년의 평균은 14.76으로서 여자청소년의 평균인 13.60보다 높았다. 또 정보적 지지로서 의논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을 때 도움을 받는지에 대한 남자청소년의 평균은 14.01로 여자청소년의 평균인 13.00보다 높았다.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거나 의논을 하는데 도움을 적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

<표 VI-107>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

항목	구분	총점	표준 편차	t값	자유도
나의 능력을 존중해 준다.	남자 (n=116)	14.76	4.43	2.405*	329
	여자 (n=215)	13.60	4.01		
내가 무언가 의논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을 때 도움이 된다.	남자 (n=116)	14.01	4.18	2.189*	329
	여자 (n=215)	13.00	3.93		

*p<.05

지난 1년 동안 집이나 학교를 제외한 지역사회에서의 피해 경험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돈을 빼앗긴 경험, 심하게 두들겨 맞은 경험, 칼이나 흉기로 위협받거나 다친 경험 등에서는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성추행이나 강간을 당한 경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추행이나 강간을 당한 남자청소년은 4.3%로 모두 1회였지만, 여자청소년의 경우 15.0%가 경험하였고 2회 이상 경험한 청소년이 6.1%를 차지하여, 여자청소년의 경우 성추행이나 강간 피해에 더 많이 그리고 자주 노출됨을 보여준다.

<표 VI-108> 성별에 따른 지역사회 피해 경험

단위: 빈도(%)

문항	구분	전혀없다	1번	2-3번	4번 이상	전체	χ^2 값
성추행이나 강간을 당한 적이 있다.	남자	111 (95.7)	5 (4.3)	-	-	116 (100.0)	9.330*
	여자	184 (85.0)	17 (7.9)	12 (5.6)	1 (0.5)	214 (100.0)	

*p<.05

집, 학교, 다른 장소 등에서 피해 받은 경우 가까운 친구, 부모나 성인, 공식적 기관 등에 알린 경험이 성별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았다. 가까운 친구에게 알린 경험에 대해서는 여자청소년이 39.1%인데 비해 남자청소년은 19.8%에 그쳐 더 낮았다. 여자청소년들은 피해를 당했을 때 남자청소년에 비해 친구에게 더욱 쉽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모나 성인, 공식적 기관에 알린 경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비교적 친구를 통해 피해사실을 알리는 편이므로, 청소년이 적절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처요령을 친구를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VI-109> 성별에 따른 피해 경험 알린 사람

단위: 빈도(%)

문항	구분	그렇다	아니다	전체	χ^2 값
가까운 친구	남자	23(19.8)	93(80.2)	116(100.0)	12.753***
	여자	84(39.1)	131(60.9)	84(100.0)	

***p<.001

경찰과의 관계에서 죄를 자백하도록 위협을 당한 경험이 있는 남자청소년은 33.0%로 여자청소년이 19.2%인 것에 비해 높고, 억울하게 범죄인 취급을 당한 경험은 남자청소년이 40.9%로 여자청소년이 19.1%인 것에 비해 높았다. 그 밖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호 받음, 집이 어디인지 말하도록 위협당함, 무시당함, 강제로 귀가 조치됨 등의 경험에서는 남녀 간에 유의미한 나타나지 않았다. 남자청소년의 경우 경찰과의 관계에서 위협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다루어지는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남자청소년들에 대한 경찰의 처우를 제고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표 VI-110> 성별에 따른 경찰과의 경험

단위: 빈도(%)

문항	구분	전혀없다	1번	2-3번	4번 이상	전체	χ^2 값
죄를 자백하라고 경찰에게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	남자	77 (67.0)	15 (13.0)	11 (9.5)	12 (10.4)	115 (100.0)	16.252**
	여자	172 (80.8)	24 (11.3)	14 (6.6)	3 (1.4)	213 (100.0)	
경찰하게 억울하게 범죄인 취급을 당한 적이 있다.	남자	68 (59.1)	28 (24.2)	10 (8.7)	9 (7.8)	115 (100.0)	24.876***
	여자	174 (80.9)	29 (13.5)	11 (5.1)	1 (0.5)	215 (100.0)	

p<.01 *p<.001

(4) 직장근로

일(아르바이트)을 한 경험 여부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일을 해서 번 한 달 평균 임금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20만원 미만의 저소득인 남자청소년은 20.6%인데 비해 여자청소년이 38.3%로 많고, 50만원 이상의 고소득인 남자청소년은 61.9%인데 비해 여자청소년은 30.5%로 적어,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일(아르바이트)을 통해 더 높은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의 피해 경험에서는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111> 성별에 따른 일(아르바이트)을 통해서 1달 평균 번 돈

단위: 빈도(%)

구분	10만원 미만	10-20만원	20-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 -100만원	100만원 이상	전체	χ^2 값
남자	9 (14.3)	4 (6.3)	2 (3.2)	6 (9.5)	3 (4.8)	28 (44.4)	11 (17.5)	63 (100.0)	19.745**
여자	36 (28.1)	13 (10.2)	10 (7.8)	18 (14.1)	12 (9.4)	33 (25.8)	6 (4.7)	128 (100.0)	

**p<.01

일(아르바이트)을 포함하여 그 밖에도 가출 후 돈을 주로 얻는 방법에서는 부모님(보호자)에게 받은 여자청소년이 82.3%인데 비해 남자청소년은 70.2%로 적었고, 이전에 모아 둔 돈을 사용한 남자청소년이 44.6%인데 비해 여자청소년은 55.3%로 많았다. 그 외에 사회복지기관(시설)에서 받음,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 친구나 아는 사람에서 빌리거나 얻음,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거나 빼앗음, 구걸이나 앵벌이를 함, 원조교제나 성매매를 함 등의 방법에서는 남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112> 성별에 따른 가출 후 돈을 얻는 방법

단위: 빈도(%)

문항	구분	전혀없음	가끔	자주	거의 항상	전체	χ^2 값
부모님(보호자)에게 받는다	남자	34 (29.8)	39 (34.2)	19 (16.7)	22 (19.3)	114 (100.0)	9.547*
	여자	37 (17.7)	79 (37.8)	28 (13.4)	65 (31.1)	209 (100.0)	
이전에 모아 둔 돈을 사용한다	남자	62 (55.4)	27 (24.1)	15 (13.4)	8 (7.1)	112 (100.0)	8.676*
	여자	93 (44.7)	81 (38.9)	27 (13.0)	7 (3.4)	208 (100.0)	

*p<.05

(6) 보호시설

남녀 청소년들이 보호시설을 이용한 경험에 대해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보호시설에서 지낸 기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보호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없거나 1주일 미만인 남자청소년이 25.0%인데 비해 여자청소년은 33.7%로 많았고, 1년 이상 보호시설을 이용한 남자청소년은 19.8%인데 비해 여자청소년은 10.3%로 적었다. 남자청소년의 경우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기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소년들이 가출 후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이유에서는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보호시설의 식사, 잠자리, 의료지원,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보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VI-113> 성별에 따른 보호시설에서 지낸 기간

단위: 빈도(%)

구분	없음	1일- 1주일 미만	1주일- 1개월	1개월- 6개월	6개월- 1년	1년- 3년	3년 이상	전체	χ^2 값
남자	10 (8.6)	19 (16.4)	16 (13.8)	28 (24.1)	20 (17.2)	20 (17.2)	3 (2.6)	116 (100.0)	12.974*
여자	40 (18.7)	32 (15.0)	32 (15.0)	55 (25.7)	33 (15.4)	15 (7.0)	7 (3.3)	214 (100.0)	

*p<.05

가출 후 지역을 선택하는 기준에서 남녀 차이를 살펴본 결과, 친구가 있는 곳이 중요하다는 여자청소년은 84.2%로 남자청소년 73.9%보다 많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곳이 중요하다는 여자청소년은 91.6%로 남자청소년 78.9%보다 많았다. 그 외에 놀거리가 많은 곳, 사람이 많은 곳, 쉼터 등 서비스가 있는 곳, 집에서 먼 곳,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찾지 못하는 곳 등의 기준에서는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자신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개인적 자원을 지역을 선택하는데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VI-114> 성별에 따른 가출 후 지역선택 기준

단위: 빈도(%)

문항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조금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체	χ^2 값
친구가 있는 곳	남자	17(14.8)	13(11.3)	38(33.0)	47(40.9)	115(100.0)	13.593**
	여자	8(3.8)	24(11.3)	72(33.0)	109(51.2)	213(100.0)	
나를 도와 줄 사람이 있는 곳	남자	8(7.0)	16(14.0)	33(28.9)	57(50.0)	114(100.0)	8.947*
	여자	7(3.3)	13(6.1)	76(35.5)	118(56.1)	214(100.0)	

*p<.05 **p<.01

4) 인권 및 참여욕구

(1) 인권 및 사회참여의식

인권에 대한 이해와 참여 정도에 대해 남녀 청소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청소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매우 잘 알고 있다는 남자청소년은 13.8%인데 비해 여자청소년은 7.0%로 다소 낮았다. 그 외에, 징계(벌)를 받게 되었을 때 설명하고 변호할 기회를 가짐, 좋아하거나 원하는 모임이나 활동을 할 수 있음, 진학문제 등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의사가 존중됨, 적성에 맞는 문화예술 활동을 선택할 수 있음, 사회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할 통로가 있음 등의 권리에 대해서는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VI-115> 성별에 따른 청소년인권인식 및 참여 여건

단위: 빈도(%)

문항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값
나는 청소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잘 알고 있다	남자	21 (18.1)	34 (29.3)	45 (38.8)	16 (13.8)	116 (100.0)	8.520*
	여자	24 (11.2)	82 (38.1)	94 (43.7)	15 (7.0)	215 (100.0)	

*p<.05

(2) 보호시설에서의 인권

보호시설에서의 인권 보장 경험 가운데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 것은 보호시설 입소, 외출, 전화사용 부문이었다. 먼저 보호시설에 다른 사람이 나를 강제로 데려왔다는 남자청소년은 16.2%로 여자청소년이 12.0%인 것에 비해 많아, 남자청소년이 강제입소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보호시설에서 원하면 외출을 할 수 있는 편이라는 남자청소년은 76.5%이고 여자청소년은 84.3%로, 남자청소년에 대해 외출에 대한 통제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원하면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남자청소년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11.3%)와 정말 그렇다(47.2%)의 극단적인 비율이 여자청소년(각각 4.0%, 34.7%)에 비해 많았다. 이것은 남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시설에서의 규칙이 시설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퇴소에 대한 자기결정권, 종교의 자유, 사생활 보장, 사진사용에 대해 동의를 구함, 자신이 번 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고 있음, 생활수칙을 만들 때 참여할 수 있음, 생활수칙 만들 때 의사가 반영됨 등에 대해서는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VI-116> 성별에 따른 보호시설에서의 인권

단위: 빈도(%)

문항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정말 그렇다	전체	χ^2 값
보호시설에 다른 사람이 나를 강제로 데려왔다	남자	66 (62.9)	22 (21.0)	6 (5.7)	11 (10.5)	105 (100.0)	12.149**
	여자	109 (62.6)	44 (25.3)	18 (10.3)	3 (1.7)	174 (100.0)	
보호시설에서 원하면 외출할 수 있는 편이다	남자	13 (12.3)	12 (11.3)	36 (34.0)	45 (42.5)	106 (100.0)	8.351*
	여자	6 (3.5)	21 (12.2)	71 (41.3)	74 (43.0)	172 (100.0)	
보호시설에서 원하면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편이다	남자	12 (11.3)	11 (10.4)	33 (31.1)	50 (47.2)	106 (100.0)	13.309**
	여자	7 (4.0)	35 (20.2)	71 (41.0)	60 (34.7)	173 (100.0)	

*p<.05 **p<.01

4. 가출기간에 따른 복지실태 및 욕구

청소년의 총 가출기간에 따라 3개월을 기준으로 단기가출과 장기가출로 분류하여 복지실태와 욕구를 조사하였다. 전체 청소년 331명 중에서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출청소년은 124명(37.5%)이고 3개월 초과인 장기 가출청소년은 207명(62.5%)이었다.

1) 기초생활실태 및 생존욕구

(1) 의식주

의식주, 의료·보건 및 건강 등 기초생활에 대해 남녀 가출청소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의식주 생활에 관하여,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이나 더러운 옷을 입은 적이 있는 단기 가출청소년은 18.0%인데 비해, 장기 가출청소년은 28.6%로 더 많았다. 혼자 사용하는 방이 있는 단기 가출청소년은 53.3%인데 비해 장기 가출청소년은 31.8%로 적었고, 잘 곳이 없어서 밖에서 자거나 밤새도록 돌아다닌 적이 있는 단기 가출청소년은 48.3%인데 비해 장기 가출청소년은 60.4%로 더 많았다. 장기 가출청소년의 경우 의복과 주거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경험과 규칙적인 식사에서는 가출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VI-117> 가출기간에 따른 의식주생활

항목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자유도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이나 더러운 옷을 입은 적이 있다.	단기	49 (40.2)	51 (41.8)	17 (13.9)	5 (4.1)	122 (100.0)	9.399*
	장기	60 (29.6)	85 (41.9)	54 (26.6)	4 (2.0)	203 (100.0)	
혼자 사용하는 내 방이 있다.	단기	42 (35.0)	14 (11.7)	25 (20.8)	38 (32.5)	120 (100.0)	14.726**
	장기	106 (52.7)	31 (15.4)	27 (13.4)	37 (18.4)	201 (100.0)	
잘 곳이 없어서 밖에서 자거나 밤새도록 돌아다닌 적이 있다.	단기	33 (27.0)	30 (24.6)	48 (39.3)	11 (9.0)	122 (100.0)	11.434*
	장기	36 (17.6)	45 (22.0)	78 (38.0)	46 (22.4)	205 (100.0)	

*p<.05 **p<.01

(2) 건강

신체적 건강과 관련하여, 건강검진 유무는 가출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심리·사회적 건강에 대해서는, 자아존중감과 우울·불안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비행에서는 장기 가출청소년의 비행 수준이 단기 가출청소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흡연, 음주, 자살행위나 자살기도의 경험에서도 가출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VI-118〉 가출기간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비행	단기 (n=120)	7.63	4.94	-2.180*	323
	장기 (n=202)	8.77	4.30		

*p<.05

2) 문화여가활동 및 발달육구

(1) 교육

가출기간에 따라 정규학교 재학여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단기 가출청소년 가운데 정규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은 62.6%인데 비해, 장기 가출청소년 가운데에서는 25.6%로 현저히 적어, 가출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규학교에서 이탈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표 VI-119〉 가출기간에 따른 정규학교 재학 여부

구분	그렇다	아니다	전체	χ^2 값
단기	77(62.6)	46(37.4)	123(100.0)	44.235***
장기	53(25.6)	154(74.4)	207(100.0)	

***p<.001

복학을 했거나 복학을 생각한 경험은 장기 가출청소년이 단기 가출청소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단기 31.4%, 장기 44.8%).

〈표 VI-120〉 가출기간에 따른 복학경험이나 복학의도 여부

구분	그렇다	아니다	전체	χ^2 값
단기	38(31.4)	83(68.6)	121(100.0)	5.639*
장기	90(44.8)	111(55.2)	201(100.0)	

*p<.05

복학할 때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장기 가출청소년 가운데 학교에서 입학(복학)을 거부한다는 청소년이 29.8%인데 비해 단기 가출청소년은 13.9%로 낮아, 장기 가출청소년의 경우 복학 거부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 학교에 의한 교육권 침해가 우려된다. 그 외에, 복학 방법을 모름, 서류 절차가 복잡함, 등록비 등 돈이 걱정임, 교사가 나쁘게 볼까 두려움, 학교 친구와의 관계, 학업, 불안정한 주거, 부모나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인한 어려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121> 가출기간에 따른 복학할 때의 어려움

단위: 빈도(%)

문항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값
학교에서 내가 입학(복학)하는 것을 거부한다.	단기	9(25.0)	22(61.1)	5(13.9)	-	36(100.0)	14.312**
	장기	36(42.9)	23(27.4)	15(17.9)	10(11.9)	84(100.0)	

**p<.01

(2) 정보·문화

정보와 문화의 영역에서 정보매체의 보유는 컴퓨터, 인터넷, 이동전화 중 이동전화의 경우에만 가출기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단기 가출청소년이 장기 가출청소년보다 이동전화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단기 가출청소년은 48.4%, 장기 가출청소년은 31.9%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과 이동전화의 이용시간과 이용용도에 대해서는 가출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VI-122> 가출기간에 따른 이동전화 보유 여부

항목	구분	보유함	보유안함	전체	χ^2 값
이동전화	단기	60(48.4)	64(51.6)	124(100.0)	8.958**
	장기	66(31.9)	141(68.1)	207(100.0)	

**p<.01

(3)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의 인지도나 이용률에서 가출기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청소년쉼터와 직업훈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청소년쉼터의 경우 단기 가출청소년의 85.1%가 알고 있고 71.1%가 이용하였으며, 장기 가출청소년의 94.5%가 알고 있고 88.4%가 이용하여, 장기 가출청소년의 인지도와 이용률이 높았다. 직업훈련원의 경우 단기 가출청소년의 43.1%가 알고 6.0%가 이용하였으며, 장기 가출청소년의 57.7%가 알고 8.8%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역시 장기 가출청소년의 인지도와 이용률이 높았다. 장기 가출청소년은 청소년쉼터와 직업훈련원과 같이 생존과 독립과 관련된 서비스 이용의 욕구가 더 높음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문화의 집·청소년수련관 등 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등 자연권 수련시설, 근로청소년회관, 청소년공부방, 종합복지관, 자활지원관, 그룹 홈, 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청소년상담센터, 자원봉사센터, 미혼모시설, 고용안정센터,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의 인지도와 이용률에는 가출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이와 같은 기관(시설)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만족도에서는 가출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VI-123〉 가출기간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인지 및 이용여부

항목	구분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으나 이용한적 없다	이용해 본적 있다	전체	χ^2 값
청소년쉼터	단기	18(14.9)	17(14.0)	86(71.1)	121(100.0)	15.368***
	장기	11(5.5)	12(6.0)	176(88.4)	199(100.0)	
직업훈련원	단기	66(56.9)	43(37.1)	7(6.0)	116(100.0)	6.261*
	장기	82(42.3)	95(49.0)	17(8.8)	194(100.0)	

*p<.05 ***p<.001

국가 또는 민간단체의 청소년대상 복지서비스 가운데 가족상담, 질병상담, 장학금 및 생활비지원, 인권교육 등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에서는 가출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개별상담, 치료비지원, 학업학습지도,

숙식제공, 캠프 등 수련활동, 문화·예술활동, 약물예방교육, 성교육 등의 인지도와 이용률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인지도를 살펴보면, 개별상담(장기 80.3%, 단기 67.5%), 치료비지원(장기 68.7%, 단기 58.6%), 학업학습지도(장기 72.6%, 단기 63.0%), 숙식제공(장기 82.4%, 단기 67.2%), 캠프 등 수련활동(장기 82.3%, 단기 69.2%), 문화·예술활동(장기 80.7%, 단기 66.7%), 약물예방교육(장기 68.5%, 단기 58.6%), 성교육(장기 84.9%, 단기 78.0%) 등에서 장기 가출청소년의 인지도가 높았다. 이용률 역시 개별상담(장기 54.2%, 단기 38.3%), 치료비지원(장기 44.9%, 단기 24.1%), 학업학습지도(장기 36.5%, 단기 22.7%), 숙식제공(장기 61.3%, 단기 35.3%), 캠프 등 수련활동(장기 59.6%, 단기 41.9%), 문화·예술활동(장기 45.2%, 단기 28.2%), 약물예방교육(장기 36.0%, 단기 18.1%), 성교육(장기 59.8%, 단기 42.4%) 등에서 장기 가출청소년의 이용률이 높았다. 장기 가출청소년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접하고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이상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가출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VI-124〉 가출기간에 따른 복지서비스 인지 및 이용여부

항목	구분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이용해 본 적 있다	전체	χ^2 값
개별상담	단기	39(32.5)	35(29.2)	46(38.3)	120(100.0)	9.232*
	장기	40(19.7)	53(26.1)	110(54.2)	203(100.0)	
아플 때 치료비 지원	단기	48(41.4)	40(34.5)	28(24.1)	116(100.0)	13.666**
	장기	62(31.3)	47(23.7)	89(44.9)	198(100.0)	
학업학습지도	단기	44(37.0)	48(40.3)	27(22.7)	119(100.0)	7.100*
	장기	54(27.4)	71(36.0)	72(36.5)	197(100.0)	
숙식제공	단기	39(32.8)	38(31.9)	42(35.3)	119(100.0)	20.620***
	장기	35(17.6)	42(21.1)	122(61.3)	199(100.0)	

항목	구분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이용해 본 적 있다	전체	χ^2 값
캠프 등 수련활동	단기	36(30.8)	32(27.4)	49(41.9)	117(100.0)	10.590**
	장기	35(17.7)	45(22.7)	118(59.6)	198(100.0)	
문화·예술활동	단기	39(33.3)	45(38.5)	33(28.2)	117(100.0)	11.518**
	장기	38(19.3)	70(35.5)	89(45.2)	197(100.0)	
약물예방 교육	단기	48(41.4)	47(40.5)	21(18.1)	116(100.0)	11.361**
	장기	63(31.5)	65(32.5)	72(36.0)	200(100.0)	
성교육	단기	26(22.0)	42(35.6)	50(42.4)	118(100.0)	9.046*
	장기	30(15.1)	50(25.1)	119(59.8)	199(100.0)	

*p<.05 **p<.01 ***p<.001

(4) 성

청소년의 성경험과 관련하여 가출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단기 가출청소년 가운데 30.6%이었고 장기 가출청소년 가운데 40.1%로 더 많았지만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밖에 임신을 했거나 임신을 시킨 경험(단기 8.1%, 장기 20.0%)과 대가성 성관계 경험(단기 5.7%, 장기 17.5%)에서도 장기 가출청소년의 경험이 더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

3) 사회지원체계 및 보호욕구

(1) 가족

가출기간에 따라 가출 횟수와 첫가출 연령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단기 가출청소년의 가출 횟수의 평균은 5.32회(표준편차 18.82)인데 비해 장기 가출청소년의 평균은 12.05회(표준편차 18.18)로 높았다. 또 단기 가출청소년의 첫가출 연령의 평균은 14.78세(표준편차 2.19)인데 비해 장기 가출청소년의 평균은 13.63세(평균 2.55)로 낮았다. 즉, 장기 가출청소년이 더 자주 가출하고 더 어린 나이에 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VI-125〉 가출기간에 따른 가출경험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가출횟수	단기 (n=114)	5.32	18.82	-3.077**	231.86
	장기 (n=189)	12.05	18.18		
첫 가출연령	단기 (n=120)	14.78	2.19	4.131***	325
	장기 (n=207)	13.63	2.55		

p<.01 *p<.001

현재 가출 중인 청소년 가운데 단기와 장기 가출청소년 사이에는 부모의 거주지를 아는지 여부, 부모와의 연락 빈도, 귀가욕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연구 대상 청소년 전체에 대해 가출 후 귀가방법을 살펴본 결과, 자발적으로 귀가한 경험이 있는 단기 가출청소년은 66.4%, 장기 가출청소년은 58.7%이었고, 경찰이 보내 귀가한 경험이 있는 단기 가출청소년은 16.5%, 장기 가출청소년은 44.8%, 쉼터 등 보호시설에 있다가 귀가한 단기 가출청소년은 35.0%, 장기 가출청소년은 51.0%이었다.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찾아 귀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출기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기 가출청소년의 경우 자발적인 귀가가 많은데 비해, 장기 가출청소년은 경찰이 보내거나 보호시설에 있다가 귀가한 경험이 더 많은 차이를 볼 수 있다.

〈표 VI-126〉 가출기간에 따른 귀가 방법

단위: 빈도(%)

문항	구분	전혀없음	가끔	자주	거의 항상	전체	χ^2 값
내가 자발적으로 귀가하였다.	단기	41 (33.6)	37 (30.3)	16 (13.1)	28 (23.0)	122 (100.0)	8.739*
	장기	81 (41.3)	71 (36.2)	22 (11.2)	22 (11.2)	196 (100.0)	
경찰이 집으로 보냈다.	단기	101 (83.5)	15 (12.4)	2 (1.7)	3 (2.5)	121 (100.0)	29.083** *
	장기	106 (55.2)	45 (23.4)	26 (13.5)	15 (7.8)	192 (100.0)	
쉼터 등 보호시설에 있다가 귀가하였다.	단기	80 (65.0)	28 (22.8)	12 (9.8)	3 (2.4)	123 (100.0)	12.853**
	장기	96 (49.0)	58 (29.6)	19 (9.7)	23 (11.7)	196 (100.0)	

*p<.05 **p<.01 ***p<.001

가출 후 재가출까지 기간에서도 차이가 나타나, 단기 가출청소년의 경우 다시 가출하지 않은 청소년이 33.1%인데 비해 장기 가출청소년은 10.3%로 적었고, 1-7일 이내에 가출한 청소년은 단기 가출청소년 중 25.0%인데 비해 장기 가출청소년 중 47.8%로 두 배 정도 많았다. 장기 가출청소년의 경우 귀가를 하였더라도 귀가 직후 다시 집을 나오는 비율이 현저히 많다고 볼 수 있다.

<표 VI-127> 가출기간에 따른 귀가 후 재가출까지 기간

단위: 빈도(%)

구분	가출하지 않음	1일	2-7일	8- 15일	16- 30일	31일 이상	전체	χ^2 값
단기	41 (33.1)	11 (8.9)	20 (16.1)	14 (11.3)	7 (5.6)	31 (25.0)	124 (100.0)	38.425***
장기	21 (10.3)	29 (14.3)	68 (33.5)	24 (11.8)	27 (13.3)	34 (16.7)	203 (100.0)	

***p<.001

귀가 시 동행해 준 사람이 없는 장기 가출청소년은 동행자가 없거나(단기 55.6%, 장기 61.5%), 경찰이나(단기 4.0%, 장기 16.6%) 사회복지사(단기 3.2%, 장기 6.8%)가 동행한 경우가 단기 가출청소년에 비해 많았고, 친구가 동행(단기 38.7%, 장기 27.8%)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귀가 시 필요한 도움에 대해서는 가출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VI-128> 가출기간에 따른 귀가시 동행해 준 사람

단위: 빈도(%)

구분	없음	친구	경찰	사회복지사	기타	전체	χ^2 값
단기	55(44.4)	48(38.7)	5(4.0)	4(3.2)	12(9.7)	124(100.0)	15.651**
장기	79(38.5)	57(27.8)	34(16.6)	14(6.8)	21(10.2)	205(100.0)	

**p<.01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 부모에 의한 청소년학대에 대해서는 단기 가출청소년과 장기 가출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2) 학교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이나 교사에 대한 존중 등 긍정적 경험, 교사로부터의 차별대우, 모욕, 매, 성희롱 등 부정적 경험 등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이 가출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3) 지역사회

지역사회에서의 지지 경험으로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등과, 돈을 빼앗김, 두들겨 맞음, 위협, 성추행이나 강간 등 지역사회에서 경험한 피해에 대해, 단기 가출청소년과 장기 가출청소년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과의 관계에서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경찰에게 보호를 받은 경험을 한 단기 가출청소년은 29.8%이고 장기 가출청소년은 40.8%로 더 많았다. 한편, 장기 가출청소년의 경우 집이 어딘지 말하도록 위협당한 경험(장기 33.0%, 단기 19.5%), 죄를 자백하도록 위협당한 경험(장기 29.4%, 단기 15.3%), 억울하게 범죄인 취급을 당한 경험(장기 33.5%, 단기 15.3%), 무시당한 경험(장기 40.8%, 단기 21.8%), 강제로 귀가되거나 기관으로 보내진 경험(장기 35.0%, 단기 20.2%)등이 단기 가출청소년에 비해 더 많았다.

〈표 VI-129〉 가출기간에 따른 경찰과의 경험

단위: 빈도(%)

문항	구분	전혀 없다	1번	2-3번	4번 이상	전체	χ^2 값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경찰이 나를 보호해주었다.	단기	87 (70.2)	28 (22.6)	7 (5.6)	2 (1.6)	124 (100.0)	10.305 *
	장기	122 (59.2)	43 (20.9)	25 (12.1)	16 (7.8)	206 (100.0)	
집이 어딘지 말하라고 경찰에게 위협당한 적이 있다.	단기	99 (80.5)	15 (12.2)	8 (6.5)	1 (0.8)	123 (100.0)	11.244 *
	장기	138 (67.0)	30 (14.6)	21 (10.2)	17 (8.3)	206 (100.0)	
죄를 자백하라고 경찰에게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	단기	105 (84.7)	11 (8.9)	4 (3.2)	4 (3.2)	124 (100.0)	9.392*
	장기	144 (70.6)	28 (13.7)	21 (10.3)	11 (5.4)	204 (100.0)	
경찰하게 억울하게 범죄인 취급을 당한 적이 있다.	단기	105 (84.7)	10 (8.1)	4 (3.2)	4 (4.0)	124 (100.0)	16.969 **
	장기	137 (66.5)	47 (22.8)	17 (8.3)	5 (2.4)	206 (100.0)	
경찰이 나를 무시했다.	단기	97 (78.2)	13 (10.5)	6 (4.8)	8 (6.5)	124 (100.0)	12.524 **
	장기	122 (59.2)	40 (19.4)	19 (9.2)	25 (12.1)	206 (100.0)	
경찰이 나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귀가시키거나 기관으로 보낸 적이 있다.	단기	99 (79.8)	17 (13.7)	5 (4.0)	3 (2.4)	124 (100.0)	11.247 *
	장기	134 (65.0)	35 (17.0)	15 (7.3)	22 (10.7)	206 (100.0)	

*p<.05 **p<.01 ***p<.001

(4) 직장·근로

일(아르바이트)을 한 경험 여부에서는 가출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 일을 통해 얻은 한 달 평균 소득과 직장에서의 피해 경험에서도 단기와 장기 가출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일(아르바이트)을 포함하여 그 밖에 가출 후 돈을 주로 얻는 방법에서는

가출기간에 따라 차이가 발견되었다. 부모님(보호자)에게 받은 청소년은 단기 가출청소년 중 91.8%이었지만 장기 가출청소년 중에서는 69.7%로 적었고, 사회복지기관(시설)에서 받은 청소년은 단기 가출청소년 중 27.3%이었지만 장기 가출청소년 중에는 51.3%로 많았고, 구걸이나 앵벌이를 해서 얻은 청소년은 단기 가출청소년 중 13.9%이었지만 장기 가출청소년 중 26.5%로 많았다. 장기 가출청소년의 경우 부모님이나 보호자보다는 사회복지기관(시설)에서 돈을 받거나 구걸이나 앵벌이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전에 모아둔 돈을 쓰거나,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빌리거나, 훔치거나 빼앗아 돈을 얻는 방법에서는 가출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VI-130> 가출기간에 따른 가출 후 돈을 얻는 방법

단위: 빈도(%)

문항	구분	전혀없음	가끔	자주	거의 항상	전체	χ^2 값
부모님(보호자) 에게 받는다.	단기	10(8.2)	41(33.6)	19(15.6)	52(42.6)	122(100.0)	35.461***
	장기	61(30.3)	77(38.3)	28(13.9)	35(17.4)	201(100.0)	
사회복지기관 (시설)에서 받는다.	단기	88(72.7)	20(16.5)	7(5.8)	6(5.0)	121(100.0)	18.799***
	장기	97(48.7)	50(25.1)	28(14.1)	24(12.1)	199(100.0)	
구걸이나 앵벌이를 해서 얻는다	단기	105(86.1)	10(8.2)	5(4.1)	2(1.6)	122(100.0)	8.054*
	장기	147(73.5)	38(19.0)	9(4.5)	6(3.0)	200(100.0)	

*p<.05 ***p<.001

(6) 보호시설

단기와 장기 가출청소년의 보호시설 이용 경험에 대해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보호시설에서 지낸 기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보호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없거나 1주일 미만인 단기 가출청소년이 54.8%인데 비해, 장기 가출청소년은 16.0%로 적었다. 반면, 6개월이상 보호시설을 이용한 장기 가출청소년은 38.9%로 단기 가출청소년이 14.5%인 것에 비해 많았다. 즉, 장기 가출청소년의 경우 보호시설을 이용한 기간이 단기 가출청소년

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소년들이 가출 후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이유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VI-131> 가출기간에 따른 보호시설에서 지낸 기간

단위: 빈도(%)

구분	없음	1일-1주일 미만	1주일-1개월	1개월-6개월	6개월-1년	1년-3년	3년 이상	전체	χ^2 값
단기	35 (28.2)	33 (26.6)	21 (16.9)	17 (13.7)	9 (7.3)	5 (4.0)	4 (3.2)	124 (100.0)	67.236 ***
장기	15 (7.3)	18 (8.7)	27 (13.1)	66 (32.0)	44 (21.4)	30 (14.6)	6 (2.9)	206 (100.0)	

***p<.001

보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보호시설의 식사와 간식이 만족스럽다고 한 단기 가출청소년은 85.4%이고 장기 가출청소년은 92.7%이었고, 보호시설에서 치료를 잘 받는 편이라는 단기 가출청소년은 82.7%이고 장기 가출청소년은 89.6%이었다. 보호시설의 잠자리에 대한 만족과 보호시설에서 폭력이 발생했을 때의 보호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장기 가출청소년의 경우 보호시설의 보호서비스에 대해 크게 만족하며, 그에 비해 단기 가출청소년의 경우 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VI-132> 가출기간에 따른 보호시설에서의 경험

단위: 빈도(%)

문항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정말 그렇다	전체	χ^2 값
보호시설의 식사와 간식이 만족스러운 편이다	단기	6(6.7)	7(7.9)	39(43.8)	37(41.6)	89(100.0)	8.929*
	장기	2(1.0)	12(6.3)	76(39.8)	101(52.9)	191(100.0)	
보호시설에서 아플 때 치료를 잘 받는 편이다	단기	8(9.2)	7(8.0)	33(37.9)	39(44.8)	87(100.0)	11.189*
	장기	6(3.1)	14(7.3)	49(25.7)	122(63.9)	191(100.0)	

*p<.05

한편, 가출 후 지역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친구가 있는 곳,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곳, 놀거리가 많은 곳, 사람이 많은 곳, 쉼터 등 서비스가 있는 곳, 집에서 먼 곳,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찾지 못하는 곳 등에 대해 가출기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4) 인권 및 참여욕구

(1) 인권 및 사회참여의식

인권에 대한 이해와 참여 정도가 가출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청소년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알고 있음, 징계(벌)를 받게 되었을 때 설명하고 변호할 기회를 가짐, 좋아하거나 원하는 모임이나 활동을 할 수 있음, 진학문제 등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의사가 존중됨, 적성에 맞는 문화예술 활동을 선택할 수 있음, 사회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할 통로가 있음 등의 권리에 대해 단기 가출청소년과 장기 가출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2) 보호시설에서의 인권

보호시설에서의 인권에 대해서는, 장기 가출청소년이 단기 가출청소년에 비해 돈 관리에 대해 앞(단기 61.6%, 장기 72.4%), 생활수칙 만들 때 참여(단기 68.1%, 장기 81.7%), 생활수칙에의 의사반영(단기 58.2%, 장기 69.4%) 등에서 권리를 더 많이 누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강제입소, 퇴소에 대한 자기 결정권, 종교의 자유, 사생활 보장, 사진사용에 대해 동의를 구함, 전화사용, 외출의 자유 등에 대해서는 단기 가출청소년과 장기 가출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VI-133> 가출기간에 따른 보호시설에서의 인권

단위: 빈도(%)

문항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정말 그렇다	전체	χ^2 값
보호시설에 있는 동안 내가 번 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잘 알고 있다.	단기	21 (24.4)	12 (14.0)	31 (36.0)	22 (25.6)	86 (100.0)	8.605*
	장기	25 (13.3)	27 (14.4)	59 (31.4)	77 (41.0)	188 (100.0)	
보호시설에서 생활수칙을 만들 때 참여할 수 있다.	단기	12 (13.6)	16 (18.2)	37 (42.0)	23 (26.1)	88 (100.0)	10.169*
	장기	9 (4.7)	26 (13.6)	81 (42.4)	75 (39.3)	191 (100.0)	
보호시설에서 생활수칙을 만들 때 나의 의사가 반영되는 편이다.	단기	14 (16.3)	22 (25.6)	36 (41.9)	14 (16.3)	86 (100.0)	8.576*
	장기	20 (10.5)	38 (20.0)	70 (36.8)	62 (32.6)	190 (100.0)	

*p<.05

5. 소결

본 연구에서 가출청소년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 네 가지 영역의 인권보장의 실태와 관련된 청소년의 욕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생존권과 관련하여, 많은 가출청소년이 하루 종일 굶거나 노숙을 한 경험이 있어,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들은 치과질환을 비롯하여, 내과질환, 피부질환 등의 질병을 경험하지만,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출청소년들은 일반 학생 집단이나 빈곤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수준이며, 우울과 불안의 수준이 높고, 자살시도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28.8%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발달권의 측면에서는 절반 이상의 청소년이 정규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출청소년에 대한 교육권의 침해가 심각함이 드러났다. 정보와 문화에 대해서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청소년의 정보사용이 게임이나 오락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출청소년들은 여가 활동으로 인터넷이나 컴퓨터 게임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행 등 다른 활동을 하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진로지도와 직업훈련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은 시간부족과 비용부담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적 발달과 관련하여, 가출청소년 가운데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12.8%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의 성관계의 경험은 36.5%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하는 청소년은 4분의 1수준이며, 그 이유가 피임 방법을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 마련된 청소년관련기관(시설)에 대해 가출청소년들은 자신의 욕구와 가장 맞는 청소년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이 높고,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으며,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청소년상담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은 많은 청소년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출청소년들은 성교육, 캠프, 숙식제공 등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이 높았고, 만족도는 치료비, 장학금 및 생활비, 질병상담 및 건강지원 등에 대해 높았다.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캠프 등 야외활동, 성교육, 숙식제공 등으로 응답하였다.

셋째, 보호권의 영역에서 먼저 가족 상황을 살펴보면, 절반이상의 청소년이 가정에서 심각한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중 44.7%가 1년이상 집 밖에서 지내고 있으며, 부모의 거주지를 모르는 청소년이 22.4%이었다. 청소년 중 가출이 미취학 연령에서 초등학교시기에 시작된 경우는 34.0%로 많았다. 학교에서의 경험을 살펴보면, 많은 청소년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폭력을 경험하고, 교사로부터 차별대우와 정서적, 성적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서도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겪는 것으로 드러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이러한 피해사실을 아무에게

알리지 않거나 가까운 친구에게 알리는데 그치고, 성인이나 공식적 기관에는 알리는 일이 매우 적었다. 일(아르바이트)을 하는 청소년은 62.3%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소득수준도 평균 43만원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한편, 근로현장에서의 임금체불, 부당연장근로 등의 피해가 많았다. 이러한 부당대우에 대해 청소년들은 참거나, 친구와 상의하거나, 그냥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시설에서의 보호에 대해 살펴보면,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기간이 1년 이상인 청소년이 29.7%로 나타나,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일시적인 구호의 개념을 벗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참여권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다고 하는 가출청소년은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호시설에서의 인권에 대한 조사에서는,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비자발적 입·퇴소를 경험한 청소년이 15~20% 정도로 나타났고, 종교의 자유, 사생활 보장, 초상권 보호, 자신의 재산에 대한 알 권리, 생활수칙에서의 의사표현과 참여 등에 대해서 인권의 침해를 경험하는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가출청소년의 인권 보장 현황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여자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에 비해 하루 종일 굶는 일이 많고, 음주의 수준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더 낮고, 우울·불안의 수준이 높았다. 또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에 비해 성관계를 더 많이 경험하고, 학교에서 차별대우, 모욕, 성희롱 등 부정적 경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성추행이나 강간의 피해가 높고,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낮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에 비해 정규학교를 중단하는 비율이 높고, 어린 나이에 나와 더욱 반복적으로 가출하고, 경찰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억울하게 범죄인 취급을 받는 경험이 더 많고, 강제입소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관찰되었다. 정보와 문화생활에서는 여자청소년은 통신을 이용한 교제에 치중하고 남자청소년은 게임이나 오락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차이가 있었다.

가출기간이 3개월 이하인 청소년을 단기 가출청소년으로, 3개월 초과인

청소년을 장기 가출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의 경험을 비교하여 살펴 보았다. 장기 가출청소년은 단기 가출청소년에 비해 의복과 주거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정규학교 중단 비율은 74.4%로 현저히 높고, 학교에 의한 복학거부 경험이 많았다. 장기 가출청소년의 경우 단기 가출청소년에 비해 이동전화 보유율이 낮고, 청소년쉼터와 직업훈련원의 인지도와 이용률이 더 높고, 각종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이 높았다. 장기 가출청소년은 더 자주 가출하고 더 어린 나이에 가출하였으며, 귀가동기도 더 적고, 자발적인 귀가도 적으며, 귀가를 했더라도 1~7일 이내에 재가출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가출청소년은 거리에 있는 동안 경찰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위협을 받거나 억울하게 취급되는 경험이 더 많았다. 한편 보호시설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와 보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으며, 보호시설 내에서 의사존중과 참여의 권리보장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II. 장애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 장애청소년의 복지실태 및 욕구
3. 성별에 따른 복지실태 및 욕구
4. 장애유형에 따른 복지실태 및 욕구
5. 소결

VII. 장애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장애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장애 유형, 성별·지역별·교급별 분포, 학교성적, 가정형편,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무료급식수여, 부모와의 동거상태, 부모의 결혼상태와 교육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장애청소년의 전체 응답자 466명에 대한 장애유형, 성별·지역별·교급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본 조사에서는 5종류의 장애유형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시각과 청각장애청소년이 각각 21.5%, 정신지체청소년이 21.2%, 지체장애청소년이 20.8%, 뇌병변장애청소년이 15.0%로 장애유형별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성별의 경우에 남자가 59.1%, 여자가 40.9%였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79.6%,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14.4%, 농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6.0%였고, 일반학교 재학생이 19.4%, 특수학교 재학생이 78.9%였다. 전체적으로 모집단과 약간 상이한 분포를 보였다. 성별의 경우 모집단(남자 52.8%, 여자 47.2%)에 비해 남자가 좀 더 많았고, 지역별로는 모집단(대도시 47.3%, 중소도시 38.9%, 농어촌 13.8%)에 비해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중소도시와 농어촌 장애청소년은 적었다. 그리고 교급별로는 특수학교 재학생(78.9%)이 아주 많이 조사되었다. 이는 장애청소년의 경우 일반학교보다는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경우가 많고 특수학교가 수도권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VII-1〉 응답자의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급별 분포

구 분		빈 도	백 분 율
장애 유형별	정신지체	99	21.2
	시각	100	21.5
	뇌병변	70	15.0
	지체	97	20.8
	청각	100	21.5
	전체	466	100.0
성별	남자	274	59.1
	여자	190	40.9
	전체	464	100.0
지역별	대도시	370	79.6
	중소도시	67	14.4
	농어촌	28	6.0
	전체	465	100.0
교급별	일반학교	88	19.0
	특수학교	376	81.0
	전체	464	100.0

장애청소년의 학교 성적은 전체 443명 중에서 상이 21.2%, 중이 47.2%, 하가 31.6%로, 과반수의 장애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적을 중간 정도로 생각하였고 상이나 하가 과반수 정도로 나타났다.

〈표 VII-2〉 학교 성적

단위: 빈도(%)

상	중	하	전체
94(21.2)	209(47.2)	140(31.6)	443(100.0)

장애청소년의 빈곤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정형편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무료급식지원 수여 여부 등의 객관적인 측면을 모두 살펴보았다. 먼저 장애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정형편의 경우에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461명 중 49.7%로 가장 많았고, 잘 산다고 응

답한 청소년은 13.2%, 어렵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7.1%로, 장애청소년의 경우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느끼는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3〉 가정형편

단위: 빈도(%)

매우 어려운편이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잘 사는 편이다	매우 잘사는편이다	전체
43(9.3)	128(27.8)	229(49.7)	50(10.8)	11(2.4)	461(100.0)

객관적인 지표에서도 장애청소년의 가정형편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청소년들이 15.8%나 되는 높은 응답을 보였고 무료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청소년도 전체 응답자의 51.0%나 되었다.

〈표 VII-4〉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및 무료급식지원 수여 여부

구분		빈도	백분율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 급여 수여 여부	예	73	15.8
	아니오	282	61.2
	모름	106	23.0
	전체	461	100.0
무료급식 지원 수여 여부	예	234	51.0
	아니오	167	36.4
	모름	58	12.6
	전체	459	100.0

청소년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모와의 동거여부와 결혼상태, 그리고 부모의 교육정도를 살펴보았다.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친부모, 편부모, 계부모 등과의 동거상태를 조사하였다. 장애청소년의 경우 현재 친부모 모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70.6%로

비교적 낮았고, 친어머니 또는 친아버지와 살고 있는 경우가 각각 9.1%, 3.5%이었다. 특히 장애청소년의 경우 전체 응답자 426명 중 7.4%에 해당하는 34명의 장애청소년이 가정이 아닌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II-5〉 부모와의 동거 상태

단위: 빈도(%)

친부모 모두	친부+ 계모	계부+ 친모	친부	친모	계부모	시설	기타	전체
326 (70.6)	10 (2.2)	10 (2.2)	16 (3.5)	42 (9.1)	2 (0.4)	34 (7.4)	22 (4.8)	462 (100)

부모의 결혼 상태는 현재 부모가 결혼 또는 재혼, 이혼, 별거, 사별 중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결혼 가정이 75.0%로 다른 집단의 청소년보다 낮았고, 이혼가정은 8.3%, 별거가정은 3.2%, 사별가정은 4.1%로 조금 높았다. 그리고 모른다는 응답은 9.5%로 나타났다.

〈표 VII-6〉 부모의 결혼 상태

단위: 빈도(%)

결혼 또는재혼	이혼	별거	사별	모름	전체
333(75.0)	37(8.3)	14(3.2)	18(4.1)	42(9.5)	444(100.0)

부모의 교육 정도는 부모 각각에 대해 조사하였다. 부모 모두 고졸인 경우(아버지 38.9%, 어머니 41.1%)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졸(아버지 22.9%, 어머니 18.7%)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모도 비교적 많았다(아버지 14.3% 어머니 18.4%).

〈표 VII-7〉 부모의 교육정도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부	무학	8	1.8	모	무학	4	0.9
	초졸	12	2.7		초졸	18	4.3
	중졸	43	9.8		중졸	56	13.2
	고졸	170	38.9		고졸	174	41.1
	대졸	100	22.9		대졸	79	18.7
	대학원졸	22	5.0		대학원졸	6	1.4
	모름	82	18.8		모름	86	20.3
	전체	437	100.0		전체	423	100.0

2. 장애청소년의 복지실태 및 욕구

1) 기초생활실태 및 생존욕구

장애청소년 삶의 기본이 되는 생존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식주, 의료·보건, 건강 등의 실태와 이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였다. 특히 지난 1년간의 불건전한 의식주 생활과 질병과 치료 경험, 그리고 음주, 흡연 등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신체적 건강문제와 더불어 심리·정서적 건강의 문제를 조사하였다.

(1) 의식주

장애청소년들의 지난 1년간의 의식주 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경험을 한 청소년이 15.1%,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청소년이 20.3%,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이나 더러운 옷을 입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2.3%, 혼자 사용하는 방이 없는 청소년이 55.4%, 잘 곳이 없어 밖에서 자거나 밤새도록 돌아다닌 경험을 한 청소년이 6.6%로 나타나 의식주의 실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료급식을 받는 경우가 50%나 됴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경험을 한 청소년이

15.1%나 되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이나 더러운 옷을 입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2.3%나 된다는 것은 장애청소년들이 기본적인 건강이나 위생문제에 있어 충분한 보호나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혼자 사용하는 방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 밖에서 배회하는 장애청소년이 많은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 VII-8〉 지난 1년간 의식주 생활

단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적이 있다.	291 (63.5)	98 (21.4)	52 (11.4)	17 (3.7)	458 (100.0)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	29 (6.3)	64 (14.0)	210 (45.9)	155 (33.8)	458 (100.0)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이나 더러운 옷을 입은 적이 있다.	272 (59.9)	126 (27.8)	45 (9.9)	11 (2.4)	454 (100.0)
혼자 사용하는 내 방이 없다.	138 (30.6)	63 (14.0)	103 (22.8)	147 (32.6)	451 (100.0)
잘 곳이 없어서 밖에서 자거나 밤새도록 돌아다닌 적이 있다.	385 (85.6)	35 (7.8)	19 (4.2)	11 (2.4)	450 (100.0)

(2) 의료·보건

장애청소년들의 의료·보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1년 내 학교, 병원 등의 기관에서의 건강검진 유무, 질병 및 치료 경험, 질병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하였다. 지난 1년간 건강검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 중 62.8%인 284명이고,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37.2%인 168명으로 나타나 장애청소년의 경우 장애특성상 건강검진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많았다. 이는 일반청소년 44.2%보다 훨씬 높았는데 이는 장애특성상 건강검진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VII-9〉 지난 1년간 건강검진 경험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284(62.8)	168(37.2)	452(100.0)

지난 1년간의 질병 경험을 보면, 전체적으로 질병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61.6%로 많았다. 질병의 종류로는 충치·잇몸질환이 26.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위장내과질환이 11.9%, 피부질환이 10.7%, 각종 사고가 7.2%, 당뇨, 고혈압, 심장혈관 질환 등의 만성질환이 3.0%, 성문제 질병이 1.6%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청소년들은 장애로 인한 특성과 관련된 치과, 위장 내 질환, 피부질환, 만성질환 등의 질병이 많았다.

〈표 VII-10〉 지난 1년간 질병 경험

단위: 빈도(%)

각종 사고	충치잇몸질환	위장내과질환	성문제 질병	만성 질환	백혈병, 암	피부 질환	없음	전체
36 (7.2)	131 (26.4)	59 (11.9)	8 (1.6)	15 (3.0)	4 (0.8)	53 (10.7)	191 (38.4)	497 (100.0)

질병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청소년 267명 중 76.0%인 203명이 질병에 대한 치료를 하였고, 24.0%인 64명은 치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1〉 질병치료 유무

단위: 빈도(%)

예	아니오	전체
203(76.0)	64(24.0)	267(100.0)

또한 장애청소년들이 질병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로는 가벼운 증세(39.1%)가 가장 많았으며, 몸이 불편해서가 14.1%, 무서워서 9.4%, 치료비가 없어서

와 귀찮아서가 각각 7.8%, 거리가 멀어서 6.3%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 실태조사에서 장애인단 후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33.0%)이 가장 큰 이유인 것과 다르게 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가벼운 증세여서, 몸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거나 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편의시설과 서비스의 접근성, 그리고 이동의 제한 등의 어려움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을 받고 있었다.

〈표 VII-12〉 질병치료 받지 않은 이유

단위: 빈도(%)

가벼운 증세	치료비 없어서	거리가 멀어서	의논할 사람이 없어서	무서워서	귀찮아서	몸이 불편해서	기타	전체
25 (39.1)	5 (7.8)	4 (6.3)	2 (3.1)	6 (9.4)	5 (7.8)	9 (14.1)	8 (12.5)	64 (100.0)

(3) 건강

장애청소년들의 건강은 심리정서적인 측면과 신체적인 측면을 조사하였다. 심리적인 문제로서 자아존중감을 그리고 신체적 건강의 문제로서 음주, 흡연, 약물, 자살행위나 자살기도 등의 문제행동을 조사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¹⁴⁾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문항 간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는 0.89로 나타났다. 장애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은 총점 40점에 평균 27.4점(표준편차 5.55)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청소년의 자아존중감 29.62보다 낮은 점수로 장애 자체가 장애인들의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자아존중감척도는 청소년들에게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묻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은 문항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4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다. 10 문항의 합산 점수는 10점에서 40점의 범위를 가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VII-13〉 자아존중감

단위: 빈도(%)

영역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아존중감	365	27.4	5.55

* 정신지체인 제외

심리·사회적 적응의 문제 이외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주 행해지고 있는 흡연, 음주, 자해행위나 자살기도 등의 신체적 건강문제를 조사하였다. 장애 청소년들 중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 중 3.9%로 2005년도에 청소년위원회(2006)에서 조사된 중·고등학생 흡연율 8.6%의 2배 정도 낮았다.

〈표 VII-14〉 흡연 정도

단위: 빈도(%)

안 피운다	어쩌다 하나씩	하루에 반 갑 정도	하루에 한 갑 이상	전체
440(96.1)	13(2.8)	2(0.4)	3(0.7)	458(100.0)

음주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26.8%가 경험이 있었으며, 경험자의 대부분(23.9%)이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에만 음주를 하였으며, 1주일에 1번 이상의 상습적인 음주청소년은 1.5%로 나타났다. 2005년도의 청소년위원회(2006) 조사 결과인 중·고등학생 음주율 36.6%에 비해서는 많이 낮았다.

〈표 VII-15〉 평소 음주량

단위: 빈도(%)

마신적 없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1주일에 1-2번정도	1달에 1-2번정도	거의 매일	전체
334(73.2)	109(23.9)	7(1.5)	4(0.9)	2(0.4)	456(100.0)

자해행위나 자살기도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청소년이 전체 응답자

중 15.3%나 되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일발청소년(9.8%)에 비해 1.5배 높았다. 자해행위나 자살기도는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문제행동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표 VII-16〉 자해행위나 자살기도 경험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70(15.3)	387(84.7)	457(100.0)

또한 자해행위나 자살기도 경험이 있는 64명의 자해행위나 자살기도 횟수를 보면, 2회가 37.5%로 가장 많고, 1회가 31.3%로 많게 나타나 1-2회 정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는 장애청소년이 68.8%나 되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3회 이상 시도한 수치는 낮지만 습관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표 VII-17〉 자해행위나 자살기도 횟수

단위: 빈도(%)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전체
20(31.3)	24(37.5)	5(7.8)	2(3.1)	13(0.3)	64(100.0)

2) 문화여가활동 및 발달육구

장애청소년들의 문화여가활동 실태와 발달육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교육, 정보·문화, 여가, 직업, 지역사회시설 및 서비스, 성·문제행동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특히 청소년기에 가장 주요한 관심 사항이 되고 있는 학교생활적응과 진학육구, 정보·문화의 실태와 문제점, 여가 및 직업육구,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시설 및 서비스 이용 경험과 희망하는 시설 및 서비스 육구, 성정체성과 지역사회에서의 피해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1) 교육

장애청소년 교육과 관련해서는 장애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등교현황 그리고 대학진학에 대한 욕구 등을 조사하였다. 장애청소년의 학교생활은 대부분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일부 학생들의 경우는 잘 적응하지 못했다. 전체 응답자의 91.4%인 419명은 잘 적응하고 있었으며, 8.2%에 해당하는 4명의 장애청소년은 잘 적응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만족(46.5%), 보통(42.0%), 불만족(11.5%)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통계청, 2005).

〈표 VII-18〉 학교생활 적응

단위: 빈도(%)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	잘 적응하고 있는 편이다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185(40.3)	234(51.0)	27(5.9)	13(2.8)	459(100.0)

등교 현황을 통해서 학교생활 적응 실태를 파악해 보면, 지난 1년간 전체 응답자의 53.3%에 해당하는 많은 장애청소년들이 1회 이상 학교에 가지 않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청소년(21.6%)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경험이었다. 결석일수에서는 1-2번 학교에 가지 않은 청소년이 36.6%로 대부분이었으며, 7일 정도가 8.3%, 보름 정도가 4.2%, 한 달 또는 그 이상이 4.1%로 나타나, 일주일 이상 학교에 가지 않은 장애청소년이 16.6%나 되어 장애청소년들의 등교문제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9〉 지난 1년 동안 학교 가지 않은 날

단위: 빈도(%)

없다	1-2번	7일 정도	보름 정도	한 달 정도	한 달 이상	전체
213(46.7)	167(36.6)	38(8.3)	19(4.2)	7(1.5)	12(2.6)	456(100.0)

학교에 가지 않은 경우 중에서 불가피하게 갈 수 없었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에 가고 싶는데 갈 수 없었던 경험과 그 이유를 조사하였다. 먼저 학교에 가고 싶는데 갈 수 없었던 경험을 한 장애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27.7%에 해당하는 114명이나 되는 높은 수치를 보여 장애청소년들의 학교의 문제가 심각함을 시사한다.

〈표 VII-20〉 학교 가고 싶는데 갈 수 없었던 경험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114(27.7)	329(72.3)	443(100.0)

또한 장애청소년들이 학교에 가고 싶는데 갈 수 없었던 이유로는 등하교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가 14.%로 가장 많았고 귀찮아서 또는 아침에 못 일어나서가 10.5%, 괴롭힘이 무서워서와 가사를 돕기 위해서가 각각 7.0%의 순으로 많았다. 그 외에도 가출을 해서 5.3%, 학비를 못 내서 4.4%, 부모님이 못 가게 해서 4.4%, 학교가 거부해서 3.5%, 학교에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1.8%로 나타났다. 즉, 장애청소년들은 등하교의 어려움, 괴롭힘, 편의시설의 부족, 학교의 거부 등의 장애청소년의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장애학생 지원정책의 부족이나 학교 환경의 열악 문제가 결석의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21〉 학교 가고 싶는데 갈 수 없었던 이유

항목	빈도	백분율
학비를 못 내서	5	4.4
가사를 돕기 위해	8	7.0
부모님이 못 가게 해서	5	4.4
학교가 거부해서	4	3.5
괴롭힘이 무서워서	8	7.0
귀찮아서 혹은 아침에 못 일어나서	12	10.5

항목	빈도	백분율
등하교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16	14.0
학교 내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2	1.8
가출을 해서	6	5.3
기타	48	42.1
전체	114	100.0

한편, 장애청소년들의 대학 진학에 대한 욕구는 대학 진학 가능 여부와 진학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하였다. 대학 진학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장애청소년의 47.2%만이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52.8%는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대학 진학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장애청소년들이 많았다. 이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대학진학률(89.3%)보다 2배 정도, 실업계 고등학교 대학진학률(61.9%) 보다 낮은 수치였다(통계청, 2005).

<표 VII-22> 대학 진학 가능 여부

단위: 빈도(%)

예	아니오	전체
213(47.2)	238(52.8)	451(100.0)

대학 진학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로는 장애가 42.9%로 가장 큰 이유였으며, 성적이 안 좋은 것이 35.1%였다. 경제적인 문제도 9.5%로 나타났다. 일반청소년들이 성적이나 경제적인 이유를 들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장애청소년들은 성적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장애로 인한 문제가 대학 진학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VII-23〉 대학 진학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

단위: 빈도(%)

성적이 안 좋아서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님의 무관심으로	장애 때문에	기타	전체
81(35.1)	22(9.5)	2(0.9)	99(42.9)	27(11.7)	231(100.0)

경제적인 이유로 과외나 학원을 다니지 못한 경험을 한 장애청소년은 31.7%이며, 68.3%의 장애청소년들은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 30%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장애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과외나 학원 등의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24〉 경제적인 이유로 과외나 학원을 못 다닌 경험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143(31.7)	308(68.3)	451(100.0)

(2) 정보·문화

장애청소년들의 정보문화생활과 욕구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컴퓨터, 이동전화, PSP, DMB의 소유 여부, 사용시간, 사용용도 등을 조사하였다. 거의 모든 장애청소년들이 자신의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50.8%의 장애청소년들이 이동전화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PSP, DMB의 경우에는 약 3-4%의 장애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25〉 컴퓨터 소유 및 인터넷 가능 여부

단위: 빈도(%)

항목	있다	없다	전체
컴퓨터 소유	423(92.4)	35(7.6)	458(100.0)
인터넷 가능	378(92.2)	32(7.8)	410(100.0)

〈표 VII-26〉 정보 매체 소유

단위: 빈도(%)

이동전화	PSP	DMB	가지고 있지않다	전체
234(50.8)	21(4.6)	12(2.6)	194(42.1)	461(100.0)

1달 평균 통신비용은 1-3만원이 가장 많고(57.0%), 그 다음으로 3-5만원(18.9%), 9만원이상(9.8%) 등의 순이었고, 그 외에도 1만원미만 7.4%, 5-7만원 4.9%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장애청소년(83.3%)들은 5만원미만의 통신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으나 9만원이상의 통신비용을 지불하는 장애청소년들도 약 10%나 되었다.

〈표 VII-27〉 1달 평균 통신비용

단위: 빈도(%)

1만원미만	1-3만원	3-5만원	5-7만원	7-9만원	9만원이상	전체
18(7.4)	139(57.0)	46(18.9)	12(4.9)	5(2.0)	24(9.8)	244(100.0)

과중한 통신비용으로 인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장애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27.9%에 해당하는 10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장애청소년들이 정보매체의 이용에서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한도에서 사용하여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VII-28〉 통신비용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105(27.9)	272(72.1)	377(100.0)

(3) 여가

장애청소년의 여가활동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여가시간에

하고 있는 활동과 희망하는 여가활동, 여가활동의 어려운 점 등을 조사하였다. 장애청소년들이 여가시간에 하는 활동으로는 TV시청(17.7%)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이나 컴퓨터게임(15.6%), 집에서의 휴식(14.6%), 음악·영화감상(8.4%), 독서(6.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약 73.8%의 많은 장애청소년들이 가정 내에서 보내고 있었으며, 순위에 있어서는도 1위에서 7위 의 모든 여가활동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어서 장애청소년들은 여가시간을 집 밖에서 보내거나 활동적인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고 가정 내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표 VII-29〉 여가시간에 많이 하고 있는 활동

(중복응답)

항목	빈도(%)	순위	항목	빈도(%)	순위
TV시청	215(17.7)	1	스포츠활동	43(3.5)	10
인터넷·컴퓨터게임	190(15.6)	2	산책	42(3.5)	11
집에서 휴식	178(14.6)	3	취미활동	42(3.5)	11
음악·영화감상	102(8.4)	4	쇼핑하기	28(2.3)	12
독서	80(6.6)	5	예술활동	28(2.3)	12
집안일 돕기	73(6.0)	6	동아리활동	16(1.3)	13
개인적 학습활동	59(4.9)	7	여행	14(1.2)	14
종교활동	51(4.2)	8	자원봉사	6(0.5)	15
친구만나기	45(3.7)	9	아르바이트	4(0.3)	16

그러나 장애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여가활동은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청소년들은 여행(14.3%)을 가장 하고 싶어 했으며, 그 다음으로 스포츠 활동(9.7%), 취미활동(7.8%), 영화음악 감상(7.5%), 친구만나기(7.3%), 아르바이트(6.5%) 순이었다. 장애청소년들은 가정 내에서 보내는 여가활동보다는 외부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30〉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중복응답)

항목	빈도(%)	순위	문항	빈도(%)	순위
여행	183(14.3)	1	산책	58(4.7)	10
스포츠 활동	120(9.7)	2	예술활동	52(4.2)	11
취미활동	97(7.8)	3	동아리활동	51(4.1)	12
음악, 영화감상	93(7.5)	4	집안일 돕기	40(3.2)	13
친구만나기	90(7.3)	5	독서	38(3.1)	14
아르바이트	80(6.5)	6	TV시청	35(2.8)	15
인터넷·컴퓨터게임	73(5.9)	7	종교 활동	34(2.7)	16
쇼핑	68(5.5)	8	자원봉사	33(2.7)	16
개인적 학습활동	62(5.0)	9	집에서 휴식	32(2.6)	17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과 희망하는 여가활동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장애청소년들이 취미활동을 하는데 거의 모든 요인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청소년의 경우 교통 혼잡 및 이용교통수단의 불편(57.2%), 적절한 장소나 시설의 부족(53.6%), 편의시설 부족(54.4%), 프로그램의 부족(54.2%), 정보의 부족(52.0%) 등의 사회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어려움이 많았으며, 비용의 부족(54.6%), 시간의 부족(47.2%), 함께 할 친구의 부족(44.5) 등의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어려움도 많았다.

이상의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장애청소년들은 여행, 스포츠 활동, 취미활동 등의 외부 활동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싶으나 교통, 편의시설, 적절한 장소의 부족 등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TV시청, 인터넷·컴퓨터게임, 집에서의 휴식 등의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VII-31〉 여가나 취미활동의 어려운 점

단위: 빈도(%)

항목	그렇다	아니다	전체
시간이 부족하다.	205(47.2)	229(52.8)	434(100.0)
비용이 부담된다.	237(54.6)	197(45.4)	434(100.0)
함께 할 사람이 없다.	193(44.5)	241(55.5)	434(100.0)
적절한 장소 및 시설이 없다.	233(53.6)	202(46.4)	435(100.0)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224(52.0)	207(48.0)	431(100.0)
프로그램이 마땅치 않다.	234(54.2)	198(45.8)	432(100.0)
교통 혼잡 및 이용교통수단이 불편하다.	250(57.2)	187(42.8)	437(100.0)
여가시설 내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234(54.4)	196(45.6)	430(100.0)
건강이나 체력이 부족하다.	176(40.5)	259(59.5)	435(100.0)

(4) 직업

장애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장래 희망 직업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장애청소년들이 장래 희망하는 직업 10가지를 순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직업의 종류는 매우 다양했다. 10위권 내에 속하는 직업에 응답한 장애청소년들이 58.6%였다. 장애청소년들의 9.2%가 교사를 장래의 직업으로 희망하여 가장 우선순위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무원(8.2%), 컴퓨터 프로그래머(6.8%), 기타(6.8%), 사회복지사(6.4%), 요리사(5.5%), 연예인(5.2%), 운동선수(3.7%), 단순작업사(3.6%), 방송관계자(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청소년들은 교사, 공무원 등의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고 있었으나 높은 수익이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직에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았다.

〈표 VII-32〉 장래 희망 직업

항목	빈도(%)	순위	항목	빈도(%)	순위
교사	75(9.2)	1	요리사	45(5.5)	5
공무원	67(8.2)	2	연예인	42(5.2)	6
컴퓨터프로그래머	55(6.8)	3	운동선수	30(3.7)	7
기타	55(6.8)	3	단순작업사	29(3.6)	8
사회복지사	52(6.4)	4	방송관계자	26(3.2)	9

(5) 지역사회서비스

장애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시설과 서비스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실제로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시설이나 서비스가 청소년들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이나 서비스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장애청소년들의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모든 시설에서 낮았다. 청소년상담센터(55.6%)와 자원봉사센터(55.0%)가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이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46.7), 직업훈련원(46.7%), 미혼모시설(46.3%), 청소년공부방(44.6%), 그룹 홈(43.8%), 청소년쉼터(43.5%), 고용안정센터(4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경험도 전반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이용경험은 인지도가 20% 수준인 박물관(78.7%), 도서관(69.5%), 미술관(63.4%) 등의 공공이용시설의 이용경험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58.1%),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43.6%), 문화의집·청소년수련관(35.8%)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 모든 시설은 10% 미만의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장애청소년들은 청소년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인지도에 비해 이용경험은 훨씬 낮았다. 또한 인지도가 높은 시설들이 이용경험이 오히려 낮았고 인지도가 낮은 시설들이 이용경험이 오히려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장애청소년들은 박물관 등의 공공이용시설과 장애인복지관 등의 종합사회복지관 외에는 전반적으로 청소년시설에 대한 이

용경험이 낮았다. 장애청소년들이 청소년이용시설의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표 VII-33〉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인지 및 이용여부

단위: 빈도(%)

항목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으나 이용한 적 없다	이용해 본적 있다	전체
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	129(33.4)	119(30.8)	138(35.8)	386(100.0)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111(28.8)	106(27.5)	168(43.6)	385(100.0)
근로청소년회관	216(57.4)	136(36.2)	24(6.4)	376(100.0)
청소년공부방	167(44.9)	166(44.6)	39(10.5)	372(100.0)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69(16.4)	107(25.5)	244(58.1)	420(100.0)
청소년자활지원관	221(60.7)	123(23.8)	20(5.5)	364(100.0)
청소년쉼터	190(51.6)	160(43.5)	18(4.9)	368(100.0)
그룹 홈(공동생활가정)	177(48.1)	161(43.8)	30(8.2)	368(100.0)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	188(51.4)	171(46.7)	7(1.9)	366(100.0)
청소년상담센터	141(38.2)	205(55.6)	23(6.2)	369(100.0)
자원봉사센터	130(35.0)	204(55.0)	37(10.0)	371(100.0)
고용안정센터	203(54.7)	160(43.1)	8(2.2)	371(100.0)
미혼모시설	191(51.8)	171(46.3)	7(1.9)	369(100.0)
직업훈련원 (구 직업보도원)	172(46.7)	172(46.7)	24(6.5)	368(100.0)
박물관	25(6.4)	58(14.9)	306(78.7)	389(100.0)
도서관	20(5.3)	95(25.2)	262(69.5)	377(100.0)
미술관	32(8.4)	108(28.2)	243(63.4)	383(100.0)

청소년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높은 시설이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도서관(76.6%), 박물관(75.1%), 미술관(72.4%) 등의

공공이용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71.5%)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그 다음은 문화의집·청소년수련관(65.8%),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63.1%) 등의 수련 시설이 높았고, 다음이 청소년공부방(51.1%) 순이었다. 나머지 시설은 모두 50%이하의 만족도를 보였다.

〈표 VII-34〉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만족도

단위: 빈도(%)

항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전체
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	17(8.8)	49(25.4)	106(54.9)	21(10.9)	193(100.0)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17(8.3)	59(28.6)	110(53.4)	20(9.7)	206(100.0)
근로청소년회관	20(24.1)	28(33.7)	33(39.8)	2(2.4)	83(100.0)
청소년공부방	21(23.3)	23(25.6)	39(43.3)	7(7.8)	90(100.0)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27(9.9)	51(18.6)	156(56.9)	40(14.6)	274(100.0)
청소년자활지원관	17(21.5)	28(35.4)	32(40.5)	2(2.5)	79(100.0)
청소년쉼터	18(22.8)	26(32.9)	25(31.6)	10(12.7)	79(100.0)
그룹 홈(공동생활가정)	18(20.7)	26(29.9)	35(40.2)	8(9.2)	87(100.0)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	20(26.7)	26(34.7)	23(30.7)	6(8.0)	75(100.0)
청소년상담센터	14(17.5)	29(36.3)	32(40.0)	5(6.3)	80(100.0)
자원봉사센터	16(17.2)	26(28.0)	41(44.1)	10(10.8)	93(100.0)
고용안정센터	16(22.2)	27(37.5)	25(34.7)	4(5.6)	72(100.0)
미혼모시설	22(30.6)	26(36.1)	22(30.6)	2(2.8)	72(100.0)
직업훈련원 (구 직업보도원)	17(21.8)	19(24.4)	34(43.6)	8(10.3)	78(100.0)
박물관	19(6.0)	60(18.9)	190(59.7)	49(15.4)	318(100.0)
도서관	14(5.1)	51(18.4)	160(57.8)	52(18.8)	277(100.0)
미술관	20(7.6)	53(20.1)	157(59.5)	34(12.9)	264(100.0)

장애청소년들이 가장 이용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시설은 1위 종합사회복지관, 2위 도서관, 3위 청소년공부방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등의 자연권수련원, 직업훈련원, 박물관, 미술관, 그룹 홈, 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센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I-35〉 가장 이용하고 싶은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항목	빈도(%)	순위	항목	빈도(%)	순위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102(13.8)	1	박물관	58(7.9)	6
도서관	77(10.4)	2	미술관	52(7.0)	7
청소년공부방	67(9.1)	3	그룹 홈 (공동생활가정)	51(6.9)	8
청소년 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63(8.5)	4	문화의집·청소년 수련관 등	51(6.9)	9
직업훈련원	60(8.1)	5	청소년상담센터	40(5.4)	10

국가 혹은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적으로 30% 수준의 고르게 낮았다. 가족상담(43.9%)이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고 그 다음이 약물예방교육(37.0%), 인권교육(36.6%), 질병상담과 무료건강검진(3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인 청소년 복지서비스는 캠프(21.3%)였다.

반면 청소년 복지서비스의 이용경험 또한 50%이하로 전반적으로 낮았다.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인 서비스는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인 캠프(53.6%)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성교육(37.8%), 문화·예술 활동(34.3%), 학업 및 학습지도(30.1%) 등이 30%의 이용률을 보였고, 가장 낮은 이용률은 보인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인 약물예방교육(10.7%), 인권교육(11.7%)으로 나타나 인지도와 이용률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표 VII-36〉 청소년복지서비스 인지 및 이용여부

단위: 빈도(%)

항목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으나 이용한 적 없다	이용해 본적 있다	전체
개별상담	148(37.6)	145(36.8)	101(25.6)	394(100.0)
가족상담	149(39.6)	165(43.9)	62(16.5)	376(100.0)
질병상담 및 무료건강검진	130(34.4)	139(36.8)	109(28.8)	378(100.0)
아플 때 치료비 지원	176(46.7)	123(32.6)	78(20.7)	377(100.0)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131(34.7)	134(35.5)	112(29.7)	377(100.0)
학업 및 학습지도	131(34.6)	134(35.4)	114(30.1)	379(100.0)
숙식제공	190(50.1)	122(32.2)	67(17.7)	379(100.0)
캠프 등	99(25.1)	84(21.3)	211(53.6)	394(100.0)
문화·예술활동	117(30.6)	134(35.1)	131(34.3)	382(100.0)
약물예방교육	195(52.3)	138(37.0)	40(10.7)	373(100.0)
성교육	111(29.5)	123(32.7)	142(37.8)	376(100.0)
인권교육	191(51.8)	135(36.6)	43(11.7)	369(100.0)

청소년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50%~70%의 장애청소년들이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청소년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개별 서비스별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캠프 등 수련활동(77.8%), 문화·예술 활동(72.3%),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70.6%)이 가장 높은 70%대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성교육과 가족상담(66.3%), 질병상담, 무료건강검진(65.8%), 학업 및 학습지도(63.8%), 개별상담(63.4%)등은 60%대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서비스는 인권교육과 약물예방교육이 각각 50.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VII-37〉 청소년복지서비스 만족도

단위: 빈도(%)

항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전체
개별상담	21(13.5)	36(23.1)	86(55.1)	13(8.3)	156(100.0)
가족상담	13(11.8)	24(21.8)	57(51.8)	16(14.5)	110(100.0)
질병상담 및 무료건강검진	13(8.4)	40(25.8)	82(52.9)	20(12.9)	155(100.0)
아플 때 치료비 지원	16(13.0)	34(27.6)	55(44.7)	18(14.6)	123(100.0)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18(12.3)	25(17.1)	74(50.7)	29(19.9)	146(100.0)
학업 및 학습지도	15(9.7)	41(26.5)	76(49.0)	23(14.8)	155(100.0)
숙식제공	24(20.5)	32(27.4)	46(39.3)	15(12.8)	117(100.0)
캠프 등	17(7.3)	35(15.0)	116(49.6)	66(28.2)	234(100.0)
문화·예술 활동	15(9.0)	31(18.7)	88(53.0)	32(19.3)	166(100.0)
약물예방교육	27(26.2)	24(23.3)	44(42.7)	8(7.8)	103(100.0)
성교육	18(9.8)	44(23.9)	106(57.6)	16(8.7)	184(100.0)
인권교육	24(23.8)	26(25.7)	39(38.6)	12(11.9)	101(100.0)

한편 장애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청소년복지서비스로는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캠프 등 수련활동, 문화·예술 활동,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등의 서비스가 1, 2, 3위로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업 및 학습지도, 치료비지원, 질병상담 및 무료건강검진, 가족상담, 개별상담, 성교육, 인권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38〉 가장 필요한 청소년복지서비스

항목	빈도(%)	순위	항목	빈도(%)	순위
캠프 등 1박 이상 수련활동	92(12.8)	1	질병상담 및 무료건강검진	74(10.3)	6
문화·예술활동	92(12.8)	2	가족상담	53(7.4)	7
장학금생활비지원	91(12.7)	3	개별상담	51(7.1)	8
학업 및 학습지도	87(12.1)	4	성교육	42(5.8)	9
치료비 지원	79(11.0)	5	인권교육	37(5.1)	10

3) 사회지원체계 및 보호육구

청소년들의 주요 생활공간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직장·근로에서의 장애 청소년에 대한 지지 정도와 인권 침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공간에 대한 장애청소년의 인식과 생활실태, 그리고 성추행, 폭력, 학대 등의 피해 경험을 조사하였다.

(1) 가정

장애청소년들의 가정에 대한 생각과 가정에서 훈육 및 피해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부모의 양육행동, 가정폭력(청소년학대) 등을 조사하였다. 먼저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90.0%)의 장애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10%가 조금 넘는 장애청소년들은 가족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서로를 보살피지 않으며, 가족과 잘 지내지 못하는 장애청소년들이 있으며, 자신의 가족이 자랑스럽지 않고, 가족 간에 싸움이 자주 일어난다고 응답하여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39〉 가족관계

단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체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진정으로 서로를 보살핀다.	22 (6.2)	18 (5.1)	84 (23.7)	89 (25.1)	141 (39.8)	354 (100.0)
나는 한순간도 우리 가족과 함께 있기가 싫다.	186 (52.7)	75 (21.2)	66 (18.7)	14 (4.0)	12 (3.4)	353 (100.0)
나는 우리 가족과 잘 지낸다.	18 (5.1)	22 (6.3)	69 (19.6)	81 (23.0)	162 (46.0)	352 (100.0)
우리 가족 안에서 나는 낯선 사람같이 느껴진다.	215 (61.4)	46 (13.1)	55 (15.7)	23 (6.6)	11 (3.1)	350 (100.0)
우리 가족에게는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	146 (41.4)	87 (24.6)	78 (22.1)	26 (7.4)	16 (4.5)	353 (100.0)
나는 우리 가족이 자랑스럽다.	25 (7.1)	26 (7.4)	95 (26.9)	70 (19.8)	137 (38.8)	353 (100.0)

* 정신지체 제외

장애청소년들의 가족에 대한 생각과 집에서의 성인역할에 대한 조사에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장애청소년이 27.3%, 다른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청소년이 60.2%,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장애청소년이 60.7%, 부모 대신 집안일이나 가사를 하는 것이 힘들다는 장애청소년이 38.8%, 부모 대신 동생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봐야 하는 것이 힘들다는 장애청소년이 25.6%로 나타났다. 즉 장애청소년들은 가족을 위한 희생을 각오하고 있고 어느 정도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가사일도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장애청소년들은 스스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부모님 대신 집안일이나 동생, 가족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표 VII-40〉 가족에 대한 생각과 집에서의 성인역할

단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나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부담스럽다.	110 (42.3)	79 (30.4)	54 (20.8)	17 (6.5)	260 (100.0)
내가 희생하더라도 다른 가족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41 (16.0)	61 (23.8)	97 (37.9)	57 (22.3)	256 (100.0)
나는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42 (16.3)	59 (23.0)	111 (43.2)	45 (17.5)	257 (100.0)
내가 부모님 대신 집안일이나 가사일을 하는 것이 힘들다.	83 (33.2)	70 (28.0)	57 (22.8)	40 (16.0)	250 (100.0)
나는 부모님 대신 동생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봐야 하는 것이 힘들다.	117 (46.8)	69 (27.6)	42 (16.8)	22 (8.8)	250 (100.0)

* 지체·뇌병변·청각장애 청소년 대상

부모의 양육행동은 통제 및 지도감독의 훈육행동(자녀가 집에 없을 때 누구와 함께 있는 여부에 대해 부모가 알고 있는지, 몇 시에 들어오는지 부모가 알고 있는지, 어른 없이 혼자 집에 있을 때 부모가 전화로 확인하는지),

칭찬 및 보상행동(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해주는지, 공부를 잘 할 때 칭찬을 해주는지), 과잉보호행동(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도와주는지, 자녀가 해야 할 일을 일일이 간섭하는지, 부모의 뜻대로 생활하도록 강요하는지)을 조사하였다.

부모의 지도감독과 보상행동의 질문에 대하여 대체로 70%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과잉보호행동의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과 함께 부정적인 응답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집에 없을 때 누구와 함께 있는지, 몇 시에 들어오는지를 알고 있었으며, 어른 없이 혼자 집에 있을 때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자녀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할 때 칭찬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약 20% 내외에 해당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관심도 없고, 칭찬도 잘 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부모는 39.1%, 자녀가 하는 일을 일일이 간섭하는 경우는 34.6%로 과잉보호적 태도를 보였으며, 28.2%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생활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41〉 부모의 양육행동

단위: 빈도(%)

영역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체
지도감독	부모님은 내가 집에 없을 때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계신다.	36 (8.0)	33 (7.3)	89 (19.7)	78 (17.3)	215 (47.7)	451 (100.0)
	부모님은 내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알고 계신다.	31 (6.9)	30 (6.7)	78 (7.3)	77 (17.1)	235 (52.1)	451 (100.0)
	부모님은 내가 어른 없이 혼자 집에 있을 때 전화를 하신다.	42 (9.7)	49 (11.3)	90 (20.7)	85 (19.5)	169 (38.9)	435 (100.0)

영역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체
보상	부모님은 내가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칭찬해 주신다.	12 (2.6)	23 (5.1)	93 (20.5)	126 (27.8)	200 (44.1)	454 (100.0)
	부모님은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할 때 칭찬해 주신다.	16 (3.6)	37 (8.3)	99 (22.1)	111 (24.8)	184 (41.2)	447 (100.0)
과잉보호	부모님은 내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도와주는 편이다.	50 (11.1)	82 (18.2)	143 (31.7)	100 (22.2)	76 (16.9)	451 (100.0)
	부모님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일일이 간섭하는 편이다.	67 (14.9)	92 (20.4)	135 (30.0)	91 (20.2)	65 (14.4)	450 (100.0)
	부모님은 내가 부모님의 뜻대로만 생활하도록 강요하신다.	89 (19.9)	106 (23.7)	126 (28.2)	84 (18.8)	42 (9.4)	447 (100.0)

청소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정에서의 폭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부모의 장애청소년에 대한 학대와 부부 간의 폭력행동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부모의 장애청소년에 대한 학대를 유형별로 보면, 부모의 발에 차이거나 깨물리거나 주먹에 막은 경험이 있는 장애청소년은 16.8%, 몽둥이나 굵은 막대기, 혁대로 맞은 경험이 있는 장애청소년은 14.6%, 칼이나 흉기로 위협을 당한 경험이 있는 장애청소년은 2.0%로 나타나 가정에서의 장애청소년의 신체적인 학대가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체적인 학대는 아니지만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꾸짖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장애청소년은 30.3%,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와 같은 말을 들은 경험이 있는 장애청소년은 30.7%나 되어 비교적 많은 장애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언어적인 학대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어두워질 때까지 혼자 집을 본 경험이 있는 장애청소년은 50.6%, 더러운 옷을 입고 지내거나 습기 찬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경험이 있는 장애청소년은 8.7%,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

냥 내버려 둔적이 있었던 경험이 있는 장애청소년은 7.1%,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해도 부모님이 아무 말을 듣지 않은 경험이 있는 장애청소년은 8.1%로 나타나 부모로부터 방임의 학대를 경험하고 있었다.

한편 부모 중 한 쪽이 다른 쪽을 때리는 부부간의 폭력행위를 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는 장애청소년이 14.2%, 부모 간에 서로 욕하는 경우를 본 경험이 있는 장애청소년 29.5%로 나타나 부부싸움을 자녀들 앞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42〉 청소년학대와 가정폭력

단위: 빈도(%)

영역	문항	전혀 없다	1년에 1-2번	2-3개월에 1-2번	1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전체
신체적 학대	부모님의 발에 차이거나 깨물리거나 주먹에 맞았다.	372 (83.2)	56 (12.5)	5 (1.1)	5 (1.1)	9 (2.0)	447 (100.0)
	부모님이 휘두르는 몽둥이나 굵은 막대기, 혁대로 맞았다.	381 (85.4)	38 (8.5)	12 (2.7)	7 (1.6)	8 (1.7)	446 (100.0)
	부모님이 칼이나 흉기로 나를 위협했다.	436 (98.0)	3 (0.7)	2 (0.4)	3 (0.7)	1 (0.2)	445 (100.0)
정서적 학대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다.	310 (69.7)	92 (20.7)	20 (4.5)	10 (2.2)	13 (2.9)	445 (100.0)
	부모님이 나에게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하였다.	311 (69.3)	90 (20.0)	22 (4.9)	14 (3.1)	12 (2.7)	449 (100.0)
방임	부모님이 외출하여 어두워 질 때까지 나 혼자 집을 본 적이 있다.	222 (49.4)	127 (28.3)	30 (6.7)	32 (7.1)	38 (8.5)	449 (100.0)

영역	문항	전혀 없다	1년에 1-2번	2-3개월 에 1-2번	1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전체
방 임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지내거나 습기 찬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410 (91.3)	24 (5.3)	6 (1.3)	2 (0.4)	7 (1.6)	449 (100.0)
	부모님이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	417 (92.9)	15 (3.3)	6 (1.3)	5 (1.1)	6 (1.3)	449 (100.0)
	부모님은 내가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해도 나에게 아무 말 안한다.	409 (91.9)	16 (3.6)	7 (1.6)	4 (0.9)	9 (2.0)	445 (100.0)
가 정 폭 력	집안 내에서 부모님 중 한 분이 다른 한 분을 때리는 것을 본적이 있다.	380 (85.8)	44 (9.9)	8 (1.8)	5 (1.1)	6 (1.4)	443 (100.0)
	부모님이 서로 욕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313 (70.5)	84 (18.9)	16 (3.6)	20 (4.5)	11 (2.5)	444 (100.0)

(2) 학교

장애청소년들의 학교생활 경험과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및 교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지난 1년간 학교에서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과반수(49.7%) 장애청소년이 듣기 싫은 별명을 듣고 놀림을 받거나 조롱당한 경험이 있었으며, 고의적으로 따돌림을 받거나 골탕을 먹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26.0%, 협박이나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11.5%, 겁을 주거나 때려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이 있는 학생은 9.2%, 뺨, 얼굴, 머리 등을 손이나 주먹을 맞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22.0%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5년도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위원회 조사결과(2006), 또래나 선후배로부터 지속적인 집단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2.5%, 욕설이나 협박을 겪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15.0%,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이 있는 학생은 11.8%, 폭행을 겪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8.3%와 비교했을 때 장애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학교에서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가 심각하였다.

〈표 VII-43〉 학교에서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단위: 빈도(%)

문항	전혀 없다	1번	2-3번	4번 이상	전체
듣기 싫은 별명을 듣고 놀림 받거나 조롱당한 적이 있다.	181 (50.3)	56 (15.6)	54 (15.0)	69 (19.2)	360 (100.0)
고의적으로 따돌림 받거나 골탕을 먹은 적이 있다.	265 (74.0)	43 (12.0)	31 (8.7)	19 (5.3)	358 (100.0)
협박이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281 (78.5)	35 (9.8)	22 (6.1)	20 (5.6)	358 (100.0)
나에게 검을 주거나 때려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다.	325 (90.8)	15 (4.2)	11 (3.1)	7 (2.0)	358 (100.0)
내 뺨, 얼굴, 머리 등을 손이나 주먹으로 때린 적이 있다.	280 (78.0)	31 (8.6)	25 (7.0)	23 (6.4)	359 (100.0)

* 정신지체 제외

장애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선생님을 존경하며, 나를 인정해주는 선생님이 계신다(54.4%, 61.6%)고 응답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11.0%, 8.7%)고 응답한 학생들보다 5-6배 이상 많았고, 약 40%의 장애청소년들은 교사를 매우 존경하며, 자신을 매우 인정해 주시는 교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교사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장애청소년은 47.8%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낮았다. 학교에 다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장애청소년은 61.5%으로 학교생활에 대해 절반이상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교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교사가 자신을 차별 대우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17.8%, 교사에게 맞은 경험이 있다는 학생은 12.6%, 교사로부터 모욕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학생은 9.5%,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2.2%로, 장애청소년들이 교사로부터 어느 정도 차별대우 또는 폭력 피해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44〉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

단위: 빈도(%)

영역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긍정적 경험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한다.	10 (3.8)	19 (7.2)	91 (34.6)	41 (15.6)	102 (38.8)	263 (100.0)
	우리 학교에는 나를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9 (3.4)	14 (5.3)	78 (29.7)	64 (24.3)	98 (37.3)	263 (100.0)
	나는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21 (8.0)	30 (11.4)	87 (33.0)	40 (15.2)	86 (32.6)	264 (100.0)
	학교에 다니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14 (5.3)	21 (7.9)	67 (25.3)	58 (21.9)	105 (39.6)	265 (100.0)
부정적 경험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를 차별대우 한다.	99 (37.6)	62 (23.6)	57 (21.7)	31 (11.8)	14 (5.3)	263 (100.0)
	선생님께 맞은 적이 있다.	134 (51.1)	46 (17.6)	49 (18.7)	20 (7.6)	13 (5.0)	262 (100.0)
	선생님께 모욕을 받은 적이 있다.	155 (58.9)	52 (19.8)	31 (11.8)	17 (6.5)	8 (3.0)	263 (100.0)
	선생님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223 (85.1)	21 (8.0)	12 (4.6)	3 (1.1)	3 (1.1)	262 (100.0)

*지체·뇌병변·청각장애 청소년 대상

(3) 지역사회

장애청소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과 사회적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지지, 지역사회 응집력, 지역사회에서의 피해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지역사회의 지지는 부모, 형제자매, 친척, 학교친구나 선후배, 교사, 전문가 등을 지지원으로부터 받고 있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네 가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장애청소년들은 모든

영역에서 대부분의 지지원으로부터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와 친척은 장애청소년의 지지원의 역할을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원별로 보면 부모님은 정서적(94.0%), 평가적(86.4%), 정보적(82.6%), 물질적지지(87.2%) 등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은 지지원의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부모님 다음으로 장애청소년에게 지지원의 역할을 해주는 대상은 학교선생님이었다. 학교선생님은 정서적(85.9%), 평가적(82.9%), 정보적(70.3%) 지지 영역에서 부모다음으로 높은 지지를 보였다. 형제자매는 물질적 지지에서만 부모 다음으로 지지원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선후배는 정보적지지 영역에서만 높은 지지를 받았다. 다만 친척과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들의 역할을 비교적 낮았다. 특히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들이 장애청소년에게 사회적 지지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고민해보아야 할 사항이다.

<표 VII-45> 사회적 지지

단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나를 사랑하고 돌보아 준다.	부모님	11(2.4)	16(3.6)	116(25.8)	307(68.2)	450(100.0)
	형제자매	27(6.6)	41(10.0)	175(42.7)	167(40.7)	410(100.0)
	친척	28(7.0)	79(19.7)	180(44.8)	115(28.6)	402(100.0)
	학교친구, 선후배	21(5.2)	67(16.5)	218(53.8)	99(54.4)	405(100.0)
	학교 선생님	15(3.6)	44(10.6)	202(48.6)	155(37.3)	416(100.0)
	사회복지사 등	83(23.4)	96(27.1)	102(28.8)	73(20.6)	354(100.0)
나를 능력을 존중해 준다.	부모님	15(3.4)	45(10.2)	194(44.0)	187(42.4)	441(100.0)
	형제자매	35(8.8)	70(17.7)	193(48.7)	98(24.7)	396(100.0)
	친척	49(12.6)	95(24.4)	174(44.7)	71(18.3)	389(100.0)
	학교친구, 선후배	18(4.7)	94(24.5)	193(50.4)	78(20.4)	383(100.0)
	학교 선생님	13(3.2)	56(13.8)	220(54.3)	116(28.6)	405(100.0)
	사회복지사 등	82(23.6)	67(19.3)	140(40.3)	58(16.7)	347(100.0)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내가 무언가 의논하거나 이야기 하고 싶을 때 도움이 된다. *정신지체 제외	부모님	27(7.8)	33(9.6)	130(37.8)	154(44.8)	344(100.0)
	형제자매	40(12.5)	82(25.7)	115(36.1)	82(25.7)	319(100.0)
	친척	74(23.3)	100(31.5)	94(29.7)	49(15.5)	317(100.0)
	학교친구, 선후배	29(9.1)	66(20.6)	138(43.1)	87(27.2)	320(100.0)
	학교 선생님	29(9.1)	66(20.6)	138(43.1)	87(27.2)	320(100.0)
	사회복지사 등	92(32.3)	64(22.5)	80(28.1)	49(17.2)	285(100.0)
내가 필요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거나 빌려준다.	부모님	26(6.1)	28(6.6)	144(34.0)	225(53.2)	423(100.0)
	형제자매	27(6.7)	54(13.5)	182(45.4)	138(34.4)	401(100.0)
	친척	69(17.9)	89(23.1)	152(39.4)	76(19.7)	386(100.0)
	학교친구, 선후배	26(6.7)	75(19.3)	208(53.5)	80(20.6)	389(100.0)
	학교 선생님	51(13.0)	85(21.7)	166(42.5)	89(22.8)	391(100.0)
	사회복지사 등	107(31.8)	74(22.0)	106(31.5)	49(14.6)	336(100.0)

장애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응집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 지역사회 주민들의 협력, 지역사회에서의 피해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장애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의식은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았다.

67.8%의 장애청소년들이 자신의 동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매우 안전하다는 응답은 17.7%에 불과하였으며, 68.5%의 장애청소년들이 이사를 하게 되면 자기 동네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25.2%에 불과했다. 57.4%의 장애청소년들이 동네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으면 기꺼이 서로 도우려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12.7%만이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한편 동네에서 돈을 빼앗기거나 심하게 두들겨 맞은 적이 있다는 장애청소년은 5.1%, 동네에서 칼이나 흉기로 위협을 받거나 다친 적이 있다는 장애청소년은 1.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장애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의 피해의 경험은 그리 많지 않았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안전이나 애착,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협조에 대한 신뢰는 그리 높지 않았다.

〈표 VII-46〉 지역사회 응집력

단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우리 동네가 아이들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43 (9.5)	103 (22.7)	227 (50.1)	80 (17.7)	453 (100.0)
내가 만약 이사를 가게 된다면 우리 동네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48 (10.7)	93 (20.8)	194 (43.3)	113 (25.2)	448 (100.0)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기꺼이 서로 도우려고 할 것이다.	59 (13.1)	133 (29.6)	201 (44.7)	57 (12.7)	450 (100.0)
나는 동네에서 돈을 빼앗기거나 심하게 두들겨 맞은 적이 있다.	370 (82.4)	56 (12.5)	17 (3.8)	6 (1.3)	449 (100.0)
나는 동네에서 칼이나 흉기로 위협받거나 다친 적이 있다.	404 (90.0)	38 (8.5)	5 (1.1)	2 (0.4)	449 (100.0)

특히 지역사회의 안전과 관련하여 집, 학교, 동네, 다른 장소 등 지역사회에서의 피해 경험을 조사하였는데, 성추행이나 강간 피해 경험이 있는 장애 청소년들이 5.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가 그리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표 VII-47〉 집, 학교, 동네, 다른 장소 등에서 성추행이나 강간 경험

단위: 빈도(%)

전혀 없다	1번	2-3번	4번 이상	전체
429(94.9)	11(2.4)	9(2.0)	3(0.6)	452(100.0)

집, 학교, 동네, 다른 장소 등에서 성추행이나 강간피해 경험이 있는 장애 청소년 중 21.6% 만이 피해 받은 사실을 알렸으며, 공식적인 기관보다는 부모나 친구에게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48〉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 또는 기관

단위: 빈도(%)

피해 받은 적이 없다	가까운 친구	부모 혹은 성인	공식적 기관	아무에게 알리지 않음	기타	전체
310(71.4)	31(7.1)	47(10.8)	16(3.7)	19(4.4)	11(2.5)	434(100.0)

피해 경험이 있는 장애청소년들이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2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타인이 아는 것이 싫어서(20.8%), 알려야 할 곳을 몰라서(12.5%),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12.5%), 가해자 보복이 두려워서(6.3%), 등으로 나타나,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함께 관계 기관의 처리 절차에 대한 불신이 많았다. 이는 장애청소년들의 정보와 지원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VII-49〉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단위: 빈도(%)

해결될 것 같이 않아서	타인이 아는 것이 싫어서	가해자 보복이 두려워서	알려야 할 곳을 몰라서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기타	전체
14(29.2)	10(20.8)	3(6.3)	6(12.5)	6(12.5)	9(18.8)	418(100.0)

(4) 직장·근로

장애청소년들의 일(아르바이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수입, 피해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일(아르바이트)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장애청소년들은 10% 정도로 나타났다.

〈표 VII-50〉 일(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44(10.0)	397(90.0)	441(100.0)

장애청소년들이 일(아르바이트)을 통해서 번 돈은 1달 평균 10만원미만이 53.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0만원~20만원과 50만원이상(각각 15.4%)으로 대부분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51〉 일(아르바이트)를 통해서 1달 평균 번 돈

단위: 빈도(%)

10만원미만	10만원- 20만원	20만원- 30만원	30만원- 40만원	40만원- 50만원	50만원 이상	전체
7(53.8)	2(15.4)	1(7.7)	-	1(7.7)	2(15.4)	254(100.0)

*지체·뇌병변·청각장애 청소년 대상

장애청소년들이 일(아르바이트)을 하게 된 이유로는 용돈을 벌려고 한 경우가 33.3%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직업 체험을 위해서(20.8%), 생활비를 벌거나 친구들과 즐기기 위해서(각각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장애청소년들이 일을 하는 것은 생계나 교육적인 목적보다는 소비적인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표 VII-52〉 일(아르바이트)을 한 이유

단위: 빈도(%)

용돈이 필요해서	등록금, 학원비를 위해서	생활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친구들과 즐기기 위해	직업 체험을 위해서	기타	전체
8(33.3)	-	3(12.5)	3(12.5)	5(20.8)	5(20.8)	24(100.0)

* 지체·뇌병변·청각장애 청소년 대상

장애청소년들이 직장(일, 아르바이트)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경험은 임금체불(7.8%)이 가장 많았고, 부당연장근로가 6.7%, 심한 욕설이나 비난이 2.2%로 나타났다. 부당해고나 신체적 폭력, 성추행 등의 인권침해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53> 직장(아르바이트)에서의 피해 경험

단위: 빈도(%)

문항	전혀없음	1번	2-3번	4번 이상	전체
일을 했지만 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적이 있다.	83 (92.2)	5 (5.6)	1 (1.1)	1 (1.1)	90 (100.0)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한 적이 있다.	90 (100.0)	-	-	-	90 (100.0)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하도록 강요당한 적이 있다.	83 (93.3)	4 (4.5)	2 (2.2)	-	89 (100.0)
직장(아르바이트)에서 심한 욕설이나 비난을 들은 적이 있다.	87 (97.8)	1 (1.1)	-	1 (1.1)	89 (100.0)
직장(아르바이트)에서 신체적 폭행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89 (100.0)	-	-	-	89 (100.0)
직장(아르바이트)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89 (100.0)	-	-	-	89 (100.0)

* 지체·뇌병변·청각장애 청소년 대상

장애청소년들의 직장(아르바이트) 피해 시 대처방법으로는 그만둔다(6.3%)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참는다와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다(각 5.1%)순으로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장애청소년들이 직장에서 받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 경찰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리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개인적으로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II-54〉 직장(아르바이트) 피해 시 대처 방법

항목	빈도	백분율
피해당한 적 없다	53	67.1
참는다	4	5.1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4	5.1
친구와 상의한다	1	1.3
직장(아르바이트)을 그만둔다	5	6.3
경찰서에 신고한다	2	2.5
인터넷에 올린다	1	1.3
노동부에 전화하여 근로감독관과의 상담을 요청한다	1	1.3
기타	8	10.1
전체	79	100.0

* 지체·뇌병변·청각장애 청소년 대상

4) 인권 및 참여욕구

(1) 인권 및 사회참여의식

장애청소년의 인권과 참여의식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장애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참여여건, 소외집단 인권에 대한 책임감과 참여의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는 61.7%의 장애청소년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인권상황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69.2%), 학교에서 규칙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청소년들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58.0%), 징계를 받았을 때 변호할 기회가 주어진다(50.3%)에 과반수가 넘는 장애청소년들이 동의하였고, 학교방송, 학교신문 등에 의견을 말할 수 있다(45.5%)는 것과 성적이나 집안환경에 관계없이 학생회대표로 나갈 수 있다(44.7%)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하가 동의하였다.

또한 문화·예술활동(67.3%), 진학이나 중요문제에 대한 결정(66.7%), 각종 모임이나 활동참여(63.1%), 아르바이트나 단체활동(64.4%) 등에서 장애청소년들의 선택의 자유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학문제 등

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의 부모의 일방적 강요는 25.1%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경문제, 폭력문제, 성폭력문제 등의 사회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49.2%가 동의하여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표 VII-55〉 청소년 인권 의식 및 참여 여건

단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나는 청소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잘 알고 있다.	39 (11.0)	96 (27.2)	173 (49.0)	45 (12.7)	353 (100.0)
학교에서 규칙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들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	48 (13.8)	98 (28.2)	158 (45.4)	44 (12.6)	348 (100.0)
학교방송, 학교신문 등에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61 (17.3)	132 (37.5)	127 (36.1)	32 (9.1)	352 (100.0)
성적이나 집안환경에 관계없이 학생회 대표로 나갈 수 있다.	76 (21.8)	117 (33.5)	122 (35.0)	34 (9.7)	349 (100.0)
징계(벌)을 받게 되었을 때 내가 설명하고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62 (17.9)	110 (31.8)	150 (43.4)	24 (6.9)	346 (100.0)
학교에서 우리들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35 (10.0)	73 (20.8)	180 (51.3)	63 (17.9)	351 (100.0)
내가 좋아하거나 원하는 모임이나 활동을 어떠한 규제나 간섭 없이 할 수 있다.	44 (12.6)	85 (24.3)	172 (49.1)	49 (14.0)	350 (100.0)
진학문제 등 나에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사보다는 부모님(보호자)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	86 (24.5)	148 (42.2)	92 (26.2)	25 (7.1)	351 (100.0)
내 적성에 맞는 문화예술 활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33 (9.4)	81 (23.1)	169 (48.3)	67 (19.1)	350 (100.0)
아르바이트나 단체활동 등 사회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제재를 많이 받는다.	88 (25.5)	134 (38.8)	86 (24.9)	37 (10.7)	345 (100.0)
환경문제, 폭력문제, 성폭력문제 등 나와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	69 (19.9)	107 (30.8)	132 (38.0)	39 (11.2)	347 (100.0)

* 정신지체 제외

장애청소년들의 사회의 소수집단이라 할 수 있는 동성애, 장애인, 여성 집단의 인권에 대한 책임감과 그들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의식에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청소년들은 소외집단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79.0%), 자신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68.8%), 자신의 선택과 참여가 사회변화에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58.1%)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자신에게는 없으며(62.4%), 자신의 책임보다는 정부나 인권단체 등에서 해야 할 일(59.2%)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56> 소외집단 인권에 대한 책임감 및 참여의식

단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나는 타인을 존중하고 소수(동성애, 장애인, 여성 등)의 입장을 고려한다.	33 (9.5)	40 (11.5)	162 (46.7)	112 (32.3)	347 (100.0)
나의 선택과 참여가 사회변화에 대해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다.	33 (9.6)	111 (32.3)	158 (45.9)	42 (12.2)	344 (100.0)
동성애, 장애인, 여성에 관한 문제(차별, 인권침해와 유린 등)들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112 (32.7)	124 (36.2)	80 (23.3)	27 (7.9)	343 (100.0)
나는 동성애, 장애인, 여성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할 힘이 없다.	36 (10.4)	94 (27.2)	123 (35.7)	92 (26.7)	345 (100.0)
동성애, 장애인, 여성에 관한 문제들은 나의 책임보다는 정부나 인권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다.	42 (12.2)	99 (28.7)	111 (32.2)	93 (27.0)	345 (100.0)

(2) 사회참여 정도

장애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회참여 욕구와 참여 정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사회참여 욕구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관심이 많은, 또한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행정, 사회, 경제, 여가문

화 등에서의 참여 필요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영역에서의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소감 또는 견해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 78.9%의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청소년 관련 정책과 행정과정에 공식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76.4%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89.3%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79.7%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청소년들끼리 여가문화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81.7%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VII-57> 사회참여 필요 정도

단위: 빈도(%)

문 항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전체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소감 또는 견해를 밝히는 것(교칙제정 등)	41 (9.7)	48 (11.3)	234 (55.3)	100 (23.6)	423 (100.0)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과 행정과정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37 (8.9)	61 (14.7)	213 (51.3)	104 (25.1)	415 (100.0)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봉사활동 등)	26 (6.2)	19 (4.5)	226 (53.7)	150 (35.6)	421 (100.0)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아르바이트 등)	37 (8.8)	49 (11.6)	218 (51.7)	118 (28.0)	422 (100.0)
청소년들끼리 여가문화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것	33 (7.9)	43 (10.3)	216 (51.9)	124 (29.8)	416 (100.0)

반면 장애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정도는 욕구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소감 또는 견해를 밝힌다(25.1%), 청소년 관련 정책과 행정과정에 공식적 의견을 제시한다(12.0%), 청소년들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을 한다(29.5%),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한다(14.8%), 청소년들끼리 여가문화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한다(19.0%)고 응답하고 있어 사회참여의 인식이나 욕구는 높으나 실제적인 참여활동의 수준은 매우 낮았다. 이는 장애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참여를 위한 장이나 프로그램, 참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방법 등 장애청소년들이 사회참여를 위한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II-58〉 사회참여 정도

단위: 빈도(%)

문항	전혀 하고 있지 않다	하고 있지 않다	조금 하고 있다	많이 하고 있다	전체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소감 또는 견해를 밝히는 것(교칙제정 등)	136 (37.5)	136 (37.5)	78 (21.5)	13 (3.6)	363 (100.0)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과 행정과정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178 (50.6)	132 (37.5)	39 (11.1)	3 (0.9)	352 (100.0)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봉사활동 등)	127 (35.3)	127 (35.3)	91 (25.3)	15 (4.2)	360 (100.0)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아르바이트 등)	181 (50.4)	125 (34.8)	29 (8.1)	24 (6.7)	359 (100.0)
청소년들끼리 여가문화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것	168 (47.1)	121 (33.9)	53 (14.8)	15 (4.2)	357 (100.0)

3. 성별에 따른 복지실태 및 욕구

1) 기초생활실태 및 생존욕구

기초생활실태는 의식주, 의료·보건 및 건강 등에서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나 자아존중감, 자살기도 경험 등의 건강 부분에

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경우에는 남자가 28.05점으로 여자가 26.68점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VII-59〉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남자	203	28.05	5.53	2.348*	358
여자	157	26.68	5.49		

*p<.05

자살행위나 자살기도 경험의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행위나 자살기도 경험이 있는 여자는 20.3%인데 비해, 남자는 19.9%로 여자 장애청소년이 남자 장애청소년에 비해 아주 약간 경험이 많았다.

〈표 VII-60〉 성별에 따른 자살행위나 자살기도 경험

단위: 빈도(%)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값
남자	32(19.9)	236(80.1)	268(100.0)	5.943*
여자	38(20.3)	149(79.7)	187(100.0)	

*p<.05

2) 문화여가활동 및 발달욕구

문화여가활동에서는 학교생활적응, 등교 등의 학교생활과 인터넷이나 전화사용 등의 정보·문화활동, 청소년 관련시설과 복지서비스 인지와 이용 등의 지역사회시설 및 서비스, 그리고 성문제행동, 가출여부 등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으나 청소년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만이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지역사회서비스

장애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복지서비스 인지 및 이용 경험에서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장애청소년의 경우 여자청소년(3.2점)이 남자청소년(2.9점)보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61> 성별에 따른 청소년 복지서비스 인지 및 이용여부

항목	구분	총점	표준 편차	t값	자유도
모르고 있었다	남자	4.42	4.25	1.56	402.4
	여자	3.80	3.85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남자	3.50	3.58	-1.40	421
	여자	4.00	3.51		
이용해본 적 있다	남자	2.59	2.75	-2.23*	421
	여자	3.2	2.82		

*p<.05

3) 사회지원체계 및 보호육구

사회적 지원체계는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나 부모의 청소년학대, 학교생활 및 교사와의 긍정적, 부정적 경험 등의 가정과 학교 부분에서만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가정

부모의 청소년 학대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나누어 학대경험에 대해 평균 비교를 통해서 보면, 여자(1.42점)가 남자(1.31점)보다 부모로부터 방임의 학대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VII-62〉 성별에 따른 부모의 청소년학대

항목	구분	평균	표준 편차	t값	자유도
신체적 학대	남자	1.19	0.50	0.655	439
	여자	1.16	0.42		
정서적 학대	남자	1.45	0.75	-1.21	441
	여자	1.54	0.78		
방임	남자	1.31	0.54	-2.13*	441
	여자	1.42	0.56		

*p<.05

(2) 학교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경험의 경우에는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교사에 대한 존중 등 긍정적 경험의 경우에는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교사로부터의 차별대우, 모욕, 매, 성희롱 등 부정적 경험의 경우에는 남녀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교사에 대한 긍정적 경험에서 남자가 3.91점, 여자가 3.52점으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긍정적인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에 비해서 교사를 존중하거나 교사로부터 인정받는 등 학교생활에 만족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표 VII-63〉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긍정적 경험	남자	3.91	0.99	3.21***	259
	여자	3.52	0.97		
부정적 경험	남자	1.80	0.82	0.15	259
	여자	1.79	0.72		

***p<.001

4) 인권 및 참여욕구

인권 및 사회참여욕구에서는 인권과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과 참여정도 등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으나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

에서 남·여청소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인식수준은 남자가 2.53점, 여자는 2.77점으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청소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잘 알고 있었다.

〈표 VII-64〉 나는 청소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잘 알고 있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남자	2.53	0.84	-2.75**	336
여자	2.77	0.82		

**p<.01

4. 장애유형에 따른 복지실태 및 욕구

1) 기초생활실태 및 생존욕구

기초생활실태는 의식주, 의료·보건 및 건강 등에서 장애유형 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나 의식주, 건강검진 유무, 자아존중감, 자살기도 경험 등 의식주, 의료·보건 및 건강의 모든 부분에서 장애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의식주

장애유형에 따른 의식주생활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의식주생활은 정신지체가 1.50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고, 뇌병변장애(1.59점), 지적장애(1.69점), 시각장애(1.77점), 청각장애 (2.03점)의 순으로 나타나 정신지체청소년이 규칙적인 식사생활, 계절에 적합한 의복착용, 일정한 주거생활 등 의식주생활에서 가장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청각장애청소년이 가장 건전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I-65> 장애유형에 따른 의식주생활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4)	5)
정신지체 ¹⁾ (n=96)	1.50	0.33	18.869***	-	**	-	-	***
시각 ²⁾ (n=96)	1.77	0.48		-	-	-	-	**
뇌병변 ³⁾ (n=63)	1.59	0.40		**	-	-	-	***
지체 ⁴⁾ (n=94)	1.69	0.41		-	-	-	-	***
청각 ⁵⁾ (n=95)	2.03	0.55		***	**	***	***	-

p<.01 *p<.001

(2) 의료·보건

건강검진의 경험에 있어서 장애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신지체청소년이 지난 1년간 학교, 병원 등의 기관에서 건강검진의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78.6%), 그 다음으로는 청각장애청소년(63.2%), 시각장애청소년(57.3%), 지체장애청소년(57.0%), 뇌병변장애청소년(55.7%)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지체청소년들이 타 장애유형보다 약 20%정도 건강검진을 한 경험이 많았다.

<표 VII-66> 장애유형에 따른 건강검진 유무

단위: 빈도(%)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값
정신지체	77(78.6)	21(21.4)	98(100.0)	14.54**
시각	55(57.3)	41(42.7)	96(100.0)	
뇌병변	39(55.7)	31(44.3)	70(100.0)	
지체	53(57.0)	40(43.0)	93(100.0)	
청각	60(63.2)	35(36.8)	95(100.0)	

**p<.01

(3) 건강

장애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아존중감의 척도범위 10-40점 중에서 뇌병변장애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으며(29.08점), 다음은 시각장애청소년(27.58점), 청각장애청소년(27.32점), 지체장애청소년(26.18점) 순으로 나타났다. 시각, 뇌병변, 지체장애청소년들 간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뇌병변장애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지체장애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67> 장애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2)	3)	4)	5)
시각 ²⁾ (n=99)	27.58	6.27	3.75*	-	-	-	-
뇌병변 ³⁾ (n=69)	29.08	5.91		-	-	*	-
지체 ⁴⁾ (n=95)	26.18	5.61		-	*	-	-
청각 ⁵⁾ (n=99)	27.32	4.00		-	-	-	-

*p<.05

장애유형에 따른 자살행위나 자살기도 경험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청각장애청소년이 자살행위나 기도의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24.7%), 다음으로 시각장애청소년(21.2%), 지체장애청소년(16.7), 뇌병변장애청소년(10.1%), 정신지체청소년(2.1%) 순으로 나타났다. 청각, 시각장애청소년들은 뇌병변, 정신지체청소년에 비해 무려 2배에서 10배 이상 자살행위나 자살기도의 경험이 많았다.

〈표 VII-68〉 장애유형에 따른 자살행위나 자살기도 경험

단위: 빈도(%)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값
정신지체	2(2.1)	94(97.9)	96(100.0)	23.815***
시각	21(21.2)	78(78.8)	99(100.0)	
뇌병변	7(10.1)	62(89.9)	69(100.0)	
지체	16(16.7)	80(83.3)	96(100.0)	
청각	24(24.7)	73(75.3)	97(100.0)	

***p<.001

2) 문화여가활동 및 발달육구

문화여가활동 및 발달육구는 학교생활적응, 등교, 청소년관련 시설 인지와 이용, 청소년 복지서비스 인지와 이용 등에서 장애유형 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교육과 지역사회 서비스 등 모든 부문에서 장애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교육

학교생활적응은 청각장애청소년을 제외하고 90% 이상의 장애청소년들이 잘 적응하고 있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뇌병변장애청소년(95.7%)이 가장 잘 적응하고 있었으며, 청각장애청소년(83.7%)이 가장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장애청소년보다 3배 정도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69〉 장애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단위: 빈도(%)

구분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	잘 적응하고 있는 편이다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χ^2 값
정신지체	36(36.7)	57(58.2)	4(4.1)	1(1.0)	98(100.0)	43.84***
시각	46(47.7)	41(42.3)	6(6.2)	4(4.1)	97(100.0)	
뇌병변	29(41.4)	38(54.3)	2(2.9)	1(1.4)	70(100.0)	
지체	55(57.3)	35(36.5)	6(6.3)	-	96(100.0)	
청각	19(19.4)	63(64.3)	9(9.2)	7(7.1)	98(100.0)	

***p<.001

학교결석의 경험은 뇌병변장애청소년(61.4%)이 가장 많았으며, 청각장애 청소년(49.0%), 시각장애청소년(49.5%)이 가장 적었다. 10%이상의 장애학생들은 7일 이상의 장기간 결석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뇌병변장애청소년은 7.1%, 시각장애청소년은 4.1%가 1달 이상의 장기간 학교에 출석을 하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70> 장애유형에 따른 학교가지 않는 날

단위: 빈도(%)

구분	없다	1-2번	7일 정도	보름정 도	한 달 정도	한 달 이상	전체	χ^2 값
정신지체	45 (46.4)	32 (33.0)	12 (12.4)	4 (4.1)	3 (3.1)	1 (1.0)	97 (100.0)	33.0*
시각	49 (50.5)	30 (30.9)	5 (5.2)	9 (9.3)	0 (0.0)	4 (4.1)	97 (100.0)	
뇌병변	27 (38.6)	29 (41.4)	6 (8.6)	2 (2.9)	1 (1.4)	5 (7.1)	70 (100.0)	
지체	42 (44.7)	42 (44.7)	7 (7.4)	3 (3.2)	0 (0.0)	0 (0.0)	94 (100.0)	
청각	50 (51.0)	34 (34.7)	8 (8.2)	1 (1.0)	3 (3.1)	2 (2.0)	98 (100.0)	

*p<.05

(3) 지역사회서비스

장애학생들이 청소년 수련기관, 쉼터, 각종 센터 등 14개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에 있어서 장애유형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며, 인지도와 이용경험에서 장애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인지도나 이용경험은 매우 낮았는데, 특히 인지도는 14점 만점에 8점대 수준으로 나타나 장애학생들이 청소년 관련 기관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용경험은 1점대 수준으로 나타나 장애학생들은 거의 청소년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인지도를 비교하면 정신지체청소년(2.30점)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모른다고 응답) 그 다음으로 뇌병변장애청소년(5.25점), 시각장애청소년(5.45점), 지체장애청소년(5.92점) 순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청소년(6.95점)은 장애유형 중 가장 인지도가 낮았으며, 타 장애학생보다 2-3배 정도 인지도가 낮았다. 한편 청소년 관련 기관의 이용 경험의 경우에는 인지도가 가장 낮은 청각장애청소년(2.02점)이 이용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체장애청소년(1.31점)의 이용 경험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VII-71> 장애유형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인지 및 이용여부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4)	5)
모르고 있었다	정신지체 ¹⁾ (n=92)	2.30	3.40	14.50***	-	***	**	***	***
	시각 ²⁾ (n=94)	5.45	4.68		***	-	-	-	-
	뇌병변 ³⁾ (n=67)	5.25	4.75		**	-	-	-	-
	지체 ⁴⁾ (n=91)	5.92	4.61		***	-	-	-	-
	청각 ⁵⁾ (n=99)	6.95	4.55		***	-	-	-	-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정신지체 ¹⁾ (n=92)	5.33	4.83	0.96	-	-	-	-	-
	시각 ²⁾ (n=94)	4.47	4.17		-	-	-	-	-
	뇌병변 ³⁾ (n=67)	4.94	4.44		-	-	-	-	-
	지체 ⁴⁾ (n=91)	5.30	4.40		-	-	-	-	-
	청각 ⁵⁾ (n=99)	4.39	4.17		-	-	-	-	-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4)	5)
이용해 본 적 있다	정신지체 ¹⁾ (n=92)	1.97	1.30	2.57*	-	-	-	-	-
	시각 ²⁾ (n=94)	1.84	1.73		-	-	-	-	-
	뇌병변 ³⁾ (n=67)	1.67	1.03		-	-	-	-	-
	지체 ⁴⁾ (n=91)	1.31	1.43		-	-	-	-	-
	청각 ⁵⁾ (n=99)	2.02	2.42		-	-	-	-	-

*p<.05 **p<.01 *** p<.001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내 14개 청소년 관련 기관 각각에 대한 인지도나 이용경험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14개의 기관 중에 <표 IV-7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근로청소년회관, 청소년자활지원관, 청소년상담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4개의 기관을 제외하고 10개의 기관에서 인지와 이용경험에서 장애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정신지체청소년이 10개의 기관 모두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특히 장애인복지관 등의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98.8%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청각장애청소년은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공부방을 제외하고 8개의 기관에서 인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47.0%)과 청소년공부방(57.3%)의 경우 지체장애청소년의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

이용경험에 있어서는 정신지체청소년은 문화의집·청소년수련관(55.1%), 유스호스텔 등 외부 청소년수련시설(63.4%), 종합사회복지관(83.5%) 등에서 이용경험이 많았다. 시각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미혼모시설(2.6%)과 고용안정센터(3.8%)에서 이용경험이 많았다. 지체장애청소년은 청소년공부방(19.1%), 청소년쉼터(7.4%)에서 이용경험이 많았다. 청각장애청소년은 청소년공부방(19.1%), 청소년쉼터(7.4%), 그룹홈(12.5%),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5.3%), 직업훈련원

(12.6%)에서 이용 경험이 많았다. 뇌병변장애청소년은 거의 모든 시설에서 이용 경험이 낮았다. 청소년쉼터, 그룹 홈,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고용안정센터, 미혼모시설, 직업훈련원 등 6개의 기관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고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용경험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72〉 장애유형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인지 및 이용여부
단위: 빈도(%)

항목	구분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이 없다	이용해 본 적이 있다	전체	χ^2 값
문화의집· 청소년 수련관 등	정신지체	11(15.9)	20(29.0)	38(55.1)	69(100.0)	32.77***
	시각	34(41.0)	28(33.7)	21(25.3)	83(100.0)	
	뇌병변	15(25.4)	22(37.3)	22(37.3)	59(100.0)	
	지체	39(47.0)	27(32.5)	17(20.5)	83(100.0)	
	청각	30(32.6)	22(23.9)	40(43.5)	92(100.0)	
청소년 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정신지체	9(12.7)	17(23.9)	45(63.4)	71(100.0)	26.52**
	시각	27(32.5)	18(21.7)	38(45.8)	83(100.0)	
	뇌병변	15(25.4)	15(25.4)	29(49.2)	59(100.0)	
	지체	24(30.0)	30(37.5)	26(32.5)	80(100.0)	
	청각	36(39.1)	26(28.3)	30(32.6)	92(100.0)	
청소년공부방	정신지체	13(21.0)	43(69.4)	6(9.7)	62(100.0)	34.21***
	시각	37(47.4)	33(42.3)	8(10.3)	78(100.0)	
	뇌병변	26(46.4)	25(44.6)	5(8.9)	56(100.0)	
	지체	47(57.3)	33(40.2)	2(19.1)	82(100.0)	
	청각	44(46.8)	32(34.0)	18(19.1)	94(100.0)	
종합사회복지관	정신지체	1(1.2)	13(15.3)	71(83.5)	85(100.0)	79.63***
	시각	12(14.0)	15(17.4)	59(68.6)	86(100.0)	
	뇌병변	5(17.2)	16(24.6)	44(67.7)	65(100.0)	
	지체	15(17.2)	35(40.2)	37(42.5)	87(100.0)	
	청각	36(37.1)	28(28.9)	33(34.0)	97(100.0)	

항목	구분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이 없다	이용해 본 적이 있다	전체	χ^2 값
청소년 쉼터	정신지체	22(36.7)	36(60.0)	2(3.3)	60(100.0)	16.45*
	시각	40(51.9)	34(44.2)	3(3.9)	77(100.0)	
	뇌병변	30(53.6)	26(46.4)	-	56(100.0)	
	지체	41(50.6)	34(42.0)	6(7.4)	81(100.0)	
	청각	57(60.6)	30(31.9)	7(7.4)	94(100.0)	
그룹 홈 (공동생활가정)	정신지체	8(13.1)	46(75.4)	7(11.5)	61(100.0)	53.35***
	시각	38(50.7)	32(42.7)	5(6.7)	75(100.0)	
	뇌병변	31(54.4)	25(43.9)	1(1.8)	57(100.0)	
	지체	37(46.8)	37(46.8)	5(6.3)	79(100.0)	
	청각	63(65.6)	21(21.9)	12(12.5)	96(100.0)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	정신지체	21(35.6)	38(64.4)	-	59(100.0)	23.76**
	시각	33(42.9)	42(54.5)	2(2.6)	77(100.0)	
	뇌병변	34(63.0)	20(37.0)	-	54(100.0)	
	지체	47(57.3)	35(42.7)	-	82(100.0)	
	청각	53(56.4)	36(38.3)	5(5.3)	94(100.0)	
고용안정센터	정신지체	19(32.2)	40(67.8)	-	59(100.0)	28.66***
	시각	50(64.1)	25(32.1)	3(3.8)	78(100.0)	
	뇌병변	28(50.0)	28(50.0)	-	56(100.0)	
	지체	42(51.2)	38(46.3)	2(2.4)	82(100.0)	
	청각	64(66.7)	29(30.2)	3(3.1)	96(100.0)	
미혼모 시설	정신지체	13(21.7)	47(78.3)	-	60(100.0)	43.15***
	시각	40(51.3)	36(46.2)	2(2.6)	78(100.0)	
	뇌병변	30(53.6)	26(46.4)	-	56(100.0)	
	지체	47(58.0)	34(42.0)	-	81(100.0)	
	청각	61(64.9)	28(29.8)	5(5.3)	94(100.0)	
직업 훈련원	정신지체	13(21.7)	44(73.3)	3(5.0)	60(100.0)	36.28***
	시각	42(53.8)	30(38.5)	6(7.7)	78(100.0)	
	뇌병변	30(54.5)	25(45.5)	-	55(100.0)	
	지체	35(43.8)	42(52.5)	3(3.8)	80(100.0)	
	청각	52(54.7)	31(32.6)	12(12.6)	95(100.0)	

*p<.05 **p<.01 ***p<.001

종합적으로 보면 장애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기관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나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장애유형별로 인지도나 이용경험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으며, 인지도는 정신지체청소년이 가장 높았고 청각장애청소년이 가장 낮았으며, 이용 경험에 있어서는 인지도가 가장 낮은 청각장애인이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 인지도가 낮은 지체장애인이 두 번째로 이용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청소년을 위한 기관이 있다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지만 장애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장애로 인해 제약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 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적절한 배려와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청소년들이 국가 또는 민간단체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제공하는 개별상담, 장학금 및 생활비지원, 캠프 등의 수련활동 등 12가지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에 있어서 장애유형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나 이용경험에 있어서만 장애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국가나 민간단체가 제공하는 청소년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매우 낮았으며, 인지도는 12점 만점에 8-9점대, 이용경험은 12점 만점에 2-3점대로 나타나 장애청소년들은 국가나 민간이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이용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이용경험을 비교하면 청각장애청소년(3.59점)이 경험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시각장애청소년(2.93점), 지체장애청소년(2.78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지체청소년이 2.31점으로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73> 장애유형에 따른 청소년 복지 서비스 인지 및 이용여부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4)	5)
모르고 있었다	정신지체 ¹⁾ (n=83)	3.54	3.97	1.64	-	-	-	-	-
	시각 ²⁾ (n=88)	3.63	3.77		-	-	-	-	-
	뇌병변 ³⁾ (n=66)	4.40	4.26		-	-	-	-	-
	지체 ⁴⁾ (n=92)	4.88	4.38		-	-	-	-	-
	청각 ⁵⁾ (n=96)	4.31	4.01		-	-	-	-	-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정신지체 ¹⁾ (n=83)	3.28	3.79	0.91	-	-	-	-	-
	시각 ²⁾ (n=88)	4.28	3.61		-	-	-	-	-
	뇌병변 ³⁾ (n=66)	3.51	3.62		-	-	-	-	-
	지체 ⁴⁾ (n=92)	3.69	3.41		-	-	-	-	-
	청각 ⁵⁾ (n=96)	3.68	3.37		-	-	-	-	-
이용해 본 적 있다	정신지체 ¹⁾ (n=83)	2.31	2.61	2.97*	-	-	-	-	-
	시각 ²⁾ (n=88)	2.93	2.60		-	-	-	-	-
	뇌병변 ³⁾ (n=66)	2.40	2.32		-	-	-	-	-
	지체 ⁴⁾ (n=92)	2.78	3.17		-	-	-	-	-
	청각 ⁵⁾ (n=96)	3.59	2.88		-	-	-	-	-

*p<.05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내 개별상담, 문화·예술활동, 가족상담, 의료비지원 등 12개 청소년 복지서비스 각각에 대한 인지도나 이용경험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12개의 복지서비스 중에 개별상담, 가족상담, 아플 때 치료비 지원,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숙식제공, 성교육 등 6개 서비스에서 인지도와 이용경험에서 장애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정신지체청소년의 경우에 개별상담(21.6%), 가족상담(31.3%)에서 가장 적은 수가 모른다고 응답하고 있어 2개의 상담서비스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나 아플 때 치료비지원(59.0%),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등의 2개의 경제적 지원 서비스에서 가장 인지도가 낮았다. 시각장애청소년은 숙식제공(31.3%)과 성교육(18.5%) 등 2개의 서비스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았다. 청각장애청소년은 아플 때 치료비지원, 장학금 및 생활비지원(21.3%) 등 2개의 경제적 지원 서비스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았으나 개별상담(56.8%)서비스에서 가장 인지도가 낮았다. 뇌병변장애청소년은 숙식제공(59.3%) 서비스에서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지체장애청소년은 가족상담(50.0%), 성교육(34.9%) 서비스에서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이용 경험에 있어서는 정신지체청소년은 인지도가 높았던 개별상담(50.0%)과 숙식제공(31.3%)에서 이용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청소년은 마찬가지로 인지도가 높았던 숙식제공(31.3%)과 성교육(55.6%)에서 이용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아플 때 치료비지원(6.4%)에서 이용경험이 가장 낮았으며 5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뇌병변장애청소년은 인지도가 가장 낮았던 숙식제공(7.4%)과 성교육(19.3%)에서 가장 낮았으며 성교육서비스의 경우 약 3배 이상의 이용경험에서 차이를 보였다. 지체장애청소년은 장학금 및 생활비지원(8.5%)에서 이용경험이 가장 낮았다. 청각장애청소년은 인지도가 가장 낮았던 개별상담(13.7%)에서 이용 경험에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가족상담(27.2%), 아플 때 치료비지원(30.9%)에서는 이용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74〉 장애유형에 따른 청소년 복지 서비스 인지 및 이용여부

단위: 빈도(%)

항목	구분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이 없다	이용해 본 적이 있다	전체	χ^2 값
개별상담	정신지체	16(21.6)	21(28.4)	37(50.0)	74(100.0)	59.04***
	시각	23(28.8)	46(57.5)	11(13.8)	80(100.0)	
	뇌병변	18(31.6)	25(43.9)	14(24.6)	57(100.0)	
	지체	37(42.0)	25(28.4)	26(29.5)	88(100.0)	
	청각	54(56.8)	28(29.5)	13(13.7)	95(100.0)	
가족상담	정신지체	20(31.3)	32(50.0)	12(18.8)	64(100.0)	18.06*
	시각	28(35.9)	41(52.6)	9(11.5)	78(100.0)	
	뇌병변	23(41.1)	26(46.4)	7(12.5)	56(100.0)	
	지체	43(50.0)	34(39.5)	9(10.5)	86(100.0)	
	청각	35(38.0)	32(34.8)	25(27.2)	92(100.0)	
아플 때 치료비 지원	정신지체	36(59.0)	14(23.0)	11(18.0)	61(100.0)	24.78**
	시각	41(52.6)	32(41.0)	5(6.4)	78(100.0)	
	뇌병변	30(53.6)	13(23.2)	13(23.2)	56(100.0)	
	지체	36(40.9)	32(36.4)	29(30.9)	94(100.0)	
	청각	33(35.1)	32(34.0)	29(30.9)	94(100.0)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정신지체	29(46.8)	19(30.6)	14(22.6)	62(100.0)	47.47***
	시각	20(24.7)	33(40.7)	28(34.6)	81(100.0)	
	뇌병변	24(41.4)	19(32.8)	15(25.9)	58(100.0)	
	지체	38(46.3)	37(45.1)	7(8.5)	82(100.0)	
	청각	20(21.3)	26(27.7)	48(51.1)	94(100.0)	
숙식제공	정신지체	36(59.0)	16(26.2)	9(31.3)	61(100.0)	25.23**
	시각	25(31.3)	30(37.5)	25(31.3)	80(100.0)	
	뇌병변	32(59.3)	18(33.3)	4(7.4)	54(100.0)	
	지체	43(48.3)	27(30.3)	19(21.3)	89(100.0)	
	청각	54(56.8)	31(32.6)	10(10.5)	95(100.0)	
성교육	정신지체	20(33.3)	26(43.3)	14(23.3)	60(100.0)	31.86***
	시각	15(18.5)	21(25.9)	45(55.6)	81(100.0)	
	뇌병변	17(29.8)	29(50.9)	11(19.3)	57(100.0)	
	지체	30(34.9)	24(27.9)	32(37.2)	86(100.0)	
	청각	29(31.5)	23(25.0)	40(43.5)	92(100.0)	

*p<.05 **p<.01 ***p<.001

3) 사회지원체계 및 보호육구

사회지원체계는 지역사회, 지지 외에도 가족, 학교, 지역사회, 직장 등 사회적 지원체계의 지지 등에서 장애유형 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평가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의 지역사회지지와 부모의 방임, 학교 폭력 피해 경험, 학교생활 및 교사와의 경험, 성적문제, 근로 및 근로피해경험에서 장애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지역사회지지

장애유형 별로 부모, 형제자매, 친척, 학교친구나 선후배, 교사, 전문가 등의 지지원으로부터 정서적, 평가적, 정보적, 물질적 지지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평가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른 장애유형청소년에 비해 평가적 지지는 시각장애청소년(14.14점)이, 물질적 지지는 뇌병변장애청소년(16.22점)이 부모, 형제자매, 선후배, 교사 등의 사회적 지원체계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75> 장애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4)	5)
나를 사랑하고 돌보아준다.	정신지체 ¹⁾ (n=97)	1.50	0.33	1.354	-	-	-	-	-
	시각 ²⁾ (n=97)	1.77	0.48		-	-	-	-	-
	뇌병변 ³⁾ (n=69)	1.59	0.40		-	-	-	-	-
	지체 ⁴⁾ (n=96)	1.69	0.41		-	-	-	-	-
	청각 ⁵⁾ (n=100)	2.03	0.55		-	-	-	-	-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4)	5)
나의 능력을 존중해 준다.	정신지체 ¹⁾ (n=96)	12.07	4.58	3.16*	-	*	-	-	-
	시각 ²⁾ (n=94)	14.14	3.76		*	-	-	-	-
	뇌병변 ³⁾ (n=67)	13.50	4.44		-	-	-	-	-
	지체 ⁴⁾ (n=96)	12.96	4.48		-	-	-	-	-
	청각 ⁵⁾ (n=100)	13.33	3.55		-	-	-	-	-
내가 무언가 의논하거나 이야기 하고 싶을 때 도움이 된다.	시각 ²⁾ (n=94)	14.55	4.71	0.048	-	-	-	-	-
	뇌병변 ³⁾ (n=69)	14.71	5.27		-	-	-	-	-
	지체 ⁴⁾ (n=96)	14.05	4.83		-	-	-	-	-
	청각 ⁵⁾ (n=99)	14.71	4.43		-	-	-	-	-
내가 필요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거나 빌려준다.	정신지체 ¹⁾ (n=92)	14.34	5.65	2.89*	-	-	-	-	-
	시각 ²⁾ (n=94)	15.26	5.12		-	-	-	-	-
	뇌병변 ³⁾ (n=68)	16.22	4.91		-	-	-	-	*
	지체 ⁴⁾ (n=91)	14.80	5.14		-	-	-	-	-
	청각 ⁵⁾ (n=97)	13.68	4.37		-	-	*	-	-

*p<.05

(2) 가족

가정에서의 부모에 의한 학대경험이 장애유형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방임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시각장애청소년(1.46점)이 청각장애청소년(1.43점)이나 정신지체청소년(1.17점) 보다 방임의 경험이 많았다. 이는 시각장애청소년의 부모가 타 장애유형의 부모보다 자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VII-76> 장애유형에 따른 부모의 청소년학대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4)	5)
신체적 학대	정신지체 ¹⁾ (n=92)	1.11	0.26	2.10	-	-	-	-	-
	시각 ²⁾ (n=94)	1.22	0.47		-	-	-	-	-
	뇌병변 ³⁾ (n=68)	1.17	0.44		-	-	-	-	-
	지체 ⁴⁾ (n=91)	1.12	0.35		-	-	-	-	-
	청각 ⁵⁾ (n=97)	1.28	0.68		-	-	-	-	-
정서적 학대	정신지체 ¹⁾ (n=92)	1.34	0.58	1.07	-	-	-	-	-
	시각 ²⁾ (n=95)	1.49	0.83		-	-	-	-	-
	뇌병변 ³⁾ (n=69)	1.55	0.71		-	-	-	-	-
	지체 ⁴⁾ (n=92)	1.52	0.79		-	-	-	-	-
	청각 ⁵⁾ (n=96)	1.54	0.84		-	-	-	-	-
방임	정신지체 ¹⁾ (n=91)	1.17	0.27	3.83**	-	*	-	-	*
	시각 ²⁾ (n=95)	1.46	0.64		*	-	-	-	-
	뇌병변 ³⁾ (n=68)	1.36	0.57		-	-	-	-	-
	지체 ⁴⁾ (n=93)	1.36	0.49		-	-	-	-	-
	청각 ⁵⁾ (n=97)	1.43	0.66		*	-	-	-	-

**p<.01

(3) 학교

학교생활은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학교생활이나 교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이 장애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청각장애청소년이 가장 많이 경험하였고(1.70점), 그 다음으로 뇌병변장애청소년(1.44점), 시각장애청소년(1.42점), 지체장애청소년(1.36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청각장애청소년이 시각이나 지체장애청소년보다 친구나 선배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77> 장애유형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경험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2)	3)	4)	5)
시각 ²⁾ (n=94)	1.42	0.52	5.46***	-	-	-	**
뇌병변 ³⁾ (n=70)	1.44	0.70		-	-	-	-
지체 ⁴⁾ (n=96)	1.36	0.49		-	-	-	**
청각 ⁵⁾ (n=98)	1.70	0.73		**	-	**	-

p<.01 *p<.001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경험은 학교생활이나 교사에 대한 만족, 교사에 대한 존경 등 긍정적 경험과 교사로부터의 차별대우, 구타, 모욕, 성희롱 등의 부정적인 경험 모두에서 장애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생활이나 교사에 대한 긍정적 경험은 뇌병변장애청소년이 평균 4.06점으로 가장 높았고 청각장애청소년이 평균 3.1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뇌병변장애청소년이 청각장애청소년보다 학교생활이나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부정적 경험도 청각장애청소년이 가장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이나 교사에 대한 만족은 뇌병변장애청소년이 가장 높고, 청각장애청소년이 가장 낮았다.

〈표 VII-78〉 장애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3)	4)	5)
긍정적 경험	뇌병변 ³⁾ (n=69)	4.26	0.74	37.61***	-	-	***
	지체 ⁴⁾ (n=93)	4.00	0.97		-	-	***
	청각 ⁵⁾ (n=99)	3.15	0.88		***	***	-
부정적 경험	뇌병변 ³⁾ (n=69)	1.63	0.68	9.68***	-	-	**
	지체 ⁴⁾ (n=94)	1.64	0.79		-	-	***
	청각 ⁵⁾ (n=98)	2.06	0.76		**	***	-

p<.01 *p<.001

(4) 지역사회

지역사회에서의 학생들의 피해 경험 중에서 성추행이나 강간피해 경험이 장애유형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장애유형에 따른 성 추행이나 강간의 경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청소년(10.2%)이 피해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청각장애청소년(8.3%), 정신지체장애(3.2%), 지체장애(2.1%), 뇌병변장애(0.0%) 순이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추행이나 강간 피해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시각장애청소년의 경우 10% 이상이 피해를 경험하고 있었고, 80% 이상이 2번 이상의 상습적인 성폭행 피해를 경험하고 있었다.

<표 VII-79> 장애유형에 따른 성 추행, 강간 경험

단위: 빈도(%)

구분	전혀없다	1번	2-3번	4번 이상	전체	χ^2 값
정신지체	92(96.8)	3(3.2)	-	-	95(100.0)	35.39**
시각	88(89.8)	2(2.0)	7(7.1)	1(1.0)	98(100.0)	
뇌병변	69(100.0)	-	-	-	69(100.0)	
지체	92(97.9)	-	-	1(2.1)	93(100.0)	
청각	88(91.7)	6(6.3)	2(2.1)	-	96(100.0)	

**p<.01

(5) 직장·근로

일(아르바이트) 경험에서 장애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아르바이트)의 경험은 시각장애청소년(24.7%)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청각장애청소년(8.8%), 지체장애청소년(7.7%)이었으며, 뇌병변장애청소년(2.9%)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80> 장애유형에 따른 일(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빈도(%)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값
정신지체	3(3.2)	91(96.8)	94(100.0)	32.78***
시각	24(24.7)	73(75.2)	97(100.0)	
뇌병변	2(2.9)	66(97.1)	68(100.0)	
지체	7(7.7)	84(92.3)	91(100.0)	
청각	8(8.8)	83(91.2)	91(100.0)	

***p<.001

4) 인권 및 참여욕구

인권의식 및 참여욕구는 일반적인 청소년 인권과 소외집단 인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회참여 경험에서 장애유형 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

아보았다. 소외집단 인권에 대한 인식과 사회참여 경험에서 장애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인권 및 사회참여의식

장애청소년들은 평균 4점 만점에 2.54-2.85점 수준의 소외집단 인권에 대한 책임감과 참여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뇌병변장애청소년(2.85점)이 소수의 입장을 고려하고, 차별해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이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문제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

<표 VII-81> 장애유형에 따른 소외집단 인권에 대한 책임감 및 참여의식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2)	3)	4)	5)
시각 ²⁾ (n=93)	2.59	0.58	3.73*	-	-	-	-
뇌병변 ³⁾ (n=60)	2.85	0.47		-	-	-	*
지체 ⁴⁾ (n=90)	2.64	0.59		-	-	-	-
청각 ⁵⁾ (n=96)	2.54	0.60		-	*	-	-

*p<.05

(2) 사회참여 정도

장애청소년들은 평균 4점 만점에 1.60-2.10점의 낮은 수준의 사회참여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청각장애청소년(2.10점)이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표명, 공식적 활동 참여, 사회봉사나 아르바이트참여, 자조적인 활동 등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82> 장애유형에 따른 사회참여 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4)	5)
정신지체 ¹⁾ (n=71)	1.70	0.46	6.73***	-	-	-	-	**
시각 ²⁾ (n=73)	1.79	0.65		-	-	-	-	-
뇌병변 ³⁾ (n=50)	1.72	0.56		-	-	-	-	*
지체 ⁴⁾ (n=72)	1.60	0.67		-	-	-	-	***
청각 ⁵⁾ (n=73)	2.10	0.71		**	-	**	***	-

*p<.05 **p<.01 ***p<.001

5. 소결

이 장에서는 장애청소년의 복지실태와 욕구를 조사하여 복지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첫째, 생존권의 측면에서 볼 때, 장애청소년은 의식주, 신체적 정신적 건강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자살행위나 자살기도에서는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사용하는 방이 없는 장애청소년이 절반 이상 되었으며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거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경험을 한 청소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기본적인 건강이나 위생문제에 있어서 충분한 보호나 양육을 받지 못하였다. 질병과 지난 1년 간의 건강검진 경험은 60%이상이었으며, 이 중 76.0%가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아존중감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27.4점(표준편차 5.55)으로 약간 낮았으며, 자해행위나 자살기도의 경험도 15.3%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발달권의 측면에서는 장애청소년 중에서 학교에 부적응하는 청소년

은 8.2%에 불과하였으나, 장애청소년의 등·하교 지원 등 이동권의 문제가 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나타났다. 정보 및 여가활동에서의 욕구 역시 큰 데 비해 통신비용이나 시설에 대한 이용 정보나 여건의 불리함으로 인해서 장애청소년이 소외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다. ‘등하교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등의 이유로 과반수이상(53.3%)이 결석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의 어려움도 장애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장애청소년의 교육 욕구에 비해 그 권리가 자유롭지 못함이 파악되었다. 정보문화의 측면에서는 9만원이상의 통신비용을 지불하는 청소년이 10%정도로 다른 청소년에 비해 과중한 통신비용으로 인해 부담감(27.9%)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가활동은 TV시청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가정 내에서 보내는 여가활동보다는 외부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지역사회 청소년 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이용경험은 인지도가 20%수준인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의 공공 이용시설이 가장 많았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도 30%수준으로 낮았으며, 캠프 등 수련활동, 문화 예술 활동, 장학금 및 생활비지원 등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호권의 측면에서 볼 때, 장애청소년들은 가정에서의 방임 등의 문제와 학교에서의 폭력피해가 심각하며, 가족 이외의 특별한 지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과 학교에서의 보호와 다양한 지원 확보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청소년의 가정 내에서의 신체적 학대는 약 15%, 정서적 학대는 30%, 방임은 50%로 조사되었다. 학교에서의 폭력 피해는 별명, 놀림, 조롱(49.7%)의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지역사회에서의 피해 경험은 그리 많지 않았으나 성추행이나 강간피해의 경험이 있는 장애청소년은 5.4%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1.6%만이 피해 받은 사실을 공식적 기관보다는 부모나 친구에게 알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와 친척은 장애청소년의 지원의 역할을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참여권의 측면에서는 장애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이나 욕

구는 매우 높으나 실제적인 참여활동의 수준은 매우 낮아 장애청소년들의 참여권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여건 조성이 필요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장애청소년들은 소외집단의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79.0%), 자신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있다(68.8%)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별에 따른 복지욕구의 비교에서는 자아존중감의 경우에는 남자(28.05점)가 여자(26.68점)에 비해 높았으며, 자살행위나 자살기도 경험과 부모로부터의 방임은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는 여자(3.2점)가 남자(2.9점)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인권인식 수준도 여자청소년(2.77점)이 남자청소년(2.53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정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장애유형별 복지욕구의 비교에서는 특히 청각장애청소년들이 의식주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에 문제가 가장 컸으며, 자살행위나 자살기도의 경험, 학교 폭력 피해 경험도 가장 많았다. 또한 시각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로부터의 방임과 성폭력 피해 등 지역사회에서의 폭력 피해가 가장 많아 가장 주의를 요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장애청소년들은 대부분 소외집단의 인권에 대해서 책임감과 참여의식이 높았으며, 특히 뇌병변장애청소년들이 자신이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문제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장애청소년들은 사회참여의 경험이 낮는데, 그 중에서 청각장애청소년은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사회봉사나 아르바이트 참여 등의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III. 청소년 유형별 복지욕구 비교

1. 기초생활실태 및 생존욕구
2. 문화여가활동 및 발달욕구
3. 사회지원체계 및 보호욕구
4. 인권 및 참여욕구
5. 소결

VIII. 청소년 유형별 복지욕구 비교

1. 기초생활실태 및 생존욕구

1) 의식주

청소년들의 의식주생활에 대한 평균 비교에서 학생청소년 3.43점, 장애청소년 3.28점, 빈곤청소년 3.14점, 가출청소년 2.61점으로 나타나, 규칙적인 식사생활, 계절에 적합한 의복 착용, 일정한 주거생활 등 의식주생활에서 가출청소년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빈곤청소년, 장애청소년, 학생청소년의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빈곤이나 장애보다도 가출이라는 상황이 불안정한 숙식과 길거리생활 등으로 청소년의 의식주생활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VIII-1〉 청소년 유형에 따른 지난 1년간 의식주 생활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4)
학생청소년 ¹⁾ (n=1193)	3.43	0.40	307.871***	***	***	***	***
빈곤청소년 ²⁾ (n=583)	3.14	0.42		***	***	***	***
가출청소년 ³⁾ (n=320)	2.61	0.54		***	***	***	***
장애청소년 ⁴⁾ (n=444)	3.28	0.48		***	***	***	***

***p<.001

2) 의료·보건

지난 1년 내 학교, 병원 등의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은 장애청소년(62.8%)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출청소년(53.8%), 학생청소년(43.3%),

빈곤청소년(4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장애 특성상 건강검진의 경험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빈곤청소년의 건강검진 경험이 가장 적은 것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것이라 판단된다.

〈표 VIII-2〉 청소년 유형에 따른 지난 1년간 건강검진 경험

단위: 빈도(%)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값
학생청소년	526(43.3)	690(56.7)	1216(100.0)	62.274***
빈곤청소년	251(42.5)	339(57.5)	590(100.0)	
가출청소년	176(53.8)	151(46.2)	327(100.0)	
장애청소년	284(62.8)	168(37.2)	452(100.0)	
전체	1237(47.9)	1348(52.1)	2585(100.0)	

***p<.001

지난 1년 내의 질병 경험은 가출청소년, 장애청소년, 빈곤청소년, 학생청소년의 순으로 많았으며, 모든 유형의 청소년들이 충치 및 잇몸질환이 가장 많았다.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성관련 문제나 질병의 경험(6.7%)이 다른 유형의 청소년에 비해서 많았으며, 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만성질환(3.0%)이 특징적으로 많은 질병으로 나타났다.

〈표 VIII-3〉 청소년 유형에 따른 지난 1년간 질병 경험

단위: 빈도(%)

구분	각종 사고	충치잇몸질환	위장내과질환	성문제질환	만성질환	백혈병, 암	피부질환	질병없음	전체
학생청소년	85 (6.4)	336 (25.2)	135 (10.1)	7 (0.2)	4 (0.3)	2 (0.1)	169 (12.7)	597 (44.7)	1335 (45.2)
빈곤청소년	42 (6.1)	169 (24.5)	92 (13.4)	3 (0.4)	9 (1.3)	1 (0.1)	78 (11.3)	295 (42.8)	689 (23.3)
가출청소년	38 (8.8)	103 (23.9)	80 (18.6)	29 (6.7)	5 (1.2)	1 (0.2)	65 (15.1)	110 (25.5)	431 (14.6)

구분	각종 사고	충치잇 몸질환	위장내 과질환	성문제 질환	만성 질환	백혈병, 암	피부 질환	질병 없음	전체
장애 청소년	36 (7.2)	131 (26.4)	59 (11.9)	8 (1.6)	15 (3.0)	4 (0.8)	53 (10.7)	191 (38.4)	497 (16.8)
전체	201 (6.8)	739 (25.0)	366 (11.9)	47 (1.6)	33 (1.1)	8 (0.3)	365 (12.4)	1193 (40.4)	2952 (100.0)

질병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치료 받은 경험은 학생청소년(78.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장애청소년(76.0%), 가출청소년(72.4%), 빈곤청소년(65.8%)의 순으로 나타났다. 빈곤청소년의 치료 경험이 가장 적은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질병치료에도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빈곤청소년의 생계 및 기초 생활에 비해 건강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부족함으로 해석된다.

<표 VIII-4> 청소년 유형에 따른 질병치료유무

단위: 빈도(%)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값
학생청소년	463(78.9)	124(21.1)	587(100.0)	19.027***
빈곤청소년	204(65.8)	106(34.2)	310(100.0)	
가출청소년	157(72.4)	60(27.6)	217(100.0)	
장애청소년	203(76.0)	64(24.0)	267(100.0)	
전체	1027(74.4)	354(25.6)	1381(100.0)	

***p<.001

청소년들이 질병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는 청소년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학생청소년의 경우에는 귀찮아서(49.2%) 또는 가벼운 증세(35.0%)가 가장 중요한 이유였으며, 빈곤청소년과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가벼운 증세 이외에 치료비의 문제가, 그리고 장애청소년의 경우에도 몸이 불편한 것(13.0%)이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로 특징적으로 나타나 접근성과 이동성에 대한 확보가 필요함으로 해석된다. 장애청소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질병에 대한 인식부족이 큰 문제로 나타났으며, 빈곤청소년과 가출청소년의 경우 경제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VIII-5〉 청소년 유형에 따른 질병치료 받지 않은 이유

단위: 빈도(%)

구분	가벼운 증세	치료비 없어서	거리가 멀어서	의료 보험 없어서	의논할 사람 없어서	무서워서	귀찮아서	몸이 불편해서	기타	전체	χ^2 값
학생 청소년	42 (35.0)	3 (2.5)	2 (1.7)	-	2 (1.7)	3 (2.5)	59 (49.2)	1 (0.8)	8 (6.7)	120 (100.0)	129.055 ***
빈곤 청소년	36 (40.9)	29 (33.0)	-	1 (1.1)	1 (1.1)	5 (5.7)	8 (9.1)	1 (1.1)	7 (8.0)	88 (100.0)	
가출 청소년	12 (18.5)	20 (30.8)	1 (1.5)	1 (1.5)	1 (1.5)	4 (6.2)	15 (23.1)	4 (6.2)	7 (10.8)	65 (100.0)	
장애 청소년	25 (36.2)	5 (7.2)	4 (5.8)	-	2 (2.9)	6 (8.7)	5 (7.2)	9 (13.0)	13 (18.8)	69 (100.0)	
전체	115(33.6)	57 (16.7)	7 (2.0)	2 (0.6)	6 (1.8)	18 (5.3)	87 (25.4)	15 (4.4)	35 (10.2)	342 (100.0)	

***p<.001

3) 건강

자아존중감을 청소년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학생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빈곤청소년, 장애청소년, 가출청소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가출이라는 불안정한 상황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VIII-6〉 청소년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4)
학생청소년 ¹⁾ (n=1208)	29.67	5.68	33.735***	-	-	***	***
빈곤청소년 ²⁾ (n=591)	29.27	5.16		-	-	***	***
가출청소년 ³⁾ (n=326)	26.64	5.70		***	***	-	-
장애청소년 ⁴⁾ (n=176)	27.75	5.25		***	***	-	-

***p<.001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상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가출청소년들의 우울·불안과 비행 점수가 각각 10.77점과 8.34점으로 학생청소년이나 빈곤청소년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다. 즉, 가출청소년들은 학생청소년이나 빈곤청소년보다 심리·사회적 적응에 훨씬 문제가 많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비행의 문제에 있어서는 학생청소년이 빈곤청소년보다도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II-7> 청소년 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우울·불안	학생청소년 ¹⁾ (n=1220)	7.62	5.10	152.191***	-	-	***
	빈곤청소년 ²⁾ (n=598)	7.09	4.94		-	-	***
	가출청소년 ³⁾ (n=324)	10.77	5.70		***	***	-
비행	학생청소년 ¹⁾ (n=1225)	2.38	1.96	9.018***	-	***	***
	빈곤청소년 ²⁾ (n=595)	1.99	2.23		***	-	***
	가출청소년 ³⁾ (n=322)	8.34	4.67		***	-	-

***p<.001

심리·사회적 적응 이외에 음주, 흡연, 자해행위나 자살시도 등의 경험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흡연 경험은 가출청소년(66.1%)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빈곤청소년(7.7%), 학생청소년(5.9%), 장애청소년(3.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반갑 이상의 상습적 흡연의 경우에도 약 45.5%의 가출청소년이 흡연을 하였으며, 빈곤청소년(3.0%), 학생청소년(2.7%), 장애청소년(1.1%)의 순으로 상습적으로 흡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I-8> 흡연 정도

단위: 빈도(%)

구분	안 피운다	어쩌다 하나씩	하루에 반갑정도	하루에 한갑이상	전체	χ^2 값
학생청소년	1149(94.0)	39(3.2)	31(2.5)	3(0.2)	1222(100.0)	960.235***
빈곤청소년	555(92.3)	28(4.7)	16(2.7)	2(0.3)	601(100.0)	
가출청소년	112(33.9)	68(20.6)	99(30.0)	51(15.5)	330(100.0)	
장애청소년	440(96.1)	13(2.8)	2(0.4)	3(0.7)	458(100.0)	
전체	2256(86.4)	148(5.7)	148(5.7)	59(2.3)	2611(100.0)	

***p<.001

음주 경험은 가출청소년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생청소년, 장애청소년, 빈곤청소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1달에 1-2번 이상의 상습적인 음주의 경우에도 가출청소년의 28.8%가 음주를 하였으며, 빈곤청소년(4.3%), 학생청소년(3.2%), 장애청소년(2.8%)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II-9> 평소 음주량

단위: 빈도(%)

구분	마신 적 없다	특별한 경우에	1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거의 매일	전체	χ^2 값
학생청소년	821(67.4)	359(29.5)	9(0.7)	25(2.1)	5(0.4)	1219(100.0)	490.741***
빈곤청소년	442(73.7)	132(22.0)	11(1.8)	12(2.0)	3(0.5)	600(100.0)	
가출청소년	66(20.0)	169(51.2)	52(15.8)	28(8.5)	15(4.5)	330(100.0)	
장애청소년	334(73.2)	109(23.9)	7(1.5)	4(0.9)	2(0.4)	456(100.0)	
전체	1663(63.8)	769(29.5)	79(3.0)	69(2.6)	25(1.0)	2605(100.0)	

***p<.001

자해행위나 자살기도 경험도 흡연과 음주 경험과 마찬가지로 가출청소년이 28.8%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장애청소년(15.3%)이 학생청소년(10.0%)과 빈곤청소년(5.9%)보다 자해행위나 자살기도 경험이 많아, 음주나 흡연 경험과 차이를 보였다.

〈표 VIII-10〉 자해행위나 자살기도 경험

단위: 빈도(%)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값
학생청소년	120(10.0)	1081(90.0)	1201(100.0)	114.351***
빈곤청소년	35(5.9)	556(94.1)	591(100.0)	
가출청소년	95(28.8)	235(71.2)	330(100.0)	
장애청소년	70(15.3)	387(84.7)	457(100.0)	
전체	320(12.4)	2259(87.6)	2579(100.0)	

***p<.001

2. 문화여가활동 및 발달욕구

1) 교육

지난 1년 동안 학교에 가지 않은 경험을 한 경우는 가출청소년이 84.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장애청소년(53.3%), 빈곤청소년(28.1%), 학생청소년(21.6%)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유형의 청소년들은 지난 1년간 1-2번 학교에 가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 가출청소년의 경우는 한 달 이상 학교에 가지 않은 경우가 51.8%로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표 VIII-11〉 청소년 유형에 따른 지난 1년 동안 학교 가지 않은 날

단위 : 빈도(%)

구분	없다	1-2번	7일 정도	보름 정도	한 달 정도	한 달 이상	전체	χ^2 값
학생청소년	967 (78.4)	204 (16.5)	40 (3.2)	10 (0.8)	6 (0.5)	6 (0.5)	1233 (100.0)	1466.372***
빈곤청소년	430 (71.9)	123 (20.6)	19 (3.2)	14 (2.3)	7 (1.2)	5 (0.8)	598 (100.0)	
가출청소년	51 (15.6)	27 (8.3)	28 (8.6)	20 (6.1)	31 (9.5)	169 (51.8)	326 (100.0)	
장애청소년	213 (46.7)	167 (36.6)	38 (8.3)	19 (4.2)	7 (1.5)	12 (2.6)	456 (100.0)	
전체	1661 (63.6)	521 (19.9)	125 (4.8)	63 (2.4)	51 (2.0)	192 (7.3)	2613 (100.0)	

*** p<.001

학교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었던 경험을 한 경우도 가출청소년이 41.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장애청소년(21.0%), 빈곤청소년(10.1%), 학생청소년(5.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II-12〉 청소년 유형에 따른 학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었던 경험

단위 : 빈도(%)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값
학생청소년	62(5.1)	1149(94.9)	1211(100.0)	305.610***
빈곤청소년	59(10.1)	525(89.9)	584(100.0)	
가출청소년	129(41.1)	185(58.9)	314(100.0)	
장애청소년	93(21.0)	350(79.0)	443(100.0)	
전체	343(13.4)	2209(86.6)	2552(100.0)	

***p<.001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었던 이유로는 학생청소년과 빈곤청소년의 경우에는 ‘귀찮아서 혹은 아침에 못 일어나서’(학생청소년 21.1%, 빈곤청소년 12.9%)가 가장 많은 반면,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출을 해서’(47.6%)가 가장 많았으며, 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등하교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14.0%)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이 밖에 빈곤청소년의 경우에는 ‘괴롭힘이 무서워서’(9.7%)나 ‘부모님이 못 가게 해서’(8.1%)가 학교에 갈 수 없었던 이유로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보다 특징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II-13〉 학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었던 이유

단위 : 빈도(%)

구 분	학비 못 내서	가사 돕기 위해	부모 님이 못 가게 해서	학교 가 거부 해서	괴롭 힘이 무서 워서	귀찮 아서	등하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학교 편의 시설 부족	가출 해서	기타	전체	χ^2 값
학생 청소년	2 (2.8)	2 (2.8)	2 (2.8)	2 (2.8)	-	15 (21.1)	-	-	1 (1.4)	47 (66.2)	71 (100.0)	184.696***
빈곤 청소년	1 (1.6)	4 (6.5)	5 (8.1)	3 (4.8)	6 (9.7)	8 (12.9)	-	1 (1.6)	2 (3.2)	32 (51.6)	62 (100.0)	
가출 청소년	4 (3.2)	-	9 (7.1)	6 (4.8)	3 (2.4)	22 (17.5)	-	-	60 (47.6)	22 (17.5)	126 (100.0)	
장애 청소년	5 (4.4)	8 (7.0)	5 (4.4)	4 (3.5)	8 (7.0)	12 (10.5)	16 (14.0)	2 (1.8)	6 (5.3)	48 (42.1)	114 (100.0)	
전체	12 (3.2)	14 (3.8)	21 (5.6)	15 (4.0)	17 (4.6)	57 (15.3)	16 (4.3)	3 (0.8)	69 (18.5)	149 (39.9)	373 (100.0)	

***p<.001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 학생청소년의 경우에는 73.4%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빈곤청소년의 경우에는 63.5%,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46.7%, 그리고 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47.2%만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대학진학 가능성에 대해서 청소년 유형 중에서 일반 학생청소년이 그 가능성을 가장 높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 가출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I-14〉 청소년 유형에 따른 대학 진학 가능 여부

단위: 빈도(%)

구분	예	아니오	전체	χ^2 값
학생청소년	901(73.4)	327(26.6)	1228(100.0)	142.889***
빈곤청소년	377(63.5)	217(36.5)	594(100.0)	
가출청소년	154(46.7)	176(53.3)	330(100.0)	
장애청소년	213(47.2)	238(52.8)	451(100.0)	
전체	1645(63.2)	958(36.8)	2603(100.0)	

***p<.001

대학 진학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장애청소년 이외의 다른 모든 유형의 청소년들은 ‘성적이 안 좋아서’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으나, 이 밖에 빈곤청소년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유(38.3%)가 특징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적(35.1%)보다도 장애(42.9%)가 보다 큰 이유로 나타나,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과 차이를 보였다.

<표 VIII-15> 대학 진학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

단위: 빈도(%)

구분	성적이 안 좋아서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님의 무관심	장애 때문에	기타	전체	χ^2 값
학생청소년	295(91.9)	14(4.4)	-	2(0.6)	10(3.1)	321(100.0)	466.861***
빈곤청소년	118(56.5)	80(38.3)	-	1(0.5)	10(4.8)	209(100.0)	
가출청소년	113(67.3)	14(8.3)	7(4.2)	13(7.7)	21(12.5)	168(100.0)	
장애청소년	81(35.1)	22(9.5)	2(0.9)	99(42.9)	27(11.7)	231(100.0)	
전체	607(65.3)	130(14.0)	9(1.0)	115(12.4)	68(7.3)	929(100.0)	

***p<.001

경제적인 이유로 과외나 학원을 못 다닌 경험을 한 경우는 빈곤청소년이 절반 이상의 수치(55.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출청소년(37.6%), 장애청소년(31.7%), 학생청소년(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II-16> 청소년 유형에 따른 경제적인 이유로 과외나 학원을 못 다닌 경험

단위: 빈도(%)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값
학생청소년	153(12.4)	1079(87.6)	1232(100.0)	378.779***
빈곤청소년	329(55.2)	267(44.8)	596(100.0)	
가출청소년	124(37.6)	206(62.4)	330(100.0)	
장애청소년	143(31.7)	308(68.3)	451(100.0)	
전체	749(28.7)	1860(71.3)	2609(100.0)	

***p<.001

2) 정보·문화

가정에서의 컴퓨터 소유는 학생청소년이 9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장애청소년(92.4%), 가출청소년(90.3%), 빈곤청소년(89.6%)의 순으로, 빈곤청소년의 컴퓨터 소유가 가장 적었다.

<표 VIII-17> 컴퓨터 소유 여부

단위: 빈도(%)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값
학생청소년	1197(97.3)	33(2.7)	1230(100.0)	52.837***
빈곤청소년	535(89.6)	62(10.4)	597(100.0)	
가출청소년	297(90.3)	32(9.7)	329(100.0)	
장애청소년	423(92.4)	35(7.6)	458(100.0)	
전체	2452(93.8)	162(6.2)	2614(100.0)	

***p<.001

이동전화, PSP, DMB 등의 정보매체 보유는 이동전화의 경우에 학생청소년이 64.0%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빈곤청소년(58.0%), 장애청소년(50.8%), 가출청소년(37.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PSP의 경우에는 장애청소년(4.6%)이 학생청소년(3.9%)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I-18> 정보 매체 소유

단위: 빈도(%)

구분	이동전화	PSP	DMB	가지고 있지 않다	전체
학생청소년	835(64.0)	51(3.9)	40(3.1)	379(29.0)	1305(48.4)
빈곤청소년	343(58.0)	4(0.7)	5(0.8)	239(40.4)	591(21.9)
가출청소년	126(37.3)	4(1.2)	7(2.1)	201(59.5)	338(12.5)
장애청소년	234(50.8)	21(4.6)	12(2.6)	194(42.1)	461(17.1)
전체	1538(57.1)	80(3.0)	64(2.4)	1013(37.6)	2695(100.0)

청소년들이 통신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학생청소년이 빈곤청소년이나 장애청소년에 비해서 많았으나, 9만원이상 고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는 장애청소년이 10.5%로 학생청소년(7.9%)이나 빈곤청소년(4.1%)보다 많아, 상당수의 장애청소년들이 통신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표 VIII-19> 1달 평균 통신비용

단위: 빈도(%)

구 분	1만원 미만	1-3만원	3-5만원	5-7만원	7-9만원	9만원 이상	전체	χ^2 값
학생청소년	56 (5.6)	227 (23.3)	329 (34.1)	208 (21.5)	66 (6.8)	77 (7.9)	963 (100.0)	242.170***
빈곤청소년	23 (5.4)	114 (25.3)	189 (43.3)	76 (17.5)	16 (3.6)	18 (4.1)	436 (100.0)	
장애청소년	11 (4.8)	89 (36.3)	80 (32.8)	31 (12.7)	8 (3.2)	25 (10.5)	244 (100.0)	
전체	90 (5.8)	430 (26.2)	598 (35.6)	315 (19.2)	80 (5.5)	120 (7.5)	1643 (100.0)	

***p<.001

통신비용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은 학생청소년의 경우에는 통신비용이 가장 많았으나 심리적 부담감(17.9%)은 가장 낮았으며, 오히려 빈곤청소년(31.5%)이 심리적 부담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27.9%의 청소년들이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표 VIII-20> 통신비용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단위: 빈도(%)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값
학생청소년	214(17.9)	983(82.1)	1197(100.0)	44.983***
빈곤청소년	175(31.5)	381(68.5)	556(100.0)	
장애청소년	105(27.9)	272(72.1)	377(100.0)	
전체	494(23.2)	1636(76.8)	2130(100.0)	

***p<.001

3) 여가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실제로 하고 있는 활동으로 인터넷·컴퓨터 게임과 TV시청, 집에서 휴식을 꼽았다. 학생청소년, 빈곤청소년,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이 1순위인데 비해, 장애청소년은 TV시청이 1순위였고, 다른 유형의 청소년과는 달리 친구만나기 등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I-21〉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

(중복응답)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학생청소년	인터넷· 컴퓨터게임 (21.2%)	TV시청 (20.7%)	집에서 휴식 (11.6%)	친구만나기 (11.5%)	영화·음악 감상 (10.2%)
빈곤청소년	인터넷· 컴퓨터게임 (18.7%)	TV시청 (18.4%)	친구 만나기 (13.0%)	집에서 휴식 (11.0%)	집안일 돕기 (8.7%)
가출청소년	인터넷· 컴퓨터게임 (18.5%)	TV시청 (15.6%)	집에서 휴식 (13.7%)	친구만나기 (12.9%)	영화·음악 감상 (7.1%)
장애청소년	TV시청 (17.7%)	인터넷· 컴퓨터게임 (15.6%)	집에서 휴식 (14.6%)	영화·음악 감상 (8.4%)	독서 (6.6%)

한편,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활동은 현재 하고 있는 활동과 큰 차이가 있었다. 학생청소년, 빈곤청소년, 장애청소년은 모두 여행이 1순위였으나 가출청소년의 경우는 여행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출청소년들의 생활유지를 위한 현실적 필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밖에 학생청소년들은 영화·음악감상, 아르바이트 등을 희망하였으며, 빈곤청소년들은 취미활동, 영화·음악감상, 쇼핑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특별히 스포츠나 친구만나기 등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과는 달리 장애청소년들에게는 평소에 하기 힘

든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표 VIII-22〉 희망하는 여가활동

(중복응답)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학생청소년	여행 (16.2%)	영화·감상 음악 (8.3%)	아르바이트 (7.6%)	쇼핑 (7.6%)	취미활동 (7.4%)
빈곤청소년	여행 (14.8%)	취미활동 (9.3%)	영화·음악 감상 (8.8%)	쇼핑 (7.9%)	아르바이트 (7.7%)
가출청소년	아르바이트 (13.4%)	여행 (11.7%)	친구만나기 (9.3%)	인터넷· 컴퓨터게임 (8.7%)	쇼핑 (8.0%)
장애청소년	여행 (14.8%)	스포츠 (9.7%)	취미활동 (7.8%)	영화·음악 감상 (7.5%)	친구만나기 (7.3%)

4) 직업

청소년들이 장래 희망하는 직업으로는 학생청소년, 빈곤청소년, 장애청소년은 교사가 1순위, 공무원이 2순위였으나,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헤어디자이너가 1순위, 연예인이 2순위로 나타나, 청소년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가출청소년의 경우에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일반학교교육과정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보다는 기술 습득이나 다른 재능을 토대로 하는 직업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빈곤청소년과 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청소년보다도 특징적으로 사회복지사를 희망직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 청소년들이 주변에서 사회복지사를 자주 접하고 있으며 좋은 인상을 받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VIII-23〉 장래 희망하는 직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학생청소년	교사 (16.8%)	공무원 (10.2%)	의사·약사 (6.8%)	기타 (5.7%)	방송관계자 (4.8%)
빈곤청소년	교사 (12.9%)	공무원 (11.5%)	기타 (7.6%)	연예인 (6.2%)	사회복지사 (4.9%)
가출청소년	헤어디자이너 (11.6%)	연예인 (8.7%)	요리사 (7.8%)	기타 (7.8%)	교사 (7.1%)
장애청소년	교사 (11.1%)	공무원 (9.9%)	컴퓨터 프로그래머 (8.1%)	사회복지사 (7.7%)	성직자 (6.7%)

5) 지역사회서비스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여부는 시설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생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등 청소년수련 시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었으며, 이용 경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공부방과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도서관을 가장 잘 알고 있었으며, 이용경험도 가장 많았다.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자활지원관,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센터를 가장 잘 알고 있었고 이용 경험도 많았으며, 근로청소년회관, 직업훈련원 등의 직업 관련 시설과 미혼모시설, 그룹 홈에 대해서도 장애청소년 다음으로 잘 알고 있었다. 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근로청소년회관, 고용안정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그룹 홈, 미혼모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지역사회 내 많은 시설들에 대해서 인지도가 높았으나, 종합사회복지관과 박물관, 미술관 등을 제외하고는 이용 경험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I-24〉 청소년 유형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인지 및 이용여부

단위: 빈도(%)

항목	구분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이용해 본 적 있다	전체	χ^2 값
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	학생청소년	336(29.1)	412(35.7)	405(35.1)	1153(100.0)	12.632*
	빈곤청소년	160(27.6)	206(35.6)	213(36.8)	579(100.0)	
	가출청소년	90(28.7)	89(28.3)	135(43.0)	314(100.0)	
	장애청소년	129(33.4)	119(30.8)	138(35.8)	386(100.0)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학생청소년	238(20.5)	252(21.7)	669(57.7)	1159(100.0)	56.418***
	빈곤청소년	154(26.6)	184(31.7)	242(41.7)	580(100.0)	
	가출청소년	91(28.8)	84(26.6)	141(44.6)	316(100.0)	
	장애청소년	111(28.8)	106(27.5)	168(43.6)	385(100.0)	
근로청소년회관	학생청소년	789(69.6)	296(26.1)	49(4.3)	1134(100.0)	44.577***
	빈곤청소년	381(66.6)	171(29.9)	20(3.5)	572(100.0)	
	가출청소년	189(60.2)	90(28.7)	35(11.1)	314(100.0)	
	장애청소년	216(57.4)	136(36.2)	24(6.4)	376(100.0)	
청소년공부방	학생청소년	567(50.0)	400(35.2)	168(14.8)	1135(100.0)	87.216***
	빈곤청소년	191(32.8)	230(39.5)	161(27.7)	582(100.0)	
	가출청소년	118(37.5)	126(40.0)	71(22.5)	315(100.0)	
	장애청소년	167(44.9)	166(44.6)	39(10.5)	372(100.0)	
종합사회복지관	학생청소년	420(36.9)	616(54.1)	103(9.0)	1139(100.0)	467.063***
	빈곤청소년	121(20.9)	248(42.8)	211(36.4)	580(100.0)	
	가출청소년	105(33.5)	161(51.4)	47(15.0)	313(100.0)	
	장애청소년	69(16.4)	107(25.5)	244(58.1)	420(100.0)	
청소년자활지원관	학생청소년	783(65.1)	374(33.0)	21(1.9)	1133(100.0)	37.812***
	빈곤청소년	354(62.0)	197(34.5)	20(3.5)	571(100.0)	
	가출청소년	171(54.6)	116(37.1)	26(8.3)	313(100.0)	
	장애청소년	221(60.7)	123(33.8)	20(5.5)	364(100.0)	
청소년 쉼터	학생청소년	615(54.2)	461(40.6)	59(5.2)	1135(100.0)	1240.192***
	빈곤청소년	278(48.6)	260(45.5)	34(5.9)	572(100.0)	
	가출청소년	29(9.1)	29(9.1)	262(81.9)	320(100.0)	
	장애청소년	190(51.6)	160(43.5)	18(4.9)	368(100.0)	
그룹 홈 (공동생활가정)	학생청소년	823(72.8)	288(25.5)	20(1.8)	1131(100.0)	185.148***
	빈곤청소년	393(68.7)	170(29.7)	9(1.6)	572(100.0)	
	가출청소년	159(50.8)	108(34.5)	46(14.7)	313(100.0)	
	장애청소년	177(48.1)	161(43.8)	30(8.2)	368(100.0)	

항목	구분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이용해 본 적 있다	전체	χ^2 값
청소년상담센터	학생청소년	384(33.8)	721(63.5)	30(2.6)	1135(100.0)	207.544***
	빈곤청소년	178(31.2)	368(64.4)	25(4.4)	571(100.0)	
	가출청소년	85(27.2)	151(48.2)	77(24.6)	313(100.0)	
	장애청소년	141(38.2)	205(55.6)	23(6.2)	369(100.0)	
자원봉사센터	학생청소년	397(34.9)	655(57.7)	84(7.4)	1136(100.0)	33.558***
	빈곤청소년	178(31.2)	304(53.2)	89(15.6)	571(100.0)	
	가출청소년	115(36.9)	154(49.4)	43(13.8)	312(100.0)	
	장애청소년	130(35.0)	204(55.0)	37(10.0)	371(100.0)	
고용안정센터	학생청소년	763(67.4)	358(31.6)	11(1.0)	1132(100.0)	50.139***
	빈곤청소년	381(66.7)	184(32.2)	6(1.1)	571(100.0)	
	가출청소년	189(61.4)	102(33.1)	17(5.5)	308(100.0)	
	장애청소년	203(54.7)	160(43.1)	8(2.2)	371(100.0)	
미혼모시설	학생청소년	755(66.8)	368(32.5)	8(0.7)	1131(100.0)	34.811***
	빈곤청소년	355(62.2)	210(36.8)	6(1.1)	571(100.0)	
	가출청소년	176(56.8)	127(41.0)	7(2.3)	310(100.0)	
	장애청소년	191(51.8)	171(46.3)	7(1.9)	369(100.0)	
직업훈련원 (구직업보도원)	학생청소년	707(62.4)	412(36.4)	14(1.2)	1133(100.0)	83.471***
	빈곤청소년	339(59.5)	223(39.1)	8(1.4)	570(100.0)	
	가출청소년	148(47.7)	138(44.5)	24(7.7)	310(100.0)	
	장애청소년	172(46.7)	172(46.7)	24(6.5)	368(100.0)	
박물관	학생청소년	121(10.5)	203(17.6)	831(71.9)	1155(100.0)	34.315***
	빈곤청소년	60(10.4)	130(22.5)	388(67.1)	578(100.0)	
	가출청소년	50(16.2)	69(22.3)	190(61.5)	309(100.0)	
	장애청소년	25(6.4)	58(14.9)	306(78.7)	389(100.0)	
도서관	학생청소년	62(5.3)	172(14.8)	930(79.9)	1164(100.0)	39.868**
	빈곤청소년	28(4.8)	83(14.3)	468(80.8)	579(100.0)	
	가출청소년	30(9.6)	65(20.8)	218(69.6)	313(100.0)	
	장애청소년	20(5.3)	95(25.2)	262(69.5)	377(100.0)	
미술관	학생청소년	179(15.6)	342(29.7)	629(54.7)	1150(100.0)	75.508***
	빈곤청소년	89(15.7)	255(45.1)	222(39.2)	566(100.0)	
	가출청소년	58(18.8)	103(33.3)	148(47.9)	309(100.0)	
	장애청소년	32(8.4)	108(28.2)	243(63.4)	383(100.0)	

*p<.05 **p<.01 ***p<.001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자연권 수련시설, 종합사회복지관, 그룹 홈, 자원봉사센터,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대부분의 시설에서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보다도 빈곤청소년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 밖에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문화의 집 등 생활권수련시설과 청소년쉼터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청소년에 비해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I-25〉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만족도

단위: 빈도(%)

항목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전체	χ^2 값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등	학생청소년	20(4.9)	93(23.0)	246(60.7)	46(11.4)	405(100.0)	22.045**
	빈곤청소년	3(1.4)	39(18.2)	145(67.8)	27(12.6)	214(100.0)	
	가출청소년	3(2.4)	13(10.2)	89(70.1)	22(17.3)	127(100.0)	
	장애청소년	2(1.5)	33(25.2)	81(61.8)	15(11.5)	131(100.0)	
청소년 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학생청소년	88(13.5)	187(28.6)	336(51.4)	43(6.6)	654(100.0)	61.654***
	빈곤청소년	10(4.2)	39(16.3)	163(68.2)	27(11.3)	239(100.0)	
	가출청소년	5(3.7)	26(19.1)	86(63.2)	19(14.0)	136(100.0)	
	장애청소년	5(3.4)	37(25.5)	88(60.7)	15(10.3)	145(100.0)	
종합 사회복지관	학생청소년	7(6.9)	15(14.9)	59(58.4)	20(19.8)	101(100.0)	22.376**
	빈곤청소년	5(2.5)	15(7.5)	121(60.5)	59(29.5)	200(100.0)	
	가출청소년	3(7.1)	7(16.7)	27(64.3)	5(11.9)	42(100.0)	
	장애청소년	11(5.0)	37(16.8)	136(61.8)	36(16.4)	220(100.0)	
청소년쉼터	학생청소년	6(11.5)	6(11.5)	23(44.2)	17(32.7)	52(100.0)	25.055**
	빈곤청소년	2(6.1)	3(9.1)	16(48.5)	12(36.4)	33(100.0)	
	가출청소년	1(0.4)	18(7.4)	123(50.8)	100(41.3)	242(100.0)	
	장애청소년	-	2(12.5)	9(56.3)	5(31.3)	16(100.0)	

항목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전체	χ^2 값
그룹 홈 (공동생활 가정)	학생청소년	5(27.8)	-	6(33.3)	7(38.9)	18(100.0)	18.242*
	빈곤청소년	1(11.1)	-	6(66.7)	2(22.2)	9(100.0)	
	가출청소년	2(4.9)	4(9.8)	26(63.4)	9(22.0)	41(100.0)	
	장애청소년	1(3.7)	5(18.5)	17(63.0)	4(14.8)	27(100.0)	
박물관	학생청소년	24(3.0)	79(9.8)	518(64.1)	187(23.1)	808(100.0)	45.381***
	빈곤청소년	7(1.9)	26(7.1)	241(66.2)	90(24.7)	364(100.0)	
	가출청소년	5(2.8)	31(17.1)	122(67.4)	23(12.7)	181(100.0)	
	장애청소년	10(3.6)	55(19.6)	173(61.6)	43(15.3)	281(100.0)	
도서관	학생청소년	35(3.9)	129(14.2)	516(56.8)	229(25.2)	909(100.0)	28.659***
	빈곤청소년	10(2.2)	46(10.2)	286(63.3)	110(24.3)	452(100.0)	
	가출청소년	8(3.9)	40(19.3)	128(61.8)	31(15.0)	207(100.0)	
	장애청소년	10(4.0)	48(19.3)	145(58.2)	46(18.5)	249(100.0)	
미술관	학생청소년	15(2.4)	77(12.3)	382(60.8)	154(24.5)	628(100.0)	37.734***
	빈곤청소년	5(2.3)	19(8.6)	143(65.0)	53(24.1)	220(100.0)	
	가출청소년	7(5.0)	27(19.1)	90(63.8)	17(12.1)	141(100.0)	
	장애청소년	13(5.8)	42(18.8)	140(62.5)	29(12.9)	224(100.0)	

*p<.05 **p<.01 ***p<.001

청소년들이 가장 이용하고 싶은 청소년 기관 및 시설로는 학생청소년과 빈곤청소년의 경우에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청소년이용시설이 주를 이루었으며 수련시설이나 직업 관련시설, 보호시설 등에 대한 선호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쉼터 등의 보호시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수련시설에 대한 욕구도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보다도 높았다. 또한 상담 또는 직업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욕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도서관, 자연권수련시설, 직업훈련원, 박물관 등의 순으로 청소년 기관(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I-26〉 가장 이용하고 싶은 청소년 기관 및 시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학생청소년	도서관 (21.3%)	박물관 (15.3%)	미술관 (13.1%)	쉼터 (12.6%)	상담센터 (5.0%)
빈곤청소년	도서관 (14.8%)	미술관 (13.1%)	박물관 (10.5%)	쉼터 (10.3%)	자연권 수련시설 (10.3%)
가출청소년	쉼터 (27.7%)	자연권 수련시설 (9.7%)	생활권 수련시설 (9.2%)	상담센터 (8.7%)	직업훈련원 (8.7%)
장애청소년	종합사회복지관 (13.8%)	도서관 (10.4%)	자연권 수련시설 (8.5%)	직업훈련원 (8.1%)	박물관 (7.9%)

***p<.001

청소년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여부는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만을 제외하고 개별상담, 가족상담, 질병상담 및 무료건강검진, 아플 때 치료비 지원, 학업·학습지도, 숙식제공, 수련활동, 문화·예술활동, 약물예방교육, 성교육, 인권교육 등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가출청소년이 다른 유형의 청소년보다도 인지도가 높고 이용경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출청소년의 경우에 대부분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빈곤청소년의 경우에는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 인지도가 가장 높고 이용 경험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출청소년 다음으로 개별상담, 가족상담, 질병상담 및 무료건강검진, 수련활동, 문화·예술활동 등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이용경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I-27〉 청소년 복지서비스 인지 및 이용여부

단위: 빈도(%)

항목	구분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이용해 본 적 있다	전체	χ^2 값
개별상담	학생청소년	511(45.3)	564(50.0)	54(4.8)	1129(100.0)	369.980***
	빈곤청소년	248(43.1)	230(40.0)	97(16.9)	575(100.0)	
	가출청소년	79(24.5)	88(27.2)	156(48.3)	323(100.0)	
	장애청소년	148(37.6)	145(36.8)	101(25.6)	394(100.0)	
가족상담	학생청소년	536(47.4)	524(46.4)	70(6.2)	1130(100.0)	79.315***
	빈곤청소년	279(49.0)	240(42.2)	50(8.8)	569(100.0)	
	가출청소년	110(35.1)	139(44.4)	64(20.4)	313(100.0)	
	장애청소년	149(39.6)	165(43.9)	62(16.5)	376(100.0)	
질병상담 및 무료건강 검진	학생청소년	440(39.0)	589(52.2)	100(8.9)	1129(100.0)	179.637***
	빈곤청소년	249(43.9)	248(43.7)	70(12.3)	567(100.0)	
	가출청소년	99(31.3)	109(34.5)	108(28.8)	316(100.0)	
	장애청소년	130(34.4)	139(36.8)	109(28.8)	378(100.0)	
아플 때 치료비 지원	학생청소년	529(47.0)	524(46.6)	72(6.4)	1125(100.0)	278.998***
	빈곤청소년	211(37.3)	159(28.1)	195(34.5)	565(100.0)	
	가출청소년	110(35.0)	87(27.7)	117(37.3)	314(100.0)	
	장애청소년	176(46.7)	123(32.6)	78(20.7)	377(100.0)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학생청소년	355(31.5)	684(60.6)	89(7.9)	1128(100.0)	647.327***
	빈곤청소년	77(13.3)	128(22.0)	376(64.7)	581(100.0)	
	가출청소년	95(30.4)	138(44.1)	80(25.6)	313(100.0)	
	장애청소년	131(34.7)	134(35.5)	112(29.7)	377(100.0)	
학업/학습 지도	학생청소년	426(37.8)	527(46.8)	173(15.4)	1126(100.0)	74.434***
	빈곤청소년	193(33.9)	211(37.0)	166(29.1)	570(100.0)	
	가출청소년	98(31.0)	119(37.7)	99(31.3)	316(100.0)	
	장애청소년	131(34.6)	134(35.4)	114(30.1)	379(100.0)	
숙식제공	학생청소년	545(48.4)	522(46.4)	59(5.2)	1126(100.0)	436.229***
	빈곤청소년	282(50.4)	209(37.4)	68(12.2)	559(100.0)	
	가출청소년	74(23.3)	80(25.2)	164(51.6)	318(100.0)	
	장애청소년	190(50.1)	122(32.2)	67(17.7)	379(100.0)	

항목	구분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으나 이용한 적 없다	이용해 본 적 있다	전체	χ^2 값
캠프 등 1박이상 의 수련활동	학생청소년	383(33.6)	355(31.2)	401(35.2)	1139(100.0)	61.933***
	빈곤청소년	188(33.0)	151(26.5)	230(40.4)	569(100.0)	
	가출청소년	71(22.5)	77(24.4)	167(53.0)	315(100.0)	
	장애청소년	99(25.1)	84(21.3)	211(53.6)	394(100.0)	
문화· 예술활동	학생청소년	380(33.7)	514(45.6)	233(20.7)	1127(100.0)	78.660***
	빈곤청소년	229(40.5)	224(39.6)	113(20.0)	566(100.0)	
	가출청소년	77(24.5)	115(36.6)	122(38.9)	314(100.0)	
	장애청소년	117(30.6)	134(35.1)	131(34.3)	382(100.0)	
약물예방 교육	학생청소년	546(48.8)	450(40.2)	124(11.1)	1120(100.0)	88.802***
	빈곤청소년	302(53.8)	198(35.3)	61(10.9)	561(100.0)	
	가출청소년	111(35.1)	112(35.4)	93(29.4)	316(100.0)	
	장애청소년	195(52.3)	138(37.0)	40(10.7)	373(100.0)	
성교육	학생청소년	323(28.6)	458(40.6)	347(30.8)	1128(100.0)	81.586***
	빈곤청소년	209(37.0)	190(33.6)	166(29.4)	565(100.0)	
	가출청소년	56(17.7)	92(29.0)	169(53.3)	317(100.0)	
	장애청소년	111(29.5)	123(32.7)	142(37.8)	376(100.0)	
인권교육	학생청소년	516(46.2)	495(44.3)	106(9.5)	1117(100.0)	42.611***
	빈곤청소년	299(52.9)	207(36.6)	59(10.4)	565(100.0)	
	가출청소년	121(38.7)	129(41.2)	63(20.1)	313(100.0)	
	장애청소년	191(51.8)	135(36.6)	43(11.7)	369(100.0)	

***p<.001

청소년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서비스 이용 경험과는 다르게 개별상담, 질병상담 및 무료건강검진, 수련활동, 성교육 등의 복지서비스에서 빈곤청소년의 만족도가 다른 유형의 청소년보다도 높았으며,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아플 때 치료비 지원, 장학금 및 생활비지원, 숙식제공에서 가장 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I-28〉 청소년 복지서비스 만족도

단위: 빈도(%)

항목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전체	χ^2 값
개별상담	학생청소년	3(6.3)	4(8.3)	32(66.7)	9(18.8)	48(100.0)	23.434*
	빈곤청소년	2(2.2)	4(4.4)	70(76.9)	15(16.5)	91(100.0)	
	가출청소년	6(4.0)	19(12.7)	86(57.3)	39(26.0)	150(100.0)	
	장애청소년	5(5.4)	20(21.5)	57(61.3)	11(11.8)	93(100.0)	
가족상담	학생청소년	2(3.2)	6(9.5)	35(55.6)	20(31.7)	63(100.0)	18.961*
	빈곤청소년	-	4(8.9)	34(75.6)	7(15.6)	45(100.0)	
	가출청소년	8(14.0)	9(15.8)	30(52.6)	10(17.5)	57(100.0)	
	장애청소년	2(3.7)	7(13.0)	33(61.1)	12(22.2)	54(100.0)	
질병상담 및 무료 건강검진	학생청소년	1(1.1)	8(8.9)	54(60.0)	27(30.0)	90(100.0)	20.487*
	빈곤청소년	2(2.8)	3(4.2)	47(66.2)	19(26.8)	71(100.0)	
	가출청소년	-	7(6.9)	57(56.4)	37(36.6)	101(100.0)	
	장애청소년	1(1.0)	17(17.7)	62(64.6)	16(16.7)	96(100.0)	
아플 때 치료비 지원	학생청소년	3(4.8)	8(12.9)	28(45.2)	23(37.1)	62(100.0)	31.856***
	빈곤청소년	1(0.5)	9(4.8)	102(54.8)	74(39.8)	186(100.0)	
	가출청소년	-	4(3.7)	59(54.1)	46(42.2)	109(100.0)	
	장애청소년	2(3.1)	13(20.0)	34(52.3)	16(24.6)	65(100.0)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학생청소년	3(4.0)	7(9.3)	39(52.0)	26(34.7)	75(100.0)	21.004*
	빈곤청소년	3(0.8)	20(5.6)	185(52.0)	148(41.6)	356(100.0)	
	가출청소년	-	4(5.6)	38(52.8)	30(41.7)	72(100.0)	
	장애청소년	5(5.1)	9(9.2)	60(61.2)	24(24.5)	98(100.0)	
숙식제공	학생청소년	2(4.2)	12(25.0)	20(41.7)	14(29.2)	48(100.0)	27.207***
	빈곤청소년	1(1.4)	8(10.8)	42(56.8)	23(31.1)	74(100.0)	
	가출청소년	6(3.9)	7(4.5)	81(52.3)	61(39.4)	155(100.0)	
	장애청소년	4(7.1)	12(21.4)	28(50.0)	12(21.4)	56(100.0)	

항목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전체	χ^2 값
캠프 등 1박이상의 수련활동	학생청소년	32(8.4)	90(23.6)	196(51.3)	64(16.8)	382(100.0)	56.353***
	빈곤청소년	2(0.9)	25(11.3)	129(58.1)	66(29.7)	222(100.0)	
	가출청소년	5(3.3)	16(10.5)	89(58.2)	43(28.1)	153(100.0)	
	장애청소년	6(3.1)	25(13.1)	102(53.4)	58(30.4)	191(100.0)	
성교육	학생청소년	29(8.7)	63(18.9)	179(53.8)	62(18.6)	333(100.0)	22.669**
	빈곤청소년	4(2.5)	28(17.5)	105(65.6)	23(14.4)	160(100.0)	
	가출청소년	5(3.2)	33(21.3)	81(52.3)	36(23.2)	155(100.0)	
	장애청소년	7(5.3)	31(23.5)	80(60.6)	14(10.6)	132(100.0)	

*p<.05 **p<.01 ***p<.001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로는 학생청소년의 경우에는 수련활동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반면, 빈곤청소년과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청소년의 경우에는 수련활동 이외에 성교육,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문화·예술활동 등에 대한 욕구도 높았으며, 빈곤청소년의 경우는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이외에 아플 때 치료비 지원, 학업학습지도, 수련활동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또한 가출청소년과 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수련활동에 대한 욕구가 2순위였으며, 이 밖에 가출청소년은 성교육, 숙식제공, 개별 상담에 대한 욕구가 높았고, 장애청소년은 수련활동,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학업학습지도, 아플 때 치료비 지원 등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상황에 따라 사교육에 대한 욕구가 드러나는 것으로, 가출청소년의 경우는 가출이라는 현재의 상황에 따른 숙식제공 등의 현실적 욕구가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표 VIII-29〉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학생청소년	수련활동 (12.5%)	성교육 (11.5%)	장학금 및 생활비지원 (11.3%)	문화예술활동 (10.4%)	아플 때 치료비 지원 (9.3%)
빈곤청소년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24.2%)	아플 때 치료비 지원 (16.2%)	학업·학습 지도 (12.0%)	수련활동 (9.8%)	문화예술 활동 (8.6%)
가출청소년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14.4%)	수련활동 (13.3%)	성교육 (12.5%)	숙식제공 (11.0%)	개별상담 (10.1%)
장애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12.8%)	수련활동 (12.8%)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12.7%)	학업·학습 지도 (12.1%)	아플 때 치료비 지원 (11.0%)

6) 성·문제행동

성정체성에 대해서 각 유형별로 10%정도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이성애자라고 응답하였다. 가출청소년은 이성애자(87.2%)라고 응답한 경우가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가장 적었으며, 동성애자(6.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빈곤청소년의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보다도 이성애자(91.3%) 또는 양성애자(5.6%)라고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VIII-30〉 성정체성

단위: 빈도(%)

구분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전체	χ^2 값
학생청소년	1050(90.7)	42(3.6)	55(4.7)	11(0.9)	1158(100.0)	15.887*
빈곤청소년	506(91.3)	12(2.2)	31(5.6)	5(0.9)	554(100.0)	
가출청소년	279(87.2)	21(6.6)	13(4.1)	7(2.2)	320(100.0)	
전체	1835(90.3)	75(3.7)	99(4.9)	23(1.1)	2032(100.0)	

*p<.05

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은 학생청소년과 빈곤청소년이 각각 1.9%인데 비해 가출청소년은 36.5%로 가출청소년이 학생청소년이나 빈곤청소년에 비해서 19배 이상 매우 높았다. 가출로 인한 부적절한 숙식과 유흥업소나 숙박업소 등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과 학교교육에서의 성교육마저도 못 받고 있어 인식 및 교육 부족의 원인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VIII-31〉 성관계 경험

단위: 빈도(%)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값
학생청소년	23(1.9)	1192(98.1)	1215(100.0)	494.185***
빈곤청소년	11(1.9)	573(98.1)	584(100.0)	
가출청소년	118(36.5)	205(63.5)	323(100.0)	
전체	152(7.2)	1970(92.8)	2122(100.0)	

***p<.001

임신시키거나 임신시킨 경험은 학생청소년이 25.6%, 가출청소년이 16.2%로 학생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청소년의 경우에는 임신하거나 임신시킨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I-32〉 임신하거나 시킨 경험

단위: 빈도(%)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값
학생청소년	11(25.6)	32(74.4)	43(100.0)	8.519*
빈곤청소년	-	29(100.0)	29(100.0)	
가출청소년	19(16.2)	98(83.8)	117(100.0)	
전체	30(15.9)	159(84.1)	189(100.0)	

*p<.05

3. 사회지원체계 및 보호육구

1) 가정

청소년 유형별로 부모의 결혼 상태를 비교해 보면, 부모가 결혼 또는 재혼하여 양부모가 계시는 경우가 학생청소년이 89.7%, 장애청소년이 75.0%인데 비해, 빈곤청소년은 18.0%, 그리고 가출청소년은 38.2%에 불과하였으며, 빈곤청소년과 가출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이혼, 별거, 사별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I-33> 부모의 결혼 상태

단위: 빈도(%)

구분	결혼 또는 재혼	이혼	별거	사별	모름	전체	χ^2 값
학생청소년	1095 (89.7)	44 (3.6)	21 (1.7)	8 (0.7)	53 (4.3)	1221 (100.0)	1127.283 ***
빈곤청소년	105 (18.0)	225 (38.5)	35 (6.0)	124 (21.2)	95 (16.3)	584 (100.0)	
가출청소년	125 (38.2)	96 (29.4)	39 (11.9)	19 (5.8)	48 (14.7)	327 (100.0)	
장애청소년	333 (75.0)	37 (8.3)	14 (3.2)	18 (4.1)	42 (9.5)	444 (100.0)	
전체	1658 (64.4)	402 (15.6)	109 (4.2)	169 (6.6)	238 (9.2)	2576 (100.0)	

***p<.001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학생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들의 칭찬 및 보상행동이 가장 많았으나, 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의 통제·지도감독과 과잉보호행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로부터의 통제나 지도감독이 가장 적었을 뿐만 아니라 칭찬 및 보상행동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로부터 가장 무관심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표 VIII-34〉 청소년 유형에 따른 부모양육행동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통제 및 지도감독	학생청소년 ¹⁾ (n=1230)	3.75	0.90	23.445***	-	***	-
	빈곤청소년 ²⁾ (n=593)	3.46	1.03		***	-	***
	장애청소년 ³⁾ (n=429)	3.84	1.09		-	***	-
칭찬 및 보상	학생청소년 ¹⁾ (n=1232)	4.05	1.00	13.699***	-	***	-
	빈곤청소년 ²⁾ (n=593)	3.78	1.04		***	-	***
	장애청소년 ³⁾ (n=446)	3.98	1.04		-	***	-
과잉보호	학생청소년 ¹⁾ (n=1228)	2.66	0.90	16.965***	-	-	***
	빈곤청소년 ²⁾ (n=591)	2.75	0.89		-	-	***
	장애청소년 ³⁾ (n=443)	2.96	0.98		***	***	-

***p<.001

가정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을 보면, 가출청소년들이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가정폭력 등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점수에서 가출청소년들은 신체적 학대 1.82점, 정서적 학대 2.49점, 방임 1.95점, 가정폭력 1.89점으로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I-35〉 청소년 유형에 따른 가정폭력 및 부모의 청소년 학대

평균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4)
신체적 학대	학생청소년 ¹⁾ (n=1232)	1.12	0.34	181.473***	-	-	***	-
	빈곤청소년 ²⁾ (n=590)	1.11	0.35		-	-	***	-
	가출청소년 ³⁾ (n=330)	1.82	1.02		***	***	-	***
	장애청소년 ⁴⁾ (n=442)	1.19	0.47		-	-	***	-
정서적 학대	학생청소년 ¹⁾ (n=1230)	1.37	0.67	167.943***	-	-	***	-
	빈곤청소년 ²⁾ (n=592)	1.41	0.77		-	-	***	-
	가출청소년 ³⁾ (n=330)	2.49	1.39		***	***	-	***
	장애청소년 ⁴⁾ (n=444)	1.49	0.77		-	-	***	-
방임	학생청소년 ¹⁾ (n=1227)	1.34	0.42	130.053***	-	-	***	-
	빈곤청소년 ²⁾ (n=588)	1.27	0.46		-	-	***	-
	가출청소년 ³⁾ (n=324)	1.95	0.91		***	***	-	***
	장애청소년 ⁴⁾ (n=444)	1.36	0.56		-	-	***	-
가정폭력	학생청소년 ¹⁾ (n=1232)	1.28	0.55	73.711***	-	-	***	-
	빈곤청소년 ²⁾ (n=590)	1.26	0.63		-	-	***	-
	가출청소년 ³⁾ (n=330)	1.89	1.14		***	***	-	***
	장애청소년 ⁴⁾ (n=442)	1.36	0.70		-	-	***	-

***p<.001

2) 학교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경험을 보면,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긍정적 경험이 가장 적은 반면, 부정적 경험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빈곤청소년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경험이 가장 많은 반면, 부정적인 경험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I-36>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긍정적 경험	학생청소년 ¹⁾ (n=1230)	3.34	1.01	108.432***	-	***	***
	빈곤청소년 ²⁾ (n=596)	3.59	0.91		***	-	***
	가출청소년 ³⁾ (n=323)	2.58	1.16		***	***	-
부정적 경험	학생청소년 ¹⁾ (n=1226)	2.14	0.83	53.591***	-	***	***
	빈곤청소년 ²⁾ (n=596)	1.81	0.69		***	-	***
	가출청소년 ³⁾ (n=321)	2.35	0.92		***	***	-

***p<.001

학교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은 가출청소년이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가장 많았으나, 장애청소년도 학생청소년이나 빈곤청소년에 비해서 폭력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건전하지 못한 동아리 또래집단에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폭력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장애로 인한 친구간의 갈등이 폭력피해의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 VIII-37〉 학교에서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4)
학생청소년 ¹⁾ (n=1226)	1.27	0.44	68.267***	-	-	***	***
빈곤청소년 ²⁾ (n=597)	1.23	0.45		-	-	***	***
가출청소년 ³⁾ (n=328)	1.67	0.79		***	***	-	***
장애청소년 ⁴⁾ (n=358)	1.49	0.63		***	***	***	-

***p<.001

3) 지역사회

지역사회에서의 지지를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해 본 결과, 가출청소년들이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모든 영역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II-38〉 청소년 유형에 따른 지역사회지지

평균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4)
나를 사랑하고 돌보아준다.	학생청소년 ¹⁾ (n=903)	17.99	3.31	48.624***	-	-	***	-
	빈곤청소년 ²⁾ (n=413)	18.51	3.54		-	-	***	-
	가출청소년 ³⁾ (n=296)	15.57	3.57		***	***	-	***
	장애청소년 ⁴⁾ (n=317)	18.00	3.48		-	-	***	-

평균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4)
나의 능력을 존중해준다.	학생청소년 ¹⁾ (n=892)	17.30	3.62	53.961***	-	-	***	-
	빈곤청소년 ²⁾ (n=407)	17.74	3.44		-	-	***	-
	가출청소년 ³⁾ (n=295)	14.52	3.82		***	***	-	***
	장애청소년 ⁴⁾ (n=313)	17.10	3.62		-	-	***	-
내가 무언가 의논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을 때 도움이 된다.	학생청소년 ¹⁾ (n=899)	15.63	4.02	31.811***	-	***	***	-
	빈곤청소년 ²⁾ (n=402)	16.11	3.72		***	-	***	-
	가출청소년 ³⁾ (n=298)	13.86	3.61		***	***	-	-
	장애청소년 ⁴⁾ (n=0)	-	-		-	-	-	-
내가 필요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거나 빌려준다.	학생청소년 ¹⁾ (n=894)	17.39	3.66	55.002***	-	-	***	***
	빈곤청소년 ²⁾ (n=391)	17.39	3.83		-	-	***	-
	가출청소년 ³⁾ (n=297)	14.27	3.95		***	***	-	***
	장애청소년 ⁴⁾ (n=310)	16.69	3.95		***	-	***	-

***p<.001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응집력은 빈곤청소년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장애청소년, 학생청소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유형 중에서 빈곤청소년의 지역사회에 대한 안전이나 애착의식 등이 가장 긍정적이고, 학생청소년의 경우가 가장 부정적임을 뜻한다.

〈표 VIII-39〉 청소년 유형에 따른 지역사회 응집력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학생청소년 ¹⁾ (n=1223)	2.03	0.43	1150.244***	-	***	***
빈곤청소년 ²⁾ (n=592)	3.05	0.45		***	-	***
장애청소년 ³⁾ (n=438)	2.11	0.41		***	***	-

***p<.001

4) 직장 · 근로

청소년들의 일(아르바이트) 경험은 가출청소년(62.3%)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빈곤청소년(27.2%), 학생청소년(14.4%), 장애청소년(10.0%) 등으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이나 빈곤청소년의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경제적 필요를 보다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일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되며, 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일에 대한 욕구가 큰데 비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적기 때문에 경험도 가장 적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표 VIII-40〉 청소년 유형에 따른 일(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빈도(%)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값
학생청소년	173(14.4)	1027(85.6)	1200(100.0)	379.206***
빈곤청소년	158(27.2)	422(72.8)	580(100.0)	
가출청소년	197(62.3)	119(37.7)	316(100.0)	
장애청소년	44(10.0)	397(90.0)	441(100.0)	
전체	572(22.5)	1965(77.5)	2537(100.0)	

***p<.001

4. 인권 및 참여욕구

1) 인권 및 사회참여의식

청소년들의 인권 및 참여에 대한 의식은 빈곤청소년과 학생청소년이 가출청소년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빈곤청소년들과 학생청소년들이 가출청소년들에 비해서 학교, 가정, 사회에서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보다 잘 인식하고 있으며, 가출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VIII-41> 청소년인권 및 참여 의식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학생청소년 ¹⁾ (n=1205)	2.48	0.54	12.064***	-	-	***
빈곤청소년 ²⁾ (n=589)	2.53	0.44		-	-	***
가출청소년 ³⁾ (n=329)	2.35	0.58		***	***	-

***p<.001

2) 사회참여 필요도

사회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빈곤청소년과 학생청소년 간에 차이를 보였는데, 빈곤청소년이 학생청소년보다도 사회참여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청소년이 학생청소년에 비해서 사회참여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임을 볼 수 있다.

〈표 VIII-42〉 사회참여 필요 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학생청소년 ¹⁾ (n=1209)	2.93	0.73	6.015**	-	**	-
빈곤청소년 ²⁾ (n=585)	3.04	0.55		*	-	-
장애청소년 ³⁾ (n=405)	3.01	0.66		-	-	-

*p<.05 **p<.01

3) 사회참여 정도

실제로 청소년 관련 문제나 정책 및 행정과정, 사회적·경제적 활동, 그리고 여가문화행사 등에서의 참여 정도도 빈곤청소년이 학생청소년이나 장애청소년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I-43〉 사회참여 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학생청소년 ¹⁾ (n=1094)	1.78	0.60	13.975***	-	***	-
빈곤청소년 ²⁾ (n=543)	1.94	0.56		***	-	***
장애청소년 ³⁾ (n=339)	1.79	0.65		-	***	-

***p<.001

5. 소결

청소년들의 기초생활 비교에서 가출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식주와 질병 치료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도 가장 낮고, 사회심리적 적응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았으며, 흡연이나 음주의 경험, 자해행위나 자살기도 경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건강검진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가출청소년을 포함한 장애청소년, 학생청소년 등은 자해행위나 자살기도의 경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정보문화, 여가, 직업 등의 비교에서는, 먼저 교육의 경우에 대학진학 가능성에 대해서 실제 대학진학률보다도 전반적으로 낮게 생각하고 있었다. 가장 큰 이유가 성적이었으나, 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적보다는 장애의 문제가 대학 진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장애가 대학진학과 밀접히 관련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빈곤청소년의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학원 등 학습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대학 진학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문화생활은 학생청소년에 비해서 빈곤청소년, 가출청소년, 장애청소년의 정보매체 보유가 낮았지만 전체적으로 약 90% 이상의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통통신, DMB, PSP 등 새로운 통신기기의 경우에는 보유에서 청소년들 간에 차이가 조금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장애청소년들이 활동의 어려움 등으로 통신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통신비용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도 빈곤청소년과 함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활동은 현재 하고 있는 활동과 큰 차이가 있었는데, 청소년들의 여가욕구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현재 여가시간에 인터넷·컴퓨터게임이나, TV시청 등을 하고 있었으나, 희망하는 활동으로는 여행, 취미활동, 일(아르바이트) 등 보다 역동적인 활동을 원하고 있었다.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욕구는 학생청소년과 빈곤청소년의 경우에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청소년이용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쉼터 등의 보호시설, 수련시설, 상담 또는 직업 관련 시설에 대한 욕구도 높았고, 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

관, 도서관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복지서비스 욕구는 학생청소년의 경우에는 수련활동이 가장 높은 반면, 빈곤청소년과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회지원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부모의 양육환경은 학생청소년의 경우에 부모들의 칭찬 및 보상행동이 가장 많았으나, 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의 통제·지도감독과 과잉보호행동이 가장 많았고, 빈곤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로부터의 통제나 지도감독이 가장 적었을 뿐만 아니라 칭찬 및 보상행동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로부터 가장 무관심하게 양육되고 있었다.

가정에서의 폭력피해는 가출청소년들이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가정폭력 등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및 교사에 대한 경험은 가출청소년이 긍정적 경험이 가장 적은 반면, 부정적 경험은 가장 많았고, 학교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도 가출청소년이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가장 많았다. 장애청소년의 경우에도 학생청소년이나 빈곤청소년에 비해서 폭력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청소년의 폭력 피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가출청소년들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으로부터의 지지에서도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가장 낮았는데, 지역사회에서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집단임을 보였다. 일(아르바이트)에 대한 욕구는 경제적 필요를 보다 절실히 느끼는 집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가출청소년, 빈곤청소년 등 이들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일에 대한 욕구가 큰데 비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을 감안해 일자리 기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인권 및 참여에 대한 의식과 필요성에 대해서 의식이 비교적 높았으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한 인식이 일반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함을 의미하며, 또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부족함을 의

미하는 것으로 인권 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참여 기회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빈곤청소년의 경우에는 참여의식 및 참여 정도가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서 높은 데 비해,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참여의식 및 참여 정도가 가장 낮아 자신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함을 엿볼 수 있다.

IX. 청소년 복지욕구 해소를 위한 정책

1. 인권에 기초한 청소년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원칙과 전략
2. 학생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3. 빈곤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4. 가출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5. 장애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IX. 청소년 복지욕구 해소를 위한 정책

1. 인권에 기초한 청소년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원칙과 전략

인권적 관점에서 청소년복지 문제를 검토한다는 것은 청소년복지를 자선이나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에게 주어진 권리의 문제로 파악하며, 일국의 차원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복지요구 수준을 채택하고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하며, 이를 통해서 결국 인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등의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여러 가지 복지적 요구를 권리의 차원에서 접근하였는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결국 각국에서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여부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과 복지를 동시에 충족시킨다는 의미를 갖는다. 최근 유니세프(UNICEF)에서는 청소년 인권과 복지를 실현하는 주요한 전략으로 지역사회,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정책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도시전략(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s)은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 정부 시스템의 구축을 의미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정책의 중심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이행해야 할 것을 요구하며, 지역 규모나 산업화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이 전략의 수행을 위해서는 원칙과 구체적인 전략 수행이 필요한데, 먼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2004: 7).

첫째, 모든 청소년들을 차별 없이 고려해야 한다. 정책은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친화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의 차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찾아내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차별은 가출청소년, 장애청소년, 소수민족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에게 여러 방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는 것은 모든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한 사항이다. 대부분의 정책 행위는 직·간접적으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존정책이나 신규 정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각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생존 및 발달의 극대화를 꾀해야 한다. 청소년의 생활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마련하는 일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영적, 도덕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극대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청소년의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나 지역사회, 학교, 가정에서 청소년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으로서, 그리고 권리 소유자로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증진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도시전략은 지역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로 다음의 9가지를 제시하고 있다(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2004: 8~17).

첫째,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증진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청소년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견해가 존중되고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청소년 참여는 단순히 정부의 정보나 조직 및 회의를 개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즉, 정보의 형태와 제공방법의 변화, 토론과 자문형태의 변화, 모임의 시기와 안건의 변화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의 인권과 복지에 대한 요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 친화적인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청소년의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과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규정에 기초하여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인권에 기초한 보편적인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법률은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절한 홍보와 인식 제고, 교육훈련 등이 뒷받침되어

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도시) 중심의 청소년 인권복지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삶의 공간인 지역사회, 특히 도시 중심의 종합적인 전략이나 아젠다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아동권리 협약에 기초한 원칙의 채택과 이상적인 목적과 목표가 있는 통일적인 청소년인권전략을 필요로 한다. 즉, 전략이 단순히 성명서 수준에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실제적이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의 개발은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시민의 참여를 목표로 해야 하며, 국가(national)와 지역(local) 또는 마을(neighborhood)수준의 기획과도 연계될 필요가 있다. 전략 목표와 우선순위는 모니터링과 검토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변경하며 그 영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 내 청소년인권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청소년 인권복지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고 우선순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주요한 방법 중의 하나는 영향력이 큰 독립적인 총괄부서 혹은 조정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효과적인 조정, 모니터링,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전략 실행을 위한 최고의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직구조는 청소년의 관점과 청소년에 적합한 우선순위가 정부 내 여러 부서에 파급될 수 있게 할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인권복지에 관한 영향력평가(Youth impact assessment and evaluation)를 실시해야 한다. 청소년복지정책이 사회의 다양한 청소년집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일부 법률이나 정책은 특정 집단이나 일부 집단의 청소년에게만 영향을 미치거나 편중된 영향을 미친다. 법률과 정책은 실행되기 전에 그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서 조사되어야 하며, 집행된 후에도 실제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는 정부가 정책개발과정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동시에 비정부기구와 독립적인 청소년인권복지기관의 설립 등을 통해서 수행되는 것도 필요

하다.

여섯째, 적절한 청소년복지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예산과정이 청소년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각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과 보건 등 주요 서비스 예산이 국가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 지역 정부에서는 이러한 자원 배분이 공평한지 또는 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이나 불공평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예산과정은 모든 시민들과 청소년들에게도 설명될 수 있어야 하며 청소년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일곱째, 청소년인권복지 상황에 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청소년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청소년복지정책의 개발에 필수적이다. 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형별로 인권 및 복지에 관한 통계와 정보가 수집되어야 한다. 청소년을 조사 대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조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보고서는 정책담당자와 지역사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청소년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출판되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제공되어야 한다.

여덟째, 청소년 인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인권의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소년 권리에 관한 내용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 학교 교과과정에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학풍이나 학교조직도 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과 함께 일하거나 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 연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정부기구, 청소년단체 및 대중매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홍보를 확대해야 하며 청소년들로부터도 홍보에 관한 자문을 얻을 필요가 있다.

아홉째, 청소년 인권복지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비정부기구는 청소년인권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들 기관이 정부와 독립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지역에 있는 기관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2. 학생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1) 생존육구

학생들의 생활공간 부족을 보다 적극적인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청소년시설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공부방의 청소년문화의집으로의 기능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학생청소년 가운데 26.5%가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갖고 있지 못하며, 독립적인 생활공간의 부재는 학생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 밖으로 나가려는 경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응답자의 14.1%가 경제적인 이유로 사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방과 후 이러한 청소년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대처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한 방안으로 이들 청소년에 초점을 둔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의 개선 및 보완, 지역사회나 학교 동아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여가 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가 약 50%정도에 불과하고, 이용도도 15.0%의 낮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기능의 조정이 필요하다. 즉, 이용도가 거의 없는 공부방의 경우에는 폐쇄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청소년공부방의 기능을 청소년문화의집 등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학생청소년들의 건강검진을 청소년 환경과 발달단계에 맞도록 고급화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청소년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7%가 지난 1년간 건강검진을 받아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체력검사 및 건강 진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비취학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물론 학생청소년의 경우에 매 3년마다 건강 진단을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게 하였으나, 병의원에서는 비용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

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 근시, 난시 등의 안과나 척추검사, 우울증 등의 청소년 발달단계나 환경여건에 따라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적절한 follow-up 절차 등이 확립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치료비 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이를 제고하는 방법으로 학교 보건실이나 상담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청소년의 음주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위한 사회적 캠페인 전개와 더불어 주류 판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흡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6.3%인 것에 비해 음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7%에 달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응답자의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흡연과 음주에 대한 사회 전반의 태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흡연 인구의 감소를 위한 사회 전반에서 걸친 강력한 대응의 결과 흡연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한 태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청소년들 사이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음주에 대해서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다는 사회 전반의 음주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을 허가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오프라인상담, 자아존중감 프로그램, 또래모임의 활성화 등 우울·불안 등의 심리·사회적 문제와 자살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청소년 중에서 1/10이 자해행위나 자살기도의 경험이 있고, 현재까지 보고된 자살 원인 중에서 성적 비관으로 인한 우울증이 많은 것을 볼 때, 학생청소년들의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까지 발전되기 전에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가령 학교 내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부담없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상시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간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온라인이나 상담원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학교 내에서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또래 친구들 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모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 발달육구

학교 내 청소년시설 및 기관 전용 게시판 설치, 포스터 제작 및 배포, 지역방송 실시,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연계 등 지역사회 내 청소년 시설 및 기관의 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연계를 실시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역사회 내 시설 및 기관의 경우에 청소년 이용율이 매우 낮아 설립 목적에 크게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여가시간을 적절히 활용하거나 자신의 문제 해결을 도와줄 적절한 기관을 찾지 못하는 등 청소년시설과 청소년 상호간에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번 조사에서도 지역사회 청소년 시설 중에서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의 자연권 수련원의 경우에만 50% 이상의 청소년들이 이용경험이 있었으며, 기타 시설의 경우에는 인지도에 비해서 이용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 내에 학생들이 항시적으로 알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설게시판을 설치하거나 포스터 등을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방송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지역 내 청소년시설이나 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지역사회 시설과 기관의 지도자나 시설, 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학교 밖의 시설과 기관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청소년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반복적이고 확실적인 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 전문 강사 초빙, 관련 시설 방문, 사례 제공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성 문제 행동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많은 수의 학생들이 그 효과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지만 관련 청소년 시설이나 기관과 협조하여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획일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므로써 청소년 성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강의나 비디오 시청 등의 예측 가능하고 획일적인 방식의 성교육보다는 다양한 강사와 프로그램 혹은 관련 시설 방문, 다양한 사례 제시 등을 통하여 성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성교육은 일반적인 성교육과 함께 성문제(성병, 원치 않는 임신 등)에 직면한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도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테마여행, 가족여행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여행할인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가장 바라는 여가활동은 여행, 음악·영화감상, 아르바이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이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방학이 가장 일반적이고, 쉬는 토요일이 있는 주말이 가능하므로 청소년을 위한 테마 여행,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여행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청소년을 위한 여행코스, 지방청소년을 위한 여행코스를 구분하고, 여행의 종류도 역사탐방, 자연체험, 위락지 방문 등을 잘 조화시키는 여행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 시급하다. 군대의 훈련소와 같은 자연권 수련시설의 프로그램을 크게 개편하여 해당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행을 장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행 프로그램의 개발 이외에 외국의 유스호스텔과 같은 청소년 숙박시설의 개발이나 버스, 철도, 선박 등을 연계해 교통비, 입장료 등의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기회의 제공,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의 기능을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고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거나 청소년 아르바이트지원센터와 노동부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청소년 아르바이트 기회 및 알선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기관이 있지만 인권침해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며, 고용안정센터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집단에 대한 고용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고용안정센터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전담하는 기능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청소년 관련 기관의 경우에는 노동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아르바이트 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보호요구

가정, 학교에서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 및 교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수 등을 실시해야 한다.

학생청소년들은 근접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의 신체적·언어적 폭력 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친구, 선배, 심지어 교사로부터도 같은 유형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교사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맞은 적이 있거나 모욕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각각 21.9%, 39.6%, 15.3%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는 주변 환경 속에 폭력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우선 부모의 경우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언어폭력의 실례와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연수 등에 교실 폭력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연수 결과를 실적화 하여 승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사에 의한 폭력에 대한 인지도들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교사에 의한 폭력을 경험한 정도가 대도시보다는 농어촌 소재 학교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청소년의 학교 내 폭력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성평등기구 혹은 양성평등기구를 만들고, 학교 내 제도 및 시설 개선을 통하여 차별에 대한 의식

및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청소년의 일상생활 공간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이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학교 내에서 성차별과 성폭력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성평등기구 혹은 양성평등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출석부를 만들 때 남성인 청소년을 부른 다음에 여성인 청소년을 부르는 작은 차별부터, 여성청소년의 신체적 조건을 잘 고려하지 않는 화장실 수와 크기 그리고 양식 등을 신속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에서 화장실의 변기 수는 남녀 간에 차이가 크게 남녀 간의 생리적 차이를 고려할 때, 그 불평등은 더욱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4) 참여육구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 군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발전 계획과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래 지역의 주인은 현재의 청소년으로 청소년들이 그들이 소속해 있는 지역의 미래 발전계획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매우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자신과 관련된 이와 같은 중요한 과정에 소외되어 있어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 세계의 각 도시에서는 청소년들의 지역 계획과정에서의 참여에 대하여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독일 뮌헨의 경우에는 시장의 적극적인 관심 하에서 매년 도시계획경시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협조로 학생들이 개인, 학급, 학교단위로 미래 도시 만들기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건축, 교통, 주거문제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제시하며,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시상과 더불어 전시 등을 통하여 널리 홍보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연계를 통해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와 발달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입안자, 부모, 교사,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정확한 홍보가 실시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은 아직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관심도 없다는 등의 인식이 있는데, 청소년의 참여가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명확하게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정책입안자, 학교교사, 부모, 청소년 등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학교나 학급 내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개선해야 하며, 연수운영 등을 통하여 학교교사, 학교장, 학교행정가가 청소년참여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급회의나 학생회의 등의 형식적인 운영을 탈피하여 학급이나 학교 내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학급 간 혹은 학교 간에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채널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에 대한 연수 등을 통하여 학교 내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교사들의 의식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참여능력과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청소년 모임 간 또는 청소년과 NGO 간에 상호 연계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은 단순히 청소년에게 참여에 대해 가르쳐주는 데에 그치지 말고 사회문제나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유발하는 원인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게 도와주는 활동 등을 포함해야 하며, 청소년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활동도 필요하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관심 있는 취미활동 혹은 지역사회문제나 보다 폭넓은 사회적 이슈와 관련

하여 자신들만의 모임을 실제로 만들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오프라인모임이 힘들면 온라인모임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청소년 단체활동이나 모임의 결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련 NGO단체나 모임을 서로 네트워킹 시켜주고 정보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면 좋을 것이다.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높이는 방안으로서 청소년의 문화를 적극 활용하고 교지발간, 학교방송의 활성화 및 학교축제나 행사를 통한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청소년 관련 단체의 홍보물이나 교육자료 등을 청소년들이 알기 쉽고 친숙하고 흥미롭게 느낄 수 있도록 재밌는 그림이나 만화, 쉬운 언어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이는 의미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것이 존중받으며, 더 나아가 자신들의 취향과 의견이 존중받ند다고 느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교지발간이나 학교방송의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는 학교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축제나 행사의 기회를 청소년들이 여가문화행사 등을 직접 기획하는 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3. 빈곤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빈곤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복지정책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빈곤청소년 같은 고위험 집단의 경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이 요청된다. 일반적으로 단기 개입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빈곤청소년의 경우 부정적인 생활사와 위험한 주위환경 때문에 단기 개입의 영향은 시간이 갈수록 희석되거나 약화된다. 또한 빈곤청소년은 프로그램에서 쉽게 탈락하고 프로그램에서 배운 기술을 가정 내에서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

에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시키고 가족 내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장기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빈곤한 가족과 그 가정환경의 특징 중의 하나는 급격한 변화와 예측불가능성이다(Minuchin, Colapinto, & Minuchin, 1998).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동일한 행동에 대해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변덕스럽게 대응하는 상황이나 부모의 가출, 이혼 등으로 갑자기 주양육자가 바뀌는 상황 등이 빈곤가족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와 예측불가능성 때문에 빈곤청소년의 세상에 대한 인식이 불안정해지고 옳고 그름의 판단이 쉽지 않게 되어 비행이나 문제 행동에 쉽게 빠져들게 된다. 빈곤청소년 주변의 이러한 예측불가능성을 피하려면 적어도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프로그램 수급의 급격한 변화와 예측불가능성(예를 들어 생계지원의 대상이었다가 탈락한다든지, 담당 사회복지사가 계속해서 바뀐다든지 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일관성과 지속성을 보여야 한다.

둘째,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동시에 개입하는 포괄적인 이세대(二世代) 프로그램(two-generation program)이어야 한다. 빈곤 부모들은 알콜 중독, 복지의존, 가정폭력, 아동학대나 방임 등의 문제로 비난받고 사회의 짐으로 취급이 되면서, 프로그램에서 빈곤청소년 문제를 다룰 때도 빈곤 부모를 소홀히 하거나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빈곤성인(부모)에 대한 프로그램은 쉽게 사회적 반대를 직면하지만 빈곤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인도주의적 이유로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찬성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빈곤가족 내에서 부모와 자녀를 분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빈곤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접근하기보다는 자녀중심 프로그램이거나 성인중심 프로그램으로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자녀중심 프로그램은 자녀에게 건강한 성장발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빈곤가족의 빈곤탈피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고, 성인중심 프로그램은 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생계지원이나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빈곤가족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의 발달적 욕구나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반면 이세대 프로그램은 건강한 청소년발달과 부모의 경제적 자활을 동시에

증진시키기 위해 이세대 모두를 대상집단으로 하여 서비스를 통합·조정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세대에 대한 동시적 접근은 시너지적 효과를 통해 부모의 경제적 자활 능력은 물론 양육능력과 가족자원의 증대를 가져와 자녀중심 프로그램에서 얻어진 효과를 계속 지속시켜 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정익중, 2002).

셋째, 다양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기관들을 발굴하고 이 기관들과의 유기적 연계협력을 할 수 있는 통합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개입이라고 해도 한 가지 프로그램만으로는 빈곤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빈곤가족과 같은 고위험 집단에게는 그 가족이 직면하는 다수의 위험요인에 접근하는 다양한 개입으로 보충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따라서 교육·복지·문화·보건·취업 차원에서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빈곤가족을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상시 관리하는 사례관리와 지역사회를 빈곤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 하나로 결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조직 및 연계이다. 이 두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지역사회 내 빈곤청소년문제의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하게 빈곤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이전 가정상황이나 이후 전망에 있어 매우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개인별로 적절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례관리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학력이 사회에서 중요하다는 사실 때문에 모든 빈곤청소년에게 똑같이 학습만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 계속해서 다니게 하는 것은 빈곤청소년에게도 중요하고, 학습능력과 동기가 있는 빈곤청소년에게는 물질적인 걱정이 없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빈곤청소년이 공부를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초 학력의 차이가 크지 않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학습지도를 강조할 필요가 있지만 학습에 흥미가 많이 떨어져 있고 기초 학력이 부족한 중·고등학생에게까지 학습만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공부이외에 다른 전망을 가

질 수 있도록 진로지도나 문화예술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빈곤청소년 대상 청소년복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차세대의 빈곤 탈출은 한 기관이 완성하기엔 많은 한계를 지닌다. 현재 파편화 되어 있는 지역 자원들이 연계되어 빈곤가정의 문제 상황이 통합적인 서비스로 지원·관리될 때,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빈곤 탈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단위 유관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는 물론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보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룹 홈, 지역사회복지관 등 관련 기관과의 상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조정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효과적인 연계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를 가능케 하는 법률적, 행정적 지원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등이 함께 관계부처 합동 공동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기관 간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빈곤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이 더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빈곤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빈곤청소년 등과 같은 위기청소년 집단에게는 그들이 요구하는 서비스가 즉각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요구가 지연될 경우 또 다른 더 심각한 위험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위기상황에 긴급히 출동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긴급구조기능과 함께 욕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방문하여 원조를 요청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원조의 내용을 파악하고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해 보인다.

둘째, 빈곤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빈곤청소년 등과 같은 위기청소년 집단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상황에서도 손쉽게 기억할 수 있는 긴급전화와 같은 통합전화망이 필요하며, 필요한 서비스가 한 곳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one-stop 서비스 제공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one-stop 서비스 제공체계의 중심은 학교청소년의 경우는 학교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탈학교청소년의 경우는 청소년위원회의 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1) 생존육구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검사 스크리닝의 제도화, 보건교사의 정신건강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여러 선행 연구에 의하면 어린 시절의 경험이 인격성숙과 정신건강 유지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성인이 되기 이전 단계인 아동이나 청소년 기부터 정신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신적 문제 해결에 신속한 도움을 받게 된다면 그 효과가 클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 따르면 빈곤청소년의 경우 불안·우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청소년도 불안·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아마도 이유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청소년은 학업이나 성적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우울이 높고, 빈곤청소년은 만성빈곤으로 인한 불안·우울이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빈곤청소년들은 만성빈곤으로 낙인감을 갖거나 희망을 많이 상실한 경우가 많이 있다. EQ(emotional intelligence)의 관점에서 볼 때,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어려운 도전이나 실패에 처해도 패배주의적 태도나 불안·우울 증세 따위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희망을 지닌 사람일수록 목표추구를 위한 생활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우울을 경험하는 빈도가 훨씬 적으며 전반적으로 불안이나 감정적인 스트레스도 훨씬 적게 나타난다(Goleman, 1997). 빈곤청소년에게 이러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이러한 전제하에 학교에서의 보건교육, 특히 정신보건분야가 중요시 된다. 그러나 대체로 학교보건교육에는 정신건강부분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자살, 우울, 불안, 자아정체감의 혼란 등으로 나타나는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문제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신적 문제에 대한 부모 및 교사들의 이해부족과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마땅히 전문적 도

움을 받아야 할 아동, 청소년들이 전문적 도움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학교에서 소외되거나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청소년문제를 스크리닝하여 치료 및 상담이 필요한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건강검진(2006년부터 학교보건법이 일부 개정되어 1년에 1회씩 실시되던 학교 신체검사가 입학 후 3년 마다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병의원에서 3년에 1회씩 실시되는 형태로 변경됨)과 병행하여 간이 정신건강검사 형태로 스크리닝을 실시하는 것을 제도화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국내에서 표준화되어 사용하고 있는 행동조사표(CBCL)와 자기보고형식의 행동조사표(YSR)와 같은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이들 평가도구는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이지 않고 전체 청소년에게 실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정신과적 장애의 고위험 집단을 선별하여 이들에게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장차 이들이 비행청소년이 되거나 심각한 정신 장애인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 국가 전체의 정신장애 예방 차원에 상당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적으로는 각 학교에 정신건강문제와 관련된 전문교사 1인(혹은 학교 사회복지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예산 문제 상 일정기간 동안은 과도기적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신체질환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건강문제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는 보건교사를 정신건강 전문교사로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것이다. 즉, 보건교사에게 소정의 전문적인 정신건강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학교 내 문제청소년의 1차적 상담 및 교사들의 자문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면 현재 있는 인력만으로도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이지 않고 정신건강 전문교사로 활용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정신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의 상담에 관심을 보이는 교사들에게 집중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정신건강 전문교사로 활약하게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센터 등에서 정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봉사조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고위험 집단에게 적절한 행동모델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

회적 기술훈련, 자기주장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들의 전문적 활동을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정신과 전문의 등)들이 이들의 활동을 자문, 감독할 수 있을 것이다.

2) 발달육구

빈곤청소년의 정서 치료는 물론 역량 강화 및 권리 보장을 위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과 문화권을 확보해야 한다.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어려움에 처한 빈곤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핍된 부분만을 채우고자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충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영화, 연극, 뮤지컬, 음악회 등의 1회성 관람행사는 빈곤부모가 시간이나 자원의 제약으로 해줄 수 없는 것을 일반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것처럼 비슷하게 해 줌으로써 빈곤청소년의 상대적 박탈감, 문화적 결핍을 막아 현상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빈곤청소년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하여 성인기에는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돕는 치료·재활적 기능을 갖기는 어렵다. 강점 관점(strengths perspective)에서는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핍되거나 부족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현재 기능적이거나 격려를 통해 기능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 약점보다는 강점을 적극 활용해야 함을 강조한다(Saleebey, 2002). 더 나은 발달과 적응을 위해서는 역량강화(empowerment)를 통해 빈곤청소년의 강점과 능력을 재발견하고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감정 정화를 통한 치료적 기능을 갖는 것은 물론 자신의 예술적 재능과 장점을 개발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자율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함으로써 더 나은 삶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고하게 하고 성인기에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의 빈곤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원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1회성 행사위주의 단순 문화체험은 빈곤청소년에게 별다른 효과가 없음을 인식하여 그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 반면 문화예술교육이 빈곤청소년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반영하여 문화예술교육으로의 방향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정익중, 2005).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의 블루오션은 빈곤청

소년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관심이나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교육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틀에 박힌 예술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창의적일 수 있다. 또한 빈곤청소년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교과학습 이외에 예술적 재능을 찾을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고 여가시간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빈곤의 악영향을 막아 비행이나 범죄에 빠져들지 않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는 생산력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창조력 중심의 지식·문화사회로 전환되면서 단순 기술이 아닌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창의적 관점의 인성교육과 감성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은 청소년이 미래를 가거나 악기를 잘 다루게 되는 것이 아니다. 미술이든 음악이든 청소년들이 새로운 문화적 체험을 하며 정서 함양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성인이 되어서도 평생 도움이 될 소양을 닦는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입시중심 교육으로 황폐해진 학교교육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체험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방안이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2004년 11월에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2005년 12월에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 내 단순한 지식위주의 음악, 미술 교과목이 다양한 체험중심 교육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제도권 밖의 청소년들을 위해 전문강사가 지역에 직접 나가 예술교육을 하며, 가출청소년 쉼터, 소년원 등에서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빈곤청소년을 위한 문화적 체험 프로그램도 질적 변화가 생기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권은 연령이나 발달단계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문화생활과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1991년에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상대적으로 문화적 영역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다루었을 뿐 아니라 문화권은 다른 사회적 권리가 먼저 실현되고 난 다음에 다루어져야 할 차후의 권리로 간주되어 우선순위에서 밀려져 있었다.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시각도 아직까지 경제적 문제 해결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문화예술교육을 포함한 문화 활동은 시간낭비이며 쓸데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단지 생존할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삶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문화권은 다른 사회권과 함께 추구해야 할 기본권이며 동시에 다른 권리의 실현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권리이다. 특히 빈곤청소년의 문화권 증진은 빈곤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이 사회의 부담이나 의존적 대상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자아실현은 물론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빈곤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가정 및 부모기능을 대리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최고의 전문가에 의한 고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빈곤청소년 대상으로는 빈민운동이나 자원봉사 차원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온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더라도 잘 운영되어 왔다. 실무자들의 열의와 헌신정도도 매우 높지만 전문성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이제는 이를 극복해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빈곤청소년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낮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된다. 질 낮은 서비스는 빈곤청소년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의 질이 너무 좋아서 다른 일반청소년도 이용하고 싶어지도록 만들어야 빈곤청소년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고 낙인의 문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연령대와 발달단계에 맞는 프로그램, 접근방법의 다양화, 청소년관련기관과 시설에 대한 홍보방법의 다각화 등을 통하여 청소년에 대한 접근

성을 높여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이라도 프로그램 대상이 충분히 접근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빈곤청소년의 경우 낙인의 문제 때문에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차라리 밥을 굶었으면 굶었지 무료로 급식을 받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나 교사의 조언을 잘 따르기 때문에 약간 낙인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용하도록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낙인의 문제가 민감해지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해도, 부모와 교사가 아무리 조언을 한다 해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빈곤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연령대 및 발달단계에 따라 상이한 접근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빈곤아동만을 분리하여 고품질 집단프로그램을 시도해도 상관없으나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가능한 일반청소년도 이용 가능한 보편적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낙인이 존재할 우려가 있는 것은 개별화된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접근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상적인 접근방법이 아니라 청소년대상 눈높이에 맞는 스포츠, 게임, 문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먼저 친구 되기를 시도한 후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관계를 형성하는 초기단계를 단기로 가져가도 상관없지만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를 좀 더 길게 가져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우리나라에는 청소년관련기관과 시설이 풍부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도 밝혀졌지만 이들 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이용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홍보방법을 다각화하여 실제 청소년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통로는 학교를 이용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협조를 받아 학기 초에 전교생 대상 안내를 실시하거나 1페이지 정도 홍보물을 학교사회복지실이나 상담실에 비치하여 학생들이 쉽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는 학교사회복지가 제도화되면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의뢰나 연계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3) 보호육구

부모교육에 대한 현실적 접근을 위해 부모의 기능적 결손의 연속선 상에서 가정위탁, 후견인의 지정, 멘토링, 부모교육 등이 배열되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빈곤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부모의 지도감독이나 지지 등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 빈곤청소년 부모에게 부모교육을 하기란 접근성 측면에서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실천현장의 목소리이다. 상당수가 부모교육을 쉽게 받기 힘든 상황에 있는 조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부모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은 접근이다. 따라서 부모교육은 부모의 기능적 결손이 많이 진행된 절대빈곤가족 보다는 덜 손상된 저소득가정을 위한 예방적 지원책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가족 내 인적 자원이 열악한 빈곤가족에게는 지역 아동센터나 방과 후 교실 등을 통한 질 높은 보호서비스나 멘토링 서비스 등의 제공을 통해 가족 외적인 인적 자원을 보완해 줌으로써 부모의 기능적 결손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의 기능적 결손이 매우 심각한 경우 가정위탁이나 후견인의 지정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기능적 결손의 연속선 상에서 가정위탁, 후견인의 지정, 멘토링, 부모교육 등이 배열되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IX-1〉 부모의 기능적 결손과 제공 가능 서비스

심각한 수준 <-----기능적 결손-----> 낮은 수준			
입양, 가정위탁	후견인의 지정	멘토링, 자원봉사자 방문	부모교육

학교 내부구조를 ‘교사’만의 구성에서 ‘교사+전문가’의 구성체계로 전환하는 등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교가 빈곤청소년에게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빈곤청소년의 학교 내 부적응 또는 비행, 범죄행

위 등으로 인해 학교에서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학교 내 상담 또는 학교사회복지의 강화를 통해 이들의 학교생활이 유지되도록 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고등학교 이상의 일정 학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이혜연·이태수·이서정, 2001). 특히 학교사회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학생 개인에게는 자신감을 키워주고 계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준비를 시키며 다가오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 주어 자신들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또한 학교사회복지는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전인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학교사회복지는 학교 현장에 학교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면서 학교사회복지실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은 물론 일반 학생들에게 심리치료나 진로지도를 제공하며 지역사회-가정-학교를 연계 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제 학생들의 문제는 학교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집단이 학교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내에 이미 진입한 보건교사 이외에도 이러한 사회적 자원들을 연계하는 매개 고리로서의 전문가가 필요하며, 특히 이러한 연계자의 역할에는 사회복지사가 매우 적합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교육법을 개정하여 학교의 내부구조를 ‘교사’만의 구성에서 ‘교사 + 전문가’로 구성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심각하게 고려되어야만 한다.

4) 참여욕구

빈곤청소년을 문제해결과정의 동반자와 전문가로 받아들이고, 빈곤청소년의 강점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들과의 공동노력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한다.

빈곤청소년들에게는 자신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빈곤청소년은 법률지위상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체로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향상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즉 독립적인 의사결정이나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항상 사회복지사 등 보호자의 동의와 협조, 지지에 의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사회는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이들의 참여를 장려하기보다는 이들을 무시하거나 최소한의 참여로 국한시키는 자세를 유지하였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여긴다. 또한 빈곤이라는 상황은 이러한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따라서 빈곤청소년 당사자들이 빈곤을 창피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결여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회복지사나 부모들도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에서 배제시키는 경향이 높다. 하지만 이들의 욕구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참여경험은 빈곤청소년에게 작은 성취경험들을 제공하면서 자신감이나 자아존중감 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빈곤청소년들이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공개토론회나 공청회에서 그들을 대표하여 당당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관련 정부기관과 정당, 국회의 소위원회 등에 서신이나 이메일,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빈곤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빈곤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는 관련기관에서는 낙인이나 차별에서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이들의 참여를 배제시키기보다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의사결정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전략을 논의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이제까지 서비스의 수혜자로만 여겨졌던 빈곤청소년을 문제해결과정의 동반자와 전문가로 받아들이고, 빈곤청소년의 강점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들과의 공동노력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한다.

4. 가출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1) 생존욕구

청소년쉼터의 제도화와 확충을 통하여 가출청소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확보되어야 한다.

가출청소년 가운데에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거나, 잘 곳이 없어서 바깥을 돌아다니거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여, 의식주 상태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빈곤, 장애, 학생청소년 등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로 곤란을 겪고 있는 수준이었다. 이것은 가출청소년이 가정에서 겪는 학대와 방임의 수준이 절대적으로 높고,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도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가출 전 가정 내에서의 가출 후 사회에서 모두 겪는 어려움인 것으로 보인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의식주의 보장은 청소년의 건강유지,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확보,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사회가 당연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가출청소년에 대해서는 일탈자라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하여 이들이 겪는 곤란을 인과응보로 해석하고 당연시 하는 풍토가 있다. 그러나 이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가정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는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존재이며, 이들이 겪는 생존위협은 이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의 의무를 방조한 상태임을 깨달아야 한다. 가정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능을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사회는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가출청소년의 기본적 안전과 생존을 보존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가출청소년이 경험한 의식주 생활수준은 사회가 얼마나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안전망을 갖추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척도일 수 있다.

본 조사에서 가출청소년들이 가장 필요한 청소년기관(시설)으로 청소년쉼터를 지정한 것은 이러한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청소년쉼터가 제도화되지 않은 가운데 성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가 이와 같이 높은 것을 볼 때 가출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쉼터의 필요성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가출청소년을 10만명이라고 추정할 때 현재 청소년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3천명 규모로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 상황이다(윤철경, 2005). 또 청소년쉼터에 대한 학생, 빈곤, 장애청소년 등 다른 청소년집단의 인지도가 50%내외인 것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청소년 가출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최근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것과 같이 청소년쉼터를 제도화하여, 지역적인 안배와 기능을 고려하여 국가적으로 계획적으로 일시, 단기, 중장기 등 쉼터를 확충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체계가 청소년쉼터와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하고, 거리에 의료진을 파견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가출청소년을 위한 의료지원체계가 제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가출청소년의 질병경험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가출청소년이 거리에서 굶거나 불규칙한 식사를 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거리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성적 접촉에 노출되는 등 가출로 인한 생활 상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출청소년은 다른 집단에 비해 성문제 질병과 피부질환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질병은 전염성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주의를 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출청소년은 집에서 나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며 경제적으로도 극빈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건강을 검진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가출청소년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치료비가 없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나타난 결과를 볼 때,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함을 드러내고 있다.

또 본 연구결과에서 가출청소년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주요한 이유는 귀찮다는 이유였는데, 가출청소년과 같이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질병을 방치하여 더욱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의료적 지원은 질병을 발견하기 위한 건강검진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쉼터와 같은 보호시설에서는 의료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치료비지원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 청소년의 의료적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의료진을 포함하여 거리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 역시 극히 제한된 활동으로 가출청소년의 일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의 건강검진과 치료를 위하여 의료체계와 공식적으로 협력관계를 수립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가출청소년이 경험하는 주요 질병인 충치·잇몸 질환, 위장내과질환, 피부질환, 각종사고, 성문제질환 등에 대해 치료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의료시설에서는 편견과 차별 없이 청소년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거리에서 온갖 질병에 노출되고 방치되어 있는 청소년에게 접근해야 할 시급성을 알고,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이 일시쉼터나 이동쉼터 등에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연계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본 연구결과와 같이 가출청소년의 흡연, 음주, 성관계 등의 경험은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하게 많이 나타나는 문제로, 약물사용과 성에 관한 예방교육도 국가적인 지원 아래 집중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가출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체계, 특히 자살위험에 대한 예방체계가 필요하다.

가출청소년은 다른 청소년 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불안과 비행의 수준이 높아,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가출청소년의 자해행위나 자살기도 경험이 전체 청소년의 28.8%로 나타난 것은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 뿐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임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자살시도 경험이 2회 이상인 청소년이 82.4%인 것으로 볼 때, 가출청소년의 자살위험성은 지속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문제이다. 자살시도 경험은 가출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을 드러내는 단적인 수치로서, 청소년들의 일탈적 행동에 가려져 있는 심리

상태에 주목하고 자살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개입방법과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장실무자가 청소년이 자살위험성을 사정하고 자살의도가 발견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과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살시도경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특히 여자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불안 수준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여자가출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2) 발달육구

복학절차의 간소화, 학업에 필요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 등 가출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 중 절반 이상의 청소년이 정규교육을 받지 않고 있고,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청소년이 정규교육 이외의 다른 교육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 가출청소년의 경우 74.4%로 대부분의 청소년이 정규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나타나며 학교에 의한 복학거부 경험이 많아 가출청소년에 대한 교육권의 침해가 매우 심각함을 드러내었다. 일반적으로 가출과 학업중단을 당연시 하거나 가출청소년을 문제 청소년으로 규정하여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생각이 명백히 교육권에 대한 침해임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중단되었을 때 장기적으로 실업, 빈곤 등으로 이어져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이들을 교육제도 속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집중적인 에너지를 쏟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본 연구에 의하면 중퇴한 청소년 가운데 절반 정도는 복학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걱정, 서류절차의 복잡함, 경제적 어려움, 정보의 부족, 학교 교사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등의 장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이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복학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복학에 따른 행정절차를 지원

하며, 학비나 교재비 등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복학하여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청소년을 일대일로 상담하고 학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학교 내와 교육 체계 속에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맥키니벤토 노숙인 교육지원진흥법(McKinney-Vento Homeless Education Assistance Improvements Act)에 의해 가출한 청소년이라도 거주지 상태와 보호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교육을 지속하도록 돕는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해 학교 등록 절차에 따른 시간지체를 최소화하고, 학업에 필요한 물품, 급식, 교통수단 등을 제공하고, 전문 인력을 지역별로 배치하여 관련 행정 절차에 도움을 주고 있다(김지혜, 2006).

진로적성검사, 경제교육, 직업체험, 취업 등 가출청소년의 경제교육과 경제활동지원을 전담하는 지원기구가 필요하다.

가출청소년 중 일(아르바이트)을 하는 청소년은 62.3%로 일반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소득수준도 평균 43만원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가출청소년을 경제활동이 활발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근로현장에서의 임금체불, 부당연장근로 등의 피해가 많고, 이러한 부당대우에 대해 청소년들은 참거나, 친구와 상의하거나, 그냥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인 노동경험은 청소년들이 합법적인 생계 수단이며 진로설계와 관련 있는 노동에 대해 쉽게 실망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으로부터 멀어지고 비합법적인 수단을 채택하게 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을 근로현장에서 겪는 피해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김지혜, 2005b).

또 가출청소년들의 경제활동의 범위가 단순한 용돈에서 벗어나 큰 규모로 행해지고 있는 것에 비해, 돈을 사용한 용도는 먹을 것 이외에 옷이나 물건 구입 등 일시적인 소비에 그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이 건강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제도 전반, 직장에서의 근무태도, 근로기준법, 계획적인 소비지출 등 경제활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경제활동지원은 정규교육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이며 청소년의 자립과 사

회적응을 위하여 사회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영역이다. 이를 위해 가출청소년의 진로지도와 적성검사로부터 시작하여, 경제교육, 직업체험, 인턴, 취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다.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교육이 필요하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청소년집단과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청소년의 정보사용이 남자청소년의 경우 게임이나 오락에 치중되고,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도 채팅과 교제에 집중되어 있고, 그 외의 정보검색, 학습, 신문 등의 용도에는 거의 사용이 없었다. 인터넷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원이 열악한 가출청소년이 정보를 획득하고 다양한 자원을 획득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하드웨어 장비의 구축에 비해 활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출청소년이 정보적 지지를 포함하여 모든 영역의 사회적 지지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았던 결과를 고려하면, 가출청소년의 정보 활용능력을 키우는 것이 사회적 역량을 키우는 한 가지 대안일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가출청소년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고발하고 사회적 보호를 받는 통로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보호시설에서는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청소년이 정보매체를 통하여 현실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찾고, 청소년들을 옹호하는 관련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교육을 받고, 진로를 탐색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출청소년의 심리, 교육, 취업, 재정, 문화 등의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시설과 기관의 연계를 강화하여 다양한 서비스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출청소년은 청소년쉼터의 인지도와 이용률이 높지만, 그 외의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해서는 인지도에 비해 실제 이용률이 높지 않았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의 집, 고용안정센터, 청소년자활지원관,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공부방 등과 같이 가출청소년의 심리, 교육, 취업, 재정, 문화 등의 욕구를 해결해줄 수 있는 주요한 자원에 대한 활용이 크지 않은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가출청소년은 개인,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집단으로 많은 서비스가 필요하며, 그러한 이유로 사례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서비스를 보호시설 내에서 대부분 제공하려고 하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한 서비스망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어, 충분하지 않은 인력이 과중한 업무를 소화하며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쉼터와 같이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가정 복귀나 자립 등 가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교육, 취업, 문화 활동 등 기타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외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각 서비스 기관에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서비스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청소년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청소년의 자원 활용능력을 키우고 청소년이 그러한 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3) 보호욕구

‘집 없는’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위하여 주거공간의 확보와 자립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가출청소년 중 44.7%가 1년 이상 집 밖에서 지내고 있으며, 부모의 거주지를 모르는 청소년이 22.4%로 나타났다. 청소년 가출의 양상이 일시적 또는 일회적인 것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 장기간 지속된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것은 가족이 청소년을 양육하는 기능을 실패한 상태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호시설에서 지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청소년이

29.7%로 나타나, 현장에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일시적인 구호의 개념을 벗어남을 드러내고 있다. 많은 가출청소년의 경우 부모와 연락이 단절되거나 가정에서 심각한 학대나 방임을 경험하거나 부모가 양육을 거부하는 등 가정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집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장기 가출청소년의 경우 집밖에서 지낸 기간이 오래되고, 가정이 청소년에 대한 보호기능을 상실하여, 귀가를 통해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가정을 대체할 사회적 보호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 현장에서는 돌아갈 집이 없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중장기쉼터가 설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양육기능을 상실한 가정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소규모 주거공간이 욕구가 있는 청소년의 수에 맞게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며, 더욱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독립적으로 생활공간과 생계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장 중심의 연속적인 관점에서 자립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장학금과 생활비를 가장 필요한 서비스라고 하고, 여가나 취미생활이나 취업훈련에서 비용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는 등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욕구를 드러낸 것으로 볼 때, 가정에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자립하기까지 충분한 경제적 지원이 사회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가출청소년을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옹호하도록 경찰 등 공공기관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피해자 대처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많은 가출청소년이 가정 이외에서도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폭력을 경험하고, 교사로부터 차별대우와 정서적, 성적 폭력을 경험하고, 지역사회에서도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청소년은 학교에서 차별대우, 모욕, 성희롱 등 부정적 경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성추행이나 강간의 피해에 더욱 취약하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이러한 피해사실을 아무에게 알리지 않거나 가까운 친구에게 알리는데 그치고 성인이나 공식적 기관에는 알리는 일이 별로 없어,

반복적인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알려줘야 해결될 것 같이 않고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불신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성인과 공식기관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경찰수준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오히려 청소년들이 경찰로부터 부정적인 경험을 겪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남자청소년이거나 장기가출청소년의 경우 경찰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억울하게 범죄인 취급을 받는 경험이 더 많이 나타나므로, 이들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라는 인식을 갖고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경찰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해에 대한 적절한 자기보호와 대처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피해에 대해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비율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높으므로, 여자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는 친구로서의 대처법에 대한 교육이 전략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좋겠다.

피임, 임신, 성병, 성매매피해, 성폭행, 성정체성 등에 대한 성교육을 현실적이고 포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가출청소년 가운데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6.5%로 학생청소년과 빈곤청소년 집단에서 각각 1.9%로 나타난 것보다 월등히 많았다. 그러나 피임을 하는 청소년은 4분의 1수준이며, 그 이유가 피임 방법을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성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가출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집단에 비해 성병의 발병이 높은 것은 이와 같이 성상대가 많지만 콘돔을 사용하는 비율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윤현영, 2006). 특히 여자청소년은 성관계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에 대한 교육이 더욱 절실하다. 한편 성매매의 경험은 남녀 청소년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성매매가 단지 여성의 문제가 아니며 남자청소년들도 경험할 수 있는 문제임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가출청소년에 대해 성교육은 필수이며, 성교육은 피임, 임신, 성병, 성매매 피해, 성폭행 등에 대해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의 경험을 나누고

행동지침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인 가출청소년이 12.8%로 10명중 1명꼴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학생청소년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성소수자 청소년의 가출위험성이 높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성적체성이 밝혀지는 경우 당면하게 될 주위의 혐오어린 시선과 놀림을 두려워하여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서비스제공자가 성역할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거나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여 이를 잘못 된 것으로 보고 교정하려고 하려고 할 때, 청소년들은 서비스를 회피하고 갈 곳을 잃게 된다.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서도 금지되는 사항으로, 성소수자인 가출청소년이 사회적 낙인을 겪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성교육에서 성적체성에 대해 다룰 필요가 있다.

가족과의 갈등해결과 재가출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서비스, 보호자의 상담 참여 의무화 등 성공적인 가족재결합을 돕는 전문적 프로그램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수의 청소년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지만, 한편으로 가출을 한 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족과 연락하는 청소년이 36.2%이고, 귀가를 원하는 청소년이 5명 중 1명꼴로 있고, 청소년들 중 자발적인 귀가 경험도 많이 나타나 가족재결합의 가능성도 엿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귀가거부의 이유로 귀가 후에도 전과 같은 문제를 겪는 것에 대한 염려가 가장 많았고, 귀가 후에 필요한 도움으로 부모와의 관계 회복을 제시한 청소년이 가장 많아, 가족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욕구를 볼 수 있다.

가출청소년이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시도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가장 원시적인 대처방법으로 청소년의 특성과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비전문적으로 실시되어 그 동안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을 구분하고, 귀가에 대한 청소년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그 결과 집에 돌아갈 수 없어 상대적으로 사회적 보호가 시급하게 필요한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가 활발하게 전개된 반면, 귀가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던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과 가정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기간 동안 관리하는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의하면, 많은 청소년들이 일주일 이내에 재가출하고 대부분 한 달 이내에 재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기간 내에 가족과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재가출을 예방하는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겠다. 또한 이와 같은 가족재결합서비스에 가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적어도 한 번 상담에 참여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의 개입도 고려해야 한다(김향초, 2006).

가출의 반복과 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동기에 시작되는 가출에 대한 집중적인 조기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따르면, 가출이 미취학 연령부터 10세 이전에 시작된 청소년이 10.1%이고,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시작된 청소년이 23.9%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장기가출청소년의 경우 더욱 어린나이에 가출한 경향이 드러나고, 특히 남자청소년은 어린 나이에 나와 더욱 반복적으로 가출한 양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소년 가출이 아동기에서 시작되는 것은 청소년이 아동기에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를 경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Kaufman & Widom, 1999). 따라서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 가출의 현상에도 관심을 기울을 필요가 있으며, 가출 예방은 아동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가출을 문제행동으로 접근하여 개인적인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가출을 비행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대나 방임의 징후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출의 반복과 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해 가족을 포함한 통합적인 개입을 조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면 이후에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4) 참여육구

보호시설 내 청소년의사를 존중하는 윤리적 절차를 확보하고 각종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 내 실무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다고 하는 가출청소년은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고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권리에 대해 더 잘 모르고 있어,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청소년들 가운데 입·퇴소에서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남자청소년의 경우 강제입소가 더 많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보호시설에 강제적으로 입소시키거나 퇴소관련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효과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보호시설 내에서는 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는 윤리적 절차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보호시설 내 인권침해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가장 크게 드러나 이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많은 보호시설이 종교를 기반으로 설립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으므로, 보호시설에서는 청소년들이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민감하게 관찰하고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청소년들의 사생활 보장에 대해 보호시설의 민감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서비스제공자로서 기초적인 윤리이며, 청소년을 무력화시키지 않고 사회적인 능력을 키우는 역량강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인권교육과 함께 인권에 민감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실무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

5. 장애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1) 생존육구

학교 차원에서 또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장애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예방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청소년은 비장애청소년보다 질병경험이 많으며, 그 중 1/4정도는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고, 장애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으로 치료를 못하고 있었다. 또한 장애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당뇨, 고혈압, 심장혈관질환 등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장애 자체와 장애로 인한 합병증 등을 고려할 때 장애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건강검진이나 치료,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등 학교 차원에서 또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상담 또는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실시 등 자해행위나 자살기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고, 자해행위나 자살기도의 경험은 높다. 신체적 자아에 대해 매우 민감한 청소년기에 장애로 인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학교자체 프로그램 속에서 또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서 장애청소년들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자신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행동에 스스로를 방치하지 않도록 상담 또는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의 실시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 발달육구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초중고로의 확대, 장애학생 이해를 위한 교과과정 개선, 장애환경평가제 도입 등 등·하교 및 청소년학교 환경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

장애청소년들은 등·하교의 어려움, 괴롭힘(폭력, 조롱, 왕따), 편의시설의 부족, 학교의 거부 등 장애청소년 개인의 문제보다는 장애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열악한 학교환경으로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점차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해야 하며(등하교 지원, 수업도우미, 각종 기자재지

원, 학교생활지원), 특히 일반학교의 경우 학교의 편의시설이나 교사나 동료학생의 인식 등 물리적, 심리적 장애환경이 열악하므로 이를 개선할 지원 대책의 마련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교사를 대상으로는 교사임용고시에 장애인복지를 필수과목으로 지정, 장애학생 담당교사에 대한 근평 부가 점수 부여 또는 승진을 하려면 반드시 장애학생 지도경험이 있어야 한다든지, 보수교육 시 장애학생에 대한 내용 반영 등의 정책이 지원되어야 한다. 동료학생을 대상으로는 교과목에 가능한 장애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삽입, 장애 체험 및 동료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최소 년 5시간 이상 의무화 등 교과 과정에 반영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차원에서 장애학생 학교생활 만족수준 평가제, 장애환경평가제(물리적, 심리적 평가) 등을 통해 차등예산지원제의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편의시설 설치, 교수학습 지원, 장애학생 도우미지원 등 대학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많은 장애청소년들이 대학진학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성적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교육환경의 장애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낮은 진학률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특례입학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더라도 30%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거나 휴학이나 자퇴 등 비장애대학생과 비교하여 높은 중도 포기율이 높다. 더욱이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대학 진학률조차도 낮다. 따라서 대학의 편의시설 설치, 교수학습 지원, 장애학생 도우미지원 등 장애 대학생의 교육적 욕구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문화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문화여가 바우처 프로그램의 강화 등을 통해 장애청소년 문화여가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장애청소년들이 현재 하고 있는 문화여가활동은 희망하는 것과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청소년들은 여행이나 스포츠 활동, 취미활동 등 외부에서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을 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TV시청, 인터넷·컴퓨터

터게임, 집에서 휴식 등 가정에서 혼자 보내는 문화여가활동을 하고 있었다. 문화여가활동을 하는 어려움으로 교통 등 이동의 어려움, 이용할만한 시설·프로그램·편의시설의 부족 등의 사회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 문화여가활동의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각종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 개발, 문화여가 바우처 프로그램의 강화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장애청소년들이 충분한 문화여가활동의 경험을 통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한다.

장애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청소년 관련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이 매우 낮았다. 이는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홍보의 부족과 장애청소년들이 이용할만한 서비스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 있는 청소년 관련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 할 것이며, 동시에 청소년들의 욕구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유형별 고려와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근본적인 접근권을 강화해야 하며, 운영위원으로서, 이용자로서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 당사자로서 청소년 시설 운영에 대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청소년관련 시설이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의 생활을 지원해주는 중심적인 서비스전달체계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3) 보호육구

부모상담, 교육 등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청소년기에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가정에서의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장애 청소년 부모는 일반청소년 부모에 비해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은 통제나 지도감독 행동과 과잉보호 행동은 강하고 칭찬이나 보상행동은 약했으며, 신체적, 정서적, 방임, 가정폭력 등의 청소년 학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장애청소년 부모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의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서 가정에서 장애청소년들이 안정적이고 적절한 양육을 받음으로서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 등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고 보급되어야 한다.

자살예방교육의 의무화, 장애학생과 교사, 보호자 대상 성교육 의무화 등 장애청소년의 자해행동을 예방하고 성폭력에 대처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장애청소년들은 자해나 자살의 경험이 많았으며, 성추행이나 강간 등 성폭행의 경험이 많았다. 또한 피해사실을 잘 알리지도 않으며, 공식적인 기관보다는 부모나 친구 등에게 알렸으며, 알려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았고 알려야 할 곳을 몰라서, 또는 타인이 아는 것이 싫어서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장해행위와 자살기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자해나 자살행위의 이유를 파악하고 예방교육을 학교교과과정에서 의무적으로 학기당 1회 정도는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성추행이나 강간 등의 상황을 예방 또는 상황이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켜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장애학생과 교사, 보호자에 대한 성교육(대처방법과 요령 포함)을 의무화해야 하며, 한편 장애인들이 성폭행 노출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구하고 문제발생시 피해자 중심의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공식적인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또래문화와 학교문화와 깊은 관련으로 발생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이 실시되고, 또한 학교폭력이나 괴롭힘의 허용 문화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참여욕구

장애청소년 리더십훈련, 권리와 인권, 참여에 대한 교육, 자조모임 지원, 학교운영과 특별활동 운영에 참여 보장, 지역사회와의 연계망 구축 등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을 확충해야 한다.

장애청소년들은 자신이나 소외집단의 권리나 인권,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이나 욕구는 높으나 실제적인 참여수준이나 문제해결에는 낮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장애청소년 리더십훈련과 권리와 인권, 참여에 대한 교육, 자조모임 지원, 학교운영과 특별활동 운영에 참여 보장, 지역사회와의 연계망 구축 등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주체세력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5) 기타

장애청소년 관련 부처별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지방-민간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청소년 업무는 특성상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문화관광부(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정보통신부가 관여하고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를 제외하고는 장애청소년에 대한 비중이 낮으며, 주변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다양한 부처가 장애청소년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부처가 다양한 차원에서 사안별, 정책별 조정과 연계가 필요하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주무부처는 부처별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기능(예, 청소년복지정책조정위원회 등)을 두어 장애청소년복지정책이 분절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부처(복지부, 교육, 노동부, 정통부, 문화관광부, 여성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서비스전달체계(청소년센터, 수련원, 지역사회복지관 등), 학교간의 역할의 명확화와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책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시군구에 청소년복지업무를 전담하는 과나 계의 설치가 필요하며, 장애청소년을 위한 복지센터를 설립하거나 또는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업무에 장애청소년 복지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침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건강가정육성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법 등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을 주요 정책대상

으로 규정하고 지원범위, 방법, 권리와 차별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장애청소년 복지문제가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법들을 분석해보면 청소년관련법에서는 일반청소년 중심이어서 장애청소년이 정책의 주 대상이 아니며, 장애인관련법에서도 성인중심의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장애청소년은 정책의 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장애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진흥법의 경우에는 학령기학생들의 교육문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장애청소년의 전반적인 복지나 직업, 사회참여 등에 대한 내용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장애청소년은 그 어느 법에서도 주요 정책대상으로 포함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장애청소년복지 대책은 매우 미약하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건강가정육성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법 등에 장애인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규정하고 지원범위, 방법, 권리와 차별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위해 장애청소년복지 민간 서비스 기관 간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청소년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하에서 장애청소년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다. 장애청소년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주체를 선정해야 한다. 방법적으로 신규 전달체계를 만들거나 기존의 체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기존의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기존의 전달체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전달체계(청소년전문기관,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 전문기관 등)에서 장애청소년을 복지서비스의 주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1) 장애청소년 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2) 청소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과 예산 지원 (3) 장애청소년을 지원하는 체계, 학교-청소년기관-지역사회복지관-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청소년 사례의뢰와 관리를 통한 종합적이고 통합적

인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행체계 간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내에 장애청소년의 특별한 관리와 지원을 위해 복지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장애청소년의 경우 특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청소년들의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생존욕구, 발달욕구, 보호욕구,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학교 내에는 학교사회복지사, 보건교사, 특수교사, 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학생복지부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내에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유기적인 협력시스템, 예를 들면 지역청소년복지위원회(가칭) 등을 설치하여 학교와 가정의 유기적인 연결선상에서 학생지도는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신뢰회복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X.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정책제언

X. 요약 및 결론

1. 요약

이 연구에서는 인권에 기초한 청소년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청소년 복지욕구를 인권 개념에 기초하여 생존욕구, 발달욕구, 보호욕구, 참여욕구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학생청소년, 빈곤청소년, 가출청소년, 장애청소년의 청소년 유형별로 청소년복지 실태와 욕구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 연구방법으로 문헌·자료조사, 설문조사, 워크숍 및 초점집단인터뷰를 사용하였다. 복지욕구 조사도구의 개발과 인권과 복지와의 관계, 복지욕구 등의 개념적 문제를 파악을 위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하였으며, 청소년 유형별로 인구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의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2006년 4월 24일~5월 31일 사이에 학생청소년, 빈곤청소년, 가출청소년, 장애청소년 등 전국 3,1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인권의 관점에서 복지욕구를 생존욕구, 보호욕구, 발달욕구, 참여욕구 등의 4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2005년도 전문가델파이 조사로부터 복지정책 대상의 우선순위에서 순위가 높았던 학생청소년, 빈곤청소년, 가출청소년,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유형의 청소년들은 그 유형의 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표본 추출을 위하여 학교 및 관련 시설과의 연계를 통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조사는 학생청소년의 경우에는 우편조사에 의한 자제식 설문조사의 형태로 실시되었으며, 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장애 특성상 특수학교교사나 복지전문가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빈곤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복지재단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는데, 전국 16개 시·도 지부의 복지전문가에 의한 개별방문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와의 협조 하에 전국 38개 청소년

컴퓨터의 지도교사에 의한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을 병행하였다.

청소년복지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 청소년전문가, 담당공무원 등 주요 청소년복지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워크숍과 초점집단 인터뷰를 포함하는 3단계의 절차를 거쳤다. 첫째, 청소년복지욕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복지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 제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둘째, 복지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학생청소년, 빈곤청소년, 가출청소년, 장애청소년이 참여하는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각 청소년들의 복지욕구와 정책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셋째, 청소년복지전문가와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제안에 대해서 정책적 검토를 위하여 복지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실효성 판단과 수정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서 조사된 연구결과를 학생청소년, 빈곤청소년, 가출청소년, 장애청소년 등의 청소년 유형별로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생청소년의 복지실태와 욕구

학생청소년의 복지실태와 욕구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생존권의 영역에서 살펴보면, 학생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자살에 대한 심각성이 우려된다. 학생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과거에 비해 비교적 높아졌으나, 불안·우울 등의 사회심리적 적응은 악화되었으며, 자해행위 및 자살기도의 경험에 있는 학생은 1/10정도로 나타났다.

둘째, 발달권의 영역에서 살펴보면,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여가활동(인터넷과 컴퓨터게임 21.3%, TV시청 20.5%)과 희망하는 여가활동(여행 16.2%, 영화음악감상 8.4%, 아르바이트 7.6%)의 차이가 커서 전반적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지역사회 내 기관(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보호권의 영역에서 살펴보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가정(신체적 학대 경험 약 10%, 정서적 학대 경험 약 25%), 학교(친구나 선배로부터의 폭행

34.0%, 교사로부터의 구타 39.6%) 등에서 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어서 청소년 인권 보호 차원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참여권의 영역에서 살펴보면, 청소년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청소년들이 알고 있었으나, 현재 학교를 비롯하여 가정, 사회에서의 청소년권리행사는 많은 부분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청소년의 70%정도가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표명, 경제활동, 정책 및 행정과정, 여가문화행사 기획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실제 참여경험은 대부분 10-20%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청소년참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성별에 따른 복지실태와 욕구를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에 우울·불안 등의 문제나 지역사회에서의 성폭력 피해가 많은 반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음주, 흡연, 성관계 등 비행의 문제와 학교 폭력 문제가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우울·불안과 비행의 수치가 높은 반면, 흡연 경험은 남학생이 여학생의 2배, 성관계 경험은 남학생이 여학생의 3배 정도 높았다.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의 인지도나 이용률은 직업훈련원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인지도가 낮았고, 만족도에서도 모든 청소년 기관(시설)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낮았다. 반면 복지서비스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지도가 낮았지만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피해와 교사에 대한 부정적 경험은 남학생이 많았으나, 지역사회에서의 성추행이나 강간은 여학생이 많았다.

여섯째, 거주지역에 따른 복지실태와 욕구를 살펴보면, 농어촌지역의 학생청소년이 심리·사회적으로 가장 불안정하며, 비행 경험도 많고, 정보화기기 및 복지시설에 대한 혜택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지역 학생들은 우울·불안 및 비행의 수치가 높고, 학교폭력의 피해 경험도 많고, 음주 경험도 가장 많았으며, 이동전화 등 정보화기기의 보유실태도 가장 낮았다. 또한 청소년 기관(시설)과 복지서비스의 인지 및 이용경험도 가장 낮았다.

일곱째, 교급에 따른 복지실태와 욕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중학생에 비해서 고등학생이 우울·불안 등 심리·사회적 적응의 문제가 많고, 음주, 흡연, 성관계 등의 비행경험이 많으며, 학교에서의 적응이나 경험도 중학생에 비해 부정적이었다. 지역사회 내 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중학생에 비해서 높았으나 이용 경험은 중학생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만족도는 오히려 중학생에 비해 떨어졌다.

2) 빈곤청소년의 복지실태와 욕구

빈곤청소년의 복지실태와 욕구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빈곤청소년은 심리적인 발달이나 정서적, 인지적 영역의 발달 등에서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였지만 예측과 달리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에 포함된 빈곤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인 지원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표집과정에서 가장 부적응하고 있는 빈곤청소년이 배제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학교생활에 대한 내용도 수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주관적 인식도, 학교생활에서의 긍정적 경험이나 부정적 경험도 일반청소년과 수급청소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긍정적 경험은 수급청소년이 더 높았고, 부정적 경험은 수급청소년이 더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셋째, 빈곤청소년 내 하위집단 별 비교에서는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 농어촌 청소년이 대도시나 중소도시 청소년보다 더 부정적인 발달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하위집단별 비교에서 가장 의외의 결과는 양친부모가정 빈곤청소년이 다른 가족형태보다 더 취약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양친부모가정 빈곤청소년은 자아존중감도 가장 낮았고, 불안우울, 비행의 수준은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학대도 가장 심각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타 가정이나 부자가정보다 더 취약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한부모가

정임에도 불구하고 모자가정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발달과 적응과정에 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출청소년의 복지실태와 욕구

가출청소년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 네 가지 영역의 인권보장의 실태와 관련된 청소년의 욕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존권과 관련하여, 많은 가출청소년이 하루 종일 굶거나 노숙을 한 경험이 있어,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들은 치과질환을 비롯하여, 내과질환, 피부질환 등의 질병을 경험하지만,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출청소년들은 일반 학생 집단이나 빈곤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수준이며, 우울과 불안의 수준이 높고, 자살시도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28.8%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발달권의 측면에서는 절반 이상의 청소년이 정규교육을 받지 않고 있고,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청소년이 정규교육 이외의 다른 교육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출청소년에 대한 교육권의 침해가 심각함이 드러났다. 성적 발달과 관련하여, 가출청소년 가운데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12.8%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의 성관계의 경험은 36.5%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하는 청소년은 4분의 1 수준이며, 그 이유가 피임 방법을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 마련된 청소년관련기관(시설)에 대해 가출청소년들은 자신의 욕구와 가장 맞는 청소년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이 높고,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으며,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청소년상담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은 대부분의 청소년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출청소년들은 성교육, 캠프, 숙식제공 등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이 높았고, 만족도는 치료비, 장학금 및 생활비, 질병상담 및 건강지원 등에 대해 높았다.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캠프 등 야외활동, 성교육, 숙식제공 등으로 응답하였다.

셋째, 보호권의 영역에서 먼저 가족 상황을 살펴보면, 절반이상의 청소년이 가정에서 심각한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청소년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폭력을 경험하고, 교사로부터 차별대우와 정서적, 성적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서도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겪는 것으로 드러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아르바이트)을 하는 청소년은 62.3%였는데, 근로현장에서의 임금체불, 부당연장근로 등의 피해가 많았다.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기간이 1년 이상인 청소년은 29.7%로,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일시적인 구호의 개념을 벗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참여권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다고 하는 가출청소년은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호시설에서의 인권에 대한 조사에서는, 본인의 의사 존중되지 않는 비자발적 입·퇴소를 경험한 청소년이 15~20%정도로 나타났고, 종교의 자유, 사생활 보장, 초상권 보호, 자신의 재산에 대한 알권리, 생활수칙에서의 의사표현과 참여 등에 대해서 인권의 침해를 경험하는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별에 따라 가출청소년의 인권 보장 현황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여자청소년의 경우에 남자청소년에 비해 하루 종일 굶는 일이 많고, 음주의 수준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더 낮고, 우울·불안의 수준이 높았다. 또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에 비해 성관계를 더 많이 경험하고, 학교에서 차별대우, 모욕, 성희롱 등 부정적 경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성추행이나 강간의 피해가 높고,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낮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에 비해 정규학교를 중단하는 비율이 높고, 어린 나이에 나와 더욱 반복적으로 가출하고, 경찰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억울하게 범죄인 취급을 받는 경험이 더 많고, 강제입소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관찰되었다. 정보와 문화생활에서는 여자청소년은 통신을 이용한 교제에 치중하고 남자청소년은 게임이나 오락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차이가 있었다.

여섯째, 가출기간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출청소년과 가출기간 3개월 초과인 장기 가출청소년 비교에서는 장기 가출청소년은 단기 가출청소년에 비해

의복과 주거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정규학교 중단 비율은 74.4%로 현저히 높고, 학교에 의한 복학거부 경험이 많았다. 장기 가출청소년의 경우에 단기 가출청소년에 비해 이동전화보유율이 낮고, 청소년쉼터와 직업훈련원의 인지도와 이용률이 더 높고, 각종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이 높았다. 장기 가출청소년은 더 자주 가출하고 더 어린 나이에 가출하였으며, 귀가동기도 더 적고, 자발적인 귀가도 적으며, 귀가를 했더라도 1~7일 이내에 재가출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가출청소년은 거리에 있는 동안 경찰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위협을 받거나 억울하게 취급되는 경험이 더 많았다. 한편 보호시설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와 보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으며, 보호시설 내에서 의사존중과 참여의 권리보장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장애청소년의 복지실태와 욕구

장애청소년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 네 가지 영역의 인권보장의 실태와 관련된 청소년의 욕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존권의 측면에서 볼 때, 장애청소년은 의식주, 신체적 정신적 건강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자살행위나 자살기도에서는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사용하는 방이 없는 장애청소년이 절반 이상 되었으며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거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경험을 한 청소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과 지난 1년간의 건강검진 경험은 60%이상이었으며, 치료는 76.0%가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아존중감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27.4점(표준편차 5.55)으로 약간 낮았으며, 자해행위나 자살기도의 경험도 15.3%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발달권의 측면에서는 장애청소년의 등하교 지원 등 이동권의 문제가 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보 및 여가활동에서도 욕구가 큰데 비해 통신비용이나 시설에 대한 이용 정보나 여건의 불리함으로 인해서 장애청소년이 소외되어 있었다. 장애청소년 중에서 학교에 부적응하는 청소년은 8.2%에 불과하였으나, ‘등하교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등의 이유로 과반수 이상 (53.3%)이 결석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문

화의 측면에서는 9만원이상의 통신비용을 지불하는 청소년이 10%정도로 다른 청소년에 비해 과중한 통신비용으로 인해 부담감(27.9%)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가활동은 TV시청이나 인터넷·컴퓨터 게임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가정 내에서 보내는 여가활동보다는 외부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지역사회 청소년 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도 30%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호권의 측면에서 볼 때, 장애청소년들은 가정에서의 방임 등의 문제와 학교에서의 폭력피해가 심각하며, 가족 이외의 특별한 지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청소년의 가정 내에서의 신체적 학대는 약 15%, 정서적 학대는 30%, 방임은 50%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폭력 피해는 별명, 놀림, 조롱(49.7%)의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지역사회에서의 성추행이나 강간피해의 경험은 5.4%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1.6%만이 피해 받은 사실을 공식적 기관보다는 부모나 친구에게 알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와 친척은 장애청소년의 지지원의 역할을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참여권의 측면에서는 장애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이나 욕구는 매우 높으나 실제적인 참여활동의 수준은 매우 낮았다. 특히, 장애청소년들은 소외집단의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79.0%), 자신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있다(68.8%)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별에 따른 복지욕구의 비교에서는 자아존중감의 경우에는 남자청소년(28.05점)이 여자청소년(26.68점)에 비해 높았으며, 자살행위나 자살기도 경험과 부모로부터의 방임은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는 여자청소년(3.2점)이 남자청소년(2.9점)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인권의식 수준도 여자청소년(2.77점)이 남자청소년(2.53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정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장애유형별 복지욕구의 비교에서는 특히 청각장애청소년들이 의식주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에 문제가 가장 컸으며, 자살행위나 자살기도의 경험, 학

교 폭력 피해 경험도 가장 많았다. 또한 시각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로부터의 방임과 성폭력 피해 등 지역사회에서의 폭력 피해가 가장 많아 가장 주의를 요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장애청소년들은 대부분 소외집단의 인권에 대해서 책임감과 참여의식이 높았으며, 특히 뇌병변장애청소년들이 자신이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문제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장애청소년들은 사회참여의 경험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에서 청각장애청소년은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이나 사회봉사나 아르바이트 참여 등의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제언

이 연구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에 기초한 복지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권에 기반한 복지정책의 원칙과 전략

복지정책의 수행에서 비차별성, 청소년 최상의 이익 고려, 청소년 생활 및 발달의 극대화, 청소년 견해의 존중 등의 4가지 원칙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첫째, 모든 청소년들을 차별 없이 고려해야 한다. 정책은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친화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의 차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찾아내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차별은 가출청소년, 장애청소년, 소수민족청소년, 근로청소년 등에게 여러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는 것은 모든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한 사항이다. 대부분의 정책 행위는 직·간접적으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존정책이나 신규정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각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셋째, 청소년의 생존권 및 발달권의 극대화를 꾀해야 한다. 청소년의 생활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마련하는 일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영적, 도덕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극대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청소년의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나 지역사회, 학교, 가정에서 청소년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으로서, 그리고 권리 소유자로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증진되어야 한다.

또한 복지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음의 9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첫째,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증진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청소년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견해가 존중되고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청소년 참여는 정보의 형태와 제공방법의 변화, 토론과 자문형태의 변화, 모임의 시기와 안건의 변화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둘째, 청소년 친화적인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청소년의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과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규정에 기초하여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인권에 기초한 보편적인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법률은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절한 홍보와 인식 제고, 교육훈련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도시) 중심의 청소년 인권복지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삶의 공간인 지역사회, 특히 도시 중심의 종합적인 전략이나 아젠다가 필요하다. 전략이 단순히 성명서 수준에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실제적이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사회 내 청소년인권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청소년 인권복지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고 우선순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가 필요하다.

다섯째, 청소년인권복지에 관한 영향력평가(Youth impact assessment and evaluation)를 실시해야 한다. 법률과 정책은 실행되기 전에 그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서 조사되어야 하며, 집행된 후에도 실제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는 정부가 정책개발과정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동시에 비정부기구와 독립적인 청소년인권복지기관의 설립 등을 통해서 수행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섯째, 적정한 청소년복지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예산과정이 청소년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교육과 보건 등 주요 서비스 예산이 국가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 지역 정부에서는 이러한 자원 배분이 공평한지 또는 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이나 불공평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예산과정은 모든 시민들과 청소년들에게도 설명될 수 있어야 하며 청소년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일곱째, 청소년인권복지 상황에 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청소년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청소년복지정책의 개발에 필수적이다. 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형별로 인권 및 복지에 관한 통계와 정보가 수집되어야 한다.

여덟째, 청소년 인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학교교과과정에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학풍이나 학교조직도 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과 함께 일하거나 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 연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정부기구, 청소년단체 및 대중매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홍보를 확대해야 하며 청소년들로부터도 홍보에 관한 자문을 얻을 필요가 있다.

아홉째, 청소년 인권복지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비정부기구가 정부와 독립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지역에 있는 기관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2) 청소년 유형별 복지정책 대안

이 연구에서는 복지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청소년전문가, 관련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 유형별로 복지정책의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학생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가. 생존욕구

첫째, 학생들의 생활공간 부족을 보다 적극적인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청소년시설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공부방의 청소년문화의집으로의 기능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학생청소년들의 건강검진을 청소년 환경과 발달단계에 맞도록 고급화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생청소년의 음주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위한 사회적 캠페인 전개와 더불어 주류 판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온라인·오프라인상담, 자아존중감 프로그램, 또래모임의 활성화 등 우울·불안 등의 심리·사회적 문제와 자살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나. 발달욕구

첫째, 학교 내 청소년시설 및 기관 전용 게시판 설치, 포스터 제작 및 배포, 지역방송 실시,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연계 등 지역사회 내 청소년 시설 및 기관의 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연계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반복적이고 획일적인 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 전문 강사 초빙, 관련 시설방문, 사례 제공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의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테마여행, 가족여행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여행할인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 아르바이트 기회의 제공,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의 기능을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고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거나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와 노동부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다. 보호육구

첫째, 가정, 학교에서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 및 교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수 등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여성청소년의 학교 내 폭력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성평등기구 혹은 양성평등기구를 만들고, 학교 내 제도 및 시설 개선을 통하여 차별에 대한 의식 및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라. 참여육구

첫째,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 군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발전 계획과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와 발달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입안자, 부모, 교사,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정확한 홍보가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나 학급 내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개선해야 하며, 연수운영 등을 통하여 학교교사, 학교장, 학교행정가가 청소년참여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참여능력과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청소년 모임 간 또는 청소년과 NGO 간에 상호연계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높이는 방안으로서 청소년의 문화를 적극 활용하고 교지발간, 학교방송의 활성화 및 학교축제나 행사를 통한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2) 빈곤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가. 기본적인 정책

빈곤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복지정책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빈곤청소년 같은 고위험 집단의 경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이 요청된다.

둘째,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동시에 개입하는 포괄적인 이세대(二世代) 프로그램(two-generation program)이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기관들을 발굴하고 이 기관들과의 유기적 연계협력을 할 수 있는 통합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빈곤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빈곤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생존육구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검사 스크리닝의 제도화, 보건교사의 정신건강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다. 발달육구

첫째, 빈곤청소년의 정서 치료는 물론 역량 강화 및 권리 보장을 위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과 문화권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 연령대와 발달단계에 맞는 프로그램, 접근방법의 다양화, 청소년관련기관과 시설에 대한 홍보방법의 다각화 등을 통하여 청소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라. 보호육구

첫째, 부모교육에 대한 현실적 접근을 위해 부모의 기능적 결손의 연속선상에서 가정위탁, 후견인의 지정, 멘토링, 부모교육 등이 배열되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내부구조를 ‘교사’만의 구성에서 ‘교사+전문가’의 구성체계로 전환하는 등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 참여육구

빈곤청소년을 문제해결과정의 동반자와 전문가로 받아들이고, 빈곤청소년의 강점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들과의 공동노력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한다.

(3) 가출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가. 생존육구

첫째, 청소년쉼터의 제도화를 통하여 가출청소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병원, 보건소 등 의료체계가 청소년쉼터와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하고, 거리에 의료진을 파견하고, 각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가출청소년을 위한 의료지원체계가 제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가출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체계, 특히 자살위험에 대한 예방체계가 필요하다.

나. 발달육구

첫째, 복학절차의 간소화, 학업에 필요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 등 가출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진로적성검사, 경제교육, 직업체험, 취업 등 가출청소년의 경제교육과 경제활동지원을 전담하는 지원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가출청소년의 심리, 교육, 취업, 재정, 문화 등의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시설과 기관의 연계를 강화하여 다양한 서비스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보호욕구

첫째, ‘집 없는’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위하여 주거공간의 확보와 자립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가출청소년을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옹호하도록 자체 개선 노력과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셋째, 피임, 임신, 성병, 성매매피해, 성폭행, 성정체성 등에 대한 성교육을 현실적이고 포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넷째, 가족과의 갈등해결과 재가출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서비스, 보호자의 상담 참여 의무화 등 성공적인 가족재결합을 돕는 전문적 프로그램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가출의 반복과 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동기에 시작되는 가출에 대한 집중적인 조기개입이 필요하다.

라. 참여욕구

보호시설 내 청소년의사를 존중하는 윤리적 절차를 확보하고 각종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 내 실무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4) 장애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가. 생존욕구

첫째, 학교 차원에서 또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상담 또는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실시 등 자해행위나 자살기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발달육구

첫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초중고로의 확대, 장애학생 이해를 위한 교과과정 개선, 장애환경평가제 도입 등 등·하교 및 청소년학교 환경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편의시설 설치, 교수학습 지원, 장애학생 도우미지원 등 대학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문화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문화여가 바우처 프로그램의 강화 등을 통해 장애청소년 문화여가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 보호육구

첫째, 부모상담, 교육 등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자살예방교육의 의무화, 장애학생과 교사, 보호자 대상 성교육 의무화 등 장애청소년의 자해행동을 예방하고 성폭력에 대처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라. 참여육구

장애청소년 리더십훈련, 권리와 인권, 참여에 대한 교육, 자조모임 지원, 학교운영과 특별활동 운영에 참여 보장, 지역사회와의 연계망 구축 등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을 확충해야 한다.

마. 기타

첫째, 장애청소년 관련 부처별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지방-민간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건강가정육성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법 등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지원범위, 방법, 권리와 차별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위해 장애청소년복지 민간 서비스 기관 간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학교 내에 장애청소년의 특별한 관리와 지원을 위해 복지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표 X-1〉 청소년 대상별 복지정책과제

청소년 대상	세부과제	과제성격			관련부처
		단 기	중 기	장 기	
학생 청소년	청소년시설의 문화여가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공부방의 기능 전환	○	○		청소년위원회
	건강검진의 고급화 및 체계적 관리		○		보건복지부
	금주 캠페인 전개 및 주류 판매업소 단속 강화	○			청소년위원회
	우울·불안 및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위원회
	지역사회 시설의 홍보 및 학교와의 연계 강화	○			교육부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여행프로그램 및 청소년여행할인제도 개발		○		청소년위원회
	지역단위 고용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및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의 연계 강화		○		노동부 청소년위원회
	부모와 교사에 대한 폭력 예방 정보 제공 및 연수 실시	○			교육부 청소년위원회
	성평등기구의 설치 및 차별의식 개선			○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역발전 계획과정에서의 참여 기회 확대		○	○	지방자치단체
	정책입안자, 부모, 교사, 청소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인권 및 참여에 대한 홍보 강화	○	○		교육부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참여 강화를 위한 학교 교과과정 개선 및 교육 관계자 대상 연수 운영		○	○	교육부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NGO와의 연계 지원	○	○		청소년위원회
	학교방송의 활성화 및 축제 등을 통한 참여기회 확대		○		교육부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대상	세부과제	과제성격			관련부처
		단 기	중 기	장 기	
빈곤 청소년	부모와 자녀세대를 동시에 개입하는 포괄적인 이세대 프로그램 개발		○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지역사회 내 기관의 발굴과 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위한 통합적 체계구축		○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위원회
	빈곤청소년에게 즉각적이고 편리한 전달체계 구축		○	○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건강검사 스크리닝의 제도화와 보건교사의 정신건강교육 실시	○	○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과 문화권 확보		○	○	문화관광부 청소년위원회
	연령대와 발달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 접근방법의 다양화, 청소년관련기관과 시설에 대한 홍보방법의 다각화 실시	○	○		청소년위원회
	부모의 기능적 결손의 연속선을 감안한 부모교육의 현실화	○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학교 내부구조의 교사+전문가 체계로의 구성을 통한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		○	○	교육부
	빈곤청소년 대상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공개토론회나 공청회에서의 의사표현 및 의사결정참여		○	○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대상	세부과제	과제성격			관련부처
		단 기	중 기	장 기	
가출 청소년	청소년쉼터의 제도화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	○	○		청소년위원회
	의료지원체계의 제도적 구축		○	○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체계 확보		○	○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복학절차의 간소화 및 학업에 필요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 강화		○		교육부
	경제교육과 경제활동지원을 전담하는 지원기구 설치		○	○	노동부 청소년위원회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활용능력 향상 교육 실시	○			청소년위원회
	지역사회 내 청소년관련 시설의 연계 강화를 통한 서비스 확충	○	○		청소년위원회
	집 없는 청소년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주거공간 확보와 자립지원 강화		○	○	청소년위원회
	공공기관의 인식 개선을 통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옹호		○		청소년위원회 경찰청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 실시	○			청소년위원회
	성공적인 가족재결합을 돕는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제도 개발		○		여성가족부 청소년위원회
	가출의 반복과 장기화 예방을 위한 아동기 가출에 대한 집중적인 조기개입		○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보호시설 내 실무자와 청소년 대상의 인권교육 강화	○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대상	세부과제	과제성격			관련부처
		단 기	중 기	장 기	
장애 청소년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		교육부 보건복지부
	자해행위나 자살기도 예방을 위한 상담 및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실시	○			교육부 청소년위원회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초중고로의 확대, 장애학생 이해를 위한 교과과정 개선, 장애환경평가제 도입		○	○	교육부
	편의시설, 장애학생 도우미지원 등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	○	○		교육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문화여가프로그램 개발, 문화여가 바우처 프로그램 강화	○	○		청소년위원회
	지역사회 내 청소년관련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 및 활성화	○			청소년위원회
	부모상담, 교육 등 가정지원프로그램 실시	○			여성가족부 청소년위원회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장애학생과 교사, 보호자 대상 성교육 의무화		○	○	교육부 청소년위원회
	리더십 훈련, 참여교육, 지역사회연계망 구축 등 장애청소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여건 확충		○	○	청소년위원회
	장애청소년 관련 부처별 연계 강화 및 중앙-지방-민간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장애청소년 정책 대상과 지원 등의 명확화		○	○	청소년위원회
	장애청소년복지 민간 기관 간 연계망 구축	○	○		청소년위원회
	학교 내 장애청소년의 특별한 관리와 지원을 위한 복지전문가 배치		○	○	교육부

참 고 문 헌

- 경찰청(2005). 경찰백서.
- 교육인적자원부(2005). 특수교육실태조사서.
- 교육인적자원부(각년도). 교육통계연보.
- 교육인적자원부(2006). 학교체육보건급식과 보도자료. 학교급식비 지원현황.
- 길은배·이용교·김영지(2001).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 김문섭(2000). 청소년육구를 중심으로 본 청소년지도방법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민정(2003). 양적 및 질적 접근방법을 통한 가출청소년의 삶과 복지육구 분석.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2집, pp. 1-20.
- 김성경(1997). 가출소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성이·조학래·노충래(2004). 청소년복지학. 파주: 집문당.
- 김성이·채구묵(1997). 육구조사론. 서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 김준호·김선애(1997).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26호, pp. 5-28.
- 김지혜(2005). 가출청소년의 비행화 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혜(2005). 가출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2호, pp. 207-234.
- 김지혜(2006). 청소년 가출에 따른 인권침해 연구. 아동권리연구, 제10권 제1호, pp. 73-93.
- 김향초(2005). 가출청소년 이해와 지원 프로그램. 서울: 학지사.
- 김향초(1998). 가출청소년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김향초(2003). 청소년복지의 문제점. 협성논총, 제15집, pp. 23-47.
- 김향초(2006). 가출청소년복지육구 조사에 관한 의견. 청소년유형별복지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토론문.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혜란·박은미·오정수·정익중·허남순·홍순혜(2004). 가족형태에 따른 빈곤아동의 실태에 대한 연구. 한국복지재단 동광, 제100호, pp. 3-44.
- 김혜영(2002). 보호관찰청소년의 비행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및 부모양육행동의 영향력. 한국아동복지학, 10권, pp. 9-23.
- 맹영임·구정화(2003). 청소년 의복문화와 소비.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영균·김정렬·이혜연(1999). 장애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정책 개발: 발달장애 청소년

- 을 중심으로.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 박영균·김정렬·이혜연(2000). 장애청소년 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영균 외(2005). 청소년백서. 서울: 청소년위원회.
- 박영란·이예자·이용교·이찬진·임성택·짐 아이프(2004).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서울 : 인간과 복지.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개발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 보건복지부(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 서인해·공계순(2004). 욕구조사의 이론과 실제. 서울: 나남.
- 오승환(2000). 소년소녀가장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일반아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9호, pp. 99-126.
- 오혜경·심진례(2003). 청소년기 장애아동의 양육부담과 가족지원. 서울: 신정.
- 윤철경(2005). 한국의 위기 청소년지원정책 진단 및 정책과제.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국제적 동향 및 정책과제.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청소년 위원회·OECD.
- 윤현영(2006). 가출청소년 복지육구 정책개발에 대한 토론. 청소년유형별복지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토론문.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상균(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이상균·박현선(2002). 소년소녀가장의 성인 역 아동부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제16권 1호. pp. 143-164.
- 이상훈(2005). 정보화 사회의 인권과 사회복지.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영식·전창무·김소연·고복자(2005). 성주체성 문제 혹은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자아 존중감과 성 개방성.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제16권 제2호, pp. 231-238.
- 이용교·황옥경·김영지·김형욱·이중섭·박경희(2005). 한국의 아동·청소년 권리. 서울 : 인간과 복지.
- 이정환·변보기·노병일(2002). 장애인 복지론. 서울: 그린.
- 이재연·한지숙(2003). 아동과 부모, 가족환경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연구. 아동학회지, 제24권 2호, pp. 63-78.
- 이혜연·이태수·이서정(2001). 소외청소년의 복지육구 조사연구(Ⅰ): 저소득층청소년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짐 아이프 저, 김형식·여지영 역(2001).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 인간과 복지.
- 장재홍·지승희·이영선·박정민·이자영·박성호(2003). 청소년의 동성애에 대한 생각 및
현황 분석. 청소년의 고민: 내가 동성애자인가요? 특수상담사례발표회 자료
집.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전경숙·박병식·권소정(2001). 소외청소년의 복지욕구 조사연구(II): 소년원 보호 청소년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정기선·민수홍·이희길(2001). 가족과 청소년비행. 서울: 서울특별시·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 정선욱(2002). 시설보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정익중(2002). 빈곤 편모가족을 위한 이세대(二世代)프로그램. 사회과학연구, 제8권, pp. 231-258.
- 정익중(2005). 빈곤아동과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I[아이]의 성과와 가능성. 사회과학연구, 제11권, pp. 99-119.
- 정익중·김혜란·홍순혜·박은미·허남순·오정수(2005).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3호, pp. 105-131.
- 정영숙·김영희·박경옥·이희숙·채정현·이종섭(1999). 청소년과 생활환경: 생활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2호, pp. 175-197.
- 정혜원(1993). 가정 내의 아동학대, 훈육태도와 아동의 성격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혜영·김선아(2003).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I: 청소년 음식문화와 소비.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2002). 2002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청소년보호위원회(2004). 청소년자살의 원인과 실태.
- 청소년위원회(2006). 2005년도 청소년 유행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 최경구(1994). 농어촌청소년의 복지욕구와 청소년정책, 한국농촌청소년문제의 현황과 대책. 한국청소년학회, pp. 335-366.
- 최종민·차복경(2004). 청소년의 식생활 및 부모의 신체적 조건이 신체발육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6권 제6호, pp. 2409-2418.
- 최진희(2000). 아동의 행동문제와 또래괴롭힘이 학교적응과 우정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 아동연구, 제14권 2호, pp. 59-90.
- 통계청(2006). 2006 청소년통계.
- 통계청(2006). 통계연감.

- 한국아동복지학회·한국복지재단(2004). 위스타트 운동 욕구조사.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2). 전국 가출 청소년 실태조사 및 상담사례 연구.
- 한국청소년개발원 편(2004). 청소년인권론. 서울: 교육과학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장애인실태조사.
- 허남순·오정수·홍순혜·김혜란·박은미·정익중(2005). 빈곤 아동과 삶의 질. 서울: 학지사.
- UN Centre for Human Rights 저, 이혜원 역(2005).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학지사.
- Achenbach, T. M.(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Burlin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viles, A. & Helfrich, C.(2004). Life skill service needs; Perspectives of homeless yout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3, No. 4, pp. 331-338.
- Baldwin, A. L., Baldwin, C., & Cole, R. E.(1990). Stress-resistant families and stress-resistant children. In J. E. Rolf, A. S. Masten, D. Cicchette, K. H. Neuchterlein, & S. Weintraub(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pp. 257-28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iller, H. & Solomon, R.(1986). *Child maltreatment and paternal deprivation*. MD: Lexington Books.
- Bogenschneider, K.(1996). An ecological risk/Protective theory for building prevention programs, policies, and community capacity to support youth. *Family Relations*, Vol. 45. pp. 127-138.
- Boulton, M., & Underwood, K. (1992). Bully/victim problems among middle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62, pp. 73-87.
- Boyer, D., Shaw, M., Hammons, G., and Coram, T.(2002). *Street youth task force*. WA: City of Seattle.
-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hung, I.-J.(2004). A conceptu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antisocial behavior: Focusing on psychosocial mediating mechanisms.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Vol. 24 pp. 355-380.
- Dower, D. B. & Johnston, K. A.(1979). Adolescent use of selected areas in the parental dwell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8, No. 2, pp. 101-109.
- Eccles, J. S.(1999). The development of child ages 6 to 14. *The Future of Children: When School is Out*, Vol. 9, No. 2, pp. 30-44.
- Ellis, S. J.(2004). Young people and political action: Who is taking responsibility for

- positive social change?.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7, No. 1, pp. 89-102.
- Erikson, E.(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Norton & Co.
- Esters, I. G.(2003). Salient worries of at-risk youth: Needs assessment using the things I worry about scale. *Adolescence*, Vol. 38, No. 150, pp. 279-285.
- Ferrer-Wreder, L., Lorente, C. C., Kurtines, W., Briones, E., Bussell, J., Berman, S., Arrufat, O.(2002). Promoting identity development in marginalized youth.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17, No. 2, pp. 168-187.
- Freire, P.(1996). *The Pedagogy of the oppressed*. Hanmondsworth: Penguin Books.
- Friel, J.(1995). *Young adults with special needs*.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Ltd.
- Furstenberg, F. F.(1993). How families manage risk and opportunity in dangerous neighborhoods. In W. J. Wilson (Ed.), *Sociology and the public agenda*, pp. 231-258. Thousand Oaks, CA: Sage.
- Gauthier, M.(2003). The inadequacy of concepts: The rise of youth interest in civic participation in quebec(1).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6, No. 3, pp. 265-276.
- Goleman, D.(1997). *Emotional intelligence: Why it can matter more than IQ*. New York: Bantam Books.
- Hart, R., dAIUTE, C., Iltus, S., Kritt, D., Rome, M., Sabo, K.(1997). Development theory and children's participation in community organizations. *Social Justice*, Vol. 24, pp. 33-63.
- Havighurst, R.J.(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5th Ed.)*. New York: MaKay.
- Heimstra, N. W. & McFaling, L. H.(1978). *Environmental psychology(Second Eds.)*. California: Brook/Cole Publishing Company.
- Hoover, J., & Hazler, (1991). Bullies and victims. *Elementary School Guidance & Counseling*, Vol. 25, pp. 212-219.
- Howell, J. C. & Bilchik, S.(Eds).(1995). *Guide for implementing the comprehensive strategy for serious, violent, and chronic juvenile offender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pp. 18-20.
- Hudson, W. W.(1997). *The WALMYR assessment scales scoring manual*. Tallabasse, FL: WALMYR Publishing Company.
- Hunt, P. (2006). *Human rights and health*. [Http://www.du.edu/gsis/hrhw/digest/health/index.html](http://www.du.edu/gsis/hrhw/digest/health/index.html)
- Jarrett, R. L. (1995). Growing up poor: The family experiences of socially mobile youth in low-income African-American neighborhood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 Vol. 10, pp. 111-135.
- Kaufman, J. G. & Widom, C. S.(1999). Childhood victimization, running away,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6 No. 4, pp. 347-370.
- Kochenderfer, B. J. & Ladd, G. W. (1996). Peer victimization: Cause or consequence of school maladjustment?. *Child Development*, vol. 67, pp. 1305-1317.
- Ife, J.(2001). *World trends in social welfare and human rights*, Human right conference, Seoul November 2001. [Http:// www. humanities. curtin. edu.au/ pdf/ hre/ World TrendsSocWelfHR. pdf](http://www.humanities.curtin.edu.au/pdf/hre/WorldTrendsSocWelfHR.pdf).
- Ife, J.(2001). *Human rights and social work: Towards rights-based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fe, J. & Morley, L.(2002). Human rights and child poverty,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Child*, Montreal May, pp. 23-25.
- Levy, K. St. (1997), The contribution of self-concept in the etiology of adolescent delinquency. *Adolescence*, Vol. 32, pp. 671-686.
- Lerner, R. M., Lerner, J. V., Stefanis, I. D., & Apfel, A.,(2001). Understanding developmental systems in adolescence: Implications for methodological strategies, data analytic approaches, and training.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16 No.1, pp. 9-27.
- Matthews, H.(2001). Citizenship, youth councils and young people's participatio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4, No. 3, pp. 299-318.
- Masten, A. S., & Coatsworth, J. D. (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s: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Vol. 53, pp. 205-220.
- McLoyd, V. C.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Vol. 53, pp. 185-204.
- Minuchin, P., Colapinto, J., & Minuchin, S.(1998). *Working with families of the poor*. New York: Guilford.
- Naik, A.(2003). *The rights of children & youth, studies guides*. 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es(www.hrea.org/learn/guides/children.html).
- National Law Center on Homelessness and Poverty(2004). *Education of children and youth in homeless situations: the 2004 guide to their rights*. Washington, DC: NLCHP.

- National Research Council(1993). *Understanding child abuse and neglect*. Washington D. C.: National Academy Press.
- NMSA(1996). *Young adolescents' developmental needs*. Ohio: National Middle School Association. <http://www.nmsa.org>.
- Olweus, D.(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England: Blackwell.
- Owens, R. E.(1998). *Queer kids; The challenges and promise for lesbian, gay, and bisexual youth*. NY: The Harrington Park Press.
- Pinquart, M., Silbereisen, R.K., & Wiesner, M.(2004). Changes in discrepancies between desired and present states of developmental tasks in adolescence: A 4-process mode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3 No. 6, pp. 467-477.
- Pitcher, A.(2002). *Human rights violations in welfare legislation: Pushing recipients deeper into poverty*. NY: Urban Justice Center. <http://www.urbanjustice.org>
- Pope, A. W., McHale, S. M., & Craighead, W. E.(1988). *Self-esteem enhancement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Elmsford, NY: Pergamon Press.
- Roberston, M. & Toro, P.(1998). *Homeless youth: Research, intervention, and policy(The 1998 National Symposium on Homelessness Research)*. www.aspe.hhs.gov.
- Rose-Krasnor, L., Busseri, M. A., Willoughby, T., Chalmers, H.(2006). Breadth and intensity of youth activity involvement as contexts for positive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5, No. 3, pp. 385-499.
- Rosenberg, M., Schooler, C., Schoenbach, C., & Rosenberg, F.(1995). Global self-esteem and specific self-esteem: Different concepts, different outcom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0 No. 1, pp. 141-156.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ooks.
- Saleebey, D.(Ed.)(2002).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3rd Ed.)*. Boston, MA: Allyn & Bacon.
- Sampson, R. J., Raudenbush, S. W., & Earls, F.(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 pp. 918-924.
- Scales, P.C.(1991). *A Portrait of young adolescents in the 1990s: Implications for promoting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MN: Search Institute/Center for Early Adolescence.

- Schönpflug, U.(1993). Entwicklungsregulation im Jugendalter. *Z. Sozialisationsforsch Erziehungssoz*, vol. 13, No. 3, pp. 326-340.
- Smith, N., Lister, R., Middleton, S., & Cox, L.(2005). Young people as real citizens: Towards an inclusionary understanding of citizenship.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8, No. 4, pp. 425-443.
- Stevenson, C.(1992). *Teaching ten to fourteen years old*. NY: Longman.
- Straus, M. A.(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CT)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ruary, pp. 75-88.
-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2004). *Building child friendly cities-A framework for action*. Florence, Italy :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 Worthy, M., Gary, A. L., & Kahn, G. M.(1969). Self-disclosure as an exchange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No. 33, pp. 59-63.
- Witkin, B. R. & Altschuld, J. W.(1995). *Planning and conducting needs assessment: A Practical guide*. CA: Sage Publications.

2006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6-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V -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김기현
 06-R01-1 청소년의 선호직업 및 직업가치 특성에 관한 연구 / 이경상·강영배
 06-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종단 분석 / 김기현·유성렬
 06-R01-3 청소년 비행 및 범죄 응답패턴에 대한 종단 분석 / 김기현·민수홍
 06-R0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I : 결과부분 측정 지표 검증 / 김신영·임지연·김상욱·박승호·유성렬·최지영
 06-R02-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 조사 I : 청소년 발달 종합지표 / 김신영·임지연·김상욱·박승호·유성렬·최지영
 06-R03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 양계민·오승근·권두승·전명기·조대연
 06-R04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 -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 백혜정·길은배·윤인진·이영란
 06-R05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 최창욱·박영균·김진호·임상택·전상민
 06-R05-1 청소년 생존권 현황과 지표개발 / 이용교·천정웅·안경순
 06-R05-2 청소년 보호권 현황과 지표개발 / 황옥경·정준미
 06-R05-3 청소년 발달권 현황과 지표개발 / 이중섭·박해석
 06-R05-4 청소년 참여권 현황과 지표개발 / 강현아
 06-R06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국가관 비교연구 / 오해섭·De-Ping Lu·Kazuhiko Fuwa
 06-R07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모바일을 중심으로 / 성윤숙·박한우
 06-R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국내외 청소년 정보화 정책연구 / 이혜연·조정문·김아미
 06-R08-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청소년의 온라인 생활과 학업적응 현황 / 장근영·남주희
 06-R09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 윤철경·조흥식·김향초·이규미·우정자
 06-R10 청소년 유형별 복지육구 실태와 지원방안 / 김경준·김지혜·류명화·정익중
 06-R11 학교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 서정아·권해수·정찬석·김귀량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 / 김현철·김은정·손승영·이기재·박현주 (자체번호 06-R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2 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 장혜경·홍승아·김혜영 (자체번호 06-R1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3 일본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와타나베 히데기·마츠다 시게키·무꾸오 아사코·배지혜 (자체번호 06-R1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4 미국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김재은·김상학 (자체번호 06-R1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5 독일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서병문 · 안드레아스헤네커 · 제스퍼 코글린 (자체번호 06-R12-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6 스웨덴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최연혁 · 피터 스트랜브링크 (자체번호 06-R12-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1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V / 이춘화 · 윤옥경 · 조아미 (자체번호 06-R1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2 가정 · 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 김은경 · 홍영오 (자체번호 06-R13-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3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 김영지 · 방은령 · 박정선 (자체번호 06-R13-2)

■ 수시과제

- 06-R14 청소년 생활시간 활용실태 및 변화 / 김기현 · 이경상
- 06-R15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조사 / 강병철 · 김지혜
- 06-R16 중국유학 한국청소년의 규모추정과 적응실태연구 / 김익기
- 06-R17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인간관계: 이동전화와 인터넷 미디어의 영향 / 류춘렬
- 06-R1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시설환경 모델개발 / 김호순 · 황진구 · 한도희 · 김종훈
- 06-R19 청소년 법의식 평가척도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김신영 · 신동준
- 06-R20 21세기 사회변화와 청소년정책의 중요성 / 고숙희 · 김영희 · 서동희
- 06-R21 고교생의 생활의식과 친구관계에 대한 국제비교 조사 / 김현철
- 06-R22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최인재

■ ISSUE PAPER

- 06-IP0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실태와 발전 방향 / 김영호
- 06-IP02 외국의 청소년근로보호정책 연구 · 독일의 청소년근로보호법을 중심으로 / 김문섭
- 06-IP03 한국 청소년의 젠더 차이와 성차별 : 현황과 과제 / 손승영
- 06-IP04 사이버 상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이버 윤리지수 개발 · 평가 / 김성벽
- 06-IP05 청소년의 휴대전화 문제행동 현황과 과제 / 성운숙

■ 용역과제

- 06-R25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및 참여권 확보방안 연구 / 최창욱 · 조혜영
- 06-R26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국제회의 / 성운숙 · 이해연 · 이창호
- 06-R27 제10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 서정아 · 김경준 · 이춘화 · 김귀랑
- 06-R28 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1차) 평가 / 김현철 · 백해정
- 06-R29 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2차) 평가 / 김현철 · 백해정
- 06-R30 청소년 문화갈등 분석 및 세대간 문화소통 방안 / 박영균 · 박영신 · 김의철

- 06-R31 2006년도 지방행정기관 청소년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김신영 · 임지연
 06-R32 제2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 · 김영지
 06-R33 동북아 청소년문화공동체 모형정립과 교류협력 모델개발 / 오해섭 · 이민희
 06-R34 2006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만족도 조사연구 / 김은정
 06-R35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실천적 운영에 관한 연구 / 이민희 · 오해섭 · 이정현 · 신순갑
 06-R36 청소년보호 관련법령의 개선방안 연구 / 이춘화 · 서정아
 06-R37 2006년 청소년시설 종합평가 / 이민희 · 김경준 · 최창욱 · 황진구 · 성윤숙 · 오승근 · 양계민
 06-R38 2006년 청소년 백서 / 김현철 · 김기현
 06-R39 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과제 :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 / 김기현 · 임지연
 06-R40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I / 김기현 · 장근영
 06-R41 청소년활동 참가 실태조사 연구 / 장근영 · 김기현
 06-R42 제11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 서정아 · 김경준 · 이춘화 · 김귀랑
 06-R43 특별지원청소년 선정 및 지원방안 연구 / 윤철경 · 김경준 · 박병식 · 정익중
 06-R44 청소년행복 · 역량 지수 개발연구 / 김신영 · 이경상 · 백해정
 06-R45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청소년직업체험활동 활성화 방안연구 / 임지연 · 김신영 · 김기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6-S01 「위기청소년 지역사회보호 현황진단 및 발전방안」 (6.17)
 06-S0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연구 workshop : 결과 부문 지표의 이론적/경험적 타당도 검증」 (6.21)
 06-S03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V 중간발표 워크숍」 (6.23)
 06-S04 「주요선진국의 가족정책 특성과 한국의 정책과제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 협동연구기관 중간발표 워크숍 (6.29)
 06-S05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7.7~8)
 06-S06 「청소년의 가족내 사회화과정 - 한국·일본·미국·독일·스웨덴 5개국 비교」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 (8.2~5)
 06-S07 「청소년 유형별 복지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8.14)
 06-S08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8.17)
 06-S09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국가관 - 한국·중국·일본 3개국 비교」 (8.18)
 06-S10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회의」 (9.6~9.8)
 06-S11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모바일을 중심으로」 (8.22)
 06-S12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현황 및 발전방안」 (9.9)
 06-S13 「청소년문제행동 종합대책 IV · 최종발표 워크숍」 (10.10)
 06-S14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최종발표 워크숍」 (10.19)
 06-S15 「청소년과 미디어」 (11.10)
 06-S16 「한국청소년행복지수」 (11.15)
 06-S17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24)
 06-S18 「청소년 활동관련 정책과 뉴 패러다임」 (12.6)
 06-S19 「경영목표 · 혁신 직원 워크숍 및 청소년정책개발 · 연구를 위한 산 · 학 · 연 정책협의회」
 (12.14~12.16)

■ 연구수행 자료집

06-M01 2005 연구보고서 요약집 / 연구기획팀

06-M02 2006년도 고유과제 실행계획서 모음 / 연구기획팀

06-M03 2006년도 고유과제 중간보고서 모음 / 연구기획팀

■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1호 (통권 제43호) / 연구정보지원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2호 (통권 제44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봉사활동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 문 진 ◆

김광수 국가청소년위원회 · 복지분과위원장
김석병 국가청소년위원회 · 복지지원팀장
김성이 이화여자대학교 · 교수
김찬호 한양대학교 · 교수
김향초 협성대학교 · 교수
조흥식 서울대학교 · 교수

◆ 협 력 진 ◆

강현아 숙명여자대학교 · 교수
권택환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연구사
노충래 이화여자대학교 · 교수
모선영 한국복지재단 · 복지사업본부장
박현동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총무
오승환 울산대학교 · 교수
유성렬 백석대학교 · 교수
윤철수 나사렛대학교 · 교수
윤현영 대전아동청소년상담소 · 소장
이경림 부스러기사랑나눔회 · 국장
이용교 광주대학교 · 교수
이태수 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원장
최선희 한국성서대학교 · 교수

◆ 협 력 기 관 ◆

한국복지재단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연구보고 06-R10

청소년 유형별 복지욕구 실태와 지원방안

인 쇄 2006년 11월 17일

발 행 2006년 11월 2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배 규 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전화 (02)786-2999 대표 박진태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89-7816-628-8(93330)